

N

Y

P

II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책임연구원

윤철경

공동연구원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정다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전아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최은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연구위원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간 사 ■ ■ ■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학업성취 경쟁에 쫓려 있으며 교육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대학에 가는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 학교 부적응으로 정규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래 없이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한국의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낮다고 여기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오지 못했고 이들을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이해해왔습니다.

본 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교육적 소외집단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어떠한 생활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한국사회가 학업중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존재형태와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경로로 이행해가고 있는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유형을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학교를 떠난 후 공적 지원체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원할 것인 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는 조사대상자 접근 자체가 어렵고 대상의 변동성이 커 조사를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의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3년간의 종단조사를 실시하는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학교 현장, 교육청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 한국리서치 등 모든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과 경험 실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파악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단조사 2차년도인 2014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된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패널(본 패널과 비교집단 패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차, 2차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학업중단자 규모 재추정, 한국 및 외국의 학업중단 관련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559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86명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2014년 조사응답자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율은 2차년도에 더 낮아졌다. 중단자의 절반가량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을 취득하였고 복교유형을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특성화고로의 복교가 두드러졌다.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을 보면 아르바이트/취업 경험이 증가하였고 기타 경험은 감소경향을 보였으며 진학·진로 등과 관련 도움을 주는 어른 없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1차년도에 진로계획이 미결정이었던 청소년들은 절반이상이 진학/학업 계획을 드러내었다.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감소하였다.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역사회 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학업중단 후 경로를 보면 학업형이 30%를 넘고 직업형이 13% 수준이며 비행형이 6% 수준으로 나타났다. 47%의 청소년은 무정형으로 아직 뚜렷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복교율이 현격히 감소하고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진로계획의 미결정 및 취업/아르바이트 계획이 많았다. 비행 피해 경험에 있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 피해 경험이 늘고 있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음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흡연이 증가하였다.

2012년도 학령인구 기준 학업중단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실태조사결과를 적용하여

경로유형을 추정 한 결과, 학업형 14만명, 직업형 6만명, 비행형 2만명, 무정형 10만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외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해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은 학령기 청소년은 8만여명으로 추정되었다. 학교급별 복귀율을 감안하여 학업중단자의 연령대를 산출하면 초등생이 11.4%, 중학생이 16.9%, 고등학생 연령이 71.7%로 추정되어 고등학생 연령대의 학업중단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범부처 청소년지원책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을 분담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지속 욕구를 볼 때 대안교육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정책은 학업중단 청소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학업중단, 중단 이후 경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과 경험 실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살피고,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파악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 종단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종단조사 2차년인 2014년도는 1차년도에 구축된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패널(본 패널과 비교집단 패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차, 2차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학업중단자 규모의 재추정, 한국 및 외국의 학업중단 관련 정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협동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3년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대상 및 조사패널 구축을 각기 분담, 협동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이탈과정에 대해 연구함.
- 문헌연구: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국내·외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전문가 자문: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해 일반 학업중단 관련 학계 전문가, 보호관찰 관련 현장전문가(보호관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조사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4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양적연구: 2차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최종 설문지를 활용하여 2014년 6월~8월에 학업중단 청소년 삶과 의식에 대한 2014년 패널조사를 실시함.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활용하였으나, 1차 년도에 보호관찰 청소년이었지만 2차년도 조사에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청소년의 경우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를 실시함.

- 질적 연구: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심층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학교중단 청소년 7명(1차 7명, 2차 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FGI를 실시함.
-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2013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2014년 7월 1차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세미나와 회의에 참여함.

3. 주요결과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연구 2차년도 조사결과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559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186명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며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비교
 - 1차년도 복교 미경험자는 총 599명 중 432명(72.1%), 2차년도 복교 경험자는 12.2%로 나타나 2차 년도에 학교 복교 경험률이 낮았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했다는 복교 사유가 증가함. 일반고 학생들의 특성화고로의 복교가 두드러졌으며, 중단자의 53%는 검정고시로 자격을 취득하고, 47.8%는 검정고시 학원을 이용함. 학교 유형 중 일반고에 복교한 복교자의 재중단율이 가장 높으며, 중단 후 바로 복교한 청소년의 재중단율이 높았음.
 - 학업중단 후 생활경험 중 아르바이트/취업 경험은 증가하고, 대안학교,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경험, 상담/치료 경험 등은 감소함. 진학·진로 관련하여 도움을 준 어른 만난 경험 없음이 증가함. 1차년도 진로계획 미결정 청소년들의 이동을 보면 진학/학업 계획(56.4%), 취업(12.0%), 미결정(26.5%)으로 나타남.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자는 26.0%로 학업성적이 '상'이나 '중'인 집단, 대안교육 선호로 그만 둔 집단의 참여율이 더 높았음. 일상생활에서 수면시간은 감소하였고, 아르바이트/취업으로 근로시간 증가하여 일 10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이 24%로 나타남. 학업중단 만족도는 감소하고 부정적 인식 증대하였으며, 학력의 중요성이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감소함.
 - 생활환경 인식의 변화를 보면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환경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이 감소함. 문제행동 피해경험은 성폭력 당하기 외에 모든 영역이 증가한 반면 비행경험은 흡연과 음주만 증가함.

- 학업중단 후의 경로를 보면, 1차년도에 무업형(23.4%)이었던 청소년은 학업형(32.9%), 무정형(47.1%), 직업형(13.6%), 비행형(6.4%)으로 모두 전환함. 어떤 특정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하고 있는 무정형 청소년이 29.9%로 증가하였는데, 본질적으로 무업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일반 청소년)에 비해 1차 년도에서 2차 년도로 가면서 복교율이 현격히 감소함. 복교 학교가 다른 학교인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고, 일반 청소년 경우 절반 이상이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획득하는 것에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이 매우 낮았음.
-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달리 검정고시와 직업기술 학습 경험이 증가함. 성인 멘토 경험은 양 집단 모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함.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진로계획의 미결정과 취업, 아르바이트를 계획한 경우가 많고, 일반 청소년은 진학/학업 계획이 더 많이 나타남. 자립지원 프로그램 요구수준과 동아리/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더 적었음. 일상생활에서 수면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평균 1시간이 길었음. 영역별 생활시간과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생각은 일반 청소년과 달리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청소년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감소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은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 학대는 양 집단 모두 감소했다는 인식의 변화를 보임. 친한 친구 수는 양 집단에서 감소, 학업 중단 친구 수는 보호관찰 청소년만 감소경향을 보임. 친구의 비행성향도 양 집단에서 감소함.
-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피해경험은 별 변화가 없으나 일반 청소년은 증가함. 가해경험 중 일반 청소년은 음주, 보호관찰 청소년은 흡연이 증가함. 기타 문제행동 가해경험은 보호관찰 청소년만 감소함. 게임중독은 일반 청소년만 감소, 스마트폰 중독은 일반 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더 높았음.

○ 학업중단 현황

- 2012학년도 학령인구 기준 학업중단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며, 실태조사를 통한 이들의 유형별 추정치는 학업형 14만명, 직업형 6만명, 비행형 2만명, 경로를 설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청소년 10만명, 해외출국 후 미복귀 청소년이 8만명인 것으로 파악됨.

- 학습부적응을 주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여전히 학업을 지향하는 청소년이 많고, 직업형은 그 절반 정도인 것으로 보임. 방황하는 청소년이 10만여명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들에 대한 유형별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학교급별 복귀율을 감안한 총 학업중단 누적인구의 연령대를 산출하면 초등생 11.4%, 중학생 16.9%, 고등학생이 71.7%임. 초·중학생 연령의 조기 학업중단자는 비행형으로의 이행 경향을 나타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며, 학업중단자의 대다수인 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이 20대 후반에 도달하기까지의 장기적인 지원책도 요구됨.

○ 한국의 정책현황 분석

-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14개 광역자치단체 및 13개 기초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등의 전달체계가 강화되어야 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개별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현재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함.
- 중앙정부의 범부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책은 ① 인적 서비스(상담·멘토링·동반자), ② 경제적 지원(생활비, 주거비 등), ③ 교육훈련지원(직업훈련 및 학업), ④ 주거 지원(쉼터 등 보호시설)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취업사관학교 등의 직업훈련정책 지원하고 있으며, 각 사업들이 학업중단 청소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면서 진로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의 확보가 필요함. 교육부는 학교기반의 상담인력 확보,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복지부는 휴먼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인력자원의 확보를 담당하며,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직접적 연계 노력이 요구됨.
-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 지속 욕구가 높음에 반해 대안교육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관련 정책과 시사점

- 미국 사례를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책적 스펙트럼 하에 정책이 실시됨.
 - 학교 수준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학교 내, 또는 다른 시설에서 대안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검정고시 준비 등을 통해 졸업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함.
 - 이보다 효과적인 것은 학교의 통합적 개혁으로 학교에서 직업 및 기술교육을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검정고시 준비나 학교체질 개선을 통한 졸업을 촉진함..
 - 한편 기존의 학교의 개혁보다 새로운 학교로 대체하는 정책으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기반한 Charter school 제를 도입·실시함.
 - 지역단위에서는 위기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또는 민간조직 들의 역할분담과 조정 등 협력체계를 구축함
- 주요 외국의 대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짐.
 - 학교 규모를 최소화하고 사제 간 소통을 늘려 학습부진을 예방하는 조기개입,
 - 상급학교 진학 의무화와 도제식 직업교육 작업장 확대,
 - 학교에서의 상담과 진로교육 강화,
 - 다양한 교육 제공과 졸업 요건 자격증 부여,
 - 직업교육 강화,
 - 학업중단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결석률 높은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 학업 및 훈련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용돈 제공 등 경제적 지원

4. 정책제언

○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 대한 치밀한 인적지원체제의 구축

- 학업중단 조기발견과 대응체계 :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강화
-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에 대한 상담전문인력의 증원 배치

○ 대안교육 등 학업지원 체제 강화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 대안교사 양성과정 설치
-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 도입
- 검정고시 지원
- 복교지원 활동
-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체제 및 직업체험 강화
 - 고용노동부의 지역사회 직업체험자 사업 대상을 일반고까지 대상 확대
 - 청소년친화적 직업훈련체제 구축
- 청소년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활동 강화
 - 또래관계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등 지원
 - 비행형 청소년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평가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추적 조사 체계 구축
 -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적 평가 체계 수립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9
4.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14
II. 패널조사 방법	17
1. 패널구축 및 조사설계	19
2. 조사도구 개발	22
3. 자료수집과정	44
4. 패널관리	59
5. 패널유지 현황 및 이탈패널 분석	64
6. 향후 패널관리 방안	69
III.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73
1. 응답자의 특성	75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변화	77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경험과 인식의 변화	94
4.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125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	130
6. 학업중단 이후 경로의 변화	147
IV.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변화 비교	155
1. 응답자의 특성 변화	157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변화	159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인식의 변화	163
4.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183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	190
V. 학업중단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분석	199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 추정	201
2. 국내 정책 현황	215
3. 미국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 현황 및 정책 사례	223
VI. 결 론	231
1. 요약	233
2. 정책제언	239
참고문헌	247
부 록	261
1. 설문조사지 A형: 일반청소년	263
2. 설문조사지 B형: 보호관찰청소년	297
3.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면접 조사지	333
4.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면접 결과	337
Abstract	351

표 목차

〈표 I-1〉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 최종 표본수	8
〈표 I-2〉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경로별 최종목표 표본수	8
〈표 I-3〉 2차년도 연구보고서 구성 및 내용	15
〈표 II-1〉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구축 현황	19
〈표 II-2〉 패널 특성별 구축 현황	20
〈표 II-3〉 예비조사 점검사항	24
〈표 II-4〉 1-2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27
〈표 II-5〉 1차년도 조사 후 패널관리 결과	44
〈표 II-6〉 비교집단패널 조사가능 여부에 대한 법무부 사전 확인 결과	45
〈표 II-7〉 조사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 현황	46
〈표 II-8〉 지역별 선발 면접원 수	48
〈표 II-9〉 지역별 면접원 교육 일정	49
〈표 II-10〉 패널 상태에 따른 접촉 및 진행 방법	50
〈표 II-11〉 패널별 조사 방법	51
〈표 II-12〉 면접원 관리방안	53
〈표 II-13〉 전화 검증 항목	54
〈표 II-14〉 비교집단패널 재조사 결과	56
〈표 II-15〉 재조사 사유별 빈도 및 비율	56
〈표 II-16〉 문항별 재조사 빈도 및 비율(상위 10순위 기준)	57
〈표 II-17〉 데이터 클리닝 일정 및 세부내용	58
〈표 II-18〉 패널 접촉 진행 방법 및 내용	59
〈표 II-19〉 패널 접촉 시 확인 항목	60
〈표 II-20〉 차수별 패널 접촉 진행 현황	61
〈표 II-21〉 패널 접촉 시점의 주로 하는 일	61
〈표 II-22〉 패널별 재조사 필요 내용	63
〈표 II-23〉 패널별 재조사 미접촉 사유	63

〈표 II-24〉 패널별 추가조사 필요 내용	64
〈표 II-25〉 자료수집방법별 패널 이탈율	65
〈표 II-26〉 일반(기관) 패널의 기관별 이탈 현황	66
〈표 II-27〉 세부 비성공 사유별 현황	67
〈표 II-28〉 이탈패널과 본 패널의 배경변수별 차이	68
〈표 II-29〉 학업중단 기간('14.9월기준)	69
〈표 II-30〉 패널관리 통합시스템 유형 및 내용	70
〈표 II-31〉 패널관리 진행방법	71
〈표 II-32〉 향후 패널관리 일정(안)	72
〈표 III-1〉 1차년도 및 2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76
〈표 III-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차	77
〈표 III-3〉 시기별 복교율	79
〈표 III-4〉 시기별 복교 경험의 분포	80
〈표 III-5〉 복교 이유 변화	80
〈표 III-6〉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81
〈표 III-7〉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변화	82
〈표 III-8〉 최근 학업중단 학교 유형과 복교 학교 유형 비교	84
〈표 III-9〉 복교 이후 학교생활 만족도 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86
〈표 III-10〉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88
〈표 III-11〉 학업중단자 및 복교자의 재중단율: 2차	91
〈표 III-12〉 학교유형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수: 2차	91
〈표 III-13〉 시기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93
〈표 III-14〉 재중단자의 지난 1년간 복교시기에 따른 재중단율	94
〈표 III-15〉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	95
〈표 III-16〉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참여율의 변화	97
〈표 III-17〉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율 교차분석	98

〈표 Ⅲ-18〉 아르바이트 직종의 변화	99
〈표 Ⅲ-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작업 강도 및 시급의 변화	100
〈표 Ⅲ-20〉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의 변화	101
〈표 Ⅲ-21〉 진로정보 탐색경험의 변화	102
〈표 Ⅲ-22〉 진로정보탐색 경험(2차)	103
〈표 Ⅲ-23〉 향후 진로 계획의 1, 2차년도 교차분석	104
〈표 Ⅲ-24〉 향후 진로와 관련한 인식의 변화	105
〈표 Ⅲ-25〉 진로장애: 2차	106
〈표 Ⅲ-26〉 진로장애 요인 분석결과: 2차	107
〈표 Ⅲ-27〉 진로장애 요인별 실태: 2차	108
〈표 Ⅲ-28〉 진로장애의 배경변수별 차이: 2차	109
〈표 Ⅲ-29〉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2차	110
〈표 Ⅲ-30〉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유무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	112
〈표 Ⅲ-31〉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이유: 2차	113
〈표 Ⅲ-32〉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2차	115
〈표 Ⅲ-33〉 수면시간의 변화	117
〈표 Ⅲ-34〉 주요 생활시간의 변화	119
〈표 Ⅲ-35〉 하루 중 일하는 시간 의 분포: 2차	121
〈표 Ⅲ-36〉 식생활 양상의 변화	122
〈표 Ⅲ-37〉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123
〈표 Ⅲ-38〉 가치관의 변화	125
〈표 Ⅲ-39〉 부모와의 관계 변화	126
〈표 Ⅲ-40〉 친구관계의 변화	128
〈표 Ⅲ-41〉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129
〈표 Ⅲ-42〉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변화	131
〈표 Ⅲ-43〉 생활만족도: 2차	132

〈표 Ⅲ-44〉 생활만족도의 배경변수별 차이: 2차	133
〈표 Ⅲ-45〉 사회적 낙인감: 2차	134
〈표 Ⅲ-46〉 사회적 낙인감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135
〈표 Ⅲ-47〉 피해경험의 변화	136
〈표 Ⅲ-48〉 비행경험의 변화	138
〈표 Ⅲ-49〉 게임 사용 정도의 변화	139
〈표 Ⅲ-50〉 스마트폰 중독 정도: 2차	141
〈표 Ⅲ-51〉 스마트폰 중독의 배경변수별 차이: 2차	142
〈표 Ⅲ-52〉 SNS 피해 경험: 2차	143
〈표 Ⅲ-53〉 SNS 피해경험의 배경변수별 차이: 2차	144
〈표 Ⅲ-54〉 SNS 가해 경험: 2차	145
〈표 Ⅲ-55〉 SNS 가해경험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146
〈표 Ⅲ-56〉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의 변화	149
〈표 Ⅲ-57〉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의 변화	150
〈표 Ⅲ-58〉 1차년도와 2차년도 경로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151
〈표 Ⅲ-59〉 배경변수별 경로유형 차이(2차)	153
〈표 V-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1980~2012학년도)	202
〈표 V-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복귀현황(2010~2012년)	204
〈표 V-3〉 2012학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 비율 추정	205
〈표 V-4〉 2012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206
〈표 V-5〉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7
〈표 V-6〉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	209
〈표 V-7〉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현황	210
〈표 V-8〉 2012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율	211
〈표 V-9〉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유형	212

〈표 V-10〉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경로유형별 인구(행정통계, 2012학년도 기준)	213
〈표 V-11〉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경로유형별 인구 (추정치, 2012학년도 기준)	214
〈표 V-12〉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광역자치단체)	216
〈표 V-13〉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기초자치단체)	217
〈표 V-14〉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정책 방향 분석	218
〈표 V-15〉 법무처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서비스 현황	220
〈표 V-16〉 교육부·여성가족부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주요내용	222
〈표 VI-1〉 1차년도 연구의 정책제안의 추진현황 분석	239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2~2015년)	5
【그림 I-2】 2014년도 연구추진체계	11
【그림 II-1】 본 패널 조사 설계	21
【그림 II-2】 비교집단패널 조사 설계	22
【그림 II-3】 조사도구 수정·보완절차	23
【그림 II-4】 패널용 조사 홈페이지 및 1차 조사 패널 구축 현황	47
【그림 II-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홈페이지용 팝업창	47
【그림 II-6】 패널 유지율	65
【그림 III-1】 현재 학업 상태(2차)	78
【그림 III-2】 시기별 복교율	79
【그림 III-3】 복교 이유 변화	81
【그림 III-4】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변화	82
【그림 III-5】 최근 학업중단 학교 유형과 복교 학교 유형 비교	84
【그림 III-6】 종전 학교와 복교 학교의 지역적 차이	85
【그림 III-7】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2차)	87
【그림 III-8】 검정고시 공부 방법(2차)	90
【그림 III-9】 학교유형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수(2차)	92
【그림 III-10】 시기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93
【그림 III-11】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	96
【그림 III-12】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참여율의 변화	97
【그림 III-13】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의 변화	101
【그림 III-14】 진로정보탐색 경험(2차)	103
【그림 III-15】 향후 진로 계획의 1, 2차년도 교차분석	104
【그림 III-16】 진로장애 요인별 실태(2차)	108
【그림 III-17】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2차)	110
【그림 III-18】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유무(2차)	111

【그림 Ⅲ-19】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이유(2차)	114
【그림 Ⅲ-20】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2차)	116
【그림 Ⅲ-21】 취침시각(2차)	117
【그림 Ⅲ-22】 주요 생활시간의 경험율의 변화	118
【그림 Ⅲ-23】 주요 생활시간의 변화(평일 생활시간)	120
【그림 Ⅲ-24】 평일과 휴일 일하는 시간의 분포(2차)	121
【그림 Ⅲ-25】 주 5회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의 변화	122
【그림 Ⅲ-26】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124
【그림 Ⅲ-27】 가치관의 변화	125
【그림 Ⅲ-28】 부모와의 관계 변화	127
【그림 Ⅲ-29】 친구관계의 변화	128
【그림 Ⅲ-30】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129
【그림 Ⅲ-31】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변화	131
【그림 Ⅲ-32】 피해경험의 변화	137
【그림 Ⅲ-33】 비행경험의 변화	139
【그림 Ⅲ-34】 게임 사용 정도의 변화	140
【그림 Ⅲ-35】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	149
【그림 Ⅲ-36】 1차년도와 2차년도 경로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151
【그림 Ⅳ-1】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성별	158
【그림 Ⅳ-2】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가정경제수준	159
【그림 Ⅳ-3】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현재 학업상태	160
【그림 Ⅳ-4】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복교율	161
【그림 Ⅳ-5】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다른 학교로 복교하는 비율	162
【그림 Ⅳ-6】 일반·보호관찰패널별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자격 취득률	162
【그림 Ⅳ-7】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	164
【그림 Ⅳ-8】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아르바이트 경험	165

【그림 IV-9】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주당 근로일수	166
【그림 IV-10】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일일 근로시간	167
【그림 IV-11】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진로정보의 탐색	170
【그림 IV-12】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진로계획(2차)	171
【그림 IV-13】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2차)	172
【그림 IV-14】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2차) ..	173
【그림 IV-15】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수면시간	174
【그림 IV-16】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평일 생활시간	176
【그림 IV-17】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휴일 생활시간 추가	177
【그림 IV-18】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식사습관	179
【그림 IV-19】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인스턴트 식품 노출	179
【그림 IV-20】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181
【그림 IV-21】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82
【그림 IV-22】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미래에 대한 생각	183
【그림 IV-23】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	184
【그림 IV-24】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부모의 방임	185
【그림 IV-25】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부모의 학대	186
【그림 IV-26】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친한 친구수	187
【그림 IV-27】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학업중단 친구수	187
【그림 IV-28】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친구의 비행성향	188
【그림 IV-29】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지역사회 사회통합	189
【그림 IV-30】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자아존중감	191
【그림 IV-31】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자아탄력성	192
【그림 IV-32】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문제행동 피해경험	194
【그림 IV-33】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문제행동 가해경험	196
【그림 IV-34】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게임중독	197

【그림 IV-35】 스마트폰 중독(2차 추가)	198
【그림 V-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변화(2005~2012)	203
【그림 V-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교 복귀율 변화(2010~2012년)	204
【그림 V-3】 2012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을	206
【그림 V-4】 2012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자 수	207
【그림 V-5】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을	208
【그림 V-6】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비율	209
【그림 V-7】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비율 ..	210
【그림 V-8】 2012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을	21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4.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간 6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들 중 더러는 해외로 떠나고 더러는 학교로 돌아온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비율이 초등학교 약 20%, 중학교 약 50%, 고등학교 약 75%이다.¹⁾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누적되어 학습을 해야 하는 학령기에 학교를 떠나 있는 인원이 약 40만 가량이다. 이 중 더러는 유학, 대안교육, 검정고시 등 교육적 대안을 찾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을 거부하고 노동시장의 저임노동자로, 무엇을 할지 몰라 아무 것도 안하며 시간을 보내는 무업자로, 아니면 거리를 떠돌며 방황하다 범죄에 노출되어 비행의 길을 걷게 된다.

교육과 훈련,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학령기 청소년이 적절한 서비스를 공급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인기로의 건강한 이행과정을 저해하여 사회의 생산적 인구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여 개인의 불행임은 물론 국가사회에도 커다란 손실을 준다.

인구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사회의 기간 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사회적 필요는 커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경쟁과 성취 압력으로 얼룩져 있는 한국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 청소년이 중단 이후 어떠한 삶의 경로를 밟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삶의 경로가 차별화되는 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차 년도에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을 조사 패널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중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거나 대안교육기관, 쉼터,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교육부(2014.9.4), '2013 학업중단 크게 감소' 보도자료.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횡단연구였다. 질적 연구결과가 학업중단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화할 수 있느냐의 제한점이 있으며, 접근 가능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대상자 확보 역시 기관 및 시설의 특성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자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점이 있었다. 물론 본 연구도 학업중단자의 모집단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확률 표집이기 때문에 제한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수합한 조사대상자를 주된 표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연구보다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편적 삶의 양상을 보여주는 데 다가갔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012년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 및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해 학업중단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차, 2차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상태, 진로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 양상 및 환경적 특성과 심리정서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신규 문항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후 변화를 비교하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셋째, 전년도에 시도했던 학업중단자 규모(누적인구 기준) 추정을 다시 시도하였다.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정책 수립의 기초이다. 전년도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포함하여 학령기 학업중단 인구의 재추정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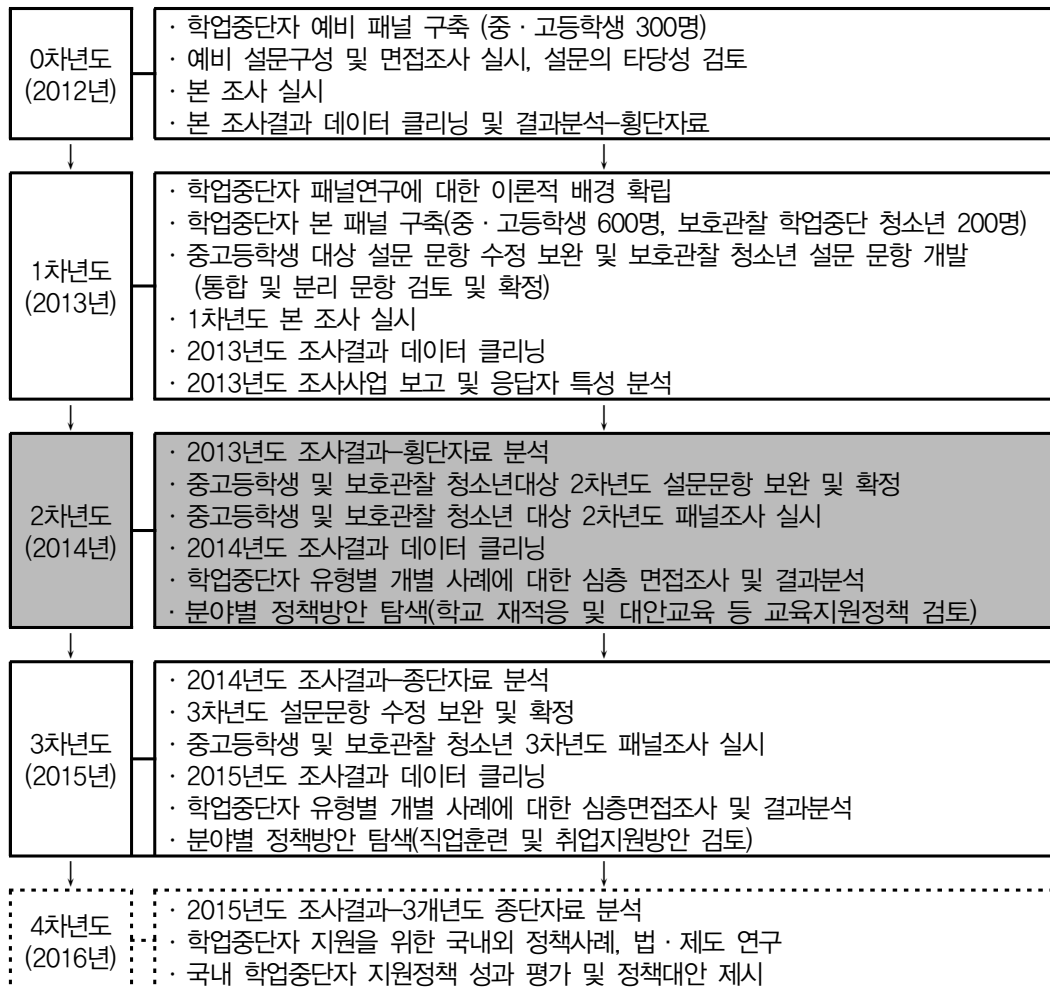
넷째, 이와 더불어 한국의 학업중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고 외국의 관련정책을 함께 살펴보아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부수적으로 실시된 면접조사 결과, 국내외 정책 현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3개년 종단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3개년 종단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도에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수탁과제) 예산으로 30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3개년 간 종단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안)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2~2015년)

*2016년 사업은 미확정

2) 2014년도 주요 연구내용

(1) 2013년도(1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2013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1차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으로 2014년 7월 11일(금)에 개최하였다. 주요 주제는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셋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생활이었다.

(2) 2차년도 조사도구 신규항목 개발 및 보완

2차년도 조사도구 신규항목 개발 및 보완을 위해 관련 전문가(교수 및 정책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FGI 분석, 신규문항을 구성하였다. 신규문항은 학교정보,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이후 경험에 대한 세부사항, 학교에 대한 정보,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의 성취여부 등이다.

(3) 2014년도(2차년도) 조사준비 및 조사관리

① 리서치 업체 선정 및 계약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조사 패널 유지관리를 위해 리서치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1차년도 조사 이후 패널유지 관리

1차년도 조사 이후 패널유지 관리를 위해 두 차례의 패널 접촉과 한 차례의 재조사가 이루어졌다. 접촉 방법으로 처음에는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CAWI)와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CAMI)를 병행하고, 두 가지 조사방법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ATI)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 조사 이후 패널 접촉 및 재조사를 통해 1회 이상 접촉에 성공한 패널은 전체 패널 996명 중 723명(72.6%)이다.

③ 2차년도 본 조사 실시 및 조사관리

일반 패널과 보호관찰 패널에 대한 실사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패널은 면접원과 사전에 약속을 정하고 직접 만나 응답하는 일대일 대면면접조사를, 보호관찰 패널은 보호관찰소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우편조사를 활용하였다.

보호관찰 설문 중 별지(패널 기본 정보 및 보호관찰 처분 관련 내용)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보호관찰 기간이 완료되어 보호관찰소 내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패널에 대해서는 일반 패널과 동일하게 일대일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면접원 교육 참관, 조사결과 검수, 면접원 간담회 참여 등 조사과정을 관리하였다.

④ 2차년도 조사 데이터 편칭 관리

1차년도에 조사된 데이터의 코딩 및 편칭(더블 편칭) 과정을 관리하고, 편칭된 데이터를 검토하였다.

⑤ 2차년도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데이터 클리닝의 목적은 편칭된 데이터의 비표집 오차를 줄여 연구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변수명 표기방법의 결정, 편칭상의 오류 검토, 불성실한 응답 검토, 설문의 의도와 다른 응답 검토, 논리적 오류가 있는 응답(skip 패턴 문항 등), 변수별 value 값의 리코딩 조정, 개인정보 보호관련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⑥ 조사패널 유지관리

본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표집이며 구체적인 조사패널 확보방법은 2013년도 연구 보고서 제 4장을 참고하면 된다. 조사대상자로 1차년도에 구축된 최종 학업중단 청소년 표본 수는 <표 I-1>과 같다. 패널 표본 유지관리의 목적은 표본 이탈율을 최소화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리서치 업체를 통해 표본을 적절히 관리하여 표본 이탈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 I-1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 최종 표본수

구 분		1차년도 최종 표본 수	대상 특성
학교 개인명부 조사	중학생	349명	1년 미만 학업중단자
	고등학생		
보호관찰소 조사		220명	1년 미만 보호관찰자
스노우볼링, 웹 홍보		49명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학업중단자 동일비율 확보 노력
기관 접촉 조사	상담복지센터	154명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관	57명	
	검정고시학원/ 대안교육기관	167명	
합 계		996명	

본 중단연구는 1차년도에 구축된 패널 표본을 3차년도까지 65% 정도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여 2015년도 최종목표 표본 수를 총 648명으로 설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일반 패널 599명(77.2%), 보호관찰 패널 210명(95.5%)으로 총 81.2%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표 I-2> 참조).

표 I-2 학업중단자 패널 구축 경로별 최종목표 표본수

구 분 ¹²⁾	2013년	2014년	2015년	주관기관
개인명부 조사	552명	449 (81.3%) →	359명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분석기관
기관접촉 조사	224명	150 (67.0%) →	146명	
보호관찰소 조사	220명	210 (95.5%) →	143명	형사정책연구원 /조사분석기관
합 계	996명	809명 (81.2%)	648명 (65%)	유형별 최소 60% 확보를 목표로 함

2차년도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유동성이 매우 크므로 패널 유지에 큰 어려움을 예상했었다. 2013년에 이어 실사 관리, 면접원 관리, 패널 정보 관리를 함께 하는 패널관리 통합시스템을

12) 개인명부 조사는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 상담복지센터의 개별 명부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이며, 스노우볼링 및 웹조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은 교육청을 거친 학교별 개인명부 확보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기관접촉 조사는 직업 및 학업기관 대상 조사를 포함하는 표본 수임.

운영하면서, 특정 패널의 1차년도 조사를 진행한 면접원이 2014년 2차년도 조사를 다시 담당하여 실사 중 해당 패널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패널 본인의 연락처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님/집,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 및 집 주소 등 주변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패널 추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4) 협동연구관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협동연구과제의 연구일정(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본 연구일정보다 7~10일 정도 선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조사일정(설문지 개발 및 실사 진행, 자료처리 등)은 본 조사 패널과 동일한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2014년도 협동연구 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 협동연구기관 선정 및 위탁심의, 계약
- 설문조사 도구 수정보완, 보호관찰 청소년 조사방법 등 연구절차 협의
- 중간보고 심의·평가(내부 및 외부 3인 이상의 평가위원 구성)
- 중간보고 심의·평가결과 피드백
- 중간보고 수정본 수합
- 최종보고서 평가 및 인쇄
- 인센티브 지급

3.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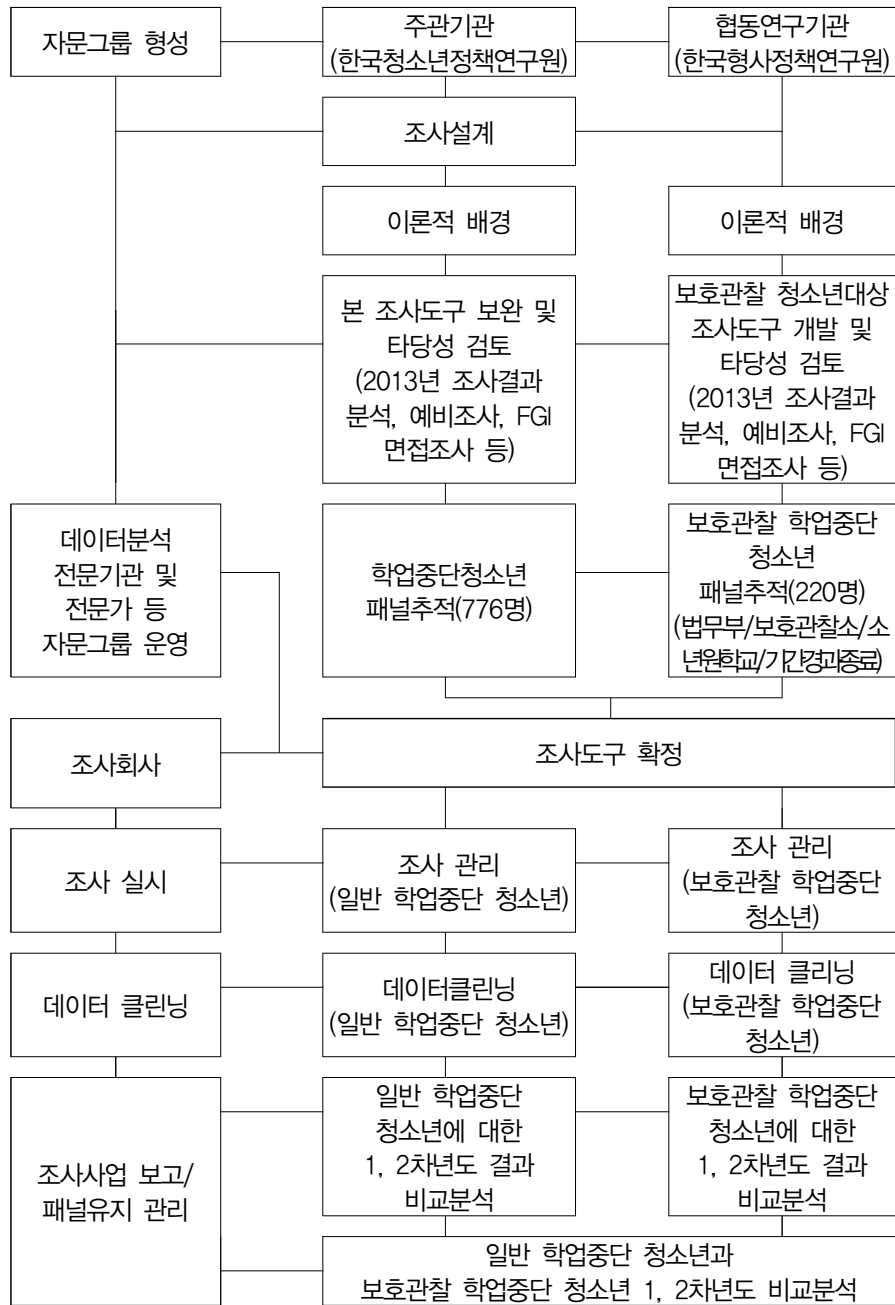
1)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협동연구

본 연구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두 연구 트랙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호관찰 청소년 패널¹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

13) 비행 청소년 중 소년원 학교 청소년 혹은 소년교도소 수감 청소년은 구금 상태로 생활상의 경험 변화가 많지 않을 것으로

구원과의 협동연구는 2013년 1차에 이어 올해는 2차에 해당하며 2015년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2차년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패널 유지·관리,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및 보호관찰관 설문문항 수정·보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발생한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을 바탕으로 구축한 본 조사의 패널은 일반 패널 776명, 보호관찰 패널 220명 총 996명으로 이 중 일반 패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보호관찰 패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추적조사를 주관하였다. 2차년도 연구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 -2]와 같다.

판단되어 1차년도 패널 구축에서 제외된 바 있음(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2013). 이하 “비행” 청소년 패널을 대상의 명확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 패널로 지칭함.



【그림 I -2】 2014년도 연구추진체계

* 출처: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p. 11. [그림 1-2] 수정·보완

2) 문헌연구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지 추가 문항을 신규 구성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청소년 학업중단 관련 학술지,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보도자료, 학업중단 관련 통계연보, 국내·외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단행본, 인터넷 자료, 백서, 부처별 학교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사업계획서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의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해 일반 학업중단 관련 학계 전문가, 보호관찰 관련 현장전문가(보호관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조사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4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¹⁴⁾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회의에 청소년·사회통계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3명 이상, 청소년·청소년비행·사회통계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6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서는 1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주요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차년도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대영역과 전반적 설문지의 틀에 대해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새롭게 추가가 필요하다고 도출된 문항에 대해 세부 내용을 구성·검토하고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1차년도 설문지에서 삭제가 필요한 문항, 시제의 변화가 필요한 문항, 최근 변화로 인해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된 SNS, 스마트폰 등 신규추가문항 변수에 대해 협의하였고, 복학, 재 학업중단으로 인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문항을 수정·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3차 자문회의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 초안에 대해 응답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추가하고, 세부 문항과 어법을 확인하고 설문지 내에서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하위설명을 부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4차 자문회의에서는 최종설문지(안)에 대해 예비조사결과, 자문회의 결과, 조사수행기관 의견록, 1·2차 면접원 조사 안내지, 1차년도 조사 분석결과, FGI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 1종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14)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1차 4월 30일(수), 2차 4월 28일(월), 3차 5월 22일(목), 4차 6월 3일(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내에서 실시되었음.

청소년 설문지 1종을 최종 확정하였다.

4) 예비조사

2차년도 본 조사 실시에 앞서 구성된 설문지가 적절한지 사전검토하기 위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조사수행기관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2014년 5월 19일(월)부터 2014년 5월 26일(월)까지 1주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취업형, 학업형, 무업형별 1명씩 총 3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 및 용어가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응답과 관련하여 지침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로 파악하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의 예비조사는 서울·경기지역의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 4명과 보호관찰관 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역시 설문조사의 이해도나 관련 내용의 포함여부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후 청소년의 보호관찰 관련 변화와 생활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여죄 및 추가범죄 여부 등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나온 의견은 최종설문지 수정·보완에 활용되었으며, 응답 소요시간은 약 20-30분으로 설문문항이 비교적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설문 응답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⁵⁾.

5)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FGI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심층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학교중단 청소년 7명(1차 7명, 2차 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FGI의 주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난 뒤 힘든 점'이며, 서울 모처에서 만 13세~만 18세 학업형 청소년 3명(2차 3명), 취업형 청소년 2명(2차 1명), 무업형 청소년 2명(2차 1명)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¹⁶⁾. FGI 내용은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과정을 녹음한 뒤 녹취록을 정리하여 제5장

15) 2차년도 설문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5월 27일(화)부터 5월 30일(금)까지 사흘에 걸쳐 조사수행기관 전국 3개 지역에서 관할 및 인근지역 면접원을 대상으로 면접원 교육이 실시되었음.

16) 1차 FGI는 2014년 5월 29일(목)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스타디카페에서 실시되었으며, 1차 FGI 결과 동일 청소년들에 대한 2차 FGI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2014년 6월 5일(목)에 동일한 장소에서 1차 FGI 참여자 중 5명(전일제 취업으로 2차 FGI 참여가 어려운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 1명 거주지가 청주로 멀어서 부득이 2차 FGI에 참여하지 못한 무업형 청소년 1명 제

FGI 분석결과에 주요결과를 제시하였다.

6) 본 조사 실시

2차년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최종 설문지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최종 설문지를 활용하여 2014년 6월 16일부터 2014년 8월 15일까지 학업중단 청소년 삶과 의식에 대한 2014년 패널조사가 실시되었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조사는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었으나 2차년도 조사에서 기간경과 종료되어 보호관찰 기간이 끝난 청소년의 경우 일대일 대면면접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소년원으로 이송된 경우 또한 소년원의 협조를 얻어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2차년도 연구보고서는 총 3종으로 발간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3>과 같다.

제 1권은 일반 학업중단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연구의 목적 및 연구절차에 대한 총괄보고서이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2차년도 조사결과를 주로 분석하고 일반 학업중단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비교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 추정, 국내의 정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 2권은 1차년도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이다. ①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②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③ 비행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생활 이라는 3개의 주제 하에 총 10개의 세부 주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1차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제 3권은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1, 2차 조사결과를 분석하며, 신규문항에 대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심층분석이 이루어졌다.

외)이 FGI에 다시 참여함. 2차 FGI 결과, 추가 대상에 대한 FGI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후 2회 내외의 FGI를 추가 실시하였음.

표 I-3 2차년도 연구보고서 구성 및 내용

	보고서명	주요 내용
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 연구 목적 및 연구방법 ■ 연구절차 ■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와 실태 분석 ■ 일반학업중단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와 실태 비교 ■ 학업중단 청소년규모 추정 등 학업중단 현황 분석 ■ 한국의 학업중단 대책 현황분석 및 외국사례 분석 ■ 학업중단에 대한 정책방안
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보고서	■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 비행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생활 ■ 종합논의와 정책 제언
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연구절차 ■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및 실태 분석 ■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면접조사 결과 분석 ■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책 방안

제 2 장

패널조사 방법

1. 패널구축 및 조사설계
2. 조사도구 개발
3. 자료수집과정
4. 패널관리
5. 패널유지 현황 및 이탈패널 분석
6. 향후 패널관리 방안

제 II 장 패널조사 방법*

1. 패널구축 및 조사설계¹⁷⁾

1) 1차년도 패널 구축 현황

2013년 1차년도 조사 결과 구축된 패널은 총 996명으로, 일반 패널 776명, 보호관찰 패널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패널은 1차년도 조사 시 리스트 출처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개인 패널(552명, 71.1%)과 기관 패널(224명, 28.9%)로 구분하였다. 개인 패널은 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으로부터 수령한 학업중단자 리스트, 기존 패널 소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한 스노우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기관 패널은 취업사관학교, 직업훈련기관, 대안학교, 검정고시 학원 등 기관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한 패널이다(<표 II-1> 참조).

표 II-1 1차년도 학업중단자 패널구축 현황

구 분		최종 표본수	대상 특성
학교 개인명부 조사	중학생	349명	1년 미만 학업중단자
	고등학생		
보호관찰소 조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220명	1년 미만 보호관찰자
스노우볼링, 웹 홍보		49명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학업중단자 동일 비율 확보 노력
기관 접촉 조사	상담복지센터	154명	
	직업훈련기관 / 자활지원관	57명	
	검정고시학원 / 대안교육기관	167명	
합 계		996명	

* 출처 :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p.92.

* 이 장의 1절, 3절, 4절, 5절, 6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절은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17)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차년도에 구축한 패널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661명(61.3%), 여성이 385명(38.7%)이 차지했다. 학령기별로는 중학교 학령기가 100명(10.0%), 고등학교 학령기가 881명(88.5%), 학령기 이후가 15명(1.5%)의 분포를 보였다(<표 II-2> 참조)..

표 II-2 패널 특성별 구축 현황

(단위: 명, %)

구분		패널 수	패널 비율
성별	남자	611	61.3
	여자	385	38.7
연령별	중학교 학령기	100	10.0
	고등학교 학령기	881	88.5
	학령기 이후	15	1.5
패널유형별	일반	776	77.9
	보호관찰	220	22.1
전체		996	100.0

패널이 조사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326명(32.7%), 충청권이 116명(11.6%), 전라권이 118명(11.8%), 경상권이 374명(37.5%), 강원/제주권이 45명(4.5%)의 분포를 보였다. 그 외 거주지를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이 17건(1.7%)에 해당한다.

2) 2차년도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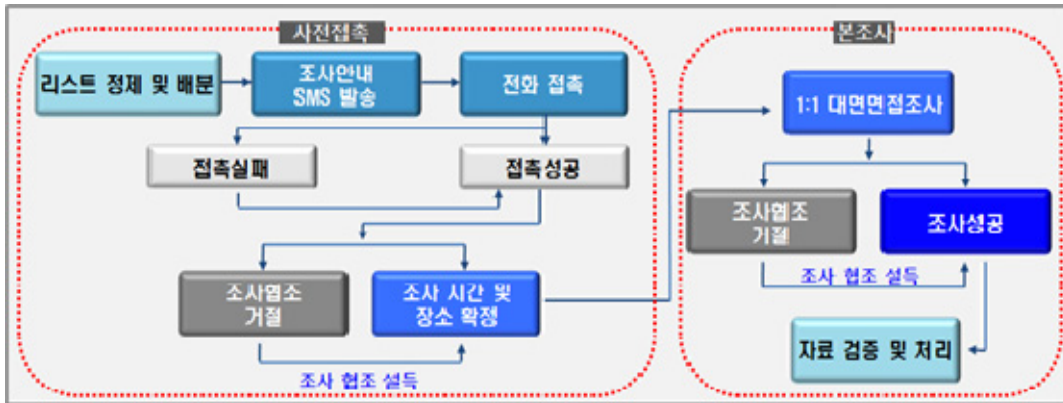
(1) 본 패널

2차년도 조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구축된 패널 776명의 본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패널의 조사 진행은 크게 전화 사전접촉과 본조사로 나뉜다. 사전접촉 단계에서는 2013년 1차 조사 및 패널 접촉 결과를 취합하여 가장 최근 정보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정제한 후 면접원들에게 패널 리스트(인포시트)를 배분하였다. 담당 면접원이 패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인포시트를 확인 후, 패널에게 전화로 접촉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약속을 정한다.

최초 접촉 시에는 문자 메시지(SMS)를 먼저 보낸 후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패널 학생들이

잘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협조율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 단계에서는 전화 사전접촉을 통해 조사 협조 의사를 표시한 패널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사가 완료된 후에는 면접원 및 슈퍼바이저 리뷰, 전화 검증 등 자료검증 및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데이터를 확정하였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본 패널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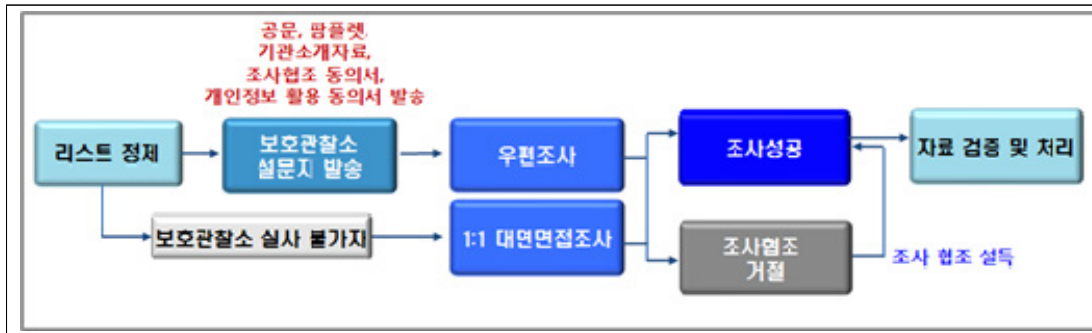
(2) 비교집단패널

비교집단패널의 조사는 본 패널과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2차년도 조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구축된 220명의 비교집단패널 중, 2014년도 조사 시점에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집단패널 조사의 경우 외부인의 보호관찰소 접촉이 어려우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접촉 및 추적에 효율적이므로 1차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총 14개 보호관찰소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패널 리스트 및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 대상자가 보호관찰 담당자의 안내를 통해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완료된 설문은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여 우편으로 회송하도록 하였다.

단, 보호관찰 기간경과 종료, 소년원 수감자, 보호관찰 이탈자(구인장 발부)와 같이 보호관찰소를 통한 우편 조사가 어려운 경우 중 조사 가능자로 판단되는 13명은 면접원이 개별 접촉하여 본 패널과 동일하게 1:1 대면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사 완료 후 자료검증 및 처리, 최종

데이터 확정은 본 패널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2】 비교집단패널 조사 설계

2. 조사도구 개발¹⁸⁾

1) 2차년도 조사도구 수정·보완 절차

첫째, 설문지 추가 문항 개발을 위해 최근 국내·외 청소년 학업중단 관련 학술지,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보도자료, 학업중단 관련 통계연보, 국내·외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단행본, 인터넷 자료, 백서, 부처별 학교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 사업계획서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차년도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해 일반 학업중단 관련 학계 전문가, 보호관찰 관련 현장전문가(보호관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조사수행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4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¹⁹⁾를

18) 이 부분은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19)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1차 4월 30일(수), 2차 4월 28일(월), 3차 5월 22일(목), 4차 6월 3일(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10층 회의실에서 실시함. 1차 자문회의에서는 1차년도 설문조사영역 주요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차년도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될 필요가 있는 대영역과 전반적 설문지의 틀에 대해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새롭게 추가가 필요하다고 도출된 문항에 대해 세부 내용을 구성·검토하고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1차년도 설문지에서 삭제가 필요한 문항, 시제의 변화가 필요한 문항, 최근 변화로 인해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된 SNS, 스마트폰 등 신규추가문항 변수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복학, 재학업 중단으로 인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문항을 수정·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함. 3차 자문회의에서는 일반학업 중단청소년설문지와 보호관찰학업중단청소년설문지 초안에 대해 응답가능한 다양한 추가선택지를 추가하고, 세부 문항과

실시하였다. 각각의 회의에 청소년·사회통계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 청소년·청소년비행·사회통계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6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마지막 4차 자문회의에서 최종설문지(안)에 대해 예비조사결과, 자문회의 결과, 조사수행기관 의견록, 1·2차 면접원 조사 안내지, 1차년도 조사 분석결과, FGI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학업중단청소년 최종설문지(안) 1종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최종설문지(안) 1종을 확정하였다.

*셋째, 1·2차 면접원 실사 지침서를 검토하고 면접원 교육현장을 실시한 후 면접원 실사 지침서와 설문지의 수정·보완 사항을 파악하였다. 면접원 교육은 2014년 5월 27일(화)부터 5월 30일(금)까지 사흘간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실시되었으며 이 중 서울과 부산 면접원 교육현장을 실시하고 파악한 사항을 최종설문지 수정·보완에 활용하였다.

1단계	■ 추가문항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및 1차년도 조사결과 검토 ○ 학업중단 관련 학술지, 학위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통계연보, 단행본, 인터넷 자료, 백서, 사업계획서 등 검토 ○ 1차년도 조사결과 검토를 통한 수정·보완 사항 파악
2단계	■ 설문지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설문조사 주요내용 검토 및 추가 필요 대영역 협의 ○ 2차: 세부내용 구성검토 ○ 3차: 문항 하위설명 부가 및 선택지 추가 ○ 4차: 예비조사용 설문지(안) 최종 확정
3단계	■ 1·2차 면접원 실사 지침서 검토 및 면접원 교육현장 실시 ○ 1·2차 면접원 실사 지침서 사전 검토 및 수정·보완 ○ 서울, 부산 면접원 교육현장 실시를 통한 추가 수정·보완 사항 도출
4단계	■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보호관찰관 포함) 예비조사 ○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예비조사 - 취업형, 학업형, 무업형 청소년 각 1명 총 3명 예비조사 - 1·2차 FGI 7명 실시 (* 본조사 이후 3·4차 11명 추가 실시)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예비조사: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4명, 보호관찰관 1명
5단계	■ 2차년도 설문지 확정 ○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용 ○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용(보호관찰관 응답지 포함)

【그림 II-3】 조사도구 수정·보완절차

여법을 확인하고 설문지 내에서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하위설명을 부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넷째, 제2차년도 본조사 실시에 앞서 구성된 설문지가 적절한지 사전검토하기 위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조사수행기관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2014년 5월 19일(월)부터 2014년 5월 26일(월)까지 1주일간에 걸쳐 학업중단 기간 1년 미만 및 보호관찰 기간 1년 미만의 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취업형, 학업형, 무업형별로 1명씩 총 3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이나 용어가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응답과 관련하여 지침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로 파악하였다.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의 예비조사는 서울·경기지역의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 4명과 보호관찰관 1명을 대상으로 역시 설문조사의 이해도나 관련 내용의 포함여부를 파악하고 학업중단이후 청소년의 보호관찰 관련 변화와 생활상의 변화를 파악하여 여죄 및 추가범죄 여부 등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²⁰⁾. 설문의 전반적 의견, 설문 난이도, 설문 문항 응답 시 오류 사항, 답례품에 관한 의견 등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응답 시간은 20분에서 50분이 소요되었으며 설문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쉽거나 적절하다는 반응이었다. 답례품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반응이었다. 문항 이해에 혼선이 있거나 응답방법을 어려워하는 문항에 대해서 문항수정 및 면접가이드를 강화하였다. 예비조사 시 구체적인 점검사항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예비조사 점검사항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조사협조 단계 점검	(1) 조사 대상자 접촉방법(약속/조사장소 등 조사환경) (2) 조사거절 사유와 대응 시나리오 점검
설문 문항 점검	(1) 의미가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항 (2) 매뉴얼 상에 설명이 없는 문항 및 용어 (3) 응답자가 기억 하지 못해 응답이 어려운 문항 (4) 응답 거절율(생애사건 등)이 높은 항목
조사 종료 후 점검	(1) 문항이 의도하는 목적에 충실히 응답했는지 여부 (2) 시간 및 시기 기준 응답(중단 시기, 생활시간 등)이 어려운 문항 (3) 조사에 대한 협조도 및 설문 소요시간

20) 2차년도 설문조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5월 27일(화)부터 5월 30일(금)까지 사흘에 걸쳐 조사수행기관 전국 3개 지역에서 관할 및 인근지역 면접원을 대상으로 면접원 교육이 실시됨.

다섯째,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심층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4회에 걸쳐 학교중단 청소년 18명(1·2차 총 7명(1차 참여자 7명 중 5명 2차 참여), 3차 7명, 4차 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FGI의 주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 ‘학교를 그만두고 좋은 점’, ‘나에게 필요한 도움은?’ 등이며 서울, 인천 모처에서 만 13세-만 18세 학업형 청소년 6명, 취업형 청소년 5명, 무업형 청소년 4명, 비행형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FGI 조사가 이루어졌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 6명, 남자청소년 12명이었다²¹⁾. FGI 결과 감정고시 공부,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 사회적 낙인, 건강상태 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문항을 설문지에 추가 구성하였다.

위 과정을 거쳐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 1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 1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 조사영역은 ① 학업중단현황(현재 상태, 복학 경험 현황, 재학업 중단 현황, 학업중단시 지원 현황), ② 최초 학업중단 당시의 회고와 현재, ③ 생활경험과 인식, ④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⑤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⑥ 일상생활 및 가치관, ⑦ 문제행동 피해 가해 경험, ⑧ 배경요인, ⑨ 보호관찰 관련 사항 등 9개 영역으로 1차년도 조사에 포함되었던 생애사건 경험은 1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배경요인에서 질문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도구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이 작성하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 ‘별지’와 ‘표지’를 제외하고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용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용의 설문지를 완전히 통일하였다. 연구진 및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를 통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공통으로 응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1차년도 조사에서 학업중단까지의 경험을 질문했던 문항들은 2차년도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로 시제를 수정하여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를

21) FGI 결과는 참가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실시하였으며 녹취록을 정리하여 부록에 주요결과를 제시함. 1차 FGI는 2014년 5월 29일(목)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스테디 카페에서 실시되었으며 1차 FGI 결과 동일 청소년들에 대한 2차 FGI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2014년 6월 5일(목)에 역시 동일 장소에서 1차 FGI 참여자 중 5명(전일제 취업으로 2차 FGI 참여가 어려운 취업형 학업중단 청소년 1명, 거주지가 청주로 멀어서 부득이 2차 FGI에 참여하지 못한 무업형 청소년 1명을 제외)이 FGI에 다시 참여함. 2차 FGI 결과, 추가 대상에 대한 FGI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년 8월 8일(금)에 인천시 소재 청소년쉼터에서 쉼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3차 FGI를 실시함. 마지막 4차 FGI는 청소년수련관, 대안학교 등을 통해 FGI 실시여부를 알고 참가의사를 밝힌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14일(목)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스테디 카페에서 실시함. 1차와 2차 FGI는 동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한 반면 3차와 4차는 각각 다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1, 2차 FGI 실시결과 2차 조사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도출되지 않아 가능한 다양한 청소년을 1회씩 인터뷰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4차 FGI 결과 어느 정도 포화에 달했다고 판단하여 인터뷰를 종료함.

조사대상 기간인 2013년 또는 2014년(조사대상 기간)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당초 1차년도만 조사하기로 했던 복학경험, 학교 중단 경험 등의 경우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경험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차년도에 계속 수정·질문하기로 하였다.

넷째, 학업중단 이전 생애 사건 경험은 단일 문항으로 수정하여 배경요인 문항에 배치하였고 이를 통해 지난 조사 이후 생애사건 경험의 변화여부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문헌연구, 연구진 회의, FGI 분석 등을 통해 필요성이 도출된 변인에 대해 신규문항을 구성하여 2차년도 조사에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복학 후 학교생활만족도,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자격 취득여부, 학사일정(방학중, 학기중, 휴학중), 복학 학교 형태, 학업중단 학교유형, 최초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최초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최초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최초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의 성취여부와 그 이유,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 스마트폰 중독, 일(아르바이트) 근로상 지위, 동아리 및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경험유무, 이유, 유형), 생활만족도, 진로장애인식, 취침시간, 사회적 낙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보호관찰청소년 여죄 등이다.

여섯째, 기존 문항 중 1차년도 조사결과 ‘기타’ 응답이 다수 발생한 문항은 1차년도 조사의 기타 응답 중 빈도수가 높게 나온 항목을 선택지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선택지가 추가된 문항으로는 일(아르바이트) 유형, 문제행동 경험,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교를 다시 그만둔 이유,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이유 등이 있다.

일곱째, 선택지 중 ‘없다’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 응답자가 선택지를 모두 읽지 않고 불성실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선택지의 맨 뒤로 위치시켰다.

여덟째, 응답 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설문지 본문에 포함시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조사주관기관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설문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수정 제시하여 보다 보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II-4>와 같다.

표 II -4

1-2차년도 설문조사 영역 및 주요내용

대영역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 ²²⁾	1차 문항번호		2차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A형	B형	A형	B형		
학업 중단 관련 실태	현재 실태상태	중단/복고상태	●	1	-	1	1	연구진 작성	수정계속
		졸업자격 취득여부	●	-	-	1-1	1-1	2013년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구분 준용 · 수정	2차 신규 계속
		학사 일정	●	-	-	1-2	1-2		수정계속
	복고 관련 실태	복고 경험	●	8	7	2	2	연구진 작성	수정계속
		복고 학교 형태	●	-	-	2-1	2-1	연구진 작성	2차신규계속
		복고 시기	●	-	-	2-2	2-2	윤철경 외(2013) 문5-1 수정	수정계속
		학교 복귀 이유	●	8-3	7-3	2-3	2-3	윤철경 외(2013) 문5-3 수정	
		복고 학교 유형	●	8-4	7-4	2-4	2-4	연구진 작성	
		중진 학교로 복고하지 않은 이유	●	8-5	7-5	2-5	2-5	연구진 작성	
		복고학교 유형 및 소재지	●	8-6	7-6	2-6	2-6	연구진 작성	2차 신규 계속
		복고 후 학교생활 만족	●	-	-	2-7	2-7	연구진 작성	1차
	학업중단 실태	최초 학업중단 시점	●	8-1	7-1	-	-	윤철경 외(2013) 문5-1	2차 신규 계속
		최초 중단 후 복고 소요기간	●	8-2	7-2	-	-	윤철경 외(2013) 문5-2	
		재중단 경험	●	-	-	3	3	연구진 작성	2차 신규 계속
		재중단 학교유형	●	-	-	3-1	3-1	연구진 작성	수정계속
		학업중단 년월	●	3	2	3-2	3-2	윤철경 외(2010) 문6	
		학업중단 이유	●	4	3	3-3	3-3	윤철경 외(2010) 문8 수정	
		학업중단 시 학년	●	2,2-1	1,1-1	-	-	윤철경 외(2010) 문4-1 수정	1차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	5	4	-	-	윤철경 외(2013) 문4 수정	
		학교성적수준	●	6	5	-	-	윤철경 외(2013) 문10 수정	
		학업중단 횟수	●	7	6	-	-	윤철경 외(2013) 문5	

학업중단 시 지원 실태	학업중단 시 상담자	●	9	8	3-4	3-4	윤철경 외(2010) 문9 수정	수정계속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	10	9	3-5	3-5	민인철 외(2011) 문10 /학업중단숙려제 추가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	11	10	3-6	3-6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	14	13	3-7	3-7	윤철경 외(2013) 문8 수정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	14-1	13-1	3-8	3-8	윤철경 외(2013) 문8-1 수정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	12	12	-	-	연구진 작성	1차
	학업중단 시 선생님 태도	●	13	13	-	-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시 학교 유형	●	-	-	4	4	연구진 작성	2차
	학업중단 시 학교 소재지	●	-	-	5	5	연구진 작성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	-	-	6	6	김영희 외(2013) 수정·보완	
최초 학업중단 회고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	-	-	7	7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	-	-	7-1	7-1	7-1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	-	-	7-2	7-2	7-2		
자이존중감	●	28-1)~5)	24-1)~5)	19-1)~5)	19-1)~5)	최인재 외(2012) 문8		계속
자이탄력성	●	28-6)~10)	24-6)~10)	19-6)~10)	19-6)~10)	김지경 외(2010) KCYPs 중1패널 1차년도 문19 ㉔,㉕,㉖,㉗,㉘ 선정		
생활만족도	●	-	-	19-11)~3)	19-11)~13)	이종원 외(2013) KCYPs 고1 패널 문13		
우울	●	29-1)~10)	25-1)~10)	20-1)~10)	20-1)~10)	이정상 외(2011) KCYPs 중1패널 2차년도 문18 ㉙~㉛ 선정		
충동성	●	29-11)~15)	25-11)~15)	20-10)~15)	20-10)~15)	Grasmick 등(1993) 척도, 이희길(2006)		
개인적 특성	사회적 낙인감 ²³⁾	●	-	-	31	31	배주미 외(2010) 문항 선정	2차 신규 계속

환경적 특성	문제행동가· 피해 경험	피해경험	●	41	36	33	33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3 수정	수정 계속
		문제행동 가해경험	●	42	37	34	34	최인재 외(2012) 문6 수정	계속
		게임중독	●	30	26	21-1	21-1	최인재 외(2012) 문3 ⑤~⑩	
		SNS 관련 ²⁴⁾ 피해·가해	●	-	-	21-2	21-2	이창호 외(2012) 수정·보완	2차 신규 계속
		스마트폰 중독 ²⁵⁾	●	-	-	21-3	21-3	이창호 외(2013) 수정·보완	
		교사관계	●	16-1)~3)	15-1)~3)	-	-	최인재 외(2012) 문13 ④~⑥	1차
	학교 및 학교 생활	친구관계	●	16-4)~7)	15-4)~7)	-	-	최인재 외(2012) 문13 ⑦~⑨	
		학습 부적응 (수업참여)	●	16-8)~10)	15-8)~10)	-	-	김성식 외(2008) 문36 ①~③ 수정·보완	
		훈육적 학교풍토	□	17-1)~2)	-	-	-	김성식 외(2008) 문10 ③, ④ 수정·보완	
		참여적 학교풍토	□	17-3)~4)	-	-	-	연구진 작성	
		학교규범 위반 경험	●	18-1)~7)	16-1)~7)	-	-	김성식 외(2008) 문9 ①, ②, ③, ⑥, ⑨ 수정·보완	
	부모 관계	부모애착(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	31-1)~8)	27-1)~8)	22-1)~8)	22-1)~8)	최인재 외(2012) 문10 ②~⑥, ⑪, ⑫, ⑭ 수정	수정 계속
		부모의 방임	●	32-1)~5)	28-1)~5)	23-1)~5)	23-1)~5)	허모연(2000) 방임 선정·수정	
		부모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	32-6)~9)	28-6)~9)	23-6)~9)	23-6)~9)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5 ⑤~⑥ 수정	
		친한 친구 수	●	33	29	24	24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37-1	
	친구 관계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	33-1	29-1	24-1	24-1	윤철경 외(2013) 문19	수정 계속
		학업중단한 친구 수	●	33-2	29-2	24-2	24-2	연구진 작성	
		또래 애착	●	34-1)~3)	30-1)~3)	25-1)~3)	25-1)~3)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26 ④~⑥ 선정	계속
		친구의 비행성향	●	34-4)~6)	30-4)~6)	25-4)~6)	25-4)~6)	전영실·신동준(2012) 문15-4, 15-5, 15-6	

일상 생활 및 가치관	진로 계획	진로정보의 탐색	●	23	21	13	13	1차:윤철경 외(2013) 문23 수정 2차: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진로성숙도 검사지 2문항 추가	수정 계속
		진로 장애 ²⁶⁾	●	-	-	14	14	배주미 외(2010) 진로장애척도 수정 · 보완	2차 신규 계속
		향후 진로 계획	●	24	22	15	15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1-1 수정	계속
		진로 계획 달성 예측	●	25	-	16	16	윤철경 외(2013) 문24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	26	-	17	17	이경상 외(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3	계속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	-	-	32	32	신혜령 외(2008), 배주미 외(2010) 자립지원요구조사 척도 수정 · 보완		2차 신규
	학업중단에대 한 인식	학업중단 관련 심리정서	●	27-1)~6)	23-1)~6)	18	18	윤철경 외(2013) 문27 ①, ③, ⑥, ⑧, ⑨ 선정 / 27-5) 연구진 작성	계속
		수면, 학습 및 일, 여가 시간	●	36	32	27	27	이경상 외(2012) KCYPs 중1패널 3차년도 문1 수정, 최인재 외(2012) 문33 참조	수정계속
	식생활	취침시간	●	-	-	27-1	27-1	이종원 외(2013) KCYPs 수정 · 보완	2차 신규 계속
		식사 습관, 인스턴트 식품노출	●	37	33	28	28	최인재 외(2012) 문5, 6, 7, 11 수정	계속
생애시간 경험	가치관	학력에 대한 생각	●	38	-	29	29	이경상 외(2007) KCYPs 중2 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⑩ 선정 수정	계속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39	34	30	30	전영실·신동준(2012) 문2 수정 · 보완	
		무단 결석 여부	●	15	14	-	-	연구진 작성	
		최초 결석 시작일	●	15-1	14-1	-	-		
최초 결석 이유	●	15-2	14-2	-	-				

배경 문항	생애사건 경험	생애사건 경험	●	40~49	35~44	36	36	이경상 외(2005) 중2패널 3차년도 evt. 수정 -20번으로 '이사 등으로 전학' 신규 추가	수정 계속
배경 문항	배경 문항	가족구성, 부모 결혼상태, 다문화가정 여부, 부모학력, 이사횟수, 가정경제수준,	●	43~48	39~44	35~38	35~38	윤철경 외(2013) A형 문43~48 수정	가족구성, 이사 횟수, 가정경제 수준만 계속
		건강상태	●	-	-	39	39	이종원 외(2013) KOYPS 수정 · 보완	2차 신규 계속
		정래희망	●	-	-	40	40	연구진 작성	2차 신규 계속
보호 관찰 별지	추기범죄와 추가 처분	추기여죄 혹은 추기범죄	△	-	-	-	별지1	신규	2차 신규 계속
		추기처분	△	-	-	-	별지2		
		부기처분	△	-	-	-	별지3	전영실 외(2013) B형 문항 별지 문4 수정	계속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보호관찰 이행의 성실성	△	-	-	-	별지4	신규	2차 신규 계속

22) ● : A, B 공통, □ : A형 설문(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 : B형 설문(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23) 사회적 낙인 척도는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보완한 10개 문항 그대로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4) SNS 피해 · 피해 경험은 이정호 등(2012)이 사용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 피해 경험 유무 1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10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함. 이정호, 성윤숙, 정낙원(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스마트폰 중독척도 15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한 문항 8개 문항을 선정하여 그대로 사용함. 이정호, 김경희(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6) 진로장애척도는 김은영(2000)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개발한 척도로써 원래 9개 43개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진로정보 부족'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함.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희(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3) 신규 추가문항의 이론적 근거

2차년도에 신규 추가된 학교 형태/유형, 학교생활 만족,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생활만족도, SNS 관련 피해·가해, 스마트폰 중독, 김정고시 공부, 근로상 지위,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유·유형, 진로 장애, 취침시간, 사회적 낙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건강상태, 장애희망에 대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 문항의 적도를 서술하고자 한다.

① 학교 형태/유형

학교 형태/유형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복교했을 때 기존의 학교 형태/유형과 동일한 학교로 복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 형태/유형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학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²⁷⁾로 나뉘는데 안영숙(2012)은 복교의 방법을 학교중단 이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과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후자의 경우에 또래와의 관계 설정과 교사의 선입견 배제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밖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학교 형태/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윤영미, 2009), 학교적응(김경화, 2012; 윤영미, 2009), 학교만족도(김지영, 2014), 학교풍토(김경화, 2012; 김지영, 2014), 유대감, 자율성, 성취압력, 가치관(김지영, 2014),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학업성취, 사회적 유능감(김효순, 2011),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김지영, 2014; 서운경, 2003)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면서 학교 형태/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 만족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갖는 선호 감정으로 학교에서 체감되는 외부경험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느낌이나 태도의 정도로 정의된다(김미자, 2009).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이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사회 환경이므로(장원영, 2003) 학교생활 만족은 청소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교생의 학교 적응을

27) 일반고는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하며 일반교과위주로 편성된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로 구분되며, 특성화고는 조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특성화고, 체험특성화고를 말함. 자율고는 학교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한 학교로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로 나뉜(조은정, 2014).

연구한 안영숙(2012)은 복교의 동기, 복교의 시기, 복교학교 유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등이 특히 학교생활 만족 등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교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③ 학업 재중단 경험

공식집계에 따르면 학교중단 청소년의 10%가 복교하며(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이들의 상당수가 복교한지 1년 안에 학교를 다시 중단한다(안영숙, 2012). 학업중단과 더불어 학업재중단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생애사건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간 후 얼마나 다시 학교를 그만두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학업 재중단 현황을 파악하고 학업 재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업을 재중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선행연구들은 복교 청소년의 복교후 학교적응 과정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안영숙·안태용, 2011)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2차 학업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자와 실천가, 정책가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장원영,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④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성취 실패 및 성공 이유

국내·외의 학교중단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학교중단 청소년의 욕구와 희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학교중단 청소년이 서로 다른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학교를 중단하며 이에 따라 학업중단시 욕구도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김영희·최보영·이인희, 2013) 청소년이 학업중단시 하고 싶었던 일, 이에 대한 성취 정도, 성취 실패 및 성공이유를 살펴봄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와 동기에 대해 연구한 소수의 연구들(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 금명자, 2008; 김근영, 2012, 안현의·이소영·권해수, 2002)은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가장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결과 원하는 직업·진로의 선택, 경제적 자립, 진학 등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당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처음 계획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⑤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정도로 정의되는데(이종화, 2010) Sun과 Sheck(2010; 남미애, 2011에서 재인용)은 생활만족도가 단순한 생활에너지의 부산물이 아니며 성공적 직업성취, 대인관계, 건강 등과 같은 건강한 삶의 결정요소이자 위험에 대한 완충·보호요인, 긍정적 발달의 주요 요소, 긍정적 청소년발달의 지표, 스트레스적 생활사건과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매개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청소년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자살(김정수·노성덕, 2003), 일탈이나 스트레스, 문제행동이나 비행(박미자, 2008; 이종화, 2010; 조아미, 2006)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긍정적 심리·인지·사회적 발달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남미애, 2011).

⑥ SNS 관련 피해·가해

SNS(Social Network Service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 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SNS 관련 괴롭힘은 SNS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 디지털 이미지 전송, 웹페이지, 블로그, 채팅 방 등을 통한 또래를 향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언어적, 관계적 가해 및 피해라고 정의된다(Nardahl, Poole & Stanton et al., 2008; 안수빈, 2014; 전은숙, 2013). 최근 SNS 이용률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함에 따라 SNS의 영향력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안수빈, 2014; 조운오, 2013) 사회자본 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이창호·이경상, 2013) 프라이버시 침해나 허위정보 확산, 중독 등 역기능적 부정적 효과 또한 함께 대두되고 있다(Parris, Varjas, Meyer & Cutts, 2012).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시간(Casas, Rey & Ortega-Ruiz, 2013; Smith et al., 2008), 부모의 인터넷 통제정도(Sengupta & Chaudhuri, 2011), 전통적 학교폭력 경험(Raskauskas & Stoltz, 2007), 청소년의 긴장과 좌절 경험(이창호·이경상, 2013)이 SNS 관련 피해·가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SNS 관련 피해·가해가 청소년등교거부(이창호·이경상, 2014), 학업부진(조운오, 2013), 가출(조운오, 2013), 약물중독(조운오, 2013), 우울, 자살시도(권문자, 2014; 조운오, 2013)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Dehue, Bolman & Vollink, 2008; 조운오, 2013에서 재인용).

⑦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결합한 지능형 단말기를 스마트폰이라고 하며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이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 말한다(김병년, 2013).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달리 보다 다양한 오락적, 실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주체의 능동성과 개입활동성이 게임, 채팅, 동영상 등으로 범위가 다양한 바 각 콘텐츠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전화보다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보고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다양한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전자과 노출·거북목증후군 등의 신체적 문제, 금단현상 등의 정신병리적 문제(이민석, 2011), 업무·학습 방해 등을 통한 업무·학업상 부적응과 이탈(한주리·허경호, 2004), 약어·축어 등 국적불명의 외계어 사용 등 언어파괴 문제, 사회성 발달 저해문제(김병년, 2013)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⑧ 검정고시 공부

설문조사지 구성에 앞서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FGI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 검정고시 관련 문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검정고시는 국가에서 독학이나 기타 방법으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졸, 중졸, 고졸 취득자격에 필요한 지식, 학력, 기술 등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제도이며 개인사정이나 가정형편상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정규학교를 중단하는 사람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또는 동등 학력자격을 취득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자 마련되었다(김지혜, 2008; 전종희, 2005). 이전에는 비행 등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중단 또는 미진학하고 검정고시를 응시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학교제도나 학교환경이 자신과 맞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서 학교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대안적 진로의 과정으로써 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승재, 2003).

⑨ 근로상 지위

청소년 근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단기간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지만(김기현, 2003; 김정현, 2009; Largie et al., 2001) 학교중단 청소년의 노동진입에 대해 연구한 김지영(2011)과 한국청소년패널을 분석한 김기현·유성렬(2006)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상 지위가 단기시간제 근로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Griffin(1993)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숙련 저임금 노동력의 상당부분이 학교중단 청소년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였으며 정은주(2003)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소비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용돈을 마련하거나 소비문화를 누리기 위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이 근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는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상 지위를 파악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장시간, 장기간 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상 지위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취약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 근로제공방식, 고용 지속성, 근로시간 등에 있어 불안정성, 위험성이 높고 근로기준법상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려은, 2010).

⑩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유·유형

청소년 동아리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나 목표에 의해 형성·운영되는 청소년 모임으로(김정주, 2005) 활동내용, 장소, 공식성, 조직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이승렬, 2013) 김정주(2005)의 분류에 따르면 학교중단 청소년이 속한 동아리는 청소년주도동아리, 학교밖 동아리, 정보 및 교류 목적 동아리에 해당하며 인터넷 카페는 온라인/사이버 동아리에 해당한다. 인터넷 카페를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동기는 정보추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이며(김양은·박상호, 2007; Lin,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이후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오프라인 세계에서 찾기 어려운 존재감이나 소속감을 갖거나 문화를 형성하고 타인으로 부터 인정받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고된다(이동후·김영찬·이기형, 2004). 동아리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가 전인교육 및 교육적 탄력성 강화, 자아정체감 발달, 진로교육 및 탐색,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여가선용, 문화동화 및 사회성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이승렬, 2013; Larsen, Hansen & Moneta, 2006; Martin, Mansour, Anderson, Gibson, Liem & Sudmachs, 2013)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다.

⑪ 진로 장애

취업, 진학, 승진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과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를 진로 장애라고 한다(박충훈, 2008). 국내 연구들은 연령(이연미, 2001), 성차, 진로태도성숙(이상희, 2005), 진로결정수준, 진로포부(최숙현, 2008), 자기효능감(이연미, 2001)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김지혜(2008)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장애 인식 수준이 학교 청소년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근영(2012)은 진로장애가 개인에 따라 미치는 정서적 영향이 다르므로 진로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ent 등(1994)은 진로장애가 개인의 진로흥미가 진로목표, 진로수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매개한다고 하면서 진로장애를 살펴보는 것이 개인의 진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한다.

⑫ 취침시간

수면시간에 대한 연구(김유라·이경숙, 2011; 이영주, 2011)에 비해 취침시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수면시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 수면이 에너지의 균형, 체중유지, 생리적 욕구의 조정자 역할을 할 뿐 아니라(Lumeng et al., 2007)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정신건강,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이영주, 2011). 취침시간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은 늦은 취침시간이 수면장애, 기억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손광국·박종훈·손수민·김준식·이주화·조용원, 2009; 심태경, 2010) 더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요구하는 능력지상주의 사회환경, 인터넷·텔레비전·온라인 게임 등 매체환경,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취침시간을 늦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이영주, 2011; Owens, 2005) 다양한 환경이 취침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⑬ 사회적 낙인

Goffman(1963)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낙인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속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강병철, 2011에서 재인용) 결점, 실패 심지어는 장애로 까지 간주되어 이탈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신망을 잃고 차별을 당하거나 비하되거나 완전한 사회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김경준, 2010) 심지어는 사회부적응, 디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윤화, 201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낙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낙인이 이들 삶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부여되는 낙인이 가정, 또래, 주변 등의 중요한 타자와 마스크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김진숙, 2009).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낙인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가치절하적·부정적 신념을 내면화하기보다(Crocker, 1999) 스스로 부정적 내면화를 거부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자기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와 전략을 파악하

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김경준, 2010).

⑭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

자립이란 사회 구성원이 상호적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 자원 활용을 통해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독립상태이다(신혜령, 2000).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비해 학업 중단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함에 따라 이른 독립 상태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더 이른 자립의 필요성을 한다. 학자들은 다양한 자립지원 요소를 제시하는데(신혜령·김보옥, 2011; Courtney et al., 2008; Nollan et al., 2000) 포괄적 측면에서 자립준비 요소는 직업/진로영역, 돈관리 영역, 자기보호 영역, 일상생활 관리 영역, 대인관계, 사회성 영역, 주거 영역, 교육 영역, 자원활용 영역, 여가/문화 영역, 정의적 영역 등을 포함한다(조규필, 2011).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은 저학력, 진로동기 부족,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진출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신혜령·김보옥, 2011)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은 개별적 자립준비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원되고 있어(조규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립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⑮ 건강상태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며 생활습관의 변화나 운동과 같이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노력, 능동적 태도 등을 포괄한다(WHO, 2006). 학자들은(김성희·이자형, 2006; 안진상·김희정, 2013) 청소년기가 신체적 성장 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건강문제는 추후 성인이 된 후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므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건강문제는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한 불균형적 영양섭취, 주위로부터의 스트레스(Bernard, 2002; 김성희·이자형, 2006에서 재인용)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 지리적 위치와 같은 전통적 사회구조적 불평등 요인(House, 2001; Marmot, 2005)이나 직업적 위험환경(Lucht & Groothoff, 1995)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건강관련 연구는 청소년 개인 및 집단간 건강격차가 심각함을 보고하고 있다(김명희·전경자, 서상희, 2011). 이에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구조적 요인, 직업환경이 열악할 위험성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또한 건강관련 문항을 검토해 봐야 한다.

⑩ 장래희망

장래희망이 청소년의 성인기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찍이 Sewell, Archibald, Portes(1969)의 위스콘신 모형(Wisconsin model)에 의해 입증된바 있다(심경섭·설동훈, 2010에서 재인용). 학자들은 명확한 장래목표 또는 장래희망을 설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장래희망에 관한 초기 연구는 장래희망을 개인의 흥미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고 있는데 반해(이영주, 1974) 최근에는 직업희망, 직업포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강영배·김기현, 2004; 심경섭·설동훈, 2010). 장래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가정환경,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경험, 사회적 현실(심경섭·설동훈, 2010), 개인의 사회적 자본(Lin et al, 2001), 문화적 자본(Bourdieu, 1986) 등을 들고 있다. 장래희망은 동기유발의 중요 원인이 되고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알려주는 것이니만큼(이영주, 1974)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중요하다.

4) 신규 추가문항의 척도

위에서 살펴본 신규 추가문항의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 형태/유형

학교 형태/유형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 기타로 제시하였다.

② 학교생활 만족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 만족은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매우 불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③ 학업중단 경험

학업중단 경험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중단한 경험이 없다’ 또는 ‘중단한 경험이 있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④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일은 금명자(2004)와 정홍자(2005)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김영희·최보영·이인희(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귀하가 최초로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2개 선택지 중 우선 순위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⑤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정도

학업중단 이후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성취 정도를 잘 이루어졌다/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 선택하게 한 김영희·최보영·이인희(2013)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현재, 자신이 위에서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전혀 이루지 못했다-매우 잘 이루었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⑥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실패 이유

김영희·최보영·이인희(2013)의 척도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위에서 전혀 이루지 못했거나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10개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⑦ 하고 싶었던 일 성취 성공 이유

금명자(2004)와 정홍자(2005)의 김영희·최보영·이인희(2013)의 척도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위에서 전혀 이루지 못했거나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10개 선택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⑧ 생활만족도

김신영 외(2006)의 삶의 만족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이종원·황진구·서정아·한영근·허효주·이영화, 2013)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세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값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⑨ SNS 관련 피해·가해

SNS 관련 피해·가해는 SNS 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피해·가해 경험에 대해 측정한 이창호·성운숙·정낙원(2012)의 척도 문항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해당되지 않는 학교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10개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SNS 상의 개인정보 유출, 욕설, 따돌림, 괴담 등에 대한 경험을 내용으로 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항상 그렇다의 4점 리커트로 측정하여 값이 높을수록 SNS 관련 피해·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하였다.

⑩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을 그대로 활용한 이창호·김경희(2013)의 척도 중 학교생활과 관련 있는 것을 제외하고 8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항상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값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⑪ 검정고시 공부

검정고시 공부에 관한 문항은 연구진이 1차, 2차 청소년 FGI 결과를 토대로 신규 작성한 후 내용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았다.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FGI 결과 도출된 내용을 반영한 6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 하도록 하였다.

⑫ 근로상 지위

근로상 지위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상 지위에 관한 용어를 바탕으로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실습생, 정규직 등으로 제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 하였다.

⑬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유·유형

동아리,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유·유형은 연구진이 1차, 2차 청소년 FGI 결과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신규 작성한 후 내용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 확정하였다. 참여 경험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참여 이유는 FGI를 통해 추출한 사항을 18개의 선택지로 제시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참여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유형은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FGI를 통해 청소년이 실제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형이나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기관·시설을 19개

유형으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⑭ 진로 장애

김은영(2000)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장애 검사를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개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배주미·정익중·김범구·김영화(2010)의 진로 장애 척도 9개 요인 43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진로정보 부족, 미래불안,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3개 요인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⑮ 취침시간

취침시간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김재민, 2002)의 생활시간조사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이종원·황진구·서정아·한영근·허효주·이영화, 2013)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귀하는 보통 밤(또는 새벽)에 몇 시에 잠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질문하고 평일과 휴일의 자는 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⑯ 사회적 낙인

사회적 낙인은 Harvey(2001)가 개발한 사회적 낙인 척도를 주금옥(2002)이 번안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한 배주미·정익중·김범구·김영화(2010)의 10개 문항 척도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한 8개 문항을 선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⑰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자립지원 요구)

Casey Family Programs(2004)의 ACLSA(자립 및 독립생활기술척도: Ansell Casey Life Assessment) 척도를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신혜령 외(2008)의 척도에 자신들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배주미·정익중·김범구·김영화(2010)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9개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⑱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5) (이종원·황진구·서정아·한영근·허효주·이영화, 2013)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매우 건강하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⑬ 장래희망

FGI 결과 중요성이 대두된 장래희망 문항은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했다.

3. 자료수집과정²⁸⁾

1) 조사준비

(1) 2차년도 조사 대상자 확정

2차년도 조사를 위해 1차년도 조사 완료 후 2013년 12월, 2014년 4월의 패널관리를 통해 접촉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였다. 996명의 패널 중 패널관리 참여자 수는 723명으로 전체의 72.6%이다<【표 II-5】 참조>.

표 II-5 1차년도 조사 후 패널관리 결과

구분	수(명)	비율(%)
전체	996	100.0
접촉 정보별		
본인 휴대전화번호 보유자	946	95.0
본인 외 전화번호 보유자	987	99.1
본인 이메일 주소 보유자	658	66.1
본인/보호자 거주지 주소 보유자	995	99.9
패널관리 참여자	723	72.6

28)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비교집단패널의 경우 1차년도 조사완료자 명부를 기초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 시작 전 법무부를 통해 조사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리서치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차년도에 구축된 보호관찰 학업중단 패널 220명 중 조사가능자는 189명(85.9%)이었으며 조사 불가능자는 31명(14.1%)이었다. 조사불가능 사유를 볼 때 교도소/소년원/구치소 수용 중이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그 다음 순이었다. 비교집단패널의 조사가능 여부의 세부사항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비교집단패널 조사가능 여부에 대한 법무부 사전 확인 결과

구분	수(명)	비율(%)
조사 가능 여부별	220	100.0
조사 가능	189	85.9
조사 불가능	31	14.1
조사 불가능 사유별	(조사 불가능 31명 중)	100.0
교도소/소년원/구치소 수용 중	12	38.7
기간경과 종료	10	32.3
구인장 발부	3	9.7
소년원 출원/퇴원	2	6.5
소재불명	2	6.5
지명수배자	1	3.2
군 입대	1	3.2
패널 조사방법 전환별	(조사 불가능 31명 중)	100.0
비교집단에서 본패널 조사방법으로 전환	13	41.9
잠정적인 조사 불가자(비전환)	18	58.1

조사 불가능으로 통보 받은 31명의 조사 대상자 중, 조사불가능 사유가 보호관찰 기간경과 종료(10명), 소년원 출원 및 퇴원(사회복지시설(효광원) 수용 : 1명, 소년원 출원 : 1명), 군입대(1명) 인 13명의 경우는 조사 방법을 본 패널(일반) 조사방법으로 전환하여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외 교도소/소년원/구치소 수용 중, 구인장 발부, 소재불명, 지명수배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2차년도 조사 불가자로 분류한 후, 한국리서치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12월까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 홍보

본 조사의 홍보를 위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홍보 팸플릿을 1,200부 제작하였다. 온라인 게시용으로 한국리서치 홈페이지용 팝업창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용 팝업창을 각각 제작하고, 패널용 조사 홈페이지에 1차년도 조사 결과인 패널 구축 현황 및 패널 특성별 분포를 게시하였다. 또한 보호관찰 패널의 조사 안내를 위해 보호관찰 패널의 해당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안내문을 100부 제작하였다.

표 II-7 조사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 현황

제작 유형	제작 내용	홍보 및 안내 대상자	제작 부수 (부)	게재 기간 (예정)
조사 홍보 팸플릿	* 조사 목적, 대상, 일정, 방법 * 주관기관 및 홈페이지 소개 * 문의처 및 정보 보호 안내	패널 본인 또는 보호자	1,200	—
한국리서치 홈페이지용 팝업창	* 조사 소개, 대상, 방법 *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안내 * 답례품 및 문의처 안내	패널 본인 또는 보호자	—	2014. 6~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용 팝업창	* 조사 소개, 대상, 방법 *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안내 * 답례품 및 문의처 안내	패널 본인 또는 보호자	—	2014. 6~8
패널용 조사 홈페이지 업데이트	* 1차년도 조사 결과 안내 * 패널 구축 현황 안내 * 패널 특성별 분포 안내	패널 본인 또는 보호자	—	2014. 4~12
보호관찰 패널용 안내문	* 조사 소개, 목적, 방법, 기간 * 담당자 수행 사항 안내 * 설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내	해당 보호관찰소 담당자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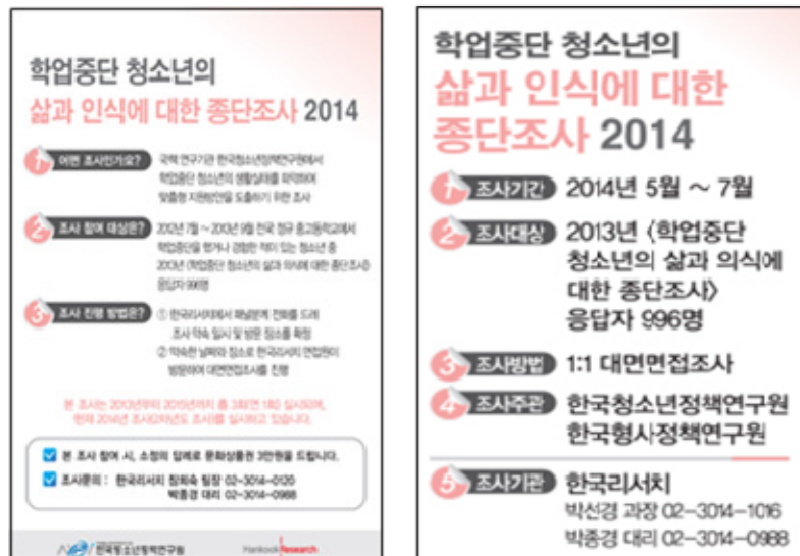
팸플릿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일정, 조사 방법, 홈페이지, 조사 담당자 연락처, 조사 주관기관 소개, 조사 참여자의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내 등이다. 팸플릿은 패널 및 가족, 친구 등 패널 주변인에게 배포하였다.

조사 홈페이지에는 1차년도 조사 결과를 게시하였는데, 이는 조사에 대한 패널의 관심을 환기하고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림 II-4】 패널용 조사 홈페이지 및 1차 조사 패널 구축 현황

팝업창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용 조사 홈페이지 및 한국리서치 홈페이지 게시용으로 작성하였으며, 2차년도 조사 실시를 알리는 내용이다.



【그림 II-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홈페이지용 팝업창

보호관찰 패널 조사는 설문지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아닌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므로 진행 유의사항을 담은 조사안내문을 추가로 배포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3) 면접원 선발 및 교육

조사 대상자 996명을 기준으로 본 조사에 필요한 면접원 수는 약 25명이며, 선발 면접원의 경우 필요 면접원 수의 1.2배인 30명을 우선 선발하였다.

면접원 우선 선발의 조건은 (1) 1차 조사 경험 면접 여부, (2) 청소년 대상 패널조사 및 학교 방문 조사 경험 면접 여부, (3) 대면면접 경력 3년 이상 면접 여부 등이며 각 지방 실사 사무소별 1인의 전담 수퍼바이저를 선발하여 실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표 II-8 지역별 선발 면접원 수

실사사무소	대상지역	선발 면접원 수	면접원 평균 경력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13명	9.0년
부산	부산, 울산, 경남	6명	4.5년
대전	대전, 충북, 충남	3명	2.6년
대구	대구, 경북	5명	5.0년
광주	광주, 전북, 전남	3명	8.0년
전체		30명	6.7년

5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선발된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의 특징 및 조사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리서치 서울본사와 제주도, 4곳의 지방사무소에서 지역별 집체교육 형식으로 면접원 교육이 진행되었다.

조사 개요에서는 조사 목적과 내용, 조사 대상 및 기간에 대해 교육하였고, 설문지 교육에서는 문항별 응답 시 주의사항, 작년 조사에서 에러가 많았던 유형의 문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에서는 1:1 대면면접조사 시 면접원 소개, 조사 대상자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 설문 완료 후 검수 방법 등을 교육하였고, 그 외 인포시트 작성 방법, 수퍼바이저 보고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표 II-9 지역별 면접원 교육 일정

날짜	교육장소	대상지역	교육내용
5월 27일(화)	서울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조사개요
5월 30일(금)	대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설문지 교육, 설문 문항별 개념 정의 및 설문 로직
5월 30일(금)	광주	광주, 전북, 전남	- 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
5월 30일(금)	대구	대구, 경북	- 인포시트 및 설문 작성법
5월 30일(금)	부산	부산, 울산, 경남	- 접촉일지 작성방법
7월 4일(금)	제주	제주	(WEB-IFS 및 APP 사용방법) - 면접원 설문 진행상황 입력 프로그램 교육

전반적인 설문 진행 방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실사진행을 위해 면접원들이 본인에게 배부된 조사 진행상황을 직접 입력 및 관리하는 실사관리 프로그램인 WEB-IFS와 모바일 APP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WEB-IFS는 면접원이 조사 진행 시 발생하는 이관, 거절, 중단 등의 특이사항에 대해 수퍼바이저에게 개별 보고하지 않고, WEB-IFS에 기록함으로써 실사를 관리하는 면접원과 수퍼바이저, 연구원이 동시에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주었다.

모바일 APP 은 면접원이 현장 조사 시 노트북 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 조사 진행상황을 모바일 APP을 통해 조사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함으로써, 즉각적인 확인과 대응이 가능하게 하였다.

2) 실사 진행

(1) 사전접촉

본 조사는 패널 조사로 면접원과 조사 대상자의 라포(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학업중단자라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가정 환경 또는 거주 환경이 불확실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담당 면접원이 패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화 접촉 및 대면면접조사의 실사 과정을 각각의 담당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본패널의 경우,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에 진행된 패널관리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의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을 고려하여 담당 면접원이 직접 SMS 발송 및 사전 전화접촉을 진행하였다.

표 II-10 패널 상태에 따른 접촉 및 진행 방법

현재 주로 하는 일	조사 진행 지침
검정고시 준비	2014년 2차 검정고시가 8월 예정(날짜 미정)이므로 6월 실사 시작 후 최대한 신속히 접촉할 것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재학	실사가 진행되는 7월초까지 학기 중이므로 학기 중에 접촉 시 방과후 또는 주말에 조사를 진행할 것
아르바이트/취업	근무 중은 피하고 근무가 끝나는 시간을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
대학 재학	기말고사가 5월 말~6월 초이므로, 방학이 시작되는 6월 2주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
군입대	군입대 대기 중인 경우 입대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며, 이미 군입대를 한 경우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
유학	유학 준비 중인 경우 출국 이전에 조사를 진행하며, 이미 출국을 한 경우 재입국 시기를 확인할 것

접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가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SMS로 전화 연락을 공지한 후 접촉을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접촉을 하였고, 접촉이 어려운 경우 집, 부모님, 친구의 순으로 접촉하여 작년부터 시작된 본 조사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최대한 많은 조사 대상자의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실사 진행방법

본 패널과 비교집단패널은 패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실사를 진행하였다. 본패널의 실사는 사전접촉 후 1:1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패널에 대한 대면면접조사는 사전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사전 접촉)하여 약속을 잡고, 조사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1:1 대면면접으로 설문지를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비교집단패널에 대한 실사는 우편조사로 진행하였다. 먼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보호관찰소에 접촉하여 1차 조사 패널 220명의 조사 가능 여부 리스트를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합하고, 이를 최종 조사대상 보호관찰소로 정하였다. 한국리서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설문지 등 조사 자료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각 보호관찰소로 조사 물품을 보내, 완료된 설문지를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호관찰소 내에서 실사는 보호관찰관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조사 대상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응답 완료 후 A4 봉투에 설문지를 넣어 밀봉하게 하였다. 분실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별 설문과 보호관찰관 설문을 A3 봉투에 함께 넣어 회수하였다.

보호관찰 설문 중 별지(패널 기본 정보 및 보호관찰 처분 관련 내용)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직접 작성하였다. 보호관찰 기간이 완료되어 보호관찰소 내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패널에 대해서는 일반 패널과 동일하게 일대일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I-11> 참조).

표 II-11 패널별 조사 방법

항목	패널 유형	
	일반 패널	보호관찰 패널
조사 방법	1:1 대면면접조사	우편조사
조사 방법 (세부)	1. 조사 약속 2. 패널 대면 3. 설문 진행 및 가이드 4. 설문 검수 5. 답례품 증정 6. 조사 완료	1. 패널별 조사 가능여부 확인 2. 패널에게 조사 안내 3. 패널 대면 4. 설문 진행 및 가이드 5. 별지 작성(담당자) 6. 답례품 증정 7. 조사 완료
조사 담당자	해당 패널의 인포시트를 배부 받은 면접원	해당 패널이 소속된 보호관찰소 담당자
조사 시 사용 자료	* 해당 패널의 인포시트 * 면접원 실사 지침서 * 조사 협조 공문 * 면접원 신분증	* 보호관찰 패널 인포시트 * 보호관찰소 패널 안내문 * 해당 패널 보호관찰 정보

본 조사도 1차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설문지와 함께 패널동의서를 배포하여 조사 대상자가 조사 내용 및 조사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패널동의서는 조사 대상자가 내년에도 유지되는 패널로 본 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완료 후 면접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30,000원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상품권 수령확인증에 서명을 받게 된다. 상품권 수령확인증은 조사 완료 후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30,000원 문화상품권 수령하였는지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패널이 답례품 미수령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널관리의 차원에서 확보하는 자료이다. 패널동의서와 30,000원 상품권 수령확인증은 자료의 중요성을 고려, 분실되지 않도록 설문지 마지막 장에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3) 실사관리

실사관리는 한국리서치 자체 개발 웹입스(WEB-IFS) 및 매니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웹입스(WEB-IFS) 프로그램은 면접원이 배부 받은 리스트에 대해 진행상황을 각각 입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교집단패널의 경우, 웹입스(WEB-IFS) 프로그램에서 우편으로 회수된 설문지의 부수와 시기를 관리함과 동시에 설문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중 점검함으로써 분실 및 누락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했다.

설문지 관리대장은 비교집단패널 개개인 별로 작성 되었으며, 조사 가능 여부, 설문회수 여부, 회수 시기, 운송장 번호, 우편 유형, 회송 문자 발송 여부, 담당 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 성명 등의 약 20여 가지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매니저 프로그램은 면접원별 실사 데이터를 취합하여 전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기능과 이관 및 검증 상황을 공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웹입스(WEB-IFS)와 매니저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사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 면접원 추가 투입, 재교육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담당 연구원 및 여러 지역의 실사, 검증 담당자가 별도의 연락 없이 진행상황 전체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실사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실사진행상황은 담당 연구진에게 7월 15일(1차), 7월 24일(2차), 7월 31일(3차), 8월 10일(4차), 9월 1일(5차)까지 총 5회 보고하였고, 조사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비고를 기록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상시 논의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면접원 관리

면접원 관리는 1차년도 조사와 동일하며, <표 II-12>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II-12 **면접원 관리방안**

면접원 관리 방안	내용
1일 통제시스템	수퍼바이저에 의한 면접원 1일 조사활동 관리 아래 항목을 일별로 통제함 - 조사 진행 상황(배부, 완료, 회수) - 조사대상별 진행 상황(진행중, 완료, 조사 약속 등) - 조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면접원 근태 - 검증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주의 당부 등
주간 통제시스템	연구부와 수퍼바이저에 의한 면접원별 주간 조사활동 관리 - 면접원별 주간 진행 상황을 통제하고, 면접원이 한 주에 할 수 있는 부수에 과도하게 못 미치거나, 과도하게 많이 한 경우는 조사 진행을 독려하거나, 과도하게 많이 진행한 이유를 파악하여 조사 전반의 진행을 통제하고, 조사의 질을 확보함 - 주1회 정도는 수퍼바이저와 면접원이 본사 또는 지방사무소 (경우에 따라 조사 현장 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만나 에러의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면접원 간담회	- 격주 단위로 조사 연구원 및 수퍼바이저와 면접원이 직접 만나 조사 진행상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면접원 간담회를 개최함 - 연구부에서는 면접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정리하여 면접원에게 전달함
조사실적 인센티브 제공	조사 진행건수에 따라 면접원에게 인센티브를 차등지급 함으로써 면접원의 지속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3) 자료검증 및 처리

(1) 자료검증 및 입력

① 한국리서치 내부 검증

자료 검증은 면접원 검증, 수퍼바이저 검증, 전화 검증의 순으로 진행된다. 실사 시작 전

담당 연구원은 리뷰가이드(Review Guide)를 제작하여 면접원이 실사단계에서 주의해야할 문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단계에서 면접원 및 수퍼바이저가 리뷰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우선 면접원 검증은 실사를 담당한 면접원이 완료된 설문지에서 누락 문항, 로직 오류 등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패널에게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면접원 검증을 마친 설문지는 수퍼바이저의 검토를 거친다. 수퍼바이저는 연구원이 작성한 리뷰가이드를 보고 설문 로직, 누락 문항 등을 재확인하고,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전화 검증은 리뷰가 완료된 설문지 중에서 면접원별 완료부수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한국리서치 전문 검증팀이 담당하였다. 전화 검증을 통해 본인 실제 조사 여부 및 주요 항목의 응답내용 일치 여부를 재확인하였으며, 패널 조사 특성 상 연락처 변경 확인 및 재조사 등 잦은 접촉으로 인한 응답자의 거부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내용을 아래 <표 II-13>과 같이 제한하였다.

표 II-13 전화 검증 항목

순번	검증 항목
1	본인이 직접, 또는 면접원을 만나서 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2	본 조사가 2015년까지 진행되는 3년 패널임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3	조사완료 후 문화상품권 3만원을 수령했는지 여부
4	연락처(전화번호)가 맞는지 여부(통화한 번호 외 1개 이상 추가 확인)

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설문지를 100% 재확인 하였으며, 오류의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자료 입력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의 입력은 자료 입력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지 전 문항을 더블 편칭함으로써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담당 연구원은 문항내 및 문항간의 응답 에러 유형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작성된 에러 유형을 입력프로그램인 Survey Craft에 설정하여, 로직에 벗어난 응답은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래

밍 하였다. 또한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자료입력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 입력 방식은 더블펀치로 진행하였다. 더블펀치는 2명의 자료입력원이 각각 응답값을 입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1차로 한 명의 자료입력원이 리뷰 및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 후 이를 데이터 서버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다른 한 명의 자료입력원이 동일한 설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력하도록 한다. 이 때 1차 설문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입력되면 프로그램이 넘어가지 않고 경고창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료입력원은 설문지를 직접 확인하여 불일치 문항을 수정하고, 최종 데이터를 확정한다.

③ 비교집단패널 재조사

비교집단패널 조사의 경우 면접원의 가이드 없이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진행하며, 설문응답 보호를 위해 밀봉을 하기 때문에 본 설문이 한국리서치에 우편으로 회송이 되어야 누락 응답 및 로직 에러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로부터 설문을 우편 회수하였고,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비교집단패널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9월 15일까지 최종 완료된 비교집단패널 186명 중 재조사 필요자(문항 누락, 문항 로직에러, 불성실 응답 등) 165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 방법은 2차년도 조사 시 응답 받은 연락처를 (1)본인 휴대전화, (2) 어머니 휴대전화, (3) 집 전화, (4) 아버지 휴대전화 (5) 형제/기타 연락처 순으로 접촉하였다. 또한 오전 시간대에 접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중 오후/심야(22시까지), 주말 오전/오후/심야(22시까지) 시간대를 이용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표 II-14> 참조).

표 II-14 비교집단패널 재조사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재조사 불필요		17	9.1
대면면접 조사자		4	2.2
재조사 필요	전체	165	88.7
	성공	117	62.9
	조사 불가 ²⁹⁾	3	1.6
	응답 거부	2	1.1
	강력 거부	1	0.5
	착신 정지	12	6.5
	통화 약속 ³⁰⁾	1	0.5
	부재 ³¹⁾	29	15.6
총합		186	100.0

재조사가 필요한 총 문항은 1,472개였으며, 1인당 평균 재조사 문항 수는 9.0개로 나타났다. 주요 재조사 사유는 ‘무응답’(33.8%), ‘문항간 에러’(30.0%), ‘추가 확인 필요 문항’(17.9%), ‘문항내 에러’(8.7%), ‘중복 응답’(5.3%), ‘불성실 응답’(3.7%)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5> 참조).

표 II-15 재조사 사유별 빈도 및 비율³²⁾

재조사 사유	빈도 (에러 수)	비율 (%)
무응답	498	33.8
문항간 에러	442	30.0
추가 확인 필요 문항	263	17.9
문항내 에러	128	8.7
중복 응답	78	5.3
불성실 응답	55	3.7
기타	8	0.5
총합	1,472	100.0

29) 조사 불가 사유 : 번호 변경, 구치소 수용,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였으나 패널과 만나지 않아 본인 컨택 불가.

30) 통화 약속 : 통화를 약속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

31) 부재 : 패널 접촉 가능 연락처별 5회 이상 부재중으로 확인된 상태.

32) 재조사 사유별 빈도는 재조사가 필요한 비교집단패널 165명에 대한 재조사 필요 문항수 기준임.

문항별로 재조사 필요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 문항 중 ‘생활시간(평일/휴일 기준 하루 생활 시간)’ 기입 에러와 관련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132개(2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생활 경험1(지난 조사 이후 학업, 아르바이트 등 경험)’(82개, 13.5%), ‘생활 경험2(지난 조사 이후 가출, 보호관찰 등의 경험)’(61개,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16> 참조).

표 II-16 문항별 재조사 빈도 및 비율(상위 10순위 기준)

문항	문항 내용	빈도(개)	비율(%)	재조사 사유
문27	생활 시간(평일/휴일 기준 하루 생활 시간)	132	21.8	문항내 에러
문8	생활경험1(지난 조사 이후 학업, 아르바이트 경험)	82	13.5	문항간 에러
문9	생활경험2(지난 조사 이후 가출, 보호관찰 경험)	61	10.1	무응답
문9-4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이용여부 및 만족도	59	9.7	문항내 에러
문24-1	새롭게 사귄 친구	49	8.1	문항간 에러
문24	현재 친한 친구	48	7.9	문항간 에러
문24-2	학업중단한 친구	48	7.9	문항간 에러
문27-1	밤에 자는 시간	46	7.6	문항간 에러
문1-1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	41	6.8	무응답
문15	향후 진로계획	40	6.6	문항간 에러
총합		606	100.0	-

재조사 실시 결과, 비교집단패널 186명 중 총 117(62.9%, 재조사 필요자 기준 70.9%)명에 대해 재조사가 완료되었다. 재조사 응답 거부나 구치소 수용, 본인 및 지인 모두 전화 컨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 불가로 처리하여 무응답으로 최종 코딩하거나, 응답 로직에 따라 클리닝을 진행하였고, 통화약속, 부재의 경우에는 추가 재조사를 진행하여 재조사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별지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 접촉 후 메일을 보내 누락된 응답을 회신하도록 하였다.

(2) 데이터 클리닝

2차년도 최종 조사 완료된 패널 중 분석에 포함된 데이터 응답자 수는 785명(본패널: 599명, 비교집단패널: 186명)이었다. 자료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케이스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종 785명 기준으로 데이터 클리닝이 진행되었다.

데이터 클리닝은 크게 1차 데이터 클리닝(722명 기준), 2차 데이터 클리닝(63명 기준), 비교집단 패널 재조사 데이터 클리닝(3차, 182명 기준), 통합 데이터 클리닝(4/5차, 785명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인 데이터 클리닝 과정은 <표 II-17>과 같다.

표 II-17 데이터 클리닝 일정 및 세부내용

차수	명수	기간	세부내용
1차	722	8월 15일 ~ 28일	1차 데이터 오픈 클리닝 및 데이터 반영
2차	63	8월 26일 ~ 28일	2차 데이터 오픈 클리닝 및 데이터 반영
3차	182	8월 20일 ~ 28일	보호관찰 패널 재조사 데이터 클리닝
4차	785	8월 28일 ~ 30일	통합데이터 기준 차수 간 클리닝
5차	785	8월 28일 ~ 30일	통합데이터 기준 차수 내 클리닝
1차 데이터 송부(9월 01일)			
6차	785	9월 05일 ~ 15일	심사위원, 청소년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의견 피드백 반영 클리닝
2차 데이터 송부(9월 15일)			
7차	785	9월 17일 ~ 23일	생활시간 문항 추가 클리닝 및 최종 점검
3차 데이터 송부(9월 23일)			

각 유형별 오류 클리닝 리스트를 작성하고, 각각의 리스트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추출하여 확인해야할 데이터를 정리하여 파일로 작성하였다. 확인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1차적으로 설문지 원본 재확인인 통해서 편치 에러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데이터 리코드 혹은 재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리서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클리닝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들에 대해서는 한국리서치, 청소년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담당연구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각 유형별로 처리 방침을 논의한 후에 데이터를 수정 및 처리하였다. 또한 클리닝 결과에 대해서 심사위원 심의, 담당청소년 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추가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4. 패널관리³³⁾

1) 1차년도 조사이후 패널관리

첫째, 1차년도 조사 이후 2회의 패널 접촉(2013년 10월~12월, 2014년 4월)과 전화 연락을 통한 제조사로 패널관리를 진행하였다. 패널 접촉은 최초에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CAWI)와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CAMI)를 병행하고, 두 가지 조사 방법에 참여하지 않은 패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CATI)를 진행하였다.

전화조사(CATI)에서는 본인 휴대전화 뿐만이 아닌 집전화,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 기타 등 6가지 유형의 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여 패널의 접촉 가능 유무와 접촉 가능한 연락처를 획득하였다. 또한 패널 접촉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패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여 접촉 참여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표 II-18> 참조).

표 II-18 패널 접촉 진행 방법 및 내용

진행방법	진행 대상자	진행 내용
웹조사 (CAWI)	패널 정보 중 이메일 계정 주소가 존재하는 패널	패널 이메일 계정 주소로 패널 접촉을 위한 안내 및 접촉 설문 웹 링크 전달
모바일 조사 (CAMI)	패널 정보 중 본인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하는 패널	패널 휴대전화 번호로 SMS(문자)를 발송하여 패널 접촉 안내 및 접촉 설문 모바일 링크를 전달
전화 조사 (CATI)	패널 정보 중 본인 휴대전화 및 그 외 집 전화,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 기타 연락처가 존재하는 패널	연락 가능한 패널 연락처를 본인 휴대전화부터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패널 연결 성공 시, 우선으로 패널 접촉 설문 진행

패널 접촉 시 확인 항목은 ‘패널 연락처’와 ‘당시 주로 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

33)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I-19 패널 접촉 시 확인 항목

확인 항목	문항
연락처	Q. 귀하의 연락 가능한 번호가 (기존 응답 유선전화)/(기존 응답 휴대전화)가 맞습니까? ① 둘 다 맞음 ② 유선전화번호 틀림 ☞ _____ - _____ - _____ ③ 휴대전화번호 틀림 ☞ _____ - _____ - _____ ④ 둘 다 틀림 ☞ 유선: _____ - _____ - _____ / 휴대: _____ - _____ - _____
현재 주로 하는 일	Q. 귀하께서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대안학교에 다님 ② 검정고시학원에 다님 ③ 직업기술훈련을 받음(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④ 아르바이트를 함 ⑤ 취업하여 일을 함 ⑥ 상담이나 치료를 받음 ⑦ 유학 준비를 함 ☞ 유학예정시기 _____(년) _____(월) ⑧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⑨ 아무것도 하지 않음 ⑩ 기타(_____)

1차년도 실사가 2013년 7월과 10월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므로 1차 패넬 집측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패넬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2차 패넬집측은 패넬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2차년도 조사 실시를 안내하여 조사 참여를 독려했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차년도 데이터에 대한 전화 재조사를 진행하여, 일부 패널은 이를 통해 접촉하였다. 잦은 접촉으로 패널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접촉이 되었을 때 오류 케이스에 대한 재조사와 패널 접촉 문항에 대한 확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2013년 1차년도 조사 이후 패널 접촉 및 재조사를 통해 1회 이상 접촉에 성공한 패널은 전체 패널 996명 중 723명(72.6%)이다. 접촉 성공 패널 723명 중 일반 패널은 579명(80.1%)이며, 보호관찰 패널은 144명(19.9%)이다.

패널 유형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패널 776명 중 접촉 성공 패널의 비율은 74.6%, 보호관찰
패널 220명 중 접촉 성공 패널의 비율은 65.5%이다.

표 II-20 차수별 패널 접촉 진행 현황

진행 차수	진행 기간	진행 방법	진행 결과
1차 패널접촉	2013. 10~12	최초 접촉(CAW+CAM) 추가 접촉(CAT)	전체 996명 중 723명(72.6%) 접촉 성공
2차 패널접촉	2014. 4~5	최초 접촉(CAW+CAM) 추가 접촉(CAT)	성공 723명 중 일반 패널 579명(80.1%)
재조사	2013. 11~12	전화 접촉 (담당 연구원이 직접 진행)	보호관찰 패널 144명(19.9%)

* 주 : 1) 최종 접촉 성공 723명은 패널 접촉 성공자 674명과 재조사 성공자 310명 중, 중복 접촉을 제외한 명 수임.
2) 패널 접촉 중, 추가 접촉(CAT)은 최초 접촉(CAW+CAM) 비성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함.

패널 접촉 결과, 접촉 시점에서 패널이 주로 하는 일은 <표 II-21>과 같았다.

표 II-21 패널 접촉 시점의 주로 하는 일 (단위: 명, %)

주로 하는 일	패널 수	패널 비율
아무것도 하지 않음	173	23.9
아르바이트를 함	137	18.9
일반 중고등학교 또는 대안학교 재학 / 대학 재학(예정)	108	14.9
검정고시 준비(학원, 개인공부 등)	88	12.2
검정고시 외 공부(수능 준비, 자격증 준비 등)	76	10.5
취업하여 일을 함	53	7.3
직업기술훈련을 받음(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29	4.0
유학 준비를 함	11	1.5
상담이나 치료를 받음	9	1.2
직업기술훈련을 받음 (직업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7	1.0
취미나 동아리 활동 참여	7	1.0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6	0.8
군입대 준비를 함	4	0.6
기타	15	2.1
합계	723	100.0

둘째, 추석, 설날 등 명절과 연말 등에 안부인사를 담은 SMS를 발송하여 패널과 꾸준한

연락을 이어나갔다. 일부 패널은 SMS를 확인하고 한국리서치로 연락하여 휴대전화번호 변경, 거주지 변경 등의 근황을 알려주었다.

2) 2차년도 실사과정에서의 패널관리

첫째, 2013년에 이어 실사 관리, 면접원 관리, 패널정보 관리를 함께 하는 패널관리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운데, 특정 패널의 1차년도 조사를 진행한 면접원이 2014년 2차년도 조사를 맡아 실사 중 해당 패널 관리를 진행하고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면접원은 담당 패널에 대한 전화 접촉부터 대면면접조사, 편칭 전 데이터 재확인(검증)으로 이루어지는 실사의 전 과정에서 패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다. 면접원은 실사 시 3차년도 조사의 대략적인 일정 및 패널 접촉 일정을 안내하여 본 조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패널이 인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패널 본인의 연락처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님/집,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 및 집 주소 등 주변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패널 추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의 스마트폰 메신저 ID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패널도 컴퓨터로 스마트폰 메신저에 접속할 수 있어 패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지고, 향후 패널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전담하여 조사 홈페이지와 수신자 부담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답변하며 (Q&A),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패널은 수신자 부담 콜센터를 이용하여 연락처 변경 공지, 조사 문의 등을 할 수 있다.

3) 1차년도 조사에 대한 재조사 및 추가조사 수행

첫째, 1차년도 조사 진행 후, 전체 패널 996명 중, 누락 및 에러 응답으로 인한 재조사 필요 패널은 총 330명 이었다. 재조사 필요자 330명에 대한 재조사 항목은 <표 II-22>와 같다.

표 II-22 패널별 재조사 필요 내용

(단위: 명, %)

재조사 필요 내용	일반 패널		보호관찰 패널	
	패널 수	패널비율	패널 수	패널비율
학업 중단 시기 관련 재조사	96	38.9	47	56.6
가족 관계 에러 관련 재조사	43	17.4	13	15.7
기타 문항 클리닝(친구 수, 학업중단숙려제 등)	108	43.7	23	27.7
합계	247	100.0	83	100.0

이 중 2013년 11월부터~12월까지 재조사를 통해 성공한 패널은 총 310명이며, 나머지 20명이 각각의 사유로 재조사 접촉이 되지 않았다. 재조사 미접촉 사유로는 본인/보호자에 의한 거절, 구치소 수감으로 인한 접촉 불가, 연락 두절 확인을 통한 접촉 불가, 단순 접촉 불가 등이 있다.

표 II-23 패널별 재조사 미접촉 사유

(단위: 명, %)

재조사 미접촉 사유	일반 패널		보호관찰 패널	
	패널 수	패널비율	패널 수	패널비율
본인/보호자에 의한 거절(강력거절 포함)	2	25.0	1	8.3
구치소 수감으로 인한 접촉 불가	—	—	1	8.3
연락 두절 확인을 통한 접촉 불가	1	12.5	3	25.0
단순 접촉 불가(전화 안받음, 착신 정지 등)	5	62.5	7	58.3
합계	8	100.0	12	100.0

재조사 미접촉 20명에 대해서는 2차년도 조사에서 1차년도 재조사 필요자로 별도 구분하였다. 해당 패널이 2차년도 조사 시, 연락이 된 경우 조사 완료 후에 추가 접촉을 통해 재조사를 하였다. 다만 2차년도 조사 접촉 불가자의 경우는 2차년도 조사 종료 후 2014년 10월 패널접촉에서 재조사를 시도하였으며, 1차년도 재조사 당시 강력 거절한 패널은 재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재조사와 별도로 1차년도 주요 문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추가조사를 하였다. 추가조사 대상 내용(문항)은 (1) 1차년도 조사 진행 중 추가된 최근 학업중단 학교명, (2) 복교까지 걸린

시간(월), (3) 복교 학교명(다른 학교로 복학한 경우만 해당)이며, 패널별 추가조사 내용은 <표 II-24>와 같다.

표 II-24 패널별 추가조사 필요 내용

(단위: 명, %)

추가조사 필요 내용	일반 패널		보호관찰 패널	
	패널 수	패널비율	패널 수	패널비율
최근 학업중단 학교명	97	95.1	90	96.8
복교까지 걸린 시간(월)	3	2.9	3	3.2
복교 학교명(다른 학교로 복학한 경우만 해당)	2	2.0	—	—
합계	102	100.0	93	100.0

* 최근 및 최초 학업중단 시기(년월)는 재조사를 통해 996명 모두 응답완료 하였으므로 추가조사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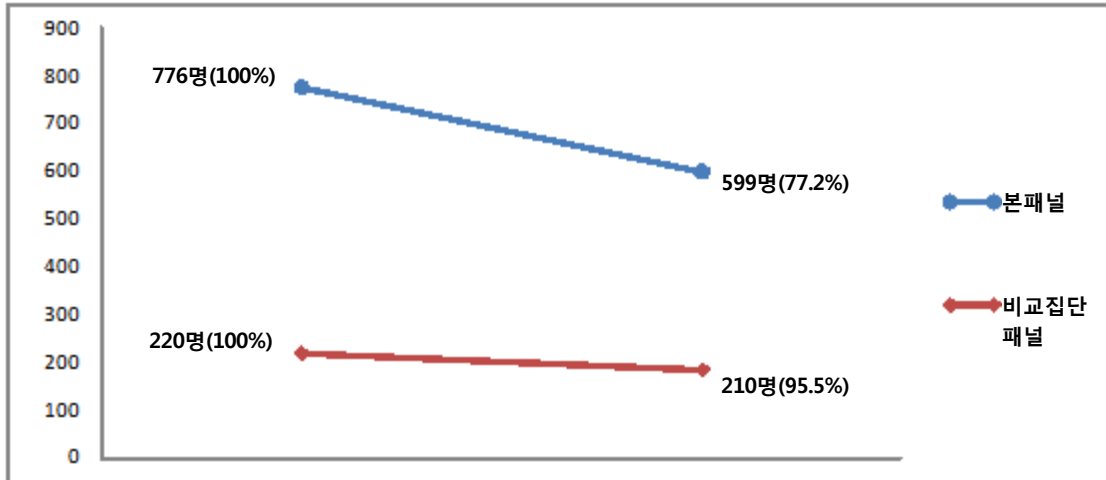
일반 패널은 추가조사가 필요한 패널의 PID를 조사 시작 전, 면접원에게 공지하여 2차년도 조사 진행 시, 연락이 될 경우 본조사와 함께 추가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보호관찰 패널의 경우에는 연락이 되어 본 조사 진행 된 경우, 추후 전화 접촉을 통해 추가조사를 하였으며 다만 2차년도 조사 접촉 불가자의 경우는 2차년도 조사 종료 후 2014년 10월 패널 접촉을 통해 추가조사를 시도하였다.

5. 패널유지 현황 및 이탈패널 분석³⁴⁾

1) 표본유지율

【그림 II-6】과 같이 본 패널의 표본유지율은 77.2%이며 비교집단패널의 표본유지율은 95.5%로 나타났다.

34)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그림 II-6】 패널 유지율

2) 이탈패널분석

(1) 자료수집 방법별 패널 이탈율 분석

2차년도 조사에서 이탈한 패널은 본 패널의 경우 22.8%이다. 일반(개인) 18.7%인데 반해 일반(기관)의 경우는 33.0%로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비교집단 패널의 경우 4.5%로 패널 이탈율이 가장 낮았다(<표 II-25> 참조).

표 II-25

자료수집방법별 패널 이탈율

(단위: 명, %)

패널유형	자료수집 방법	참여 차수		전체
		1·2차 참여	2차 미참여	
본 패널	계	599(77.2)	177(22.8)	776(100.0)
	일반(개인)	449(81.3)	103(18.7)	552(100.0)
	일반(기관)	150(67.0)	74(33.0)	224(100.0)
비교집단 패널	보호관찰	210(95.5)	10(4.5)	220(100.0)

일반(기관) 패널의 경우, 구체적인 기관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6>과 같다. 직업훈련기관 패널 이탈율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검정고시학원 패널 이탈율이 32.4%로 높았다. 대안학교의 패널이탈율은 21.1%로 가장 낮았다.

표 II-26

일반(기관) 패널의 기관별 이탈 현황

(단위: 명, %)

	1·2차 참여	2차 미참여	전체
일반(기관) 전체	150(67.0)	74(33.0)	224(100.0)
직업훈련기관	35(61.4)	22(38.6)	57(100.0)
검정고시학원	100(67.6)	48(32.4)	148(100.0)
대안학교	15(78.9)	4(21.1)	19(100.0)

* 2차년도 조사시 조사 불가자 8명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임.

(2) 패널이탈사유 분석

2차년도 조사를 비성공한 ‘이탈 패널’ 전체 187명 중 ‘전화 안받음’과 ‘강력 거절’이 44명(23.5%)으로 가장 높고, 전화 결번 41명(21.9%), ‘응답 거절’ 28명(15.0%), ‘거주지 불명’ 20명(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패널 전체 177명 중에는 ‘전화 안받음’과 ‘강력 거절’이 44명(24.9%)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화 결번’이 41명(23.2%), ‘응답 거절’이 26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개인) 전체 103명 중에는 ‘강력 거절’이 28명(27.2%)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화 안받음’이 22명(21.4%), ‘전화 결번’이 20명(19.4%), ‘응답 거절’이 19명(18.4%)의 순으로, 일반(기관) 전체 74명은 ‘전화 안받음’이 22명(29.7%)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화 결번’이 21명(28.4%), ‘강력 거절’이 16명(21.6%), ‘응답 거절’ 7명(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집단패널은 ‘거주지 불명’이 7명(70.0%)으로 가장 높았다(<표 II-27> 참조).

표 II-27 세부 비성공 사유별 현황

패널 유형		전체	이탈 패널						
			2차년도 조사 비성공 패널				조사 불가 패널		
			강력 거절	응답 거절	전화 결번	전화 안받음	거주지 불명	소년원/ 교도소	군입대/ 이민/ 유학 등
전체	사례수(명)	187	44	28	41	44	20	2	8
	비율(%)	100.0	23.5	15.0	21.9	23.5	10.7	1.1	4.3
본패널	본패널 전체	사례수(명)	177	44	26	41	44	13	7
		비율(%)	100.0	24.9	14.7	23.2	24.9	7.3	4.0
	일반 (개인)	사례수(명)	103	28	19	20	22	10	4
		비율(%)	100.0	27.2	18.4	19.4	21.4	9.7	3.9
	일반 (기관)	사례수(명)	74	16	7	21	22	3	2
		비율(%)	100.0	21.6	9.5	28.4	29.7	4.1	2.7
비교집단 패널	보호관 찰	사례수(명)	10	0	2	0	0	7	0
		비율(%)	100.0	0.0	20.0	0.0	0.0	70.0	0.0

(3) 이탈패널의 배경변인별 특성

이탈패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년도 조사 본 패널과 이탈 패널의 배경변인별 차이 검증 실시하였다.

<표 II-28>을 보면 본 패널과 이탈패널은 성별, 가정경제수준별, 학업성적 수준에 있어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후 경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탈패널이 본 패널과 다른 특징을 보인 것은 연령대, 가족구성, 최근에 중단한 학교급이다. 즉, 패널이탈이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2014년 현재 고등학생 연령(만 16~18세)이다. 본 패널에서 69.8%였던 연령비율이 이탈패널에서는 60.5%로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학령기 이후(만 19세 이상)연령에서는 이탈이 적어 본 패널에서 26.2%였던 구성비가 37.3%로 높아졌다.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이탈이 가장 많아 구성비가 본 패널에서 59.4%였던 것이 이탈패널에서는 47.5%로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의 패널 이탈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은 한부모 가정 패널이 적었다. 이 때문에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구성비가 이탈패널에서 증가하였다.

표 II-28

이탈패널과 본 패널의 배경변수별 차이

(단위: 명, %)

		본 패널		이탈 패널		계		χ^2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99	100.0	177	100.0	776	100.0	
성별	남학생	354	56.7	90	50.8	444	57.2	3.800
	여학생	245	40.9	87	49.2	332	42.8	
연령대	중학교 학령(만13-15세)	24	4.0	4	2.3	28	3.6	8.748*
	고등학교 학령(만16-18세)	118	69.8	107	60.5	525	67.7	
	학령기 이후(만19세 이상)	157	26.2	66	37.3	223	28.7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56	59.4	84	47.5	440	56.7	32.197***
	한부모가정	190	31.7	49	27.7	239	30.8	
	부모 모두 안계심	53	8.8	44	24.9	97	12.5	
가정경제수준	상	144	24.0	46	26.0	190	24.5	3.884
	중	248	41.4	59	33.3	307	39.6	
	하	207	34.6	72	40.7	279	36.0	
학업성적(1차년도)	상	138	23.0	44	24.9	182	23.5	0.869
	중	134	22.4	34	19.2	168	21.6	
	하	327	54.6	99	55.9	426	54.9	
최근 학업중단 시점	중학교때	125	20.9	52	29.4	177	22.8	5.620*
	고등학교때	474	79.1	125	70.6	599	77.2	
학업중단 사유	개인 사정으로	80	13.4	20	11.3	100	12.9	3.513
	학교 사유	324	54.1	86	48.6	410	52.8	
	대안교육을 원해서	131	21.9	48	27.1	179	23.1	
	문제행동으로	64	10.7	23	13.0	87	11.2	
학업중단 후 경로	혼합형	55	9.2	22	12.4	77	9.9	5.298
	학업형	257	42.9	86	48.6	343	44.2	
	직업형	116	19.4	31	17.5	147	18.9	
	니트형	95	15.9	22	12.4	117	15.1	
	비행형	76	12.7	16	9.0	92	11.9	

이탈패널의 학업중단 관련 특성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학업중단시점과 학업중단 기간이다. 고등학교 때 학업중단 한 패널의 이탈이 많아 고등학교 때 학업중단 한 구성비가 79.1%(본 패널)에서 70.6%(이탈패널)로 낮아졌다. 또한 <표 II-29>에서 학업중단 기간을 비교하

였을 때 이탈패널의 최근 학업중단 후 기간이 본 패널보다 2.4개월, 최초 학업중단 후 기간은 본 패널보다 2.9개월 긴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기간이 긴 청소년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II-29 학업중단 기간('14.9월기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균(개월)	표준편차	T검증값
최근 학업중단후 기간	본패널	599	24.4	9.893	-2.753**
	이탈패널	177	26.8	11.097	
최초 학업중단후 기간	본패널	599	26.3	11.288	-2.904**
	이탈패널	177	29.2	12.929	

* p<.05, ** p<.01, *** p<.001

6. 향후 패널관리 방안³⁵⁾

패널과 직접 관계를 맺는 면접원 관리, 원활한 실사진행을 위한 실사관리, 상시적인 패널 관리 활동 등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널관리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패널관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35)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II-30 패널관리 통합시스템 유형 및 내용

패널관리 통합시스템 구분	내용
실사 관리	- 설문지 배부, 회수, 이관 상황점검 - 각 지역별 사무소간 설문지 이관 처리 - 일별, 주간별, 면접원별 등 실사 진행상황 확인 및 출력 - 패널 정보 검색 및 수정 - 패널별 특이사항 기록
면접원 관리	- 조사에 투입된 면접원 정보(성, 연령, 지역, 연락처 등) - 면접원별 조사 대상 배부 및 회수 상황 확인 점검 - 면접원의 면접 수행 실적 평가 - 조사 진행 시 특이사항 및 면접원별 특이사항 기록 - 신규 면접원 등록
패널정보 관리	- 상시적 패널 관리 활동 지원 - 주소, 전화번호, E-mail 정보검색 - 패널 정보 변동상황 업데이트 - 패널 정보의 수정 이력 관리 - 인포시트 출력 기능

본 조사에서는 효율적인 패널관리 및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패널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첫째, 라포(신뢰) 형성을 위해 면접원이 실사 및 패널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패널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가운데, 응답자를 직접 만나 조사를 진행한 면접원이 패널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패널관리를 전담하도록 한다. 1:1 대면면접조사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각 지역 실사사무소 팀장 및 수퍼바이저가 패널관리를 맡는다.

둘째, 설문지 관련 재조사 및 정기 패널접촉은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직접 담당한다. 차수간 설문의 차이 확인 또는 재조사와 같은 설문 문항에 대한 관리와 정기적으로 CAMI/CAWI/CATI를 통해 진행되는 패널접촉은 전담 연구원을 두어 패널관리의 목적(조사접촉, 데이터관리 등)에 따라 실사팀과 연구부의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표 II-31>과 같다.

표 II-31 패널관리 진행방법

진행 방법	진행 대상자	진행 내용
웹조사 (CAWI)	패널 정보 중 이메일 계정 주소가 존재하는 패널	패널 이메일 계정 주소로 패널 접촉을 위한 안내 및 접촉 설문 웹 링크 전달
모바일 조사 (CAMI)	패널 정보 중 본인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하는 패널	패널 휴대전화 번호로 SMS(문자)를 발송하여 패널 접촉 안내 및 접촉 설문 모바일 링크를 전달
전화 조사 (CATI)	패널 정보 중 본인 휴대전화 및 그 외 집 전화,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친구, 기타 연락처가 존재하는 패널	연락 가능한 패널 연락처를 본인 휴대전화부터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패널 연결 성공 시, 우선으로 패널 접촉 설문 진행

셋째, 패널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한다. 패널 전용 홈페이지는 조사 Q&A 응답, 공지사항 전달 역할을 하는데, 3년간 진행되는 패널임을 감안할 때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며, 라포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패널 추적을 위해 주변인 연락처를 활용한다. 본 조사 패널의 경우 거주지가 불확실하거나 연락처 변경이 기타 조사의 패널에 비해 잦기 때문에 실사 시 패널 본인의 연락처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님/집,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 및 집 주소 등 주변인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패널 추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인 연락처 또한 개인 휴대전화 번호 외에 카카오톡 ID를 수집함으로써, 개인 휴대전화의 변동이 있을 시 카카오톡(SNS 메신저)을 이용해 접촉하고자 한다(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어도 카카오톡 ID는 변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2014년 실사 종료 후, 총 2회에 걸쳐 정기 패널접촉을 실시함으로써 2015년 3차 조사 실사 시작 전 연락처 확인을 실시하여 연락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패널과 꾸준한 연락을 이어나간다. 정기 패널접촉의 세부 일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다. 향후 패널관리 일정(안)은 <표 II-32>와 같다.

표 II-32 향후 패널관리 일정(안)

진행 차수	진행 기간	진행 방법	비고
1차 패널접촉	2014년 12월 1주 ~ 12월 3주	모바일 및 이메일 접촉(CAWI+CAMI)	답례품 발송
	2014년 12월 4주 ~ 12월 5주	추가 전화 접촉(CATI)	
2차 패널접촉	2015년 4월 1주 ~ 4월 3주	모바일 및 이메일 접촉(CAWI+CAMI)	답례품 발송
	2015년 4월 4주 ~ 4월 5주	추가 전화 접촉(CATI)	
재조사	필요 시 진행	전화 접촉 전 재조사 관련 SMS 발송	담당 연구원이 직접 진행
		개별 패널 전화 접촉	

* 세부 패널관리 활동 및 일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함.

제 3 장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1. 응답자의 특성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변화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경험과 인식의 변화
4.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
6. 학업중단 이후 경로의 변화

제 III 장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1. 응답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변화양상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2차 년도에 추가된 신규문항을 분석한다. 해당 주제별로 먼저 1차년도 조사와 2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한 후 2차년도 신규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덧붙이고자 한다.

학업중단과 관련한 현황, 생활 경험과 인식,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상황, 부모와 친구 등의 환경적 특성, 일상생활 및 가치관, 비행과 관련한 경험 등에 관한 문항들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조사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문항을 중심으로 1차 시기와 2차 시기의 분포 정도나 평균 등의 비교를 통해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제영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문항을 같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의 경로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삶의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표 I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년도 조사에서 자료를 제공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776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2차 년도에도 참여한 청소년은 599명으로 77.2%가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모두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장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친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료 분석은 두 차례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이 장에서 1, 2차년도 변화에 대한 분석은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이, 2차년도 현황에 대한 분석은 조아미(명지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두 연구자의 글을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편집·수정·보완하였다.

표 III-1 1차년도 및 2차년도 조사 참여자 수

(단위: 명, %)

구분	명	%
1차 + 2차 모두 참여	599	77.2
2차 미참여	177	22.8
계	776	100.0

1·2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전체 응답자 599명(100.0%) 중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354명(59.1%)이고 여자 청소년은 245명(40.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등학교 연령대(만 16~18세)가 418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 19~20세 157명(26.2%), 중학교 연령대(만 14~15세) 24명(4.0%)의 순이었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많고, 고등학교 이상의 연령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이 5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한부모 가정 30.4%, 부모가 모두 안계신 가정이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구조적 결손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9.4%,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1.6%,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8.9%였다. 부모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 고졸 이하가 50.8%(부), 54.3%(모)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업중단 당시의 성적을 살펴보면, 상이었다는 응답이 23%, 중 22.4%, 하 54.6%로 각각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당시에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가 75.5%로 가장 많았고 1~2회 24.4%, 3회 이상 0.2%인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후 이사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보다는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많지만, 전혀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하다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24.5%에 달했다.

표 III-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차

(단위: 명, %)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99	100.0
성별	남자	354	59.1
	여자	245	40.9
연령	만14~15세	24	4.0
	만16~18세	418	69.8
	만19~20세	157	26.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55.4
	한 부모가정	182	30.4
	부모 모두 안계심	85	14.2
가정경제수준*	상	116	19.4
	중	249	41.6
	하	233	38.9
부모학력(아버지)*	고졸 이하	304	50.8
	초대졸 이상	178	29.7
부모학력(어머니)*	고졸 이하	325	54.3
	초대졸 이상	157	26.2
학업성적	상	138	23.0
	중	134	22.4
	하	327	54.6
이사경험	없음	452	75.5
	1~2회	146	24.4
	3회 이상	1	0.2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17	2.8
	건강하지 못하다	130	21.7
	건강한 편이다	345	57.7
	매우 건강하다	107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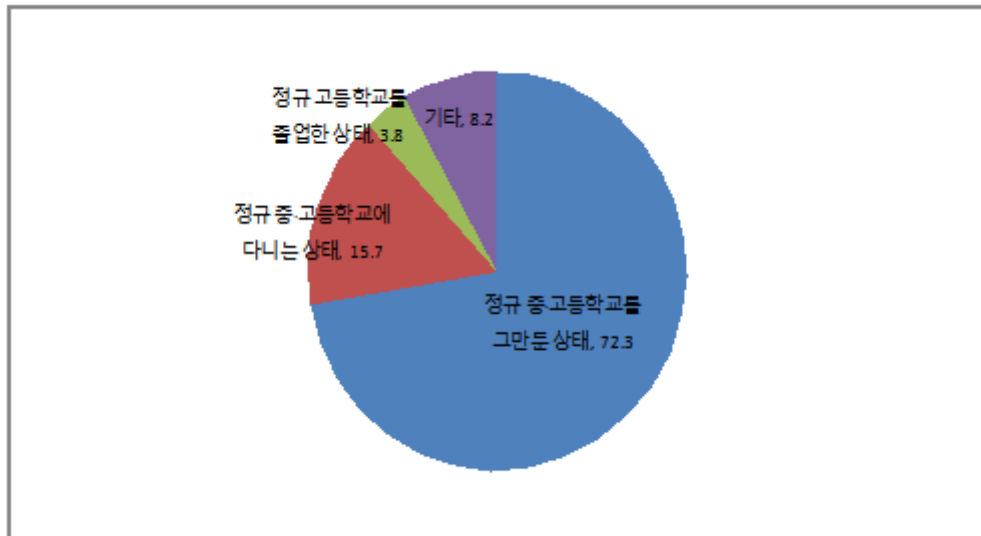
* 미응답자 제외.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변화

1) 현재 학업 상태

응답자의 학업상태는 중단 후 복교나 재중단 등으로 수시로 변하고 있다. 2차년도 조사 당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재 학업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599명 중에서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가 72.3%로 가장 많았고,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상태는 15.7%,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는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부분이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이들 중 일부만 정규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I-1】 현재 학업 상태(2차) (N=599, 단위: %)

2) 학교복귀 경험

1차년도 조사에서는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 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2차년도 조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의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학교 복귀를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복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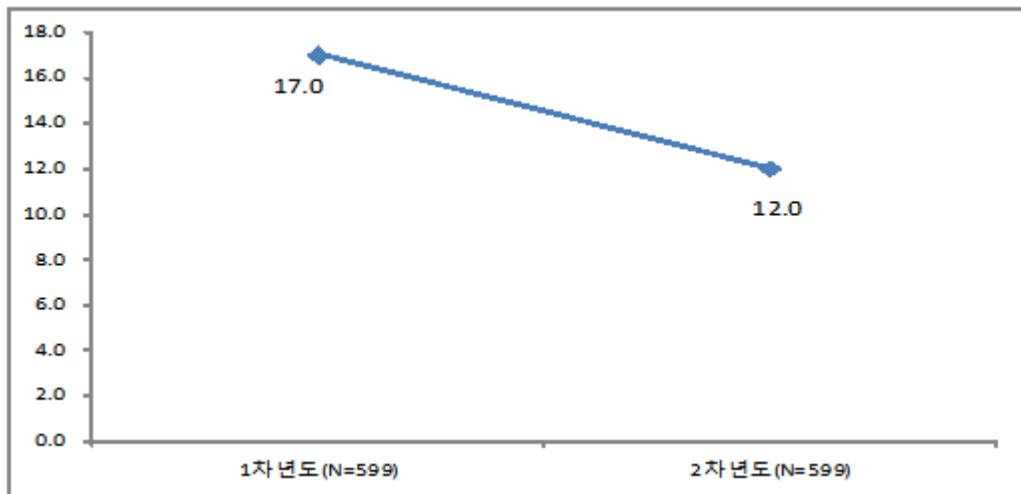
먼저 1차년도 조사에서는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복귀한 경험을, 2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학교에 복귀한 경험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의 복교 경험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16.9%가 전체 599명 가운데 72.1%에 달하는 432명은 학교에 복교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차년도에는 12.2%에 복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II-4> 참조). 즉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학교 복교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두 해의 복교 비율의 변화를 바탕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표 III-4>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학교에 복교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III-3 시기별 복교율

구 분	N	MEAN	SD	t
1차년도	599	0.17	.37	2.22*
2차년도	599	0.12	.33	

* $p < .05$



【그림 III-2】 시기별 복교율 (단위: %)

복교 경험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시기별 복교경험에 관한 교차표를 <표 III-4>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599명 가운데 72.1%에 달하는 432명이 전혀 복교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두 해에 모두 복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인 7명에 불과하였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복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94명과 66명으로 15.7%,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에 복교한 경험이 없으며, 26.7%가 1차년도 또는 2차년도에 복교한 경험이 있었고, 두 해 모두 복교를 시도한 학생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에 복교한 경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시기별 복교 경험의 분포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없음	있음	계
1차년도	없음	432(72.1)	66(11.0)	498(83.1)
	있음	94(15.7)	7(1.2)	101(16.9)
	계	526(87.8)	73(12.2)	599(100.0)

* 괄호안의 백분율은 전체 응답자(599명) 기준임.

(2) 복교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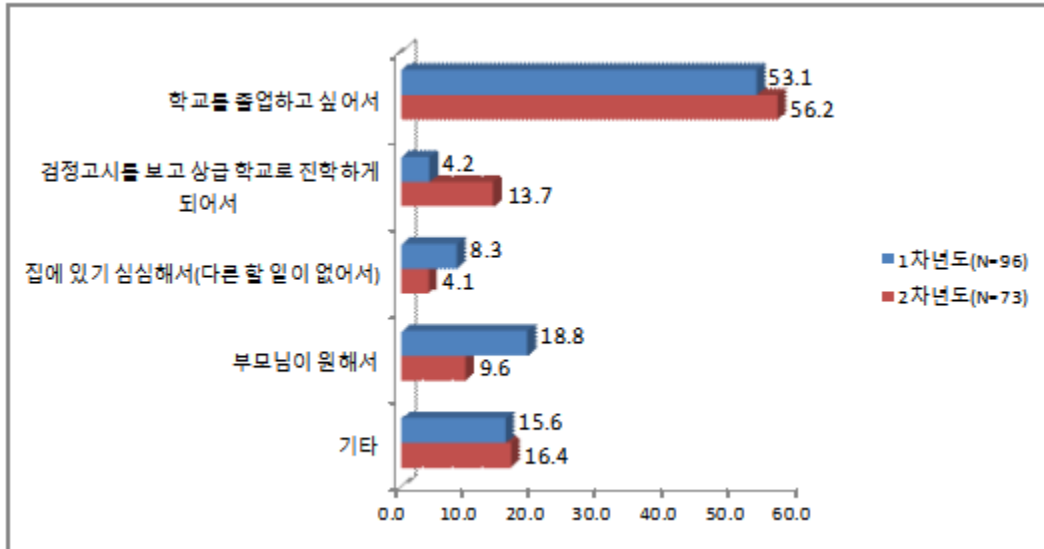
학교에 복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교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응답 분포는 <표 III-5>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학교에 복교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학교를 졸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에는 부모님이 원해서 복교하였다는 응답이 18.8%로 학교 졸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차년도에는 그 비율이 9.6%로 상당히 감소한 반면, 검정고시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복교 이유 변화

(단위: 명,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51(53.1)	41(56.2)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4(4.2)	10(13.7)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8(8.3)	3(4.1)
부모님이 원해서	18(18.8)	7(9.6)
기타	15(15.6)	12(16.4)
계	96(100.0)	73(100.0)

* '기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둔 것이 후회 되서' 등을 포함함.



【그림 Ⅲ-3】 복교 이유 변화 (단위: %)

(3) 복교 시 학교의 이동성

①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이 복교하고자 할 때 마주하는 중요한 문제는 이전에 재학 중이던 학교로 복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1차 년도에 복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27.7%는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교한 반면, 2차 년도에는 19.2% 만이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교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6> 참조). 이는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교하기 보다는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Ⅲ-6 종전 학교로의 복교 여부 (단위: 명,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전에 다녔던 학교	28(27.7)	14(19.2)
다른 학교	73(72.3)	59(80.8)
계	101(100.0)	7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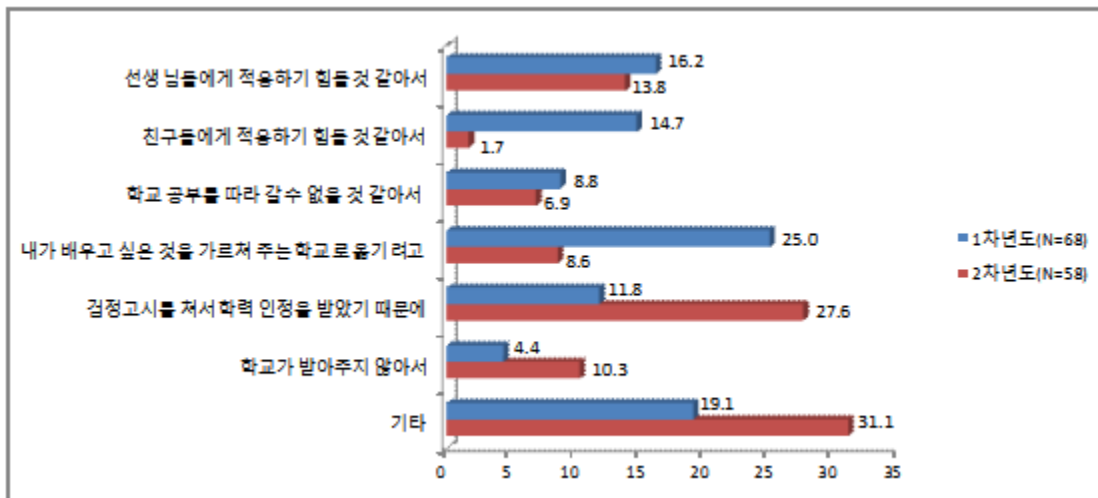
종전에 다니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의 복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1차 년도에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학교를 선택한 비중이 30.9%에 달한 반면, 2차 년도에는 15.5% 수준에 불과하였다(<표 III-7> 참조).

표 III-7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변화

(단위: 명,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11(16.2)	8(13.8)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10(14.7)	1(1.7)
학교 공부를 따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6(8.8)	4(6.9)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17(25.0)	5(8.6)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8(11.8)	16(27.6)
학교가 받아주지 않아서	3(4.4)	6(10.3)
기타	13(19.1)	18(31.1)
계	68(100.0)	58(100.0)



【그림 III-4】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 변화 (단위: %)

즉 학업중단 이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때에는 종전에 다니던 학교로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교사나 친구 관계 때문이었지만,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교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교사나 친구관계는 예전처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2차 년도에는 학업중단 이후 검정고시 등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학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교문제를 해결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교 복교와 관련한 경험의 변화 양상을 요약하면, 우선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약 3/4 정도는 학교에 복교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학업중단 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에 복교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복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복교를 시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규교육기관을 졸업하고자 하는 희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차 년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던 부모님이 원해서 복교하였다는 비율은 2차 년도에 상당히 감소한 반면 검정고시를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복교를 경험한 청소년들 가운데 종전에 다니던 학교로 복교한 비율은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더 낮게 나타났는데, 종전에 다니던 학교로 복교하지 않은 이유가 1차 년도에는 학교에서의 교사와 친구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나, 2차 년도에는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종전에 다니던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② 종전 학교와 복교 학교의 유형 변화

2차년도 조사에서 복교한 청소년은 총 73명이다. 이들이 종전에 다니던 학교 유형과 복교한 학교 유형을 비교해 보면, 중학생의 경우 일반고로 복교한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17.9%, 특목고·자율고가 14.3%, 방통고·대안학교 등 기타학교 10.7%, 특성화고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다시 중학교에 복교한 경우도 있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에 복교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목고를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도 있어서 중학교 시기의 학업중단은 다양한 이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단한 청소년 중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복교가 50%로 가장 많고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복교한 경우가 36.4%, 대안학교 등 기타학교가 9.1% 순으로 많았고 자율고 복교는 4.5%였다. 일반고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절반 정도가 특성화고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성화고를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 73.9%가 특성화고에 복교하였으며 17.4% 만이 일반고로 이동하였으며 대안학교 등 기타 학교를 택한 경우가 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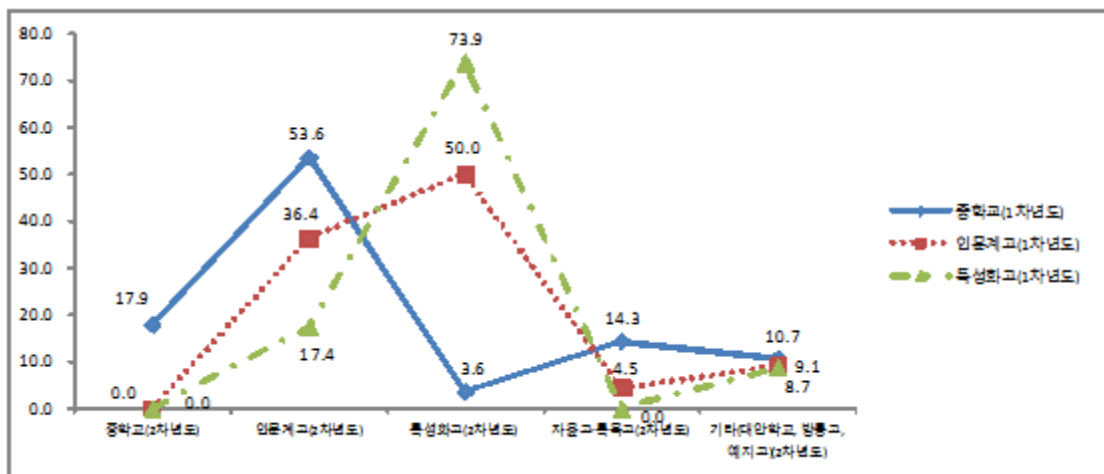
인문계 고등학교중단의 경우,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 계열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8

최근 학업중단 학교 유형과 복교 학교 유형 비교

N=73, (단위: 명,%)

구분		2차년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	기타 (대안학교, 방통고, 예지고)	계
1차년 도	중학교	5(17.9)	15(53.6)	1(3.6)	4(14.3)	3(10.7)	28(100.0)
	일반고	0(0.0)	8(36.4)	11(50.0)	1(4.5)	2(9.1)	22(100.0)
	특성화고	0(0.0)	4(17.4)	17(73.9)	0(0.0)	2(8.7)	23(100.0)
	계	5	27	29	5	7	7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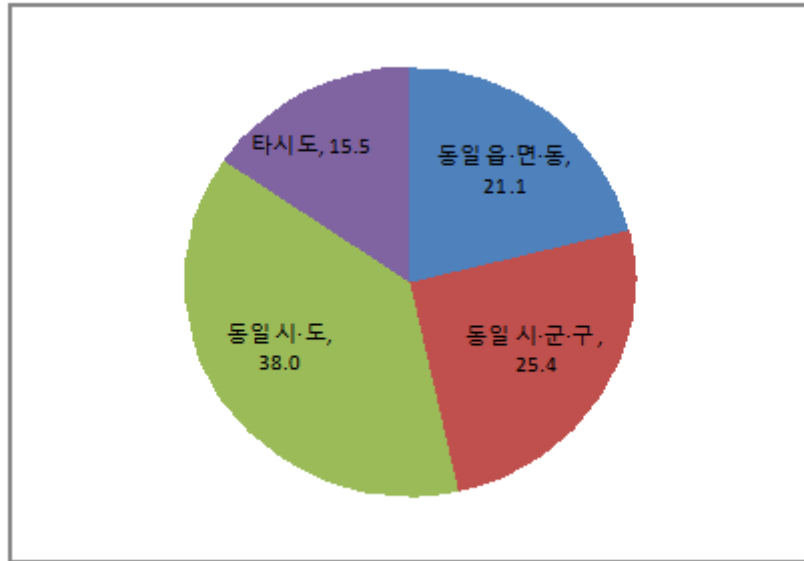


【그림 III-5】 최근 학업중단 학교 유형과 복교 학교 유형 비교 (단위: %)

③ 종전 학교와 복교 학교의 지역적 차이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이 최근 학업을 중단한 학교와 최근 복교한 학교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III-6】과 같다. 복교한 학교가 종전에 그만 둔 학교와 동일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21.1%, 동일 시군구에 있는 학교가 25.4%였다. 동일 시도내에 있는 학교로 복교하는

경우가 38.0%로 비교적 먼 거리로 복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동일 시도가 아닌 타시도에 있는 학교로 복교하는 경우가 15%로 적지 않았다.



【그림 III-6】 종전 학교와 복교 학교의 지역적 차이 (N=71, 단위: %)

④ 복교 이후 학교생활 만족도(2차 추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 이후 학교생활 만족도는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복교 이후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2.75(SD=.89)로 청소년들은 복교 이후 학교생활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I-9> 참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 이후 생활만족도를 배경변수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비교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만 19~20세 집단과 만 16~18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만 19~20세 청소년이 만 16~18세의 청소년보다 복교 이후 학교생활에 더 만족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성적의 경우,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복교 이후 학교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III-9

복교 이후 학교생활 만족도 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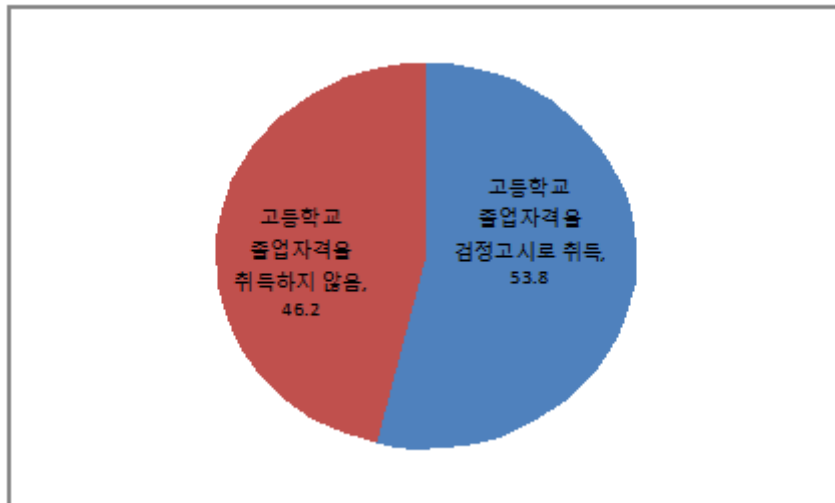
		N	MEAN	SD	t/F	p	Tukey
전체		73	2.75	.89			
성 별	남 자	42	2.71	1.04	-.463	.645	
	여 자	31	2.81	.65			
연 령	만14~15세	6	2.67	.51	3.234	.045*	만19~20세 > 만14~15세, 16~18세
	만16~18세	64	2.70	.90			
	만19~20세	3	4.00	.0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46	2.85	.84	1.515	.227	
	한부모가정	21	2.48	.92			
	부모 모두 안계심	6	3.00	1.09			
가정 경제 수준	상	12	2.50	1.00	.656	.522	
	중	33	2.85	.79			
	하	27	2.74	.98			
학업성적	상	20	3.15	.67	3.486	.036*	상 > 하
	중	9	2.89	.60			
	하	44	2.55	.97			
학업종단 시점	초·중학교때	28	2.61	.91	-1.104	.273	
	고등학교때	45	2.84	.87			
학업종단 기간	1년미만	39	2.69	.95	1.650	.199	
	1년이상~2년미만	29	2.93	.79			
	2년이상	5	2.20	.83			
학업종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7	2.86	.90	.193	.901	
	학교사유	42	2.69	.86			
	대안교육을 원해서	16	2.88	.80			
	문제행동으로	8	2.75	1.27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32	2.69	.89	.385	.764	
	중소도시	22	2.73	.98			
	읍면지역	9	3.00	.70			
	기타	5	3.00	1.22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24	2.71	.90	.081	.922	
	중규모(500~1,000명 미만)	25	2.76	.87			
	소규모(500명 미만)	12	2.83	.83			

* p<.05

3) 검정고시

①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자격 취득여부(2차 추가)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 둔 상태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청소년이 53.8%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이 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라고 해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의 고등학교 졸업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7】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2차) (N=599, 단위: %)

이것을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검정고시로 취득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14~15세 집단보다는 만16~18세 집단이나 만 19~20세 집단의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가족구성에 따라서는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부모가 모두 안 계신 집단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표 III-10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단위: 점)

		N	MEAN	SD	t/F	Tukey
전 체		433	0.54	.50		
성 별	남 자	263	0.51	.50	-1.689	
	여 자	170	0.59	.49		
연 령	만14~15세	17	0.18	.39	1.189**	만16~18세 만14~15세 만19~20세 만14~15세
	만16~18세	299	0.55	.50		
	만19~20세	117	0.57	.5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32	0.57	.50	0.735	
	한부모가정	134	0.55	.50		
	부모 모두 안계심	67	0.40	.49		
가정 경제 수준	상	90	0.63	.49	0.519	
	중	168	0.52	.50		
	하	175	0.51	.50		
학업성적	상	93	0.69	.47	2.247***	상)하, 중)하
	중	98	0.61	.49		
	하	242	0.45	.50		
복학여부	있음	9	0.00	.00	3.306***	
	없음	424	0.55	.50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81	0.43	.50	-2.129*	
	고등학교때	352	0.56	.50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174	0.49	.50	0.306	
	1년이상~2년미만	207	0.56	.50		
	2년이상	52	0.60	.50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57	0.58	.50	0.584	
	학교사유	236	0.49	.50		
	대안교육을 위해서	91	0.65	.48		
	문제행동으로	49	0.51	.51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200	0.62	.49	1.016**	대도시)중소도시, 대도시)읍면지역
	중소도시	112	0.45	.50		
	읍면지역	81	0.44	.50		
	기타	7	0.71	.49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153	0.70	.46	3.732***	대규모)소규모, 대규모)중규모
	중규모(500~1,000명 미만)	152	0.44	.50		
	소규모(500명 미만)	84	0.38	.49		

* p<.05, ** p<.01, *** p<.001

상이나 중인 집단이 하인 집단에 비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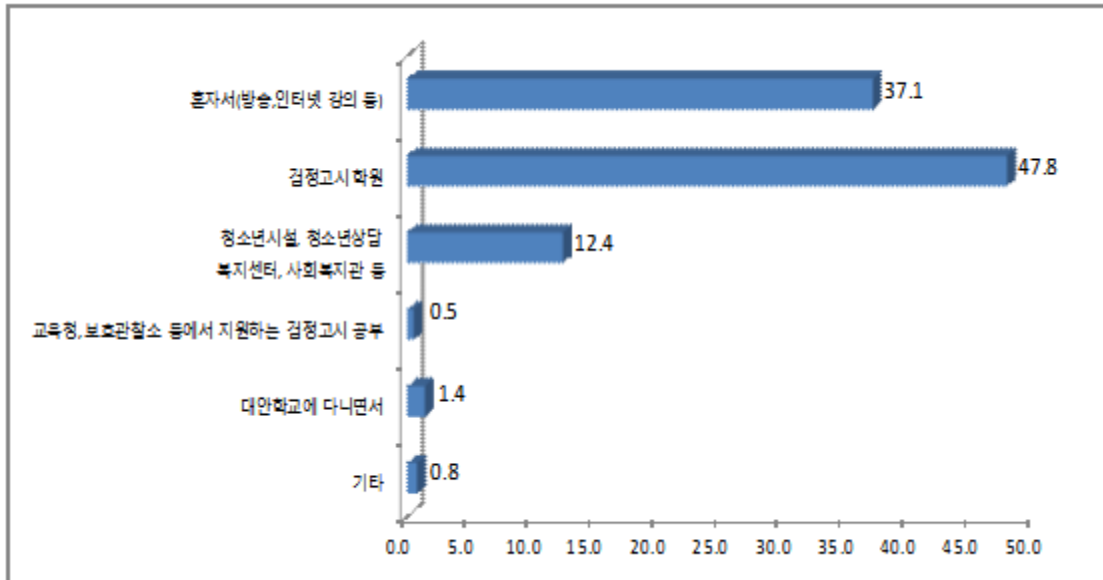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시점, 학교지역, 학교규모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학업중단시점이 고등학교인 청소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인 청소년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학교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학교의 청소년이 중도도시나 읍면지역 학교의 청소년보다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을 많이 하였다. 특이한 것은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기타 지역 청소년의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이 높은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학교일수록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교규모가 큰 학교에 다닌 청소년일수록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 둔 상태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했는지를 살펴보면, 평균 0.54, 표준편차 0.50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자격 취득여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0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1점을 부여한 것을 고려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학업성적, 복학여부, 학업중단시점, 학교소재지, 학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4~15세의 청소년보다는 만16~18세의 청소년이나 만 19~20세의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상이나 중인 집단의 청소년이 하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복학여부별로는 복학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있는 청소년보다, 학업중단시점별로는 고등학교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을 많이 하였다. 또한 학교소재지별로는 대도시에 소재한 학교의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소재 학교의 청소년보다, 그리고 학교규모별로는 대규모 학교의 청소년이 중규모나 소규모 학교의 청소년보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검정고시 공부 방법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어떻게 공부하였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III-8】과

같다. 검정고시 학원을 준비하는 청소년이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자서 준비한 청소년이 37.1%로 많았다. 청소년시설 등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12.4%로 나타났다.



【그림 Ⅲ-8】 검정고시 공부 방법(2차) (N=364, 단위: %)

4) 재중단 경험(2차 추가)

(1) 학업중단자 및 복교자의 재중단을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599명의 응답자 중에서 16명(2.7%)가 다시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 이후 복교자는 73명이었는데 복교자 중 재중단율은 21.9%로 나타났다. 추후 재중단의 동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복교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집단이 학업중단자의 3% 선에서 발견되고 있다.

표 III-11 학업중단자 및 복교자의 재중단율: 2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재중단경험 있음 (사례수,명)	재중단율(%)
전 체	599	16	2.7
복교자	73	16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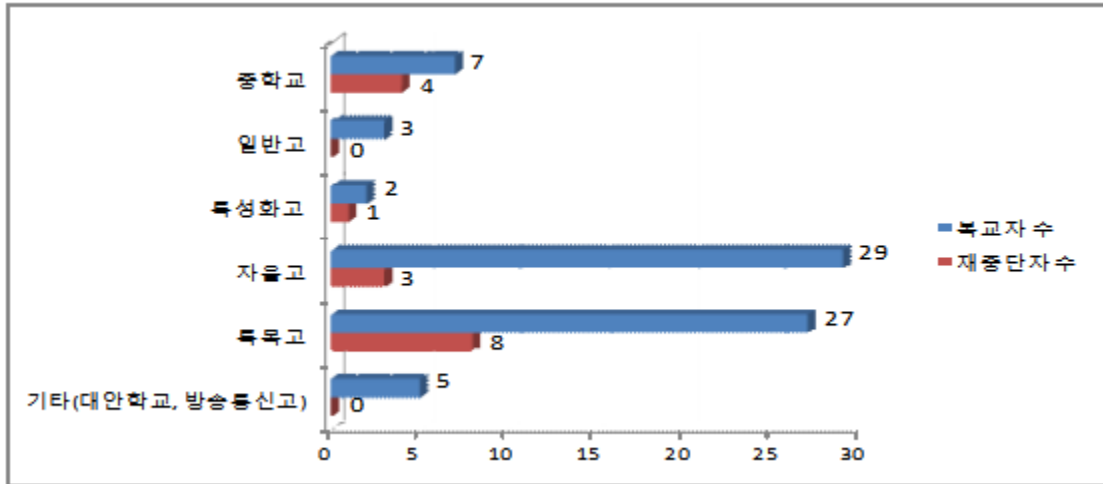
(2) 학교유형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수

복교학교 유형별 재중단율 살펴보면 중학교와 특목고의 경우 이 유형의 학교에 복교한 청소년의 비율은 적지만, 그들 중에서 다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없었다. 그러나 일반고의 경우, 27명이 복교했으나 그 중에서 29.6%인 8명이 다시 학업을 중단했고, 특성화고는 29명이 복교했으나 그 중에서 10.3%인 3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자율고의 경우, 2명이 복교해서 50%인 1명이, 그리고 기타의 경우 7명이 복교했으나 57.1%인 4명이 다시 학업을 중단했다. 자율고와 대안학교 등 기타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사례수가 워낙 적어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복교가 재중단률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표 III-12 학교유형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수: 2차

(단위: 명, %)

구 분	복교자 수(A)	재중단자 수(B)	재중단율(B/A)
	사례수(명)	사례수(명)	
전체	73	16	21.9
중학교	5	0	0.0
일반고	27	8	29.6
특성화고	29	3	10.3
자율고	2	1	50.0
특목고	3	0	0.0
기타(대안학교, 방송통신고)	7	4	57.1



【그림 III-9】 학교유형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수(2차) (단위: 명)

(3) 복교 시기별 재중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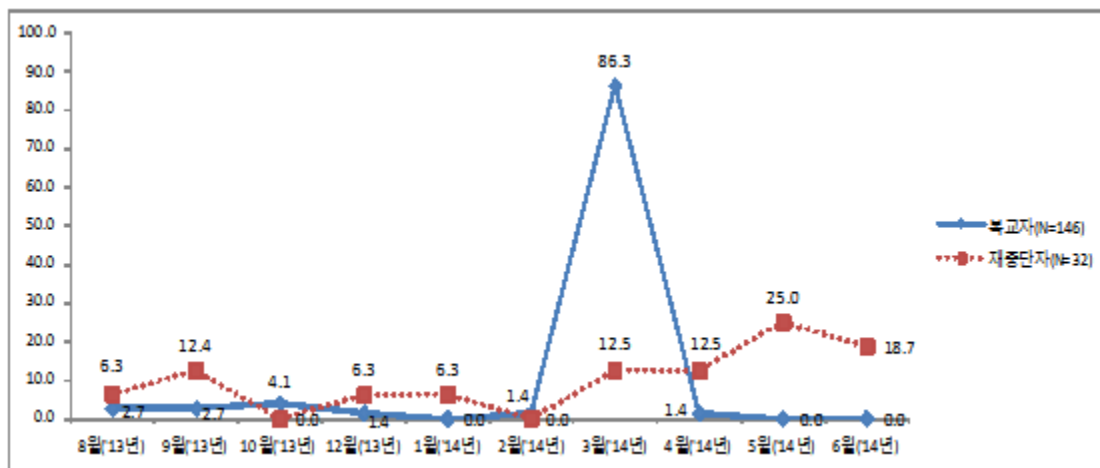
① 시기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그림 III-10】을 보면 지난 조사 이후 청소년들의 복교는 2013년 2학기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다가 2014년 3월 신학기에 복교자의 86.3%가 집중적으로 복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학은 신학년 신학기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이들의 재중단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일어났다.

표 III-13 시기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단위: 명, %)

시 기		복교자		재중단자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73	100.0	16	100.0
2013년	8월	2	2.7	1	6.3
	9월	2	2.7	2	12.4
	10월	3	4.1		
	12월	1	1.4	1	6.3
2014년	1월			1	6.3
	2월	1	1.4		
	3월	63	86.3	2	12.5
	4월	1	1.4	2	12.5
	5월			4	25.0
	6월			3	18.7



【그림 III-10】 시기별 복교자 및 재중단자 (단위: %)

② 시기별 재중단을

복교했던 16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재중단한 시기를 살펴보면, 2014년 2월까지 복교청소년은 9명인데 이중에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5명이었다. 이것은 55.6%의 청소년이 다시 학교를 중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III-14> 참조). 이것은 전체 복교청소년 73명 중에서 16명이

다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인 21.9%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3년 8월에 복교한 2명 중에서 1명은 복교하자마자 다시 학교를 그만두었다(<표 III-15> 참조). 2013년 8월과 9월에 복교한 청소년 4명 중에서 3명은 8, 9월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교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복교의 성공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14년 3월 이후 복교한 64명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복교 시점도 복교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향후 중단 후 복교까지의 소요기간과 재중단여부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III-14 재중단자의 지난 1년간 복교시기에 따른 재중단을* (단위: 명, %)

복교시기	복교자수(A)	재중단자수(B)	재중단율(B/A)
전체	73	16	21.9
2013학년도 복교자	9	5	55.6
2014학년도 복교자	64	11	17.1

* <표 III-13>을 기초로 재 작성한 것임.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경험과 인식의 변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른 다양한 생활 경험을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과 일상생활의 변화,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생활 경험 변화

먼저 청소년의 생활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의 생활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1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한 <표 III-15>를 보면 1, 2차 년도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은 대안학교 경험, 취업 등 전일제 노동경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거나 노는 일,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다. 통계적으로 차이 있는 경험만을 뽑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II-11]인데, 이를

보면 대안학교 경험,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일, 정신건강 등 건강문제로 인한 치료나 입원 경험 등 대부분의 경험 비율이 줄었다. 특히 상담·정신과 치료경험이 15%에서 7%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한데 학업중단 후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에 의존하는 일이 줄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받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학업중단기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들의 노동경험은 증가하고 있다. 전일제 노동이 45%에서 57%로 증가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5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

(N=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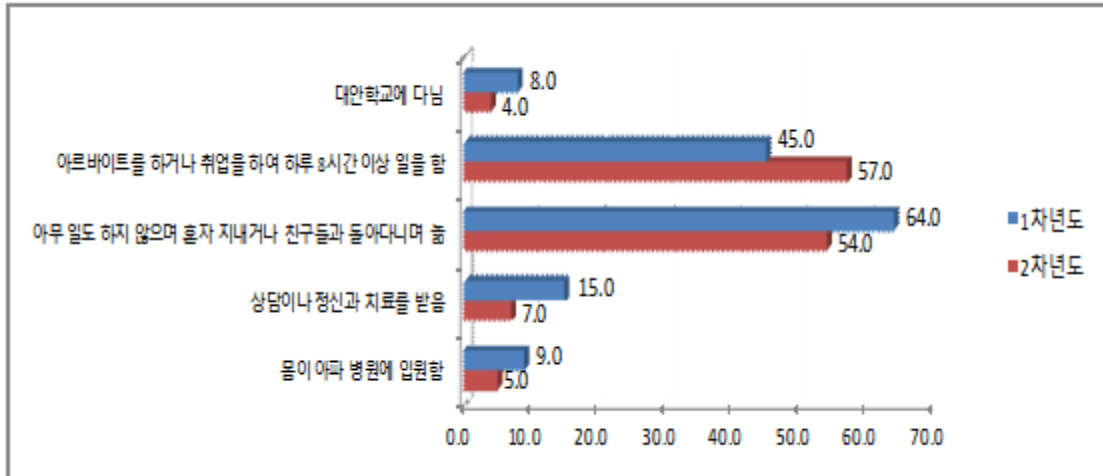
구 분	시기	1차 조사시 경험		T주1)
		MEAN	SD	
복학해서 학교에 다님	1차년도	0.21	.40	1.443
	2차년도	0.18	.38	
대안학교에 다님	1차년도	0.08	.26	3.604***
	2차년도	0.04	.19	
검정고시 공부를 함	1차년도	0.62	.48	0.563
	2차년도	0.61	.48	
직업기술을 배움	1차년도	0.17	.37	0.582
	2차년도	0.16	.36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1차년도	0.45	.49	-5.686***
	2차년도	0.57	.49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1차년도	0.64	.48	4.079***
	2차년도	0.54	.49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함	1차년도	0.16	.37	1.388
	2차년도	0.14	.34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1차년도	0.15	.35	5.457***
	2차년도	0.07	.24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1차년도	0.09	.28	3.378***
	2차년도	0.05	.20	

* 주: 1) * $p<.05$, ** $p<.01$, *** $p<.001$

2) 일반 학업중단 패널에 대한 분석 결과임 (1차 및 2차 모두 참여자 599명).

3) 각 항목별 경험 여부에 대해 경험 없음을 0, 경험 있음을 1로 변환한 후 차이검증(T검증)을 실시하였음

4)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 중 1차와 2차 모두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음.



【그림 III-11】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 (N=599, 단위: %)

2)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이다. 우선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신이 쓸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 경험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와 진학 등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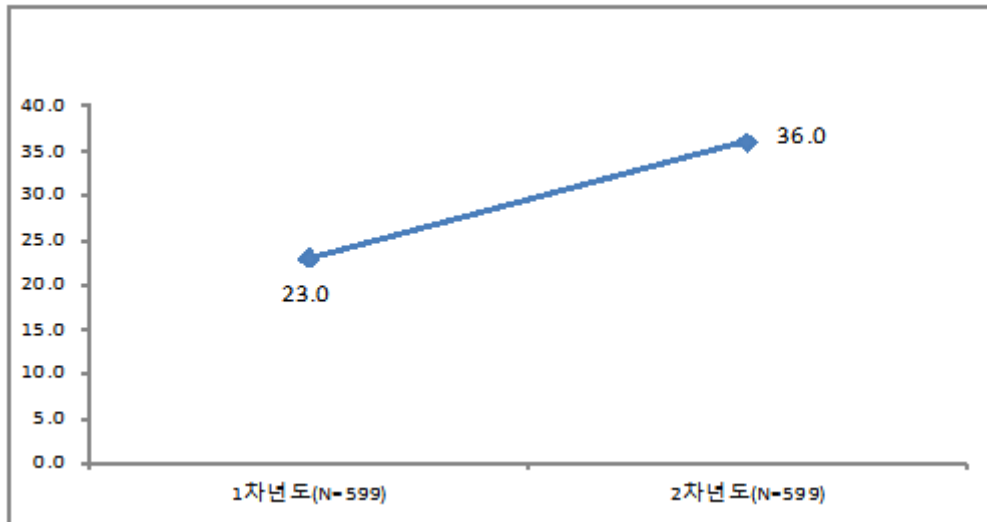
(1) 참여율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3%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6> 참조). 안선영 외(2013)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에 재학 중인 10,0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비율은 조사 당시까지의 누적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질문임을 감안할 때, 조사 당시 시점에서의 아르바이트 비율은 이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와 <표 III-16>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6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참여율의 변화

시 기	N	MEAN	SD	t
1차년도	599	.23	.42	-5.687*
2차년도	599	.36	.48	

* $p < .05$



【그림 Ⅲ-12】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참여율의 변화 (단위: %)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는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1차년도에는 599명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38명이 조사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35.6%에 해당하는 21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시기별 참여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Ⅲ-17> 참조).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599명 가운데 55.4% 수준이었으며, 두 시기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년도 조사 시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다가 2차년도 조사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인 반면, 1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 2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9.0%로 학업중단 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17> 참조).

조사 시점까지 혹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한 조사와 달리 본 조사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조사 시점에서
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Ⅲ-17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율 교차분석

(단위: 명, %*)

구 분		2차년도		
		하고 있지 않음	하고 있음	계
1차년도	하고 있지 않음	332(55.4)	129(21.5)	461(77.0)
	하고 있음	54(9.0)	84(14.0)	138(23.0)
	계	386(64.4)	213(35.6)	599(100.0)

* 주: 1) $\chi^2(df) = 50.129(1), p < .001$

2) 괄호안의 백분율은 전체 응답자(599명) 기준임.

(2) 참여 직종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Ⅲ-18> 참조). 1차년도의 경우 패스트푸드
점과 같은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서의 서빙, 카운터, 배달 등의 일을 하는 비율이 63.8%에
달한 반면, 2차년도에는 그 비율이 43.7%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일반 상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점원으로 일하거나 건설현장 및 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무보조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도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더
높게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1차년도 아르바이트 직종에 비해 2차년도
응답에 더 다양한 직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년도 응답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식당이나
출장부페 등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차년도에는 8.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Ⅲ-18>에서 기타 항목으로 처리된 직종 가운데 2차년도에 나타난 것으로 퀵서비스
배달, 운동코치나 사범, 오토바이나 자동차 정비 엔지니어, 네일아트,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던 직종의 범위를 벗어나 약간의 훈련 또는 교육을 통해 성인들의 직업 영역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8 아르바이트 직종³⁶⁾의 변화 (단위: 명,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카운터/서빙(카페, 게임방, 노래방, 만화방 등)	15(10.9)	27(12.7)
서빙/카운터/배달(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중국집 등)	73(52.9)	66(31.0)
일반상점 및 편의점 점원	15(10.9)	34(16.0)
건설현장 및 공장 노동	5(3.6)	15(7.0)
주유소 주유원	2(1.4)	1(0.5)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3(2.2)	3(1.4)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2(1.4)	8(3.8)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2(1.4)	3(1.4)
식당, 출장뷔페 등 요리사	0(0.0)	18(8.5)
기타	21(15.2)	38(17.8)
계	138(100.0)	213(100.0)

(3) 근로시간 및 급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작업 강도를 살펴보면(<표 III-19> 참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주당 근로일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각각 4.91일, 4.81일로 거의 5일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근로시간도 7.57시간과 7.95시간으로 하루 8시간에 가깝게 일을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 시급의 경우도 1·2차년도 모두 6,000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강도 및 시급에 있어 두 시기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6) 1차년도 조사항목 중 빈도가 적은 것은 삭제하고 기타 응답 등을 참조하여 응답빈도가 많은 것을 포함시켰음.

표 III-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작업 강도 및 시급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주당 근로일수(일)	1차년도	138	4.91	1.62	.576
	2차년도	213	4.81	1.54	
일일 근로시간(시간)	1차년도	138	7.57	2.88	-1.251
	2차년도	213	7.95	2.62	
시급(원)	1차년도	138	6072.5	4819.8	.262
	2차년도	213	5951.1	3154.4	

3) 진학·진로 관련 경험

(1) 지역사회에서의 성인 멘토 경험 여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진학이나 진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고민 거리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III-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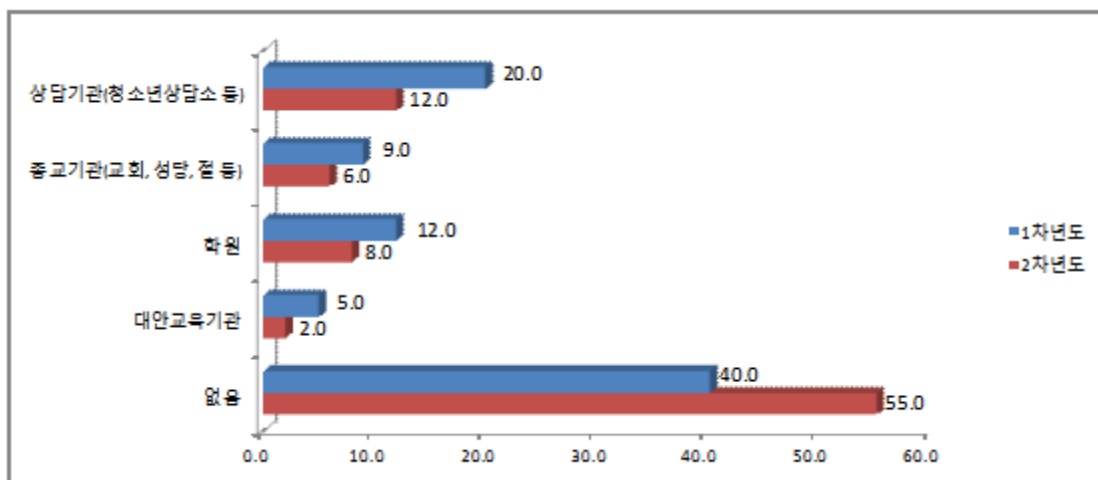
<표 III-20>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항목만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II-13】이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경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1차년도에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였으나 2차년도에는 그 비율이 55%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보호관찰소, 직업훈련기관, 병원 등 치료시설 등에서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상담기관, 종교기관, 학원,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소년들이 여러 기관들에서 만난 어른을 통해 고민거리 해결에 도움을 얻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어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표 III-20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의 변화

(N=597)

구 분	시기	MEAN	SD	t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 등)	1차년도	0.12	.32	.000
	2차년도	0.12	.32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1차년도	0.03	.16	-.208
	2차년도	0.03	.16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	1차년도	0.04	.16	1.401
	2차년도	0.02	.18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1차년도	0.20	.40	4.256***
	2차년도	0.12	.33	
보호관찰소	1차년도	0.06	.24	1.642
	2차년도	0.04	.20	
직업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1차년도	0.05	.23	1.407
	2차년도	0.04	.19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1차년도	0.09	.01	2.484*
	2차년도	0.06	.01	
학원	1차년도	0.12	.32	2.732**
	2차년도	0.08	.27	
병원 등 치료시설	1차년도	0.04	.19	1.061
	2차년도	0.03	.17	
대안교육기관	1차년도	0.05	.21	3.151**
	2차년도	0.02	.15	
없음	1차년도	0.40	.49	-6.111***
	2차년도	0.55	.5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II-13】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의 변화 (N=597, 단위: %)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작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과 교사 등을 통해 진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스스로 그러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진로정보 탐색경험

표 III-21 진로정보 탐색경험의 변화

시기	N	MEAN	SD	t
1차년도	598	2.60	.65	1.842 ^a
2차년도	598	2.55	.61	

* 주: 1) $\alpha < .10$

2) † 진로정보 탐색경험은 진로정보를 얻기 위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인터넷 검색, 공공기관에서의 상담, 3가지 경험 정도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함.

이러한 진로정보 탐색을 위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인터넷 검색, 공공기관에서의 상담 등의 경험을 한 정도가 1차년도와 2차 년도에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즉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진로정보획득을 위한 활동이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진로정보 탐색경험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보기’, ‘여가시간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보기’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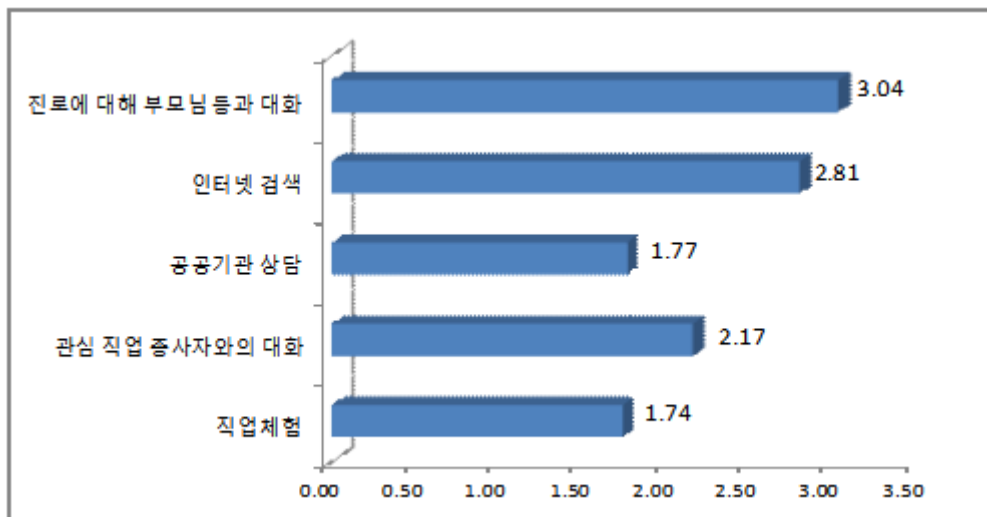
<III-22>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보았는지 살펴본 결과, 진로에 대해 부모님 등과 대화($M=3.04$, $SD=.82$)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터넷 검색($M=2.81$, $SD=.95$), 관심 직업종사자와의 대화($M=2.17$, $SD=1.03$), 공공기관 상담($M=1.77$, $SD=.90$), 직업체험($M=1.74$, $SD=.87$)의 순으로 청소년들은 진로정보를 탐색 경험을 가졌다. 공공기관 상담이 가장 낮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상담의 접근성이 너무 낮으며

청소년 친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22 진로정보탐색 경험(2차)

(단위: 점)

	사례수(명)	MEAN	SD
진로에 대해 부모님 등과 대화	599	3.04	.82
인터넷 검색	599	2.81	.95
공공기관 상담	599	1.77	.90
관심 직업 종사자와의 대화	599	2.17	1.03
직업체험	599	1.74	.87



【그림 Ⅲ-14】 진로정보탐색 경험(2차) (N=599, 단위: 점)

(3) 향후 진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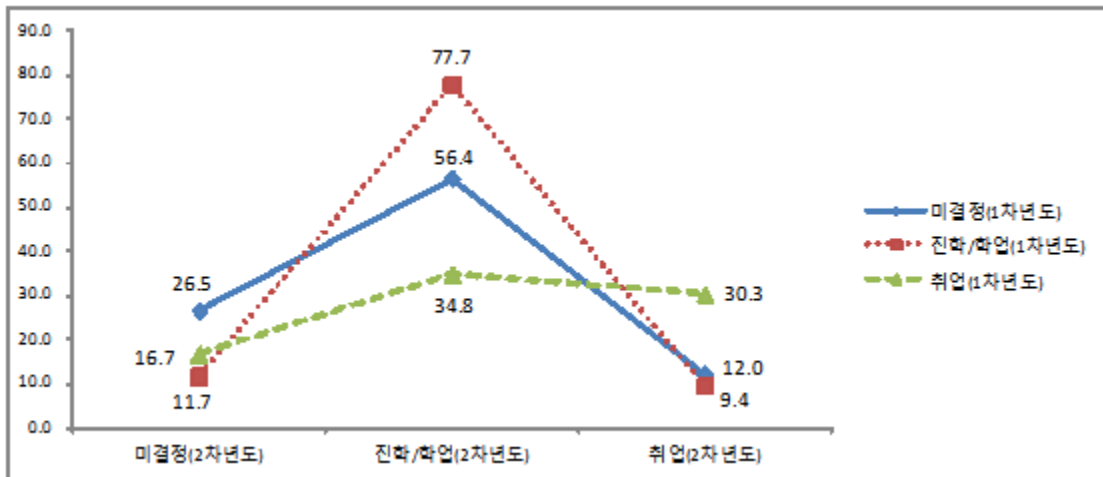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 계획은 그들의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현재의 생활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향후 진로 계획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진학이나 학업을 원하는 청소년은 1차년도에 394명에서 2차년도에 402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도 66명에서 78명으로 증가하였고, 미결정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는 1차년도 117명에

서 2차년도에는 90명으로 감소함으로써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향후 진로 계획의 1, 2차년도 교차분석

(단위: 명, %)

구 분		2차년도						
		미결정	진학/학업	취업	취업+진학	아르바이트	가업	계
1차 년도	미결정	31 (26.5)	66 (56.4)	14 (12.0)	1 (0.9)	5 (4.3)	0 (0.0)	117 (100.0)
	진학/학업	46 (11.7)	306 (77.7)	37 (9.4)	4 (1.0)	1 (0.3)	0 (0.0)	394 (100.0)
	취업	11 (16.7)	23 (34.8)	20 (30.3)	8 (12.1)	4 (6.1)	0 (0.0)	66 (100.0)
	취업+진학	0 (0.0)	4 (40.0)	4 (40.0)	1 (10.0)	1 (10.0)	0 (0.0)	10 (100.0)
	아르바이트	2 (22.2)	3 (33.3)	2 (22.2)	1 (11.1)	0 (0.0)	1 (11.1)	9 (100.0)
	가업	0 (0.0)	0 (0.0)	1 (33.3)	0 (0.0)	1 (33.3)	1 (33.3)	3 (100.0)
	계	90 (15.0)	402 (67.1)	78 (13.0)	15 (2.5)	12 (2.0)	2 (0.3)	599 (100.0)



【그림 III-15】 향후 진로 계획의 1, 2차년도 교차분석 (단위: %)

이러한 향후 계획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년도에 미결정 상태였던 11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4%는 2차년도에 진학이나 학업을 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12%는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26.5%는 여전히 미결정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진학이나 학업을 원하는 경우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차년도에 진학이나 학업을 원하던 청소년 가운데 9.4%는 2차년도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11.7%는 미결정이라고 응답하였다. 1차년도에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34.8%는 2차년도에 진학이나 학업을, 11.7%는 미결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자신의 향후 계획에 변화를 보이지 않은 청소년들은 모두 359명으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9% 수준이었으나, 40.1%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향후 계획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향후 진로와 관련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인식 정도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향후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경우 1차년도보다 2차년도 응답 수준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4> 참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의 진로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희망교육 기대 수준의 경우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4 향후 진로와 관련한 인식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진로계획 달성	1차년도	423	3.25	.60	1.874 ^a
	2차년도	423	3.18	.62	
희망 교육 기대수준	1차년도	599	3.32	1.07	-1.336
	2차년도	599	3.37	1.04	

^a $p < .10$

(4) 진로장애 (2차 추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애는 1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진로장애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3개 하위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3개 하위요인은 진로정보 부족, 미래불안,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른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정보 부족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12(.78), ②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56(.69), ③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22(.70), ④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40(.85), 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18(.79)이다.

미래불안은 다음과 같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⑥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37(.91), ⑦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10(.78), ⑧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02(.78), ⑨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41(.89)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4개 문항으로

표 III-25 진로장애: 2차

문 항	사례수(명)	MEAN	SD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599	2.12	.78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599	2.56	.69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599	2.22	.70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599	2.40	.8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599	2.18	.79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599	2.37	.91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599	2.10	.7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599	2.02	.78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599	2.41	.89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599	2.25	.84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599	2.07	.81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599	2.17	.82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599	1.93	.74

* 이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⑩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25(.84), ⑪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07(.81), ⑫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2.17(.82), ⑬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1.93(.74)이다.

진로장애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Cronbach의 알파계수가 전체 .840, 진로정보 부족 .469, 미래불안 .823, 경제적 어려움 .912 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장애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26>과 같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은 진로정보 부족, 6번부터 9번은 미래불안, 10번부터 13번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표 III-26 진로장애 요인 분석결과: 2차

구분	성분		
	1	2	3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088	.179	.738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027	.071	-.725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044	.179	.677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018	.513	.556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148	.362	.649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186	.766	.246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81	.764	.159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299	.655	.133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196	.822	.084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820	.304	.043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893	.152	.072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910	.154	.001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833	.180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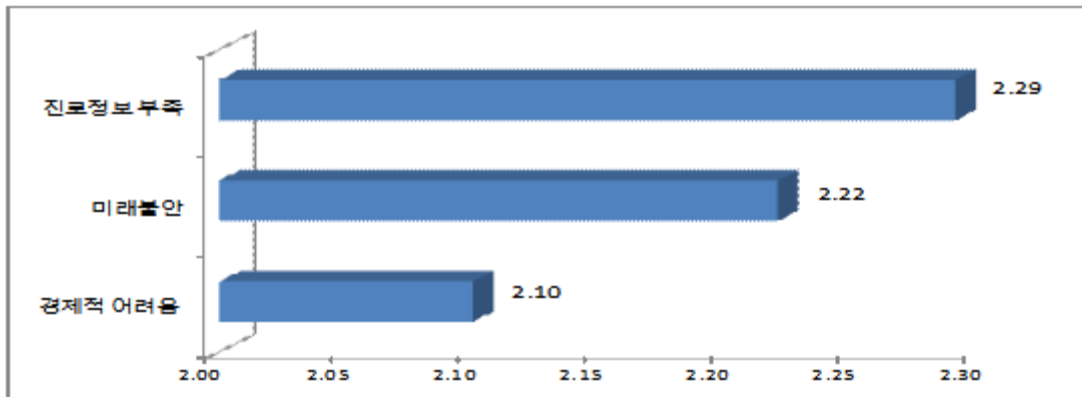
* 주: 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2)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3) a.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진로장애 3개 요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비교하면 <표 III-27>과 같다. 진로장애 3개 요인의 평균값을 보면, 진로장애에 대한 동의수준은 중립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 중 진로정보 부족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며 그 다음이 미래불안, 경제적 어려움의 순이었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애 중에서 진로정보 부족이 가장 높다는 의미이다.

진로정보 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장애보다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 III-27 진로장애 요인별 실태: 2차

	사례수(명)	MEAN	SD
진로정보 부족	599	2.29	.43
미래불안	599	2.22	.68
경제적 어려움	599	2.10	.72
전체	599	2.21	.47



【그림 III-16】 진로장애 요인별 실태(2차) (단위: 점)

<표 III-28>과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애를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학업중단시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비교 분석하면, 연령의 경우 만16~18세 집단과 만 19~20세 집단 청소년이 만14~15세 집단의 청소년보다 진로장애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연령이 높은 집단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생각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별로는 부모가 모두 안계신 집단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진로장애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가정경제수준별로는 가정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의 청소년이 상이나 중인 집단 청소년보다, 그리고 중인 집단 청소년이 상인 집단 청소년보다 진로장애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시점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보다 진로장애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진로장애의 배경변수별 차이: 2차

(단위: 점)

		N	MEAN	SD	t/F	Tukey
	전체	599	2.21	.47		
성 별	남 자	354	2.18	.49	-1.551	
	여 자	245	2.26	.34		
연 령	만14~15세	24	2.00	.34	3.173*	만19~20세 > 만14~15세, 만16~18세 > 만14~15세
	만16~18세	418	2.22	.47		
	만19~20세	157	2.24	.4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2.14	.44	11.269	한부모>양부모, 부모안계심 > 양부모, 한부모
	한부모가정	182	2.30	.47		
	부모 모두 안계심	85	2.34	.52		
가정 경제 수준	상	116	1.96	.46	39.471***	하 > 중 > 상
	중	249	2.17	.45		
	하	233	2.39	.43		
학업성적	상	138	2.12	.44	5.208**	하 > 상
	중	134	2.23	.49		
	하	327	2.24	.47		
복학여부	있음	73	2.25	.46	.414	
	없음	526	2.21	.47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2.13	.46	-2.372*	
	고등학교때	474	2.24	.47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224	2.22	.49	1.198	
	1년이상~2년미만	294	2.23	.46		
	2년이상	81	2.14	.47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80	2.21	.54	2.603	
	학교사유	324	2.24	.46		
	대안교육을 위해서	131	2.14	.46		
	문제행동으로	64	2.23	.44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285	2.22	.48	.527	
	중소도시	151	2.20	.47		
	읍면지역	103	2.18	.44		
	기타	11	2.34	.50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212	2.23	.48	.879	
	중규모(500~1,000명 미만)	215	2.18	.48		
	소규모(500명 미만)	107	2.21	.42		

* p<.05, ** p<.01, *** p<.001

(5)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2차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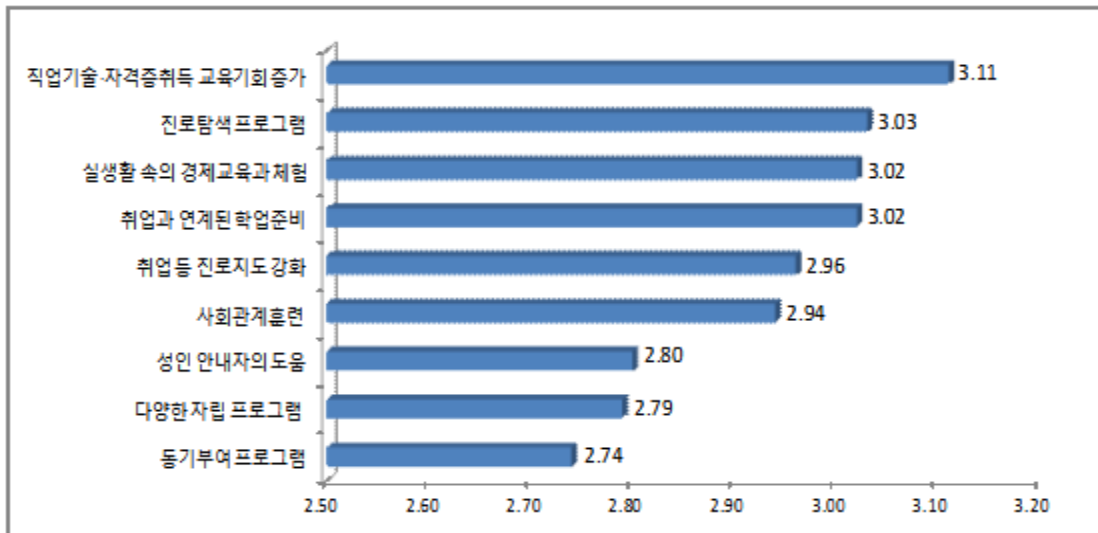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직업기술·자격증취득 교육기

회 증가($M=3.11$, $SD=.74$), 진로탐색 프로그램($M=3.03$, $SD=.77$),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M=3.02$, $SD=.78$) 취업과 연계된 학업준비($M=3.02$, $SD=.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른 프로그램보다 직업기술·자격증취득 교육기회 증가,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 취업과 연계된 학업준비 등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29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2차

(N=599)

	사례수(명)	MEAN	SD
동기부여 프로그램	599	2.74	.81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	599	2.79	.77
성인 안내자의 도움	599	2.80	.79
취업과 연계된 학업준비	599	3.02	.74
직업기술·자격증취득 교육기회 증가	599	3.11	.74
진로탐색 프로그램	599	3.03	.77
취업 등 진로지도 강화	599	2.96	.78
사회관계훈련	599	2.94	.79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	599	3.02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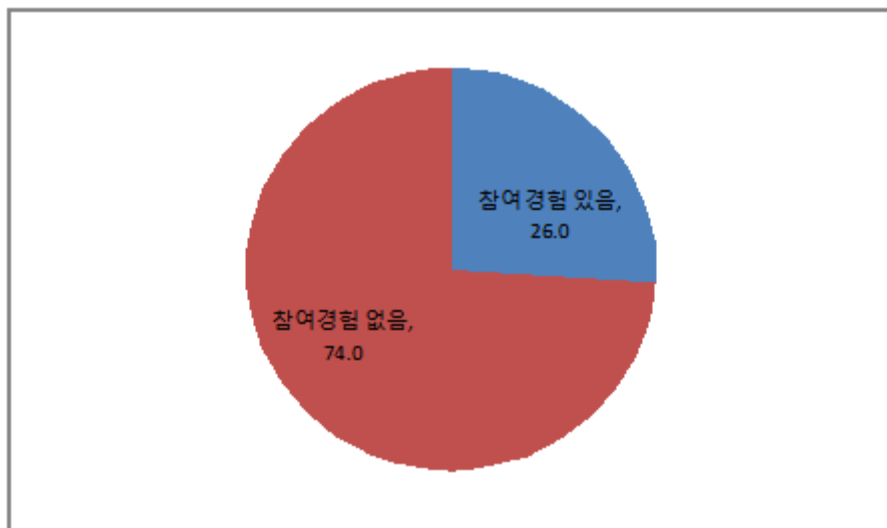


【그림 III-17】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2차)(N=599, 단위: 점)

4)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실태(2차 추가)

(1)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유무

청소년들이 동아리 혹은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6%가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여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학업중단사유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의 청소년이 중이나 하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학업중단사유별로는 대안교육을 원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문제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보다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8】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유무(2차) (N=599, 단위: %)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의 배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성적, 학업중단 이유에 따른 차이 외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단 시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이 ‘중’이나 ‘하’인 집단보다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경험이 많았으며 대안교육을 선호하여 중단한 경우가

문제행동으로 그만 둔 경우보다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 경험이 많았다.

표 Ⅲ-30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유무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단위: 점)

		N	MEAN	SD	t/F	Tukey
전 체		599	0.26	.44		
성 별	남 자	354	0.25	.44	-0.415	
	여 자	245	0.27	.45		
연 령	만14~15세	24	0.33	.48	0.159	
	만16~18세	418	0.25	.43		
	만19~20세	157	0.25	.4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0.30	.46	0.542	
	한부모가정	182	0.22	.42		
	부모 모두 안계심	85	0.20	.40		
가정 경제 수준	상	116	0.28	.45	0.525	
	중	249	0.30	.46		
	하	234	0.21	.41		
학업성적	상	138	0.41	.49	2.105***	상 > 중, 상 > 하
	중	134	0.20	.40		
	하	327	0.22	.42		
복학여부	있음	73	0.33	.47	-1.420	
	없음	526	0.25	.43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0.30	.46	1.018	
	고등학교때	474	0.25	.43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224	0.26	.44	0.512	
	1년이상~2년미만	294	0.23	.42		
	2년이상	81	0.36	.48		
학업중단 이유	개인사정으로	80	0.31	.47	0.547*	대안교육을 원해서 > 문제행동으로
	학교사유	324	0.24	.43		
	대안교육을 원해서	131	0.33	.47		
	문제행동으로	64	0.16	.37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285	0.24	.43	0.104	
	중소도시	151	0.25	.44		
	읍면지역	103	0.29	.46		
	기타	11	0.36	.51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212	0.25	.44	0.003	
	중규모(500~1,000명 미만)	215	0.26	.44		
	소규모(500명 미만)	107	0.25	.44		

*** p<.001

(2)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이유(2차추가)

학업중단 청소년이 동아리 혹은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이유를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미를 위해가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취미생활 공유 14.1%, 평소의 흥미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3순위를 분석한 결과도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이유가 중요한 참여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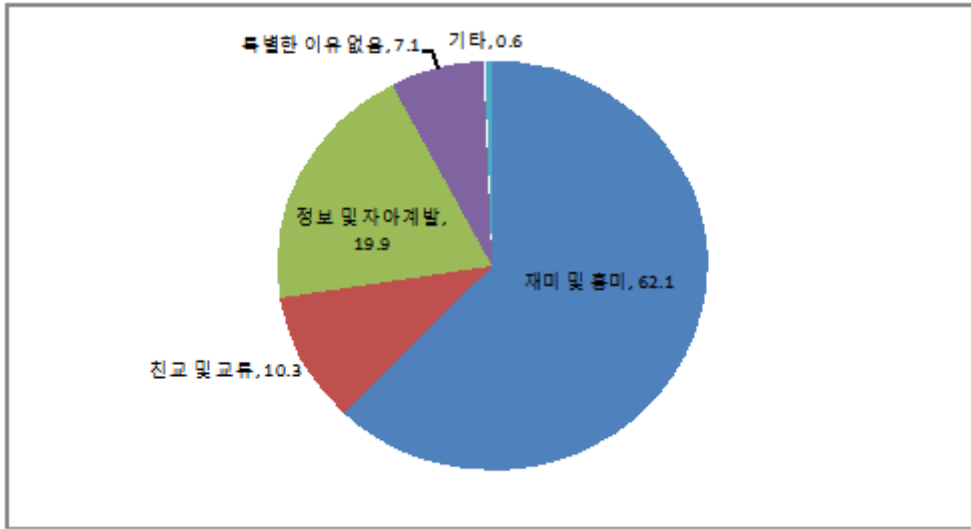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이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는 이유를 1순위를 중심으로 재미·흥미, 친교·교류, 정보 및 자아계발, 기타의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그림 III-19】와 같다. 청소년들은 다른 이유보다 재미나 흥미를 위하여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정보나 자아계발을 위하여 참여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외에 친교나 교류를 위하여 참여한다는 응답은 저조한 편이었다.

표 III-31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이유: 2차

(단위: 명, %)

구분	세부 응답	1순위	%	소계(%)
		사례수(명)		
재미·흥미	재미를 위해	56		62.1
	취미생활 공유	22		
	평소의 흥미	19		
친교·교류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3		10.3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12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1		
정보 및 자아계발	자아계발	8		19.9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1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5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1		
	복학에 도움	1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5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3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1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1		
	학과 공부에 도움	5		
기타	특별한 이유 없음	11		7.1
	기타	1		0.6
소 계		156		100.0



【그림 III-19】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 이유(2차) (N=156, 단위: %)

(3)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표 III-32>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 혹은 인터넷 카페는 SNS 서비스가 38.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인터넷 포털 카페 17.9%, 대학교 동아리 8.3%, 청소년시설 동아리 7.1%, 중·고등학교 동아리 6.4% 등의 순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대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대학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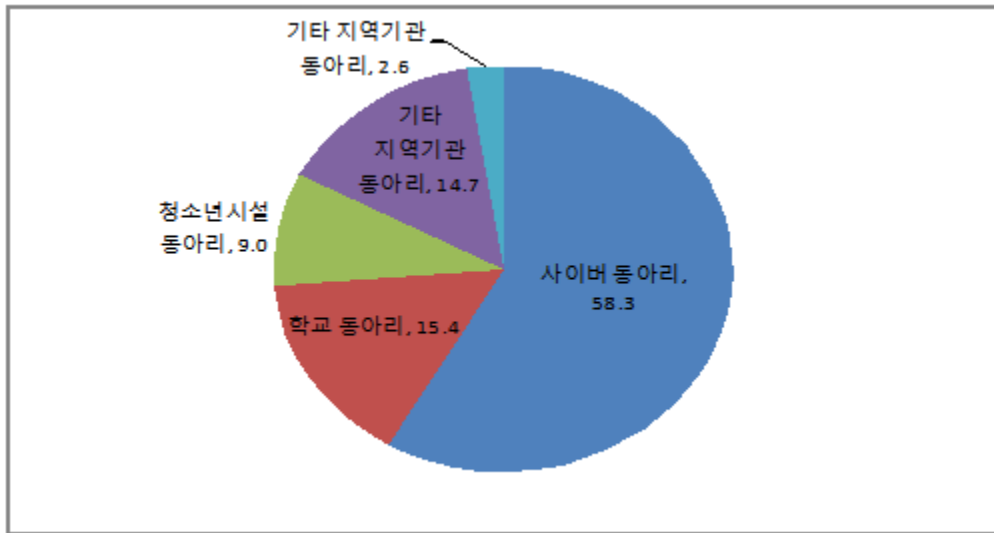
한편, 보호관찰소 동아리, 소년원 학교 동아리, 병원 등 치료 동아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다. 보호시설(청소년 쉼터 등) 동아리, 종교기관 동아리,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대입학원 동아리,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도 거의 없었다.

표 III-32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2차 (N=156, 단위: 명, %)

구분	세부 응답	사례수(명)	비율(%)	소계
사이버 동아리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60	38.5	58.3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28	17.9	
	인터넷 홈페이지	3	1.9	
학교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13	8.3	15.4
	중 · 고등학교 동아리	10	6.4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1	0.6	
청소년시설 동아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11	7.1	9.0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2	1.3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동아리	1	0.6	
기타 지역기관 동아리	기타(운동, 음악 동아리)	13	8.3	14.7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2	1.3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5	3.2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1	0.6	
	대입학원 동아리	1	0.6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1	0.6	
	보호관찰소 동아리	0	0.0	
	소년원 학교 동아리	0	0.0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0	0.0	
기타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4	2.6	2.6
				100.0

*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III-20】은 동아리를 성격에 따라 사이버동아리, 학교동아리, 청소년시설 동아리, 기타 지역사회기관 동아리 등으로 묶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동아리 성격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참여율을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를 보면, 사이버 동아리 활동 참여가 60% 가량 되어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으로 학교동아리나 청소년시설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으로는 운동이나 음악 동아리가 다양한 지역기관을 매개로 한 동아리 활동 참여프라인 상보다는 온라인 상의 동아리나 카페에 더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0】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2차) (N=156, 단위: %)

5) 일상생활 양상의 변화

(1) 생활시간의 변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기서는 수면 및 각종 활동에 할애하는 생활 기간과 식습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수면시간 및 취침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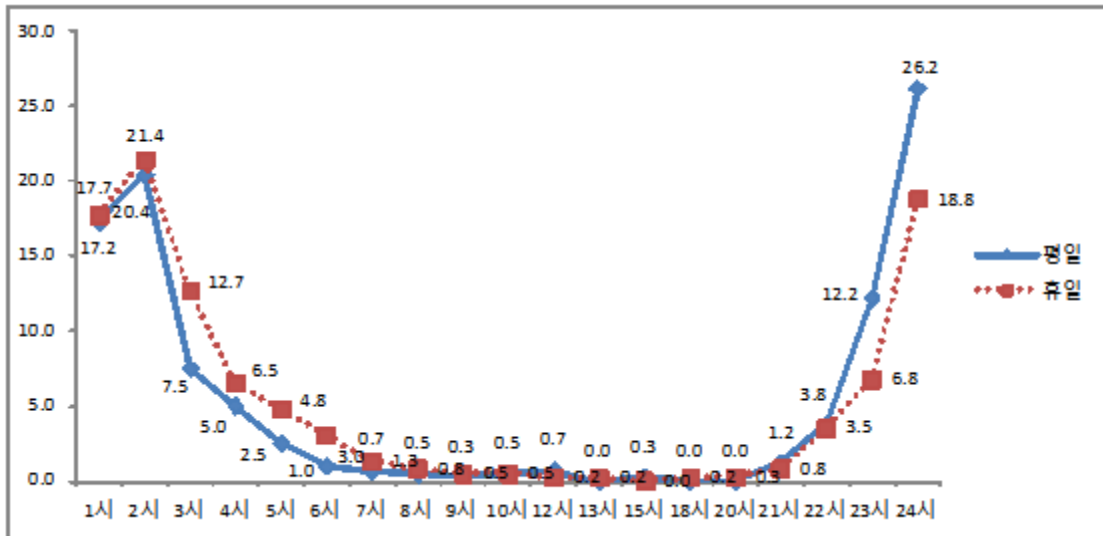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평일 수면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7.89시간이라고 응답한 반면, 2차년도에는 7.69시간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휴일 수면시간의 경우에는 두 시기 각각 8.88시간, 8.73시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평일 수면시간의 감소는 향후 미래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나 학원,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II-33 수면시간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평일수면시간	1차년도	599	7.89	1.84	2.582*
	2차년도	599	7.69	1.89	
휴일수면시간	1차년도	599	8.88	2.13	1.451
	2차년도	599	8.73	2.13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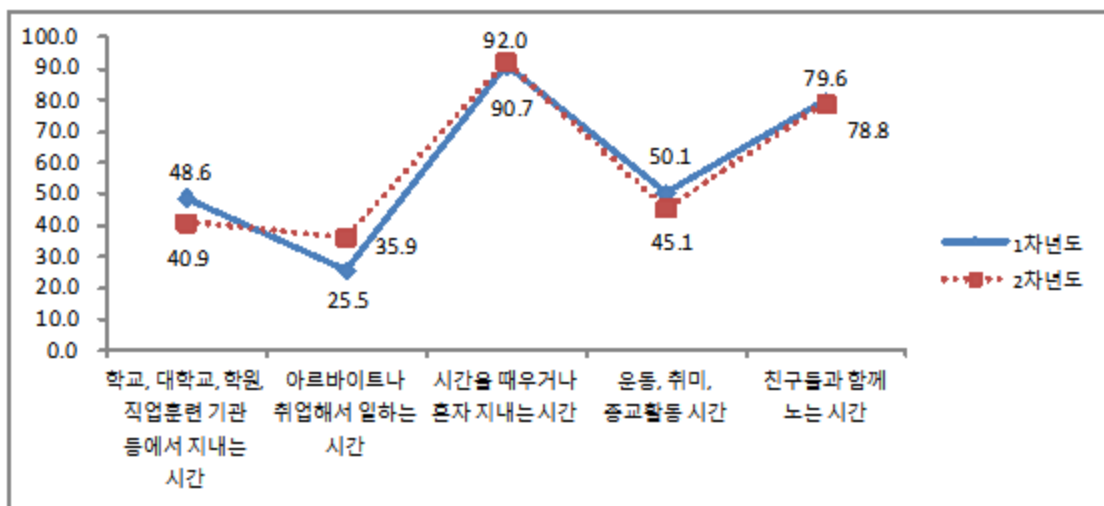
2차년도 조사에서는 취침 시각 문항을 추가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침시각을 살펴보면, [그림 III-21]과 같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침시각은 매우 다양한데, 평일의 경우 밤 12시대에 취침한다는 청소년이 2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새벽 2시대 20.4%, 새벽 1시대 17.2%, 밤 11시대 12.2%, 새벽 3시대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83.5%가 밤 11시부터 새벽 3시대에 취침하는 것을 의미한다. 휴일의 경우, 새벽 2시대 21.4%, 밤 12시대 18.8%, 새벽 1시대 17.7%, 새벽 3시대 12.7% 등의 순으로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평일보다는 휴일에 다소 늦게 취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아침이나 낮에 취침하거나 매우 늦게 취침하여 생활의 리듬이 바뀌는 양상도 보인다.



【그림 III-21】 취침시각(2차) (단위: %)

② 주요 영역 생활시간의 변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주요 영역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표 III-34>와 같다. 【그림 III-22】는 <표 III-34>에서 해당 영역의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22】를 보면, 1차 년도에 비해 학교나 대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비율, 운동, 취미, 종교활동 시간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1차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며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시간을 배우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비율에 있어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나 훈련, 긍정적 청소년활동에 대한 경험은 줄어들고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의 경험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22】 주요 생활시간의 경험율의 변화(단위: %)

<표 III-34>를 통해 일상생활 시간에서 해당하는 경험을 가졌다는 응답자들의 경험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나 대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경우 1차 년도에는 평일에는 5.48시간이었으나 2차 년도에는 6.38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휴일의 경우에도 1.08시간에서 2.50시간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1차 년도에 비해 향후 학업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을 하였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을 하면서 보낸 시간의 경우, 평일에 6.18시간에서 6.76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다만 휴일의 경우에는 증가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4 주요 생활시간의 변화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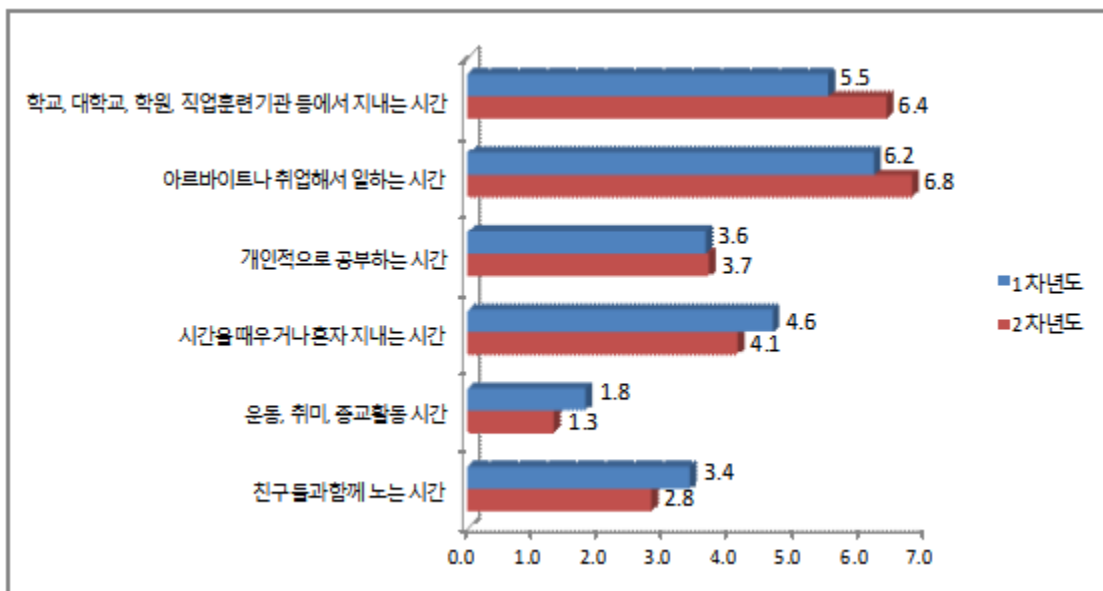
구 분	시기	N	해당자 비율	평일		휴일	
				MEAN	SD	MEAN	SD
학교, 대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1차년도	599	48.6	5.48	2.82	1.08	.91
	2차년도	599	40.9	6.37	3.10	2.50	2.21
	t		2.916**	-5.198***		-14.541***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	1차년도	599	25.5	6.18	3.56	4.66	4.30
	2차년도	599	35.9	6.76	3.57	4.86	4.42
	t		-4.649***	-2.816**		-.794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1차년도	599	53.3	3.62	2.55	3.00	3.17
	2차년도	599	50.8	3.67	3.00	2.93	3.10
	t		1.053	-.311		-.386	
시간을 매우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	1차년도	599	90.7	4.64	3.37	4.90	3.37
	2차년도	599	92.0	4.10	2.93	4.52	3.04
	t		.834	2.960**		2.049*	
운동, 취미, 종교활동 시간	1차년도	599	50.1	1.79	1.52	2.38	1.85
	2차년도	599	45.1	1.31	1.23	2.35	1.91
	t		.269*	6.008***		.276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	1차년도	599	79.6	3.38	2.78	5.07	4.51
	2차년도	599	78.8	2.79	2.31	3.27	2.82
	t		.415	3.995***		8.282***	

* p < .05; ** p < .01; *** p < .001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 등에서 보내는 시간과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증가한 것과는 달리 혼자서 시간을 매우면서 보낸 시간, 운동이나 취미, 종교활동 등에 사용한 시간,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의 경우에는 모두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혼자 시간을 매우며 보낸 시간의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미래 계획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나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혼자서 소일하거나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업중단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점차 학업을 계속하거나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조화시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생활시간의 변화가 일어난 영역만 나타낸 것이【그림 III-23】이다. 해당영역의 경험자 비율과 생활시간의 증감을 함께 볼 때, 경험자도 증가했고 해당 시간도 증가한 것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요한 생활영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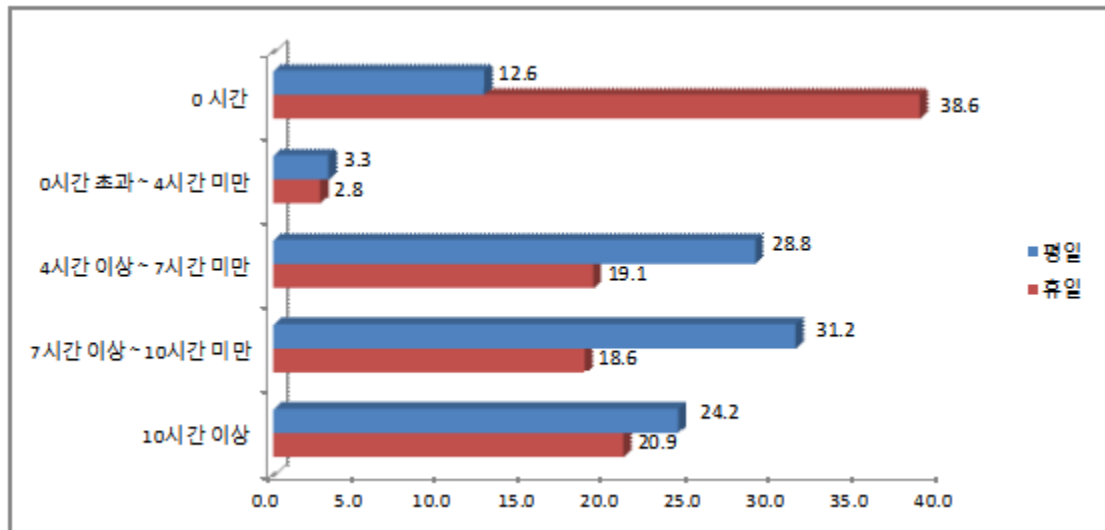
【그림 III-23】 주요 생활시간의 변화(평일 생활시간)(단위: 점)

청소년들은 하루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일하는 시간의 분포를 살펴 보면 <표 III-35>, 【그림 III-24】와 같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일하는 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0시간에서 14시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평일에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이 31.2%로 가장 많고 4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28.8%로 그 다음이며 10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도 24.2%

나 되었다. 평일에는 일하는 시간이 없는 청소년이 12.6%인데 이들은 주로 주말에만 일하는 청소년일 것이며 3.3%는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의 시간 일을 하고 있었다. 휴일에는 일하지 않은 청소년이 38.5%로 늘어났지만 10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이 20.9%나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휴일도 없이 평일과 같이 일하는 청소년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표 III-35 하루 중 일하는 시간 의 분포: 2차 (N=215)

	평일		휴일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0 시간	27	12.6	83	38.6
0시간 초과 ~ 4시간 미만	7	3.3	6	2.8
4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62	28.8	41	19.1
7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	31.1	40	18.6
10시간 이상	52	24.2	45	20.9



【그림 III-24】 평일과 휴일 일하는 시간의 분포(2차) (N=215, 단위: %)

(2) 식생활습관의 변화

학업중단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학교에 가지 않게 됨에 따라 식생활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생활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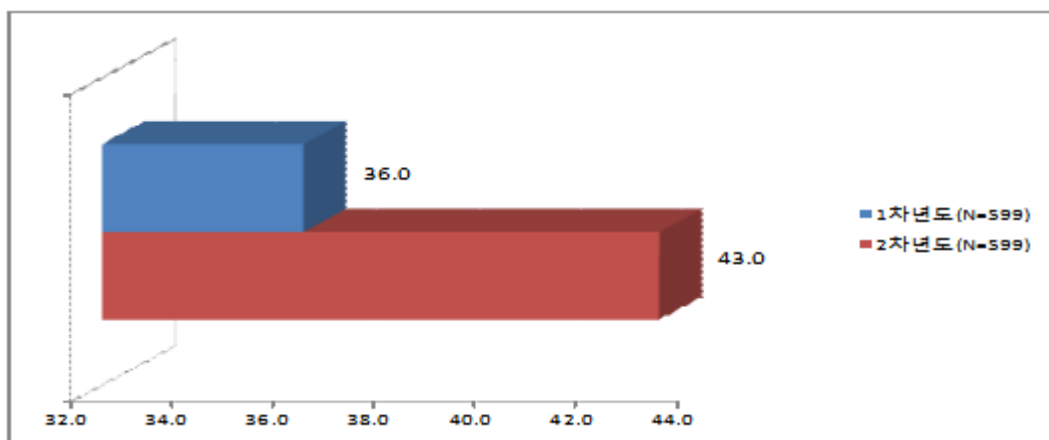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율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차년도에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인데 비해 2차년도에는 43%로 증가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아침식사를 제외하고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그리고 라면이나 컵라면 등의 인스턴트 음식 섭취의 경우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아침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들만의 특징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학업중단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침식사를 하는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6 식생활 양상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차년도	599	0.36	.48	-2.677**
	2차년도	599	0.43	.50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차년도	599	0.21	.41	1.093
	2차년도	599	0.19	.39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1차년도	599	0.18	.39	.391
	2차년도	599	0.18	.38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1차년도	599	0.28	.45	-1.633
	2차년도	599	0.32	.47	

** $p < .01$



【그림 III-25】 주 5회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의 변화 (단위: %)

6)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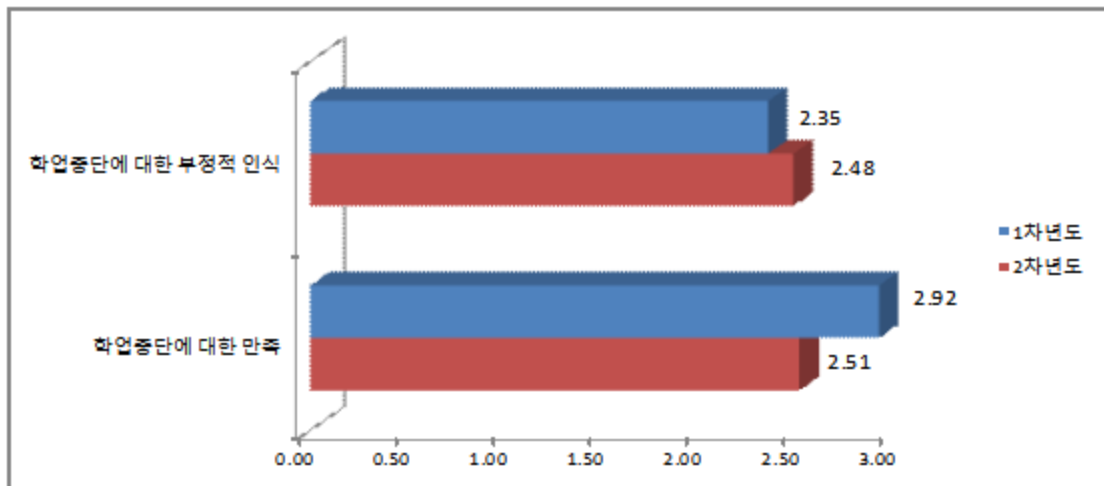
(1)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과 학업중단 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선 학업중단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의 경우 1차년도 평균값이 2.35인데 반해, 2차년도에는 2.48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III-37> 참조).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아 취급을 받고, 소속된 곳이 없어 불안해하는 정도가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정도도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더 감소하였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7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1차년도	432	2.35	.65	-3.252**
	2차년도	432	2.48	.73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	1차년도	433	2.92	.69	10.118***
	2차년도	433	2.51	.60	

** p < .01; *** p < .001



【그림 III-26】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단위: 점)

(2) 학력의 중요성 및 미래에 대한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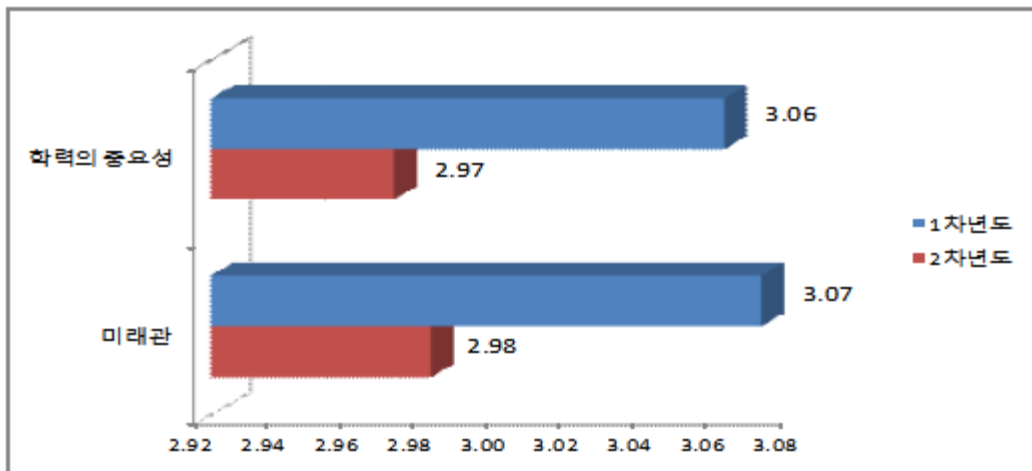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학력의 중요성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시기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우선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지,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차별을 받는지, 그리고 중·고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어려운지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본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력을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III-38> 참조). 즉 1차년도에는 이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3.06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2.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경험하면서 학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학력의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우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학력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원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희망적인 앞날을 맞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의 3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이 1차년도의 3.07에서 2차년도에 2.98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학업중

단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이 결과는 앞서 제시된 사회적 낙인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8 가치관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학력의 중요성	1차년도	599	3.06	.66	2.952**
	2차년도	599	2.97	.63	
미래관	1차년도	520	3.07	.62	3.116**
	2차년도	520	2.98	.64	



【그림 III-27】 가치관의 변화 (단위: 점)

4.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부모관계

<표 III-39>와 같이 학업중단 이후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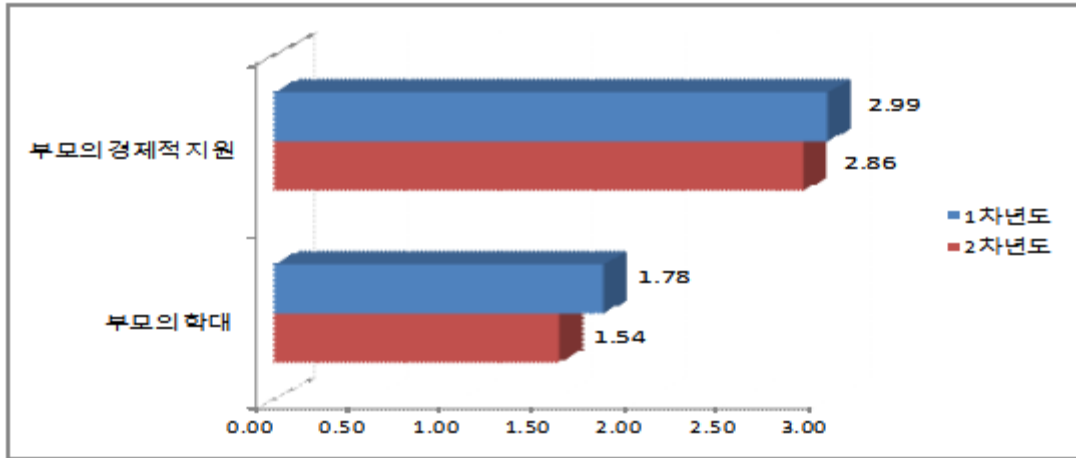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경우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방임 정도에는 두 조사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의미하는 부모 학대 정도는 2차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I-28】은 부모와의 관계 변화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만을 나타낸 것이다. 즉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들이 학업을 중단한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와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녀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도 자녀의 학업중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9 부모와의 관계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부모의 정서적 지원	1차년도	598	3.00	.69	.047
	2차년도	598	2.99	.66	
부모의 경제적 지원	1차년도	599	2.99	.72	4.266***
	2차년도	599	2.86	.77	
부모의 방임	1차년도	598	1.76	.60	-.604
	2차년도	598	1.78	.60	
부모의 학대	1차년도	599	1.78	.75	7.444***
	2차년도	599	1.54	.6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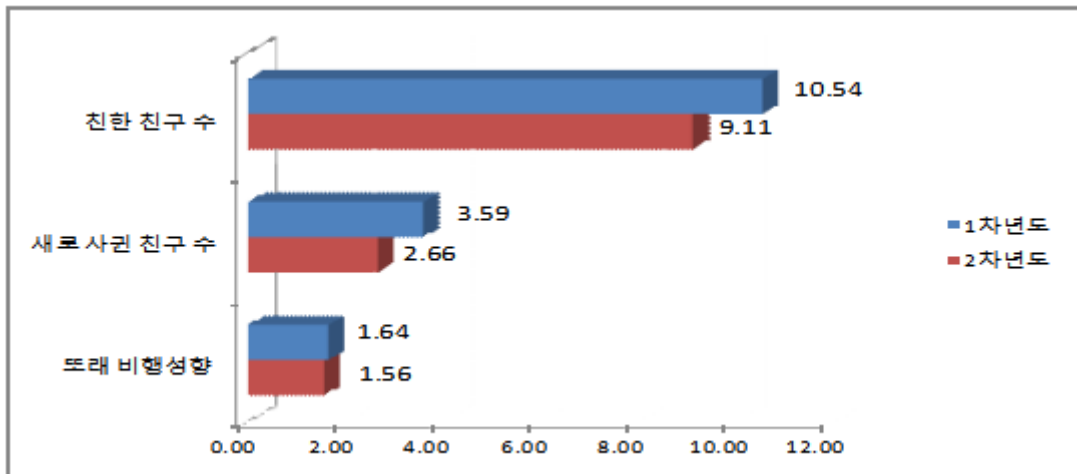
【그림 III-28】 부모와의 관계 변화(단위: 점)

(2) 친구관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場)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에서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를 질문하였는데, 1차년도에는 10.54명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9.11명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친한 친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새로 사귀 친구 수의 경우에도 1차년도에는 3.59명인데 반해 2차년도에는 2.66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친구를 새로 사귀고 이미 사귀 친구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근접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비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친구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도와줄 수 있는 학교라는 장(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새로 사귀고 이미 사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있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III-40 친구관계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친한 친구 수	1차년도	599	10.54	9.49	3.116**
	2차년도	599	9.11	10.81	
새로 사귀 친구 수	1차년도	599	3.59	6.37	2.917**
	2차년도	599	2.66	6.08	
학업 중단 친구 수	1차년도	599	2.38	3.20	1.468
	2차년도	599	2.05	4.94	
또래 애착	1차년도	594	3.14	.61	1.625
	2차년도	594	3.10	.60	
또래 비행성향	1차년도	598	1.64	.63	2.499*
	2차년도	598	1.56	.61	

* $p < .05$; ** $p < .01$ 

【그림 III-29】 친구관계의 변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의 수와 또래와의 애착 정도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또래의 비행성향에 있어서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하는 행동들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학업중단 이후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성향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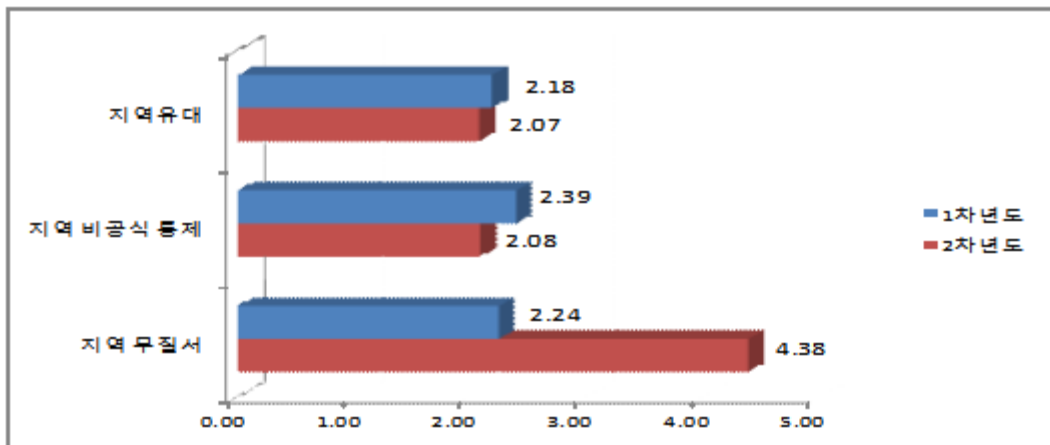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 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1> 참조).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역유대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웃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비공식 통제의 정도도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지니는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 무질서에 대한 인식도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식도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1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지역유대	1차년도	596	2.18	.79	3.206**
	2차년도	596	2.07	.75	
지역 비공식 통제	1차년도	590	2.39	.81	8.317***
	2차년도	590	2.08	.74	
지역 무질서	1차년도	598	2.24	.66	-44.764***
	2차년도	598	4.38	1.30	
지역 유익환경	1차년도	599	2.54	.69	1.051
	2차년도	599	2.50	.72	

** p < .01; *** p < .001



【그림 III-30】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단위: 점)

<표 III-41>에 나타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객관적인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정도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여가문화 시설의 이용 편의성 등과 관련한 지역 유익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

1) 심리 · 정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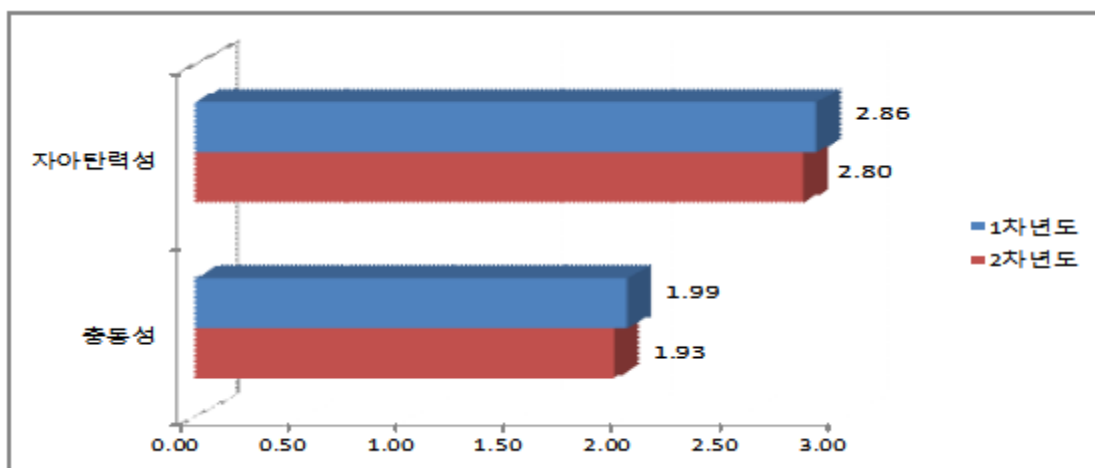
(1)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의 변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 · 정서적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을 중심으로 두 시기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III-42>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의 경우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자아탄력성의 수준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감의 경우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충동성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감에 있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에 있어서는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Ⅲ-42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변화

(단위: 점)

구 분	시기	N	MEAN	SD	t
자아존중감	1차	599	2.98	.55	1.203
	2차	599	2.95	.54	
자아탄력성	1차	598	2.86	.56	2.252*
	2차	598	2.80	.52	
우울감	1차	596	2.04	.58	1.498
	2차	596	2.00	.58	
충동성	1차	598	1.99	.58	2.069*
	2차	598	1.93	.61	

* $p < .05$ 

【그림 Ⅲ-31】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변화(단위: 점)

(2) 생활만족도(2차 추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생활만족도 3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사는 게 즐겁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2.77(.75) ②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25(.79) ③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79(.70) 이었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만족도가 중립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43 생활만족도: 2차

	사례수(명)	MEAN	SD
나는 사는 게 즐겁다	599	2.77	.75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599	2.25	.79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599	2.79	.70
전체	599	2.60	.64

<표 III-44>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성별, 연령,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 학교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중학교 연령대가 만 19~20세 연령대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족구성별로는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의 청소년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가정경제수준별로는 가정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청소년이 중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그리고 중인 집단의 청소년이 하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의 청소년이 중이나 하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지역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교의 청소년이 기타지역 학교의 청소년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N	MEAN	SD	t/F	Tukey
전체		599	2.60	.64		
성 별	남 자	354	2.64	.68	2.062*	
	여 자	245	2.54	.58		
연 령	만14~15세	24	2.90	.62	3.389*	만16~18세 > 만19~20세
	만16~18세	418	2.61	.62		
	만19~20세	157	2.54	.7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2.68	.59	7.904***	양부모 > 부모 안계심
	한부모가정	182	2.55	.65		
	부모 모두 안계심	85	2.39	.77		
가정경제 수준	상	116	2.76	.60	12.414***	중 > 하, 상 > 중
	중	249	2.68	.64		
	하	233	2.45	.64		
학업성적	상	138	2.74	.62	4.021*	상 > 하 > 중
	중	134	2.54	.67		
	하	327	2.57	.63		
복학여부	있음	73	2.60	.65	.019**	
	없음	526	2.60	.64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2.68	.62	1.505	
	고등학교때	474	2.58	.65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224	2.60	.64	.057	
	1년이상~2년미만	294	2.61	.63		
	2년이상	81	2.59	.71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80	2.59	.68	.907	대도시, 중도도시, 읍면지역 > 기타
	학교사유	324	2.58	.62		
	대안교육을 위해서	131	2.68	.66		
	문제행동으로	64	2.58	.67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285	2.58	.65	3.208*	대도시 > 기타, 중소도시 > 기타, 읍면지역 > 기타
	중소도시	151	2.64	.64		
	읍면지역	103	2.58	.55		
	기타	11	2.03	.64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212	2.61	.61	.576	
	중규모(500~1,000명 미만)	215	2.61	.64		
	소규모(500명 미만)	107	2.54	.65		

* p<.05, ** p<.01, *** p<.001

(3) 사회적 낙인감(2차 추가)

사회적 낙인감은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³⁷⁾ 5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가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09(.70) ②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03(.69) ③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04(.75) ④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83(.64) ⑤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97(.73)이었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감을 비교적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45 사회적 낙인감: 2차

	사례수(명)	MEAN	SD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599	2.09	.70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599	2.03	.69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599	2.04	.75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599	1.83	.64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599	1.97	.73

학업중단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 학업중단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구성의 경우, 부모가 안계신 가정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이나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사회적 낙인감을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하인 집단의 청소년이 상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의 경우,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의 청소년이 상인 집단 청소년보다 사회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신이 다르게 취급받는 등 사회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또한 학업중단시기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청소년보다 사회적 낙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37) 원래 사회적 낙인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8개 문항이었으나, 요인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인1(사회적 낙인감) 5개 문항, 요인2(사회적 박탈감) 2개 문항이었고 1개 문항은 요인1 및 요인2와 모두 관련이 있어서 삭제함. 여기에서는 요인1 사회적 낙인감만을 분석하였고, 사회적 낙인감의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가 .866으로 나타나 신뢰로운 척도라고 할 수 있음.

표 III-46 사회적 낙인감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N	MEAN	SD	t/F	Tukey
	전체	599	9.97	2.86		
성 별	남 자	354	9.88	2.93	- .937	
	여 자	245	10.01	2.75		
연 령	만14~15세	24	9.04	3.01	11.99	
	만16~18세	418	9.96	2.81		
	만19~20세	157	10.11	2.94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9.64	2.79	76.725***	부모 안계심 > 양부모, 부모 안계심 > 한부모
	한부모가정	182	10.02	2.88		
	부모 모두 안계심	85	11.14	2.79		
가정 경제 수준	상	116	9.34	2.78	49.218**	하 > 상
	중	249	9.83	2.69		
	하	233	10.42	3.00		
학업성적	상	138	9.28	2.73	43.629**	하 > 상
	중	134	10.08	3.11		
	하	327	10.21	2.76		
복학여부	있음	73	9.99	2.82	.505	
	없음	526	9.81	3.10		
학업종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9.75	2.96	- .945	
	고등학교때	474	10.02	2.83		
학업종단 기간	1년미만	224	10.38	2.87	29.84*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1년이상~2년미만	294	9.72	2.83		
	2년이상	81	9.73	2.81		
학업종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80	10.08	3.33	2.636	
	학교사유	324	9.97	2.79		
	대안교육을 위해서	131	9.77	2.77		
	문제행동으로	64	10.17	2.77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285	9.89	2.92	2.815	
	중소도시	151	10.02	2.69		
	읍면지역	103	9.92	2.91		
	기타	11	10.73	3.04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212	10.01	2.76	6.374	
	중규모(500~1,000명 미만)	215	9.76	2.89		
	소규모(500명 미만)	107	10.02	2.95		

* $p < .05$, ** $p < .01$, *** $p < .001$

2) 문제행동 경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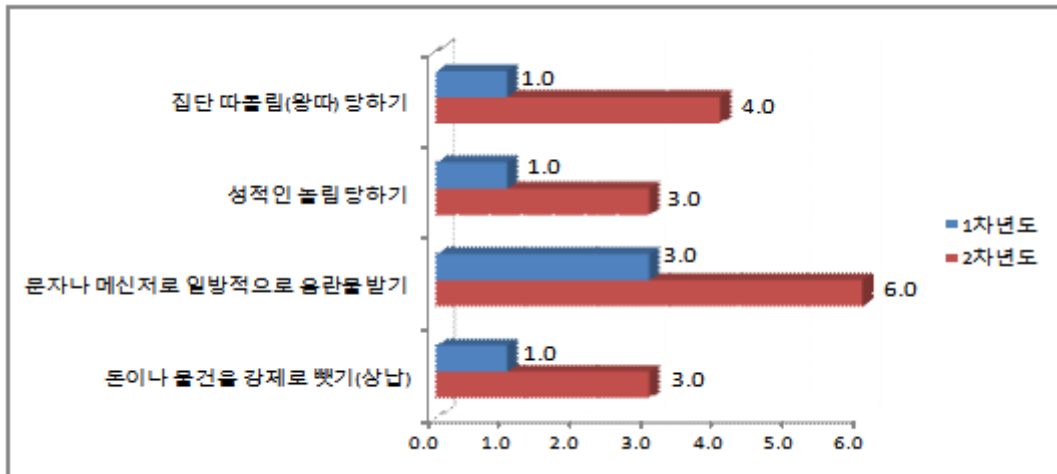
(1) 피해경험의 변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범죄 관련 피해경험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혹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범죄 관련 피해경험으로 모두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성폭력 당하기를 제외한 5개 문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7> 참조). 즉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성적인 놀림 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의 4개 항목에서 모두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해당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심하게 얻어맞기(폭행)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III-47 피해경험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1차년도	599	0.01	.09	-3.843***
	2차년도	599	0.04	.20	
성적인 놀림 당하기	1차년도	599	0.01	.10	-2.302*
	2차년도	599	0.03	.17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1차년도	599	0.03	.16	-2.668**
	2차년도	599	0.06	.23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1차년도	599	0.01	.07	-2.845**
	2차년도	599	0.03	.16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1차년도	599	0.01	.11	-1.792 ^a
	2차년도	599	0.03	.17	
성폭력 당하기	1차년도	599	0.00	.06	-1.635
	2차년도	599	0.01	.10	

* $p<.05$, ** $p<.01$, *** $p<.001$



【그림 III-32】 피해경험의 변화(단위: %)

물론 학교에서도 <표 III-47>에 나타난 행위들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사나 친구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통제기제가 그 효과는 미약할지라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비해 학교를 벗어나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물론 사법체계라는 통제 기제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기제들이 갖고 있는 통제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즉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문제아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시각에 견주어 볼 때, <표 III-47>의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문제아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문제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비행경험의 변화

학업을 중단한 이후 비행 경험의 변화를 살펴보면, 술 마시기와 자살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표 III-48> 참조). 우선 담배 피우기의 경우 1차년도에 55%에서 2차년도에 58%로 약간 증가였으나, $p=10$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반면, 술 마시기의 경우에는 59%에서 67%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흡연과 음주가 대표적인 지위비행이고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행위임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에 노출될 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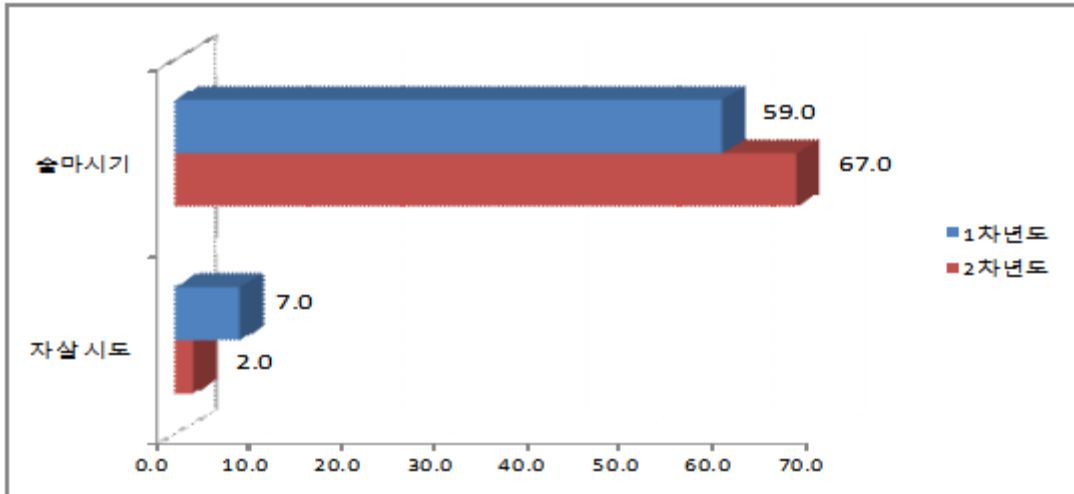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등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비행경험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담배 피우기	1차년도	599	0.55	.50	-1.729 ^a
	2차년도	599	0.58	.49	
술 마시기	1차년도	599	0.59	.49	-4.229 ^{***}
	2차년도	599	0.67	.47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1차년도	599	0.05	.22	.617
	2차년도	599	0.05	.21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1차년도	599	0.07	.26	.832
	2차년도	599	0.06	.24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1차년도	599	0.05	.22	1.642
	2차년도	599	0.03	.18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보기	1차년도	599	0.19	.40	-.691
	2차년도	599	0.21	.41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1차년도	599	0.11	.31	-.883
	2차년도	599	0.12	.33	
자살 시도	1차년도	599	0.07	.26	4.304 ^{***}
	2차년도	599	0.02	.15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1차년도	599	0.10	.29	.679
	2차년도	599	0.09	.28	

* $p<.05$, ** $p<.01$, *** $p<.001$



【그림 III-33】 비행경험의 변화(단위: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 행위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흡연과 음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 경험에서는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힘이나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용이하게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의 보호를 벗어나 주로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밖의 환경 속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됨에 따라 비행을 저지르기 보다는 비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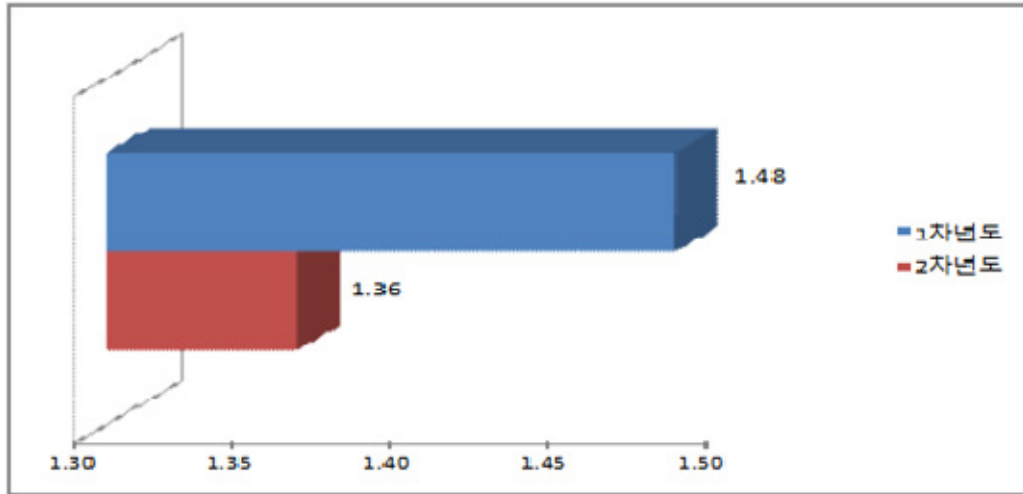
3) 컴퓨터 사용 행동의 변화

(1) 게임 중독 정도

표 III-49 게임 사용 정도의 변화

구 분	시기	N	MEAN	SD	t
게임 중독 정도	1차	599	1.48	.65	5.086***
	2차	599	1.36	.51	

*** $p < .001$



【그림 III-34】 게임 사용 정도의 변화(단위: 점)

게임 사용 정도와 관련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게임을 사용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차년도의 경우 게임 사용과 관련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 정도가 1.48 수준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1.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 스마트폰 중독 정도 (2차 추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소개하면 <표 III-50>과 같다. 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58(.69) ②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89(.89) ③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68(.84) ④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렵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63(.78) 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33(.61) ⑥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57(.79) ⑦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2.69(1.00) ⑧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70(.83)이었다. 점수가 높으면 중독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문항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이었다.

표 III-50 스마트폰 중독 정도: 2차

	사례수(명)	MEAN	SD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599	1.58	.69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599	1.89	.89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599	1.68	.8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렵다	599	1.63	.78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599	1.33	.61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599	1.57	.79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599	2.69	1.00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599	1.70	.83

* 이 문항은 역코딩하였음.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표 III-51>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가정경제 수준,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중인 집단의 청소년이 상인 집단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고,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 청소년이 상인 집단 청소년보다 스마트폰 중독에 더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51 스마트폰 중독의 배경변수별 차이: 2차

		N	MEAN	SD	t/F	Tukey
전 체		599	1.76	.54		
성 별	남 자	354	1.70	.54	-3.064**	
	여 자	245	1.84	.53		
연 령	만14~15세	24	1.61	.47	1.585	
	만16~18세	418	1.78	.55		
	만19~20세	157	1.72	.53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1.74	.54	2.535	
	한부모가정	182	1.73	.51		
	부모 모두 안계심	85	1.88	.60		
가정 경제 수준	상	116	1.66	.46	4.083**	중 > 상
	중	249	1.82	.58		
	하	233	1.74	.53		
학업성적	상	138	1.65	.48	5.257**	하 > 상
	중	134	1.72	.52		
	하	327	1.82	.57		
복학여부	있음	73	1.81	.53	.724	
	없음	526	1.75	.54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1.75	.52	-.334	
	고등학교때	474	1.76	.55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224	1.79	.54	1.054	
	1년이상~2년미만	294	1.76	.54		
	2년이상	81	1.69	.55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80	1.75	.61	.631	
	학교사유	324	1.79	.55		
	대안교육을 원해서	131	1.71	.46		
	문제행동으로	64	1.73	.53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285	1.75	.53	.476	
	중소도시	151	1.73	.53		
	읍면지역	103	1.78	.55		
	기타	11	1.91	.59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212	1.78	.56	.560	
	중규모(500~1,000명 미만)	215	1.73	.52		
	소규모(500명 미만)	107	1.76	.52		

* p<.05, ** p<.01, *** p<.001

(3) SNS 사용 실태 (2차 추가)

① SNS 피해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의 SNS 피해 경험은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5개 문항을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제시하면 <표 III-52>와 같다. ①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37(.65) ②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28(.56) ③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14(.41) ④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06(.31) ⑤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본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1.13(.42)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SNS 피해 경험 중 가장 많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었으며 그 다음은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은 경험이었다.

표 III-52 SNS 피해 경험: 2차

	사례수(명)	MEAN	SD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	599	1.37	.65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599	1.28	.56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599	1.14	.41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599	1.06	.31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본 적이 있다	599	1.13	.42
전체	599	1.19	.34

<표 III-53>과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SNS 피해 경험을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복학여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SNS 피해경험이 성별, 연령대,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적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은 복학여부에 따라 SNS 피해경험 수준이 달랐다. 즉, 복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SNS 피해경험이 많았다.

표 III-53 SNS 피해경험의 배경변수별 차이: 2차

		N	MEAN	SD	t/F	p	Tukey
성별	전체	599	1.19	.35	.454	.650	
	남 자	354	1.20	.33			
	여 자	245	1.19	.36			
	합 계	599	1.19	.35			
연령	만14~15세	24	1.16	.34	.513	.599	
	만16~18세	418	1.20	.37			
	만19~20세	157	1.18	.27			
	합 계	599	1.19	.35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1.19	.37	.785	.457	
	한부모가정	182	1.18	.28			
	부모 모두 안계심	85	1.24	.39			
	합 계	599	1.19	.35			
가정 경제 수준	상	116	1.19	.33	2.747	.065	
	중	249	1.16	.31			
	하	233	1.23	.39			
	합 계	598	1.19	.35			
학업성적	상	138	1.18	.34	2.579	.077	
	중	134	1.14	.24			
	하	327	1.22	.38			
	합 계	599	1.19	.35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1.20	.40	.252	.801	
	고등학교때	474	1.19	.33			
	합 계	599	1.19	.35			
복학여부	있음	73	1.31	.57	8.876	.003**	
	없음	526	1.18	.30			
	합 계	599					

* $p < .05$, ** $p < .01$, *** $p < .001$

② SNS 가해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의 SNS 가해경험은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I-54>와 같다. ①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09(.33), ②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07(.32), ③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28(.58), ④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1.19(.48), ⑤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는 평균과 표준편차 1.04(.20)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SNS 상 가해 경험 중 가장 빈번한 것은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하거나 놀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창호 외(2012)의 연구에서 일반학생(고등학생) 들의 소셜미디어 가해경험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이창호 외, 2012: 101).

SNS상 가해 경험을 <표 III-55>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학업성적과 학업중단 사유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비교분석에 의하면, 학업성적이 하인 집단 청소년 이 상인 집단 청소년보다 SNS 가해경험이 높았다. 학업중단사유는 경우,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개인사정이나 대안교육을 원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보다 SNS상에서 가해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SNS 가해 경험: 2차

	사례수(명)	MEAN	SD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599	1.09	.33
SNS를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	599	1.07	.32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599	1.28	.58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599	1.19	.48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	599	1.04	.20
전체	599	1.13	.29

표 III-55 SNS 가해경험의 배경변수별 차이(2차)

		N	MEAN	SD	t/F	Tukey
전 체		599	1.13	.30		
성 별	남 자	354	1.15	.32	1.937	
	여 자	245	1.11	.25		
연 령	만14~15세	24	1.10	.19	.019	
	만16~18세	418	1.14	.30		
	만19~20세	157	1.13	.30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332	1.12	.30	.122	
	한부모가정	182	1.12	.26		
	부모 모두 안계심	85	1.18	.34		
가정 경제 수준	상	116	1.14	.28	.014	
	중	249	1.13	.32		
	하	233	1.14	.28		
학업성적	상	138	1.09	.24	.331*	하 > 상
	중	134	1.11	.25		
	하	327	1.16	.33		
복학여부	있음	73	1.13	.27	.925	
	없음	526	1.13	.30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1.12	.26	-.483	
	고등학교때	474	1.14	.30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224	1.13	.29	.012	
	1년이상~2년미만	294	1.14	.30		
	2년이상	81	1.15	.31		
학업중단 사유	개인사정으로	80	1.08	.21	4.000**	문제행동 > 개인사정, 문제행동 > 대안교육
	학교사유	324	1.15	.29		
	대안교육을 원해서	131	1.09	.27		
	문제행동으로	64	1.24	.41		
학교소재지 역	대도시	285	1.16	.33	.138	
	중소도시	151	1.09	.24		
	읍면지역	103	1.14	.30		
	기타	11	1.09	.16		
학교규모	대규모(1,000명이상)	212	1.13	.29	.063	
	중규모(500~1,000명 미만)	215	1.13	.28		
	소규모(500명 미만)	107	0.17	.36		

* p<.05, ** p<.01, *** p<.001

6. 학업중단 이후 경로의 변화

본 조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에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에 모두 복교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검정고시 공부(학원)을 하는 경우,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경우, 가출을 하거나 보호시설 혹은 사법기관(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감독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하여 월별로 해당 활동을 표시하도록 하였다³⁸⁾.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동일한 시기에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동안 특정 달에 특정 활동을 한 것은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차에 걸친 조사 자료를 함께 사용할 경우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이후를 기준으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5개월에 걸쳐 앞서 언급한 활동에 대한 월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월별 정보를 합산하게 되면, 전체 조사 기간 중 특정 활동을 한 개월 수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로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와 2차 년도를 구분짓는 시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1차년도 조사에서 일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가 2013년 9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2013년 9월까지의 경험을 1차년도 경험으로 간주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험을 2차년도 경험으로 간주하였다.

1차년도 경험 유형을 산출함에 있어 설문지의 구성에 따르면 1차년도 기준점인 2013년 9월을 기점으로 지난 15개월 동안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학업중단 시점이 응답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학업중단 시점을 감안하여 경험기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응답자별로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시점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2014년 9월까지의 기간을 1차년도 학업중단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활동을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하여, 복교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검정고시 공부(학원)을 하는 경우, 대학입시 공부를 하는 경우,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학업형으로,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직업형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38) 2차년도 조사에는 대학입시 공부를 하는 경우와 대학에 다니는 경우가 추가되었음. 이 두 가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교, 대안학교, 학원에 다니는 경우와 같은 성격의 활동으로 구분하였음.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경우는 무업형으로, 가출을 하거나 보호시설 혹은 사법기관(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의 감독을 받는 경우는 비행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최근 학업중단 이후 2013년 9월까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 달이라도 해당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산출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로 유형을 산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해당 활동을 경험한 개월 수를 근거로 만들어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의 4가지 경우는 상호배타적이 않으며 중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에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학업형과 직업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보다 의미 있게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 동안 위의 유형들이 발생한 비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차년도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학업중단 시점 이후 각각의 유형을 하였다고 응답한 개월 수를 앞서 산출한 학업중단 기간으로 나누어 그 비율이 0.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2013년 9월까지 검정고시 학원에 다닌 개월 수가 5개월이라면, 그 비율이 0.5를 초과하므로 그 청소년을 학업형으로 분류하였다. 2차년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기간 대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10개월을 기준으로 1차년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III-56>은 이러한 분류 작업 결과 나타난 4개 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³⁹⁾. 1차년도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로 유형은 599명 가운데 69.6%에 해당하는 231명이 학업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무업형이 1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형의 경우에는 599명의 1/4에 해당하는 151명이었으며, 비행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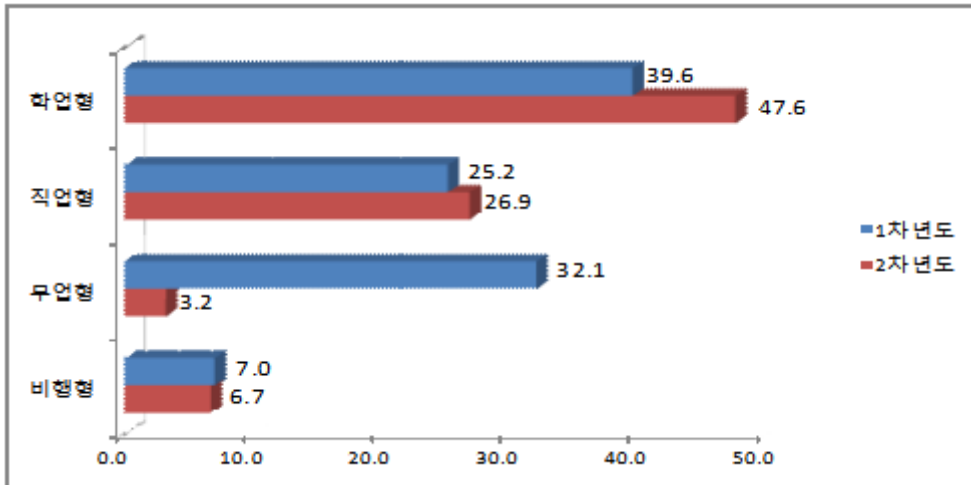
이에 비해 2차년도의 경로 유형은 1차년도와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차년도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무업형이 2차년도에는 매우 작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 599명 가운데 3.2%에 불과한 19명만이 무업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업중단 당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던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업형 생활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2차년도 학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47.6%로 증가한 것은 이러한

39) <표 III-56>에서 1차년도 경로 유형의 빈도의 합은 599명을 초과하는 반면, 2차년도 경로유형의 합은 599명보다 적다. 1차년도의 경우 각각의 경로 유형이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2차년도의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4가지 유형 가운데 5개월 이상 활동한 유형이 없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생활 내용을 바꾸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56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의 변화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학업형	231(39.6)	285(47.6)
직업형	151(25.2)	161(26.9)
무업형	192(32.1)	19(3.2)
비행형	42(7.0)	40(6.7)
계	616	505



【그림 III-35】 학업중단 이후 경로 분포(N=599, 단위: %)

<표 III-56>에 나타난 분포에서 각 유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각 유형에 해당되는 활동들이 중복하여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특정유형이 산출되지 못할 정도로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III-56>에 제시된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조합이 가능한 형태는 모두 16가지가 있는데,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서 이 16가지 유형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무정형⁴⁰⁾의 5가지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II-57>과 같다.

40) 학업중단 후 경험을 어떤 한 유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의미에서 무정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표 III-57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의 변화

(단위: 명, %)

학업중단 이후 경험 유형	경로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무정형	105(17.5)	179(29.9)
학업형+직업형+무업형			
학업형	학업형	212(35.4)	268(44.7)
학업형+직업형			
학업형+무업형			
직업형	직업형	100(16.7)	112(18.7)
직업형+무업형			
무업형	무업형	140(23.4)	—
비행형	비행형	42(7.0)	40(6.7)
비행형+다른 하나의 유형			
비행형+다른 두 개의 유형			
계		599(100.0)	599(100.0)

<표 III-57>에 따르면, 1차년도의 경우 전체 599명 가운데 35.4%에 해당하는 212명의 학업중단 이후 학업형 경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3.4%가 무업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16.7%에 해당하는 104명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는 직업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인 105명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2013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어느 특정 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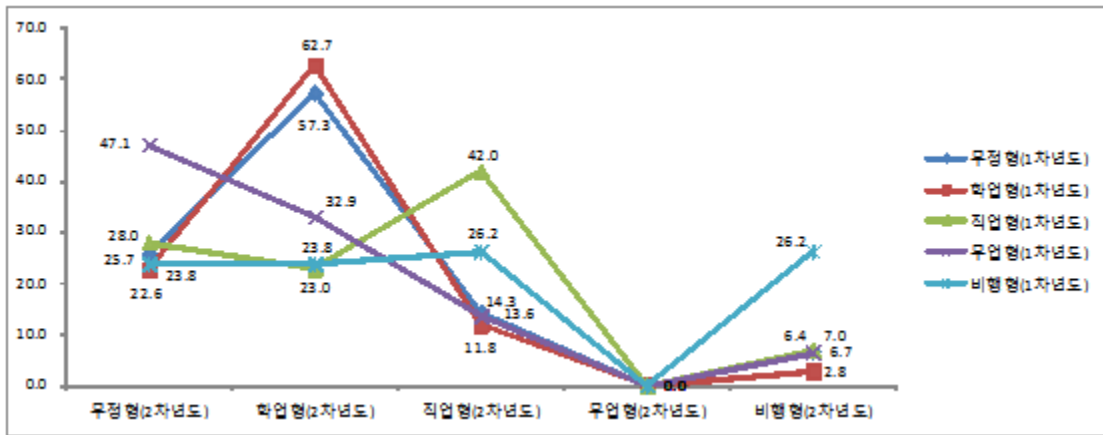
1차년도와 비교하여 2차년도의 경로 유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학업중단 이후 경로유형에서 무업형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차년도에 무업형 청소년들의 비율이 23.4%에 달했지만, 2차년도로 구분된 10개월 동안 5개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놀러다닌 청소년들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에는 무정형으로 구분된 청소년의 비율이 29.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형 청소년들의 비율도 44.7%로 1차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와 2차년도 경로유형의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 유형과 2차년도 유형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III-58> 참조).

표 Ⅲ-58 1차년도와 2차년도 경로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2차년도					계
		무정형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1차년도	무정형	27(25.7)	56(57.3)	15(14.3)	—	7(6.7)	105(100.0)
	학업형	48(22.6)	133(62.7)	25(11.8)	—	6(2.8)	212(100.0)
	직업형	28(28.0)	23(23.0)	42(42.0)	—	7(7.0)	100(100.0)
	무업형	66(47.1)	46(32.9)	19(13.6)	—	9(6.4)	140(100.0)
	비행형	10(23.8)	10(23.8)	11(26.2)	—	11(26.2)	42(100.0)
	계	179(29.9)	268(44.7)	112(18.7)	—	40(6.7)	599(100.0)



【그림 Ⅲ-36】 1차년도와 2차년도 경로유형에 대한 교차분석(N=599, 단위: %)

<표 Ⅲ-58>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셀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동일한 경로유형을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에 대각선에 해당하지 않는 셀은 1차년도의 경로와 2차년도의 경로가 다른 경우를 나타내는데 우선 무정형의 경우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어느 특정 활동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 사이를 전전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1차년도 무정형으로 구분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2차년도에는 학업형(57.3%)과 직업형(14.3%)로 생활 양상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 유형의 활동에 집중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업형의 경우, 1차년도에 학업형으로 분류되었던 212명 가운데 62.7%에 해당하는 133명은 2차년도에도 학업형으로 분류되었고, 22.6%는 2차년도에 학업형 이외의 다른 유형의 활동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반면, 11.8%는 학업보다는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 직업형으로 구분된 100명의 청소년들 가운데

42%는 2차년도에도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는 직업활동보다는 학업에 전념하는 것으로 생활 양식을 바꾼 반면에 28%는 특정 유형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1차년도 무업형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일 것이다. 1차년도에 무업형으로 구분된 청소년들 가운데 2차년도에도 무업형으로 구분된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은 반면, 무정형과 학업형, 직업형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47.1%, 32.9%,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년도에 특정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학업중단 청소년 가운데 약 1/3 정도는 2차년도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년도 무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1/8을 약간 초과하는 청소년들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중심의 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차년도 무업형 청소년들 가운데 2차년도에 특징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무정형으로 분류된 경우가 4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류에서 무정형은 2차년도 10개월 동안 특정한 목표를 갖고 생활하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1차 년도에 무업형이었던 청소년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여전히 특정 목표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탐색의 과정이라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는 무업형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업중단 이후 경로 유형의 변화에서 무정형 청소년들의 증가는 또 다른 맥락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차년도에 분석된 경로유형이 배경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가족구성별, 중단시 학업성적별, 학업중단기간별, 학업중단 이유별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가정경제수준이나 학업중단 시점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무정형이 많았으며 여자 청소년은 학업형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볼 때 고등학생 연령은 타 연령대보다 무정형이 많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형이,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형이 많았다. 가족구성별로 볼 때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타가정 청소년보다 무정형이 많았으며 양부모 가정, 한부모가정, 부모 모두 안계신 가정의 순으로 학업형이 많았으며 직업형과 비행형은 그 반대의 순이었다.

중단 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무정형과 직업형, 비행형이 많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업형이 많았다. 학업중단 기간이 짧을수록 무정형과 학업형이 많았으며 길수록 직업형이 많았다. 학업중단 이유와 관련지어 볼 때 학교를 이유로 응답한 경우, 무정형이, 대안교육을 이유로 한 경우, 학업형이, 문제행동을 이유로 한 경우, 직업형과 비행형이 많았다.

표 Ⅲ-59 배경변수별 경로유형 차이(2차) (N=599,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무정형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χ^2
전체		599	29.9	44.7	18.7	0.0	6.7	
성별	남학생	354	31.6	40.7	17.8	0.0	9.9	17.810***
	여학생	245	27.3	50.6	20.0	0.0	2.0	
연령	만13-15세	24	25.0	70.8	0.0	0.0	4.2	25.533***
	만16-18세	418	31.6	46.4	15.6	0.0	6.5	
	만19세 이상	157	26.1	36.3	29.9	0.0	7.6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332	28.6	49.7	16.3	0.0	5.4	17.086**
	한부모 가정	182	33.0	42.3	18.1	0.0	6.6	
	부모 모두 안계심	85	28.2	30.6	29.4	0.0	11.8	
가정 경제 수준	상	116	30.2	47.4	14.7	0.0	7.8	3.956
	중	249	29.7	46.2	17.3	0.0	6.8	
	하	234	29.9	41.9	22.2	0.0	6.0	
학업 성적	상	138	23.9	60.1	15.2	0.0	0.7	32.093***
	중	134	24.6	50.7	18.7	0.0	6.0	
	하	327	34.6	35.8	20.2	0.0	9.5	
학업 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25	33.6	48.8	11.2	0.0	6.4	6.080
	고등학교때	474	28.9	43.7	20.7	0.0	6.8	
학업 중단 기간	1년 미만	224	31.7	46.9	14.3	0.0	7.1	12.730*
	1년 이상~2년 미만	294	30.3	45.2	19.4	0.0	5.1	
	2년 이상	81	23.5	37.0	28.4	0.0	11.1	
학업 중단 사유 (1차)	개인 사정으로	80	28.8	50.0	16.3	0.0	5.0	22.689**
	학교 사유	324	33.0	39.5	19.8	0.0	7.7	
	대안교육을 원해서	131	25.2	57.3	16.0	0.0	1.5	
	문제행동으로	64	25.0	39.1	21.9	0.0	14.1	
최근 중단 학교 지역	대도시	285	30.5	46.0	17.5	0.0	6.0	7.249
	중소도시	151	35.8	41.7	16.6	0.0	6.0	
	읍면지역	103	24.3	44.7	22.3	0.0	8.7	
	기타	11	45.5	45.5	9.1	0.0	0.0	
최근 중단 학교 규모	대규모 (1000명 이상)	212	31.1	46.7	17.5	0.0	4.7	6.527
	중규모 (500~1000명미만)	215	32.1	39.5	20.5	0.0	7.9	
	소규모 (500명 미만)	107	25.2	51.4	15.9	0.0	7.5	

* 주; 1) * $p<.05$, ** $p<.01$, *** $p<.001$

2) 사례수 30 미만은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제 4 장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변화 비교

1. 응답자의 특성 변화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변화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인식의 변화
4.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

제 IV 장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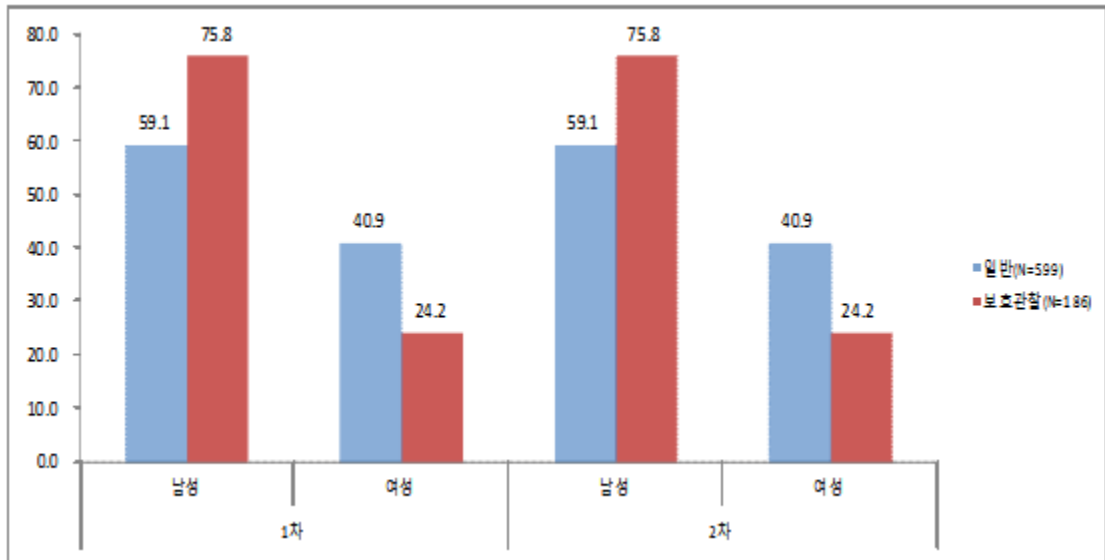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의 1, 2차 변화 또는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응답자의 특성 변화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 모두 참가한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599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186명이다. 차수별(1차, 2차),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이하 일반패널),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이하 보호관찰패널)별 변화 또는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그림 IV-1】과 같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일반패널은 남자 청소년이 59.1%, 보호관찰패널은 남자 청소년이 75.8%로 보호관찰패널의 남자 청소년 비율이 일반패널의 남자 청소년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17.00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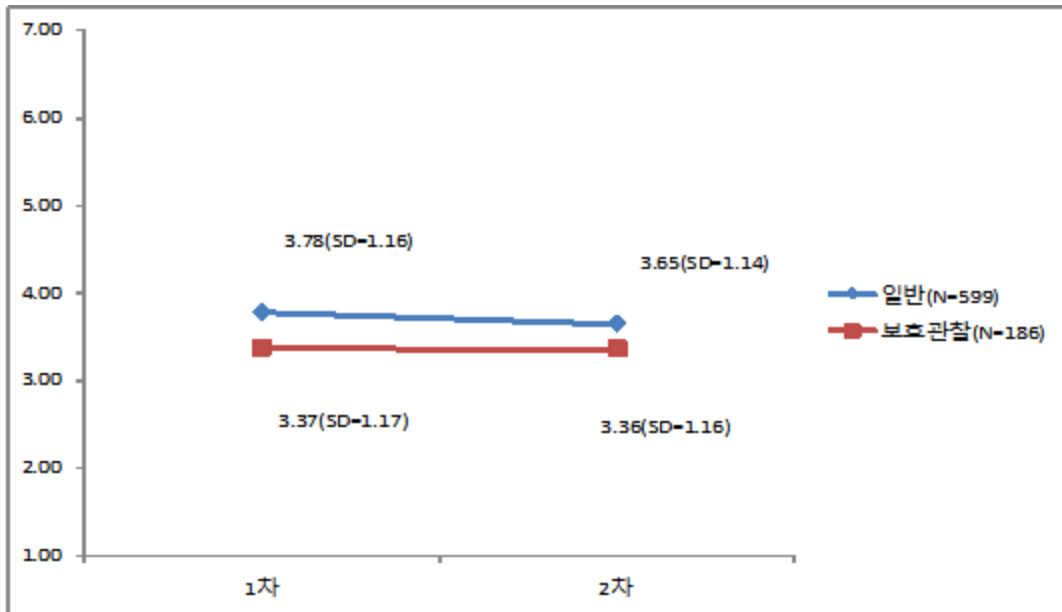
* 이 장은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그림 IV-1】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성별(단위 : %)

【그림 IV-2】의 가정경제수준⁴²⁾과 관련하여 1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3.78점(백분위 46.33점, SD=1.16), 보호관찰패널 3.37점(백분위 39.5점, SD=1.17)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 보호관찰패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t)=18.077$, $p<.001$) 2차 조사의 경우에서도 일반패널 3.65점(백분위 44.16점, SD=1.14), 보호관찰패널 3.36점(백분위 39.33점, SD=1.16)으로 역시 일반패널 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 보호관찰패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t)=8.717$, $p<.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f(t)=4.21$, $p<.05$)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42) 가정경제수준은 1=매우 못산다~7=매우 잘 산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음.



【그림 IV-2】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가정경제수준(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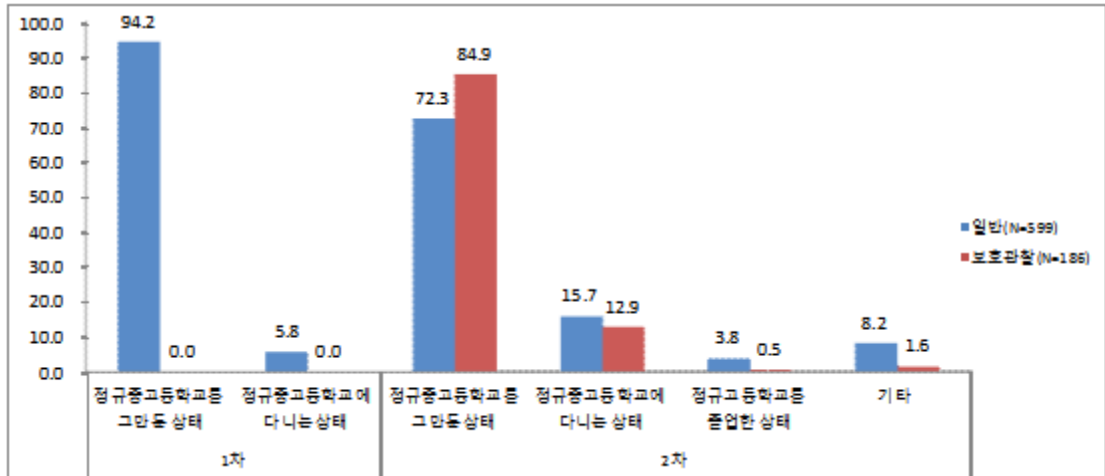
2. 학업중단 관련 실태 변화

1) 현재 학업상태

현재 학업상태를 살펴보면⁴³⁾ 【그림 IV-3】과 같다. 1차 조사에는 일반패널의 93.3%가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으며 6.7%가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였다. 2차 조사에는 일반패널 72.3%, 보호관찰패널 84.9%이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으며, 일반패널 15.7%, 보호관찰패널 12.9%이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였다.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는 일반패널 3.8%, 보호관찰패널 0.5%, 기타는 일반패널 8.2%, 보호관찰패널 1.6%로 일반패널과

43) 현재 학업상태는 일반패널의 경우 1차, 2차 모두 조사되었으며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2차에서만 조사됨. 1차 조사지에서는 현재 학업상태를 '1=학교를 그만둔 상태', '2=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정규학교로 복학한 상태'로 제시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등에서 '학교'라는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2=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로 수정하여 2차 조사에서 제시함. 또한 설문조사 전 사전 접촉결과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 선택지에 '3=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4=기타'를 추가함. 해당 문항의 결과는 2차년도 선택지를 기준으로 제시함. 관련하여 1차년도에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2=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정규학교로 복학한 상태'로 표시한 사례가 있어 '1=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수정하여 분석에 활용함.

보호관찰패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8.059$, $p<.001$).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chi^2=109.76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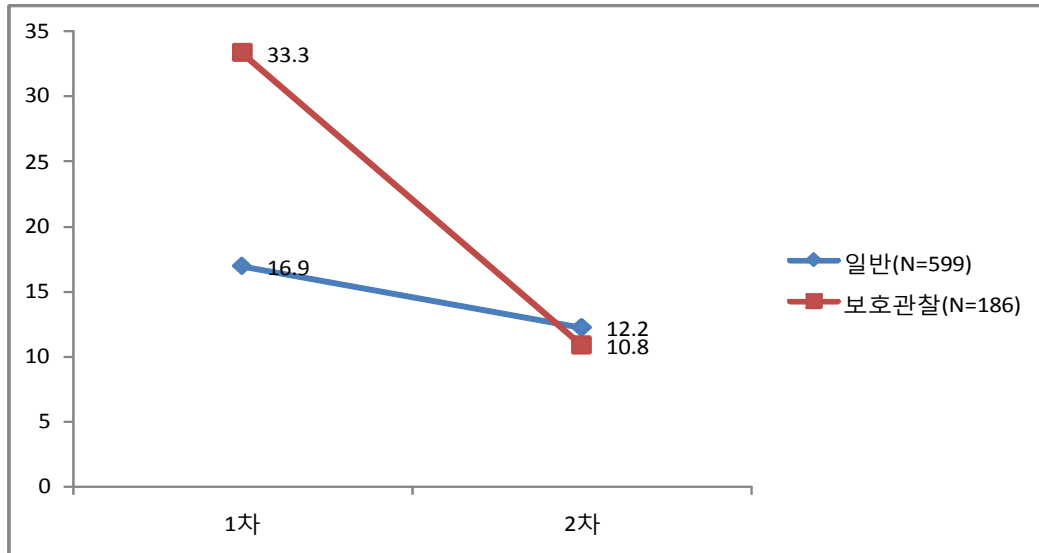


【그림 IV-3】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현재 학업상태(단위: %)

2) 복교 경험

① 복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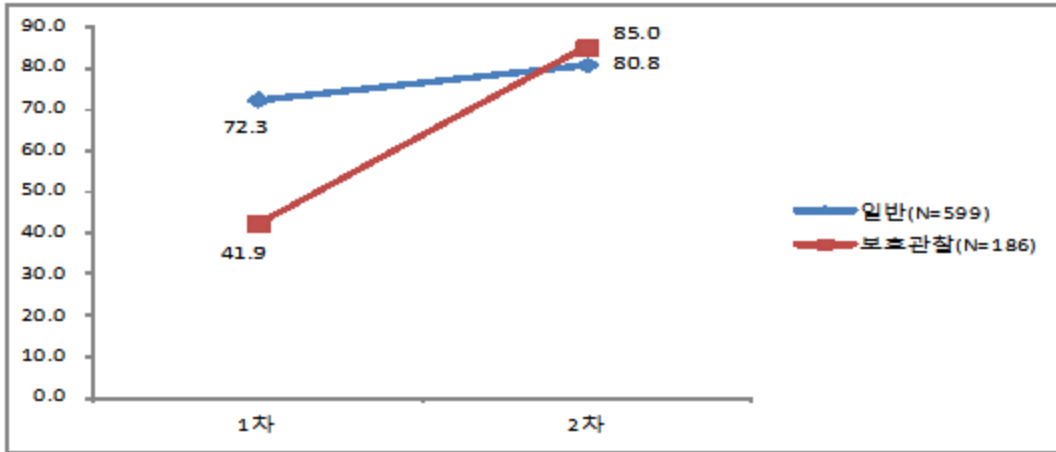
복교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는 일반패널의 16.9%, 보호관찰패널의 33.3%가 복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보호관찰패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3.40$, $p<.001$). 2차 조사에는 일반패널의 12.2%, 보호관찰패널의 10.8%가 복학한 경험이 있었으며 일반·보호관찰패널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패널은 복교율이 1차년도 16.9%에서 2차년도 12.2%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chi^2=5.27$, $p<.05$) 보호관찰패널 또한 1차년도 33.3%에서 2차년도 10.8%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chi^2=27.59$, $p<.001$)(【그림 IV-4】 참조).



【그림 IV-4】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복교율(단위: %)

② 복교 시 학교의 이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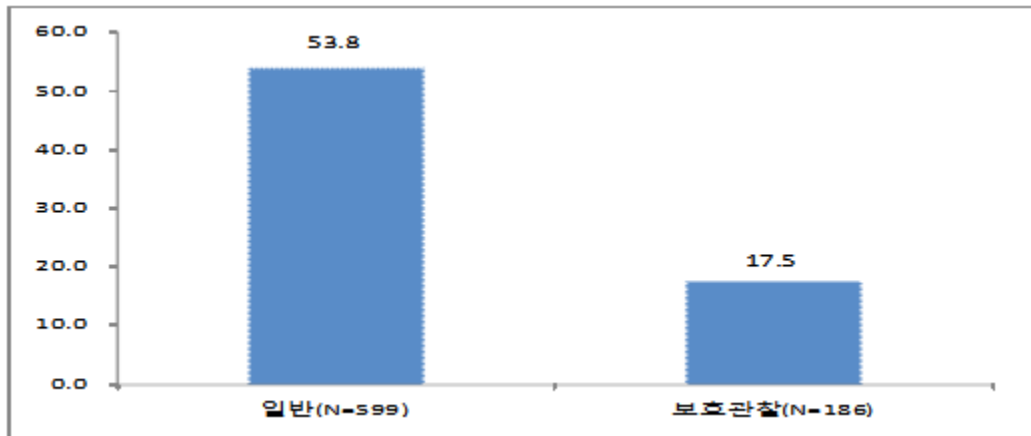
복교시 학교의 이동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72.3%, 보호관찰패널의 41.9%가 전에 다녔던 학교와 다른 학교에 복교하여 일반패널이 전에 다녔던 학교와 다른 학교에 복학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chi^2=14.83$, $p<.001$)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80.8%, 보호관찰패널의 85.0%가 다른 학교로 복교하였고 일반·보호관찰패널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패널의 경우 다른 학교로 복교하는 비율이 1차년도 72.3%, 2차년도 80.8%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 41.9%, 2차년도 85.0%로 다른 학교로 복교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chi^2=11.24$, $p<.001$). (【그림 IV-5】 참조).



【그림 IV-5】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다른 학교로 복교하는 비율(단위: %)

3) 검정고시(2차)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자격 취득 비율은 일반패널의 경우, 53.8%,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17.5%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0.59$, $p<.001$). (【그림 IV-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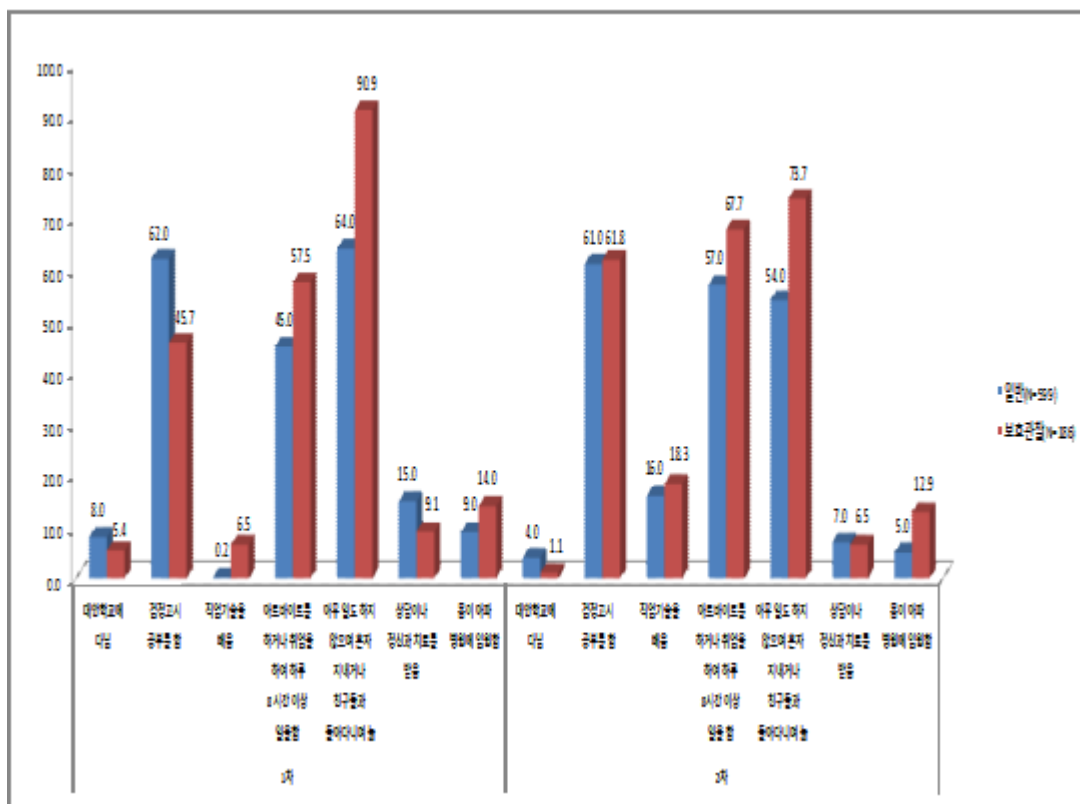
【그림 IV-6】 일반·보호관찰패널별 검정고시를 통한 졸업자격 취득률(단위: %)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인식의 변화

1)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를 1차년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은 일반패널 8.0%, 보호관찰패널 5.4%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은 일반패널 62.0%, 보호관찰패널 45.7%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15.70$, $p<.001$).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은 일반패널 0.2%, 보호관찰패널 6.5%로 보호관찰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chi^2=12.17$, $p<.00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일을 한 경험은 일반패널 45.0%, 보호관찰패널 57.5%으로 보호관찰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9.54$, $p<.01$).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험은 일반패널 64.0%, 보호관찰패널 90.9%으로 보호관찰패널이 많았으며($\chi^2=49.77$, $p<.00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일반패널 15.0%, 보호관찰패널 9.1%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3.97$, $p<.05$).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은 일반패널 9.0%, 보호관찰패널 14.0%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2차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은 일반패널 4.0%, 보호관찰패널 1.1%,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은 일반패널 61.0%, 보호관찰패널 61.8%,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은 일반패널 16.0%, 보호관찰패널의 18.3%로 일반·보호관찰패널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은 일반패널 57.0%, 보호관찰패널 67.3%로 보호관찰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6.28$, $p<.05$).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험은 일반패널 54.0%, 보호관찰패널 73.7%으로 보호관찰패널의 비율이 높았으며($\chi^2=24.14$, $p<.00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일반패널 7.0%, 보호관찰패널 6.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은 일반패널 5.0%, 보호관찰패널 12.9%로 보호관찰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16.46$, $p<.001$).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의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패널의 경우 대안학교를 다닌 경험은 1차 8.0%, 2차 4.0%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chi^2=7.34$, $p<.01$)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은 1차 62.0%, 2차 61.0%,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은 1차 0.2%, 2차 16.0%으로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은 1차 45.0%, 2차 57.0%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chi^2=19.80$, $p<.001$).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험은 1차 64.0%, 2차 54.0%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chi^2=12.40$, $p<.00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1차 15.0%, 2차 7.0%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chi^2=21.86$, $p<.001$).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은 1차 9.0%, 2차 5.0%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chi^2=9.65$, $p<.01$).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대안학교를 다닌 경험은 1차 5.4%, 2차 1.1%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chi^2=5.51$, $p<.05$)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은 1차 45.7%, 2차 61.8%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chi^2=9.73$, $p<.01$).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은 1차 6.5%, 2차 16.0%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chi^2=12.00$, $p<.00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은 1차 57.5%, 2차 67.3%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험은 1차 90.9%, 2차 73.7%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chi^2=18.86$, $p<.00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1차 9.1%, 2차 6.5%,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은 1차 14.0%, 2차 12.9%으로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IV-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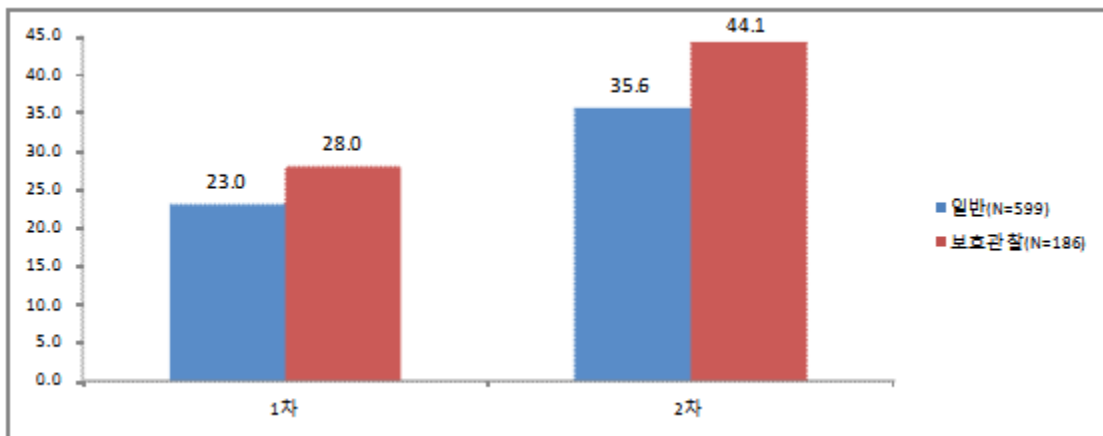


【그림 IV-7】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중단 후 생활경험의 변화(단위: %)

2)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1)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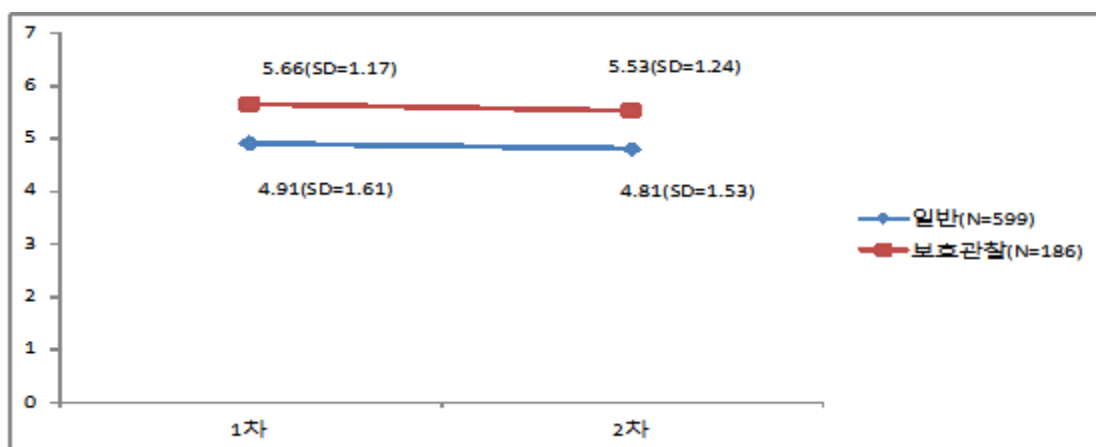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그림 IV-8】에 나타나 있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23.0%, 보호관찰패널의 28.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35.6%, 보호관찰패널의 44.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패널 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4.399$,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이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chi^2=22.667$, $p<.001$) 보호관찰패널도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chi^2=10.498$, $p<.001$).



【그림 IV-8】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아르바이트 경험(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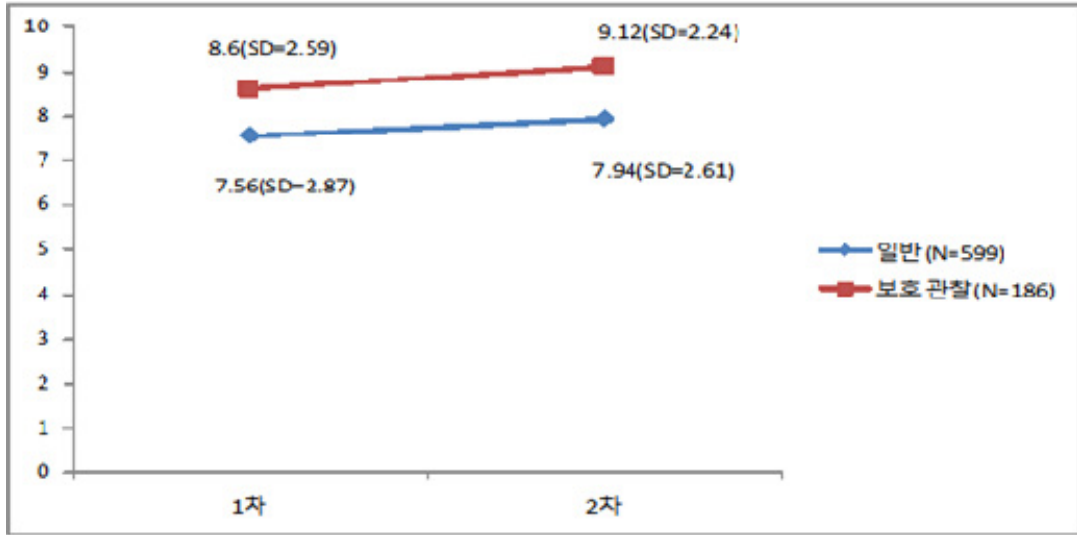
(2) 근로시간 및 급여

【그림 IV-9】는 주당 근로일수를 살펴 본 것이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4.91일($SD=1.61$), 보호관찰패널 5.66일($SD=1.17$)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일반패널 청소년보다 주당 근로일수가 길었으며($f(t)=9.303, p<.01$)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4.81일, 보호관찰패널 5.53일로 역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주당 근로일수가 길었다($f(t)=14.019,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9】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주당 근로일수(단위: 점)

【그림 IV-10】의 일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7.56시간($SD=2.87$), 보호관찰패널 8.60시간($SD=2.59$)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 일일 근로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5.205, p<.05$), 2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7.94시간($SD=2.61$), 보호관찰패널 9.12시간($SD=2.24$)으로 역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일일 근로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f(t)=12.713,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10】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일일 근로시간(단위: 점)

2) 진학·진로 관련 경험 : 진로정보 탐색 경험

(1) 지역사회에서 성인 멘토 경험 여부

지역사회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에 경우 청소년시설에서 멘토를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1.7%, 보호관찰패널 5.4%, 복지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2.5%, 보호관찰패널 5.4%, 보호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3.5%, 보호관찰패널 5.9%로 일반·보호관찰패널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상담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9.5%, 보호관찰패널 9.7%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chi^2=11.51$, $p<.001$)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6.2%, 보호관찰패널 57.0%, 직업훈련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5.3%, 보호관찰패널 3.8%, 종교기관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9.3%, 보호관찰패널 6.5%로 일반·보호관찰패널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원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1.7%, 보호관찰패널 2.7%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많았으며($\chi^2=5.49$, $p<.05$).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3.8%, 보호관찰패널 2.2%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4.8%, 보호관찰패널 2.7%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42$, $p<.05$). 2차년도의 경우 청소년시설에서 멘토를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1.7%, 보호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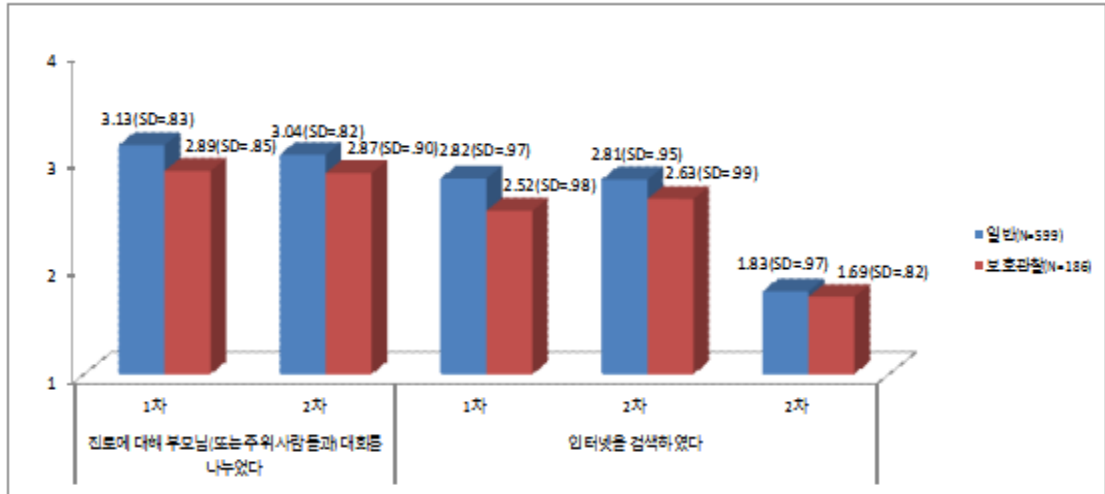
패널 4.3%, 복지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2.7%, 보호관찰패널 3.2%, 보호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2.3%, 보호관찰패널 4.3%, 상담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2.4%, 보호관찰패널 8.6%으로 일반·보호관찰패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에서 멘토를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4.3%, 보호관찰패널 44.6%로 보호관찰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5.69$, $p<.05$). 직업훈련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3.8%, 보호관찰패널 5.4%, 종교기관에서 경험은 일반패널 6.2%, 보호관찰패널 4.3%, 학원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7.7%, 보호관찰패널 4.3%,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2.8%, 보호관찰패널 1.6%으로 일반·보호관찰패널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2.3%, 보호관찰패널 0.0%이다($\chi^2=5.06$, $p<.05$).

차수별 증가 감소를 일반·보호관찰패널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시설에서 지역사회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의 경우 1차년도 11.7%, 2차년도 11.7%로 동일하였으며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1차년도 5.4%, 2차년도 4.3%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의 경우 1차년도 2.5%, 2차년도 2.7%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1차년도 5.4%, 2차년도 3.2%으로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보호시설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차년도 3.5%, 2차년도 2.3%, 보호관찰패널 1차년도 5.9%, 2차년도 4.3%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차년도 19.5%, 2차년도 12.4%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chi^2=11.51$, $p<.001$)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 9.7%, 2차년도 8.6%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차년도 6.2%, 2차년도 4.3%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보호관찰패널 1차년도 57.0%, 2차년도 44.6%으로 2차년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chi^2=5.69$, $p<.05$). 직업훈련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차년도 5.3%, 2차년도 3.8%, 보호관찰패널 1차년도 3.8%, 2차년도 5.4%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종교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차년도 9.3%, 2차년도 6.2%, 보호관찰패널 1차년도 6.5%, 2차년도 4.3%으로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원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의 경우 1차년도 11.7%, 2차년도 7.7%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chi^2=5.49$, $p<.05$),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1차년도 2.7%, 2차년도 4.3%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 등 치료시설에서 만난 경험 또한 일반패널 1차년도 3.8%, 2차년도 2.8%, 보호관찰 1차년도 2.2%, 2차년도 1.6%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안교육기관에서 만난 경험은 일반패널 1차년도 4.8%, 2차년도 2.3%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chi^2=5.42$, $p<.05$), 보호관찰패널 1차년도 2.7%, 2차년도 0.0%으로 나타났다.

(2) 진로정보 탐색 경험

진로정보의 탐색⁴⁴⁾은 【그림 IV-11】에 나타나 있다.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를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3.13점(백분위 71점, SD=.83), 보호관찰패널 2.89점(백분위 63점, SD=.857)으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t)=11.593$, $p<.001$) 2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3.04점(백분위 68점, SD=.82), 보호관찰패널 2.87점(백분위 62.33점, SD=.90)으로 역시 일반패널 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f(t)=5.491$,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의 경우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f(t)=4.07$, $p<.05$)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유의미한 증가 또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하였다’에 대해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2.82점(백분위 60.66점, SD=.97), 보호관찰패널 2.52점(백분위 50.66점, SD=.98)으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t)=13.426$, $p<.001$) 2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2.81점(백분위 60.33점, SD=.95), 보호관찰패널 2.63점(백분위 54.33점, SD=.99)으로 역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f(t)=4.814$,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를 살펴보면 1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1.83점(백분위 27.66점, SD=.97), 보호관찰패널 1.69점(백분위 23점, SD=.82)으로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일반패널이 높았으며($f(t)=3.456$, $p<.10$) 2차년도의 경우 일반패널 1.77점(백분위 25.66점, SD=.90), 보호관찰패널 1.72점(백분위 24점, SD=.88)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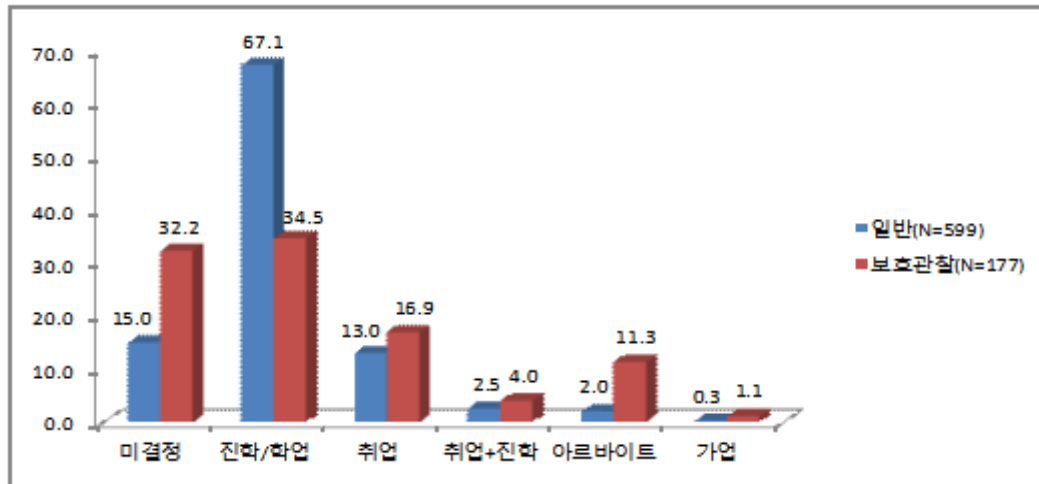
44) 진로정보의 탐색은 2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50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한 문항을 제외해도 신뢰도 계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가 없어 각각의 문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함. 본 장의 신뢰도 계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모두 합산하여 측정함.



【그림 IV-11】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진로정보의 탐색(단위: 점)

(3) 향후 진로계획

2차년도 조사에서 드러난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을 보면 미결정인 경우는 일반패널 15.0%, 보호관찰 32.2%이며 진학/학업인 경우는 일반패널 67.1%, 보호관찰 34.5%, 취업인 경우는 일반패널 13.0%, 보호관찰패널 16.9%, 취업+진학인 경우는 일반패널 2.5%, 보호관찰패널 4.0%, 아르바이트인 경우는 일반패널 2.0%, 보호관찰패널 11.3%, 가업인 경우는 일반패널 0.3%, 보호관찰패널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은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4.412$, $p<.001$). (【그림 IV-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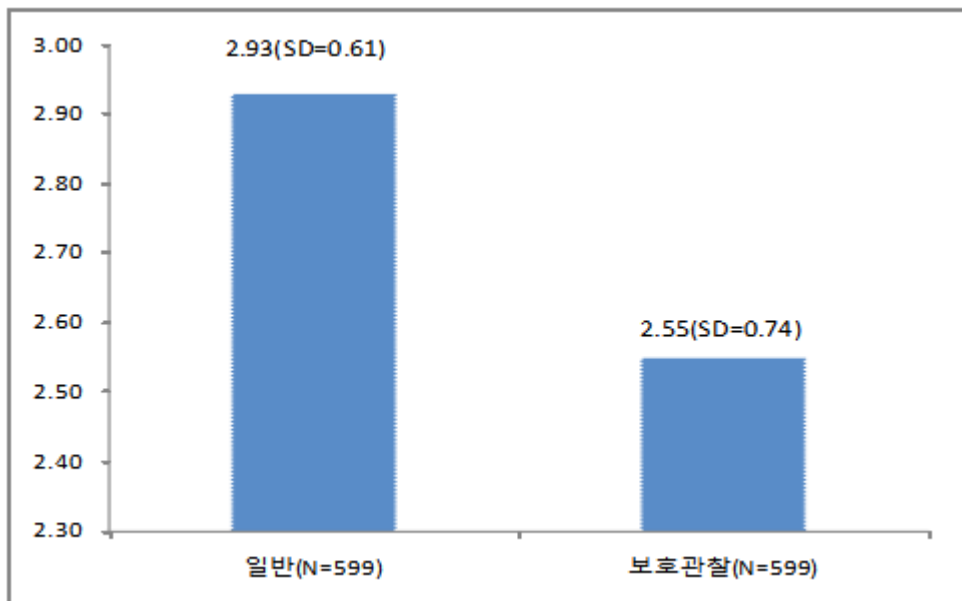


【그림 IV-12】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진로계획(2차)(단위: %)

(4)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2차)

2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하위문항 별로 살펴보면 ‘목표를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일반패널 2.74점(백분위 58점, SD=.81), 보호관찰패널 2.34점(백분위 44.66점, SD=.844)으로 일반패널·보호관찰패널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패널 2.79점(백분위 59.66점, SD=.773), 보호관찰패널 2.38점(백분위 46점, SD=.832)으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t)=6.043$, $p<.01$).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일반패널 2.80점(백분위 60점, SD=.794), 보호관찰패널 2.44점(백분위 48점, SD=.888)로 일반패널의 요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t)=4.955$, $p<.001$).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는 일반패널 3.02점(백분위 67.33점, SD=.745), 보호관찰패널 2.63점(백분위 54.33점, SD=.861)으로 일반패널의 요구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t)=5.502$, $p<.001$)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는 일반패널 3.11점(백분위 70.33점, SD=.746), 보호관찰패널 2.69점(백분위 56.33점, SD=.918)으로 역시 일반패널의 요구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t)=5.502$, $p<.001$).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일반패널 3.03점(백분위 67.66점, SD=.776), 보호관찰패널 2.70점(백분위 56.66점, SD=.878)으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게 응답하였다($f(t)=4.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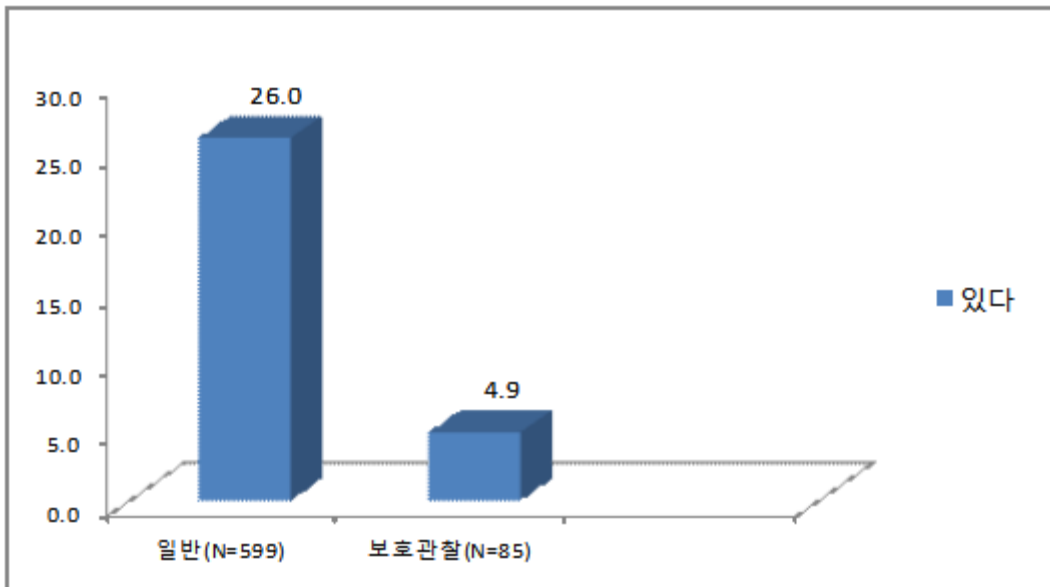
$p<.001$).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패널 2.96점(백분위 65.33점, $SD=.786$), 보호관찰 2.58점(백분위 52.66점, $SD=.880$)으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t)=5.263$, $p<.001$).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패널 2.94점(백분위 64.66점, $SD=.790$), 보호관찰패널 2.50점(백분위 50점, $SD=.871$)으로 일반패널의 요구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t)=6.098$, $p<.001$).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는 일반패널 3.02점(백분위 67.33점, $SD=.783$), 보호관찰패널 2.73점(백분위 57.66점, $SD=.908$)으로 일반패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t)=3.842$, $p<.001$).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합산하여 집단별 차이를 나타낸 것은 【그림 IV-13】과 같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일반패널 2.93점(백분위 64.33점, $SD=.611$), 보호관찰패널 2.55점(백분위 51.66점, $SD=.740$)으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t)=6.338$, $p<.001$).



【그림 IV-13】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2차)(단위: 점)

3)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실태(2차 추가)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의 26.0%, 보호관찰패널의 4.9%가 참여한 경험이 있어 일반패널의 참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chi^2=38.153$, $p<.001$) (【그림 IV-14】 참조).



【그림 IV-14】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2차)(단위: %)

4) 일상생활 양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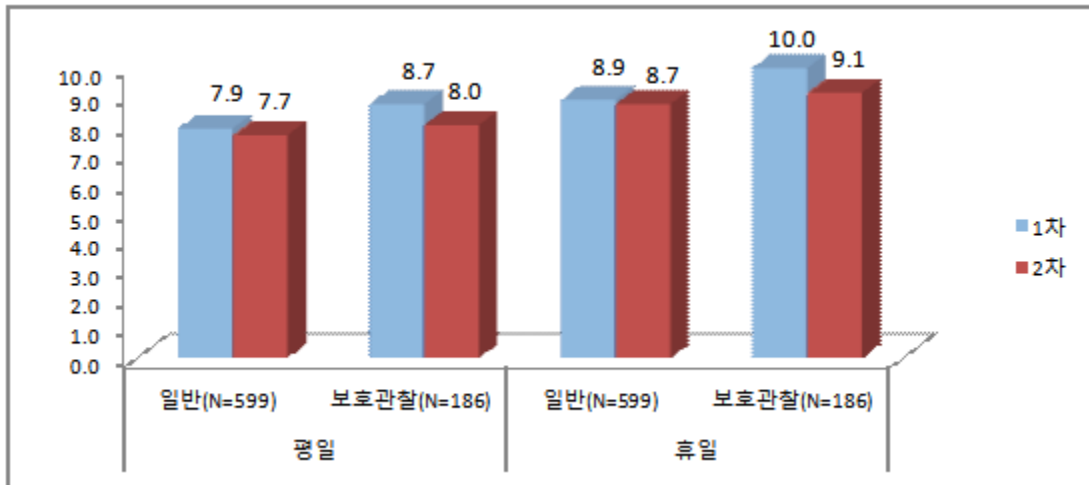
(1) 생활시간

① 수면시간

평일과 휴일 수면시간은 【그림 IV-15】와 같다. 평일 수면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7.89시간($SD=1.83$), 보호관찰패널 8.73시간($SD=2.21$)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 수면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27.086$,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7.66시간, 보호관찰 8.01시간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수면시간 감소를 나타냈으며($f(t)=4.346, p<.05$) 보호관찰패널 또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수면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f(t)=11.751, p<.001$).

【그림 IV-15】의 휴일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일반패널 8.88시간($SD=2.12$), 보호관찰패널 9.97시간($SD=2.43$)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며($f(t)=35.243,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8.73시간($SD=2.13$), 보호관찰패널 9.12시간($SD=2.39$)으로 역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길었다($f(t)=4.527,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수면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f(t)=11.488, p<.001$).



【그림 IV-15】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수면시간(단위: 점)

② 주요 생활영역 생활시간의 변화

먼저 평일 생활시간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림 IV-16】을 보면 공부시간(학교, 대안학교, 직업 훈련기관 등)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5.48시간($SD=2.81$), 보호관찰패널 4.96시간($SD=2.27$)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2차년도 또한 일반패널 6.37시간($SD=3.09$), 보호관찰패널 5.92시간($SD=2.5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공부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f(t)=12.087, p<.001$) 보호관찰패널

널은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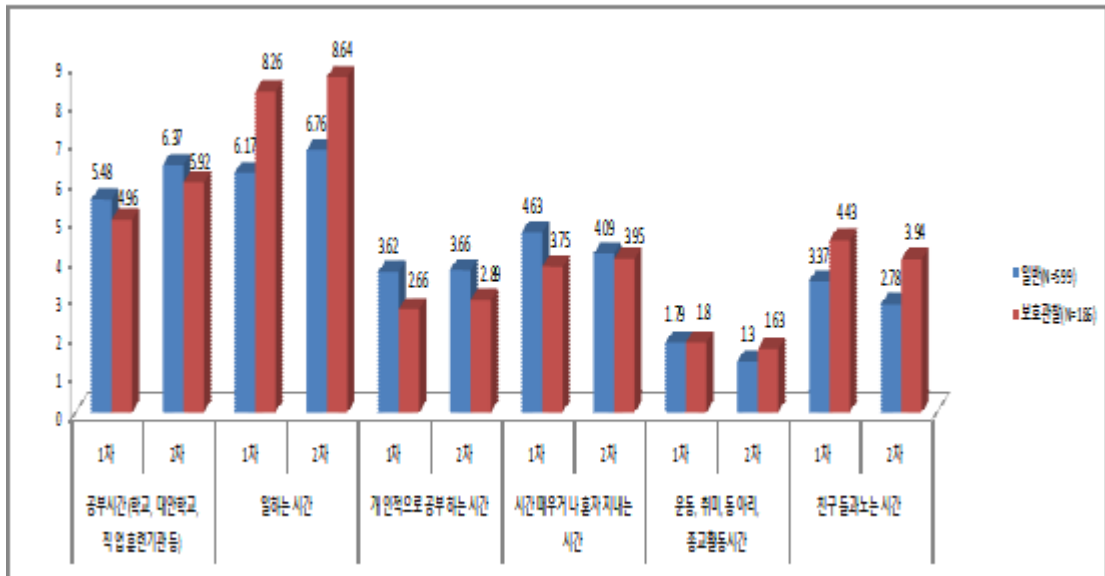
일하는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6.17시간($SD=3.56$), 보호관찰패널 8.26시간($SD=2.85$)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15.768$,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6.76시간($SD=3.56$), 보호관찰패널 8.64시간($SD=2.75$)으로 역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f(t)=17.741$,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3.62시간($SD=2.54$), 보호관찰패널 2.66시간($SD=1.76$)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6.291$, $p<.05$), 2차년도는 일반패널 3.66시간, 보호관찰패널 2.89시간으로 역시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f(t)=3.613$, $p<.10$).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시간 때우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4.63시간($SD=3.36$), 보호관찰 3.75시간($SD=2.65$)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8.126$, $p<.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4.09시간($SD=2.93$), 보호관찰패널 3.95시간($SD=3.21$)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시간 때우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f(t)=8.110$, $p<.01$)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활동 시간은 1차년도는 일반패널 1.79시간($SD=1.52$), 보호관찰패널 1.80시간($SD=1.49$)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년도는 일반패널 1.30시간($SD=1.23$), 보호관찰패널 1.63시간($SD=1.59$)으로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약간 길었다($f(t)=2.915$, $p<.10$).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 활동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f(t)=17.066$, $p<.001$)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일반패널 3.37시간($SD=2.79$), 보호관찰패널 4.43시간($SD=2.72$)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16.234$,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2.78시간($SD=2.31$), 보호관찰패널 3.94시간($SD=2.84$)으로 역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f(t)=22.688$,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f(t)=12.827$, $p<.001$)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IV-16】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평일 생활시간(단위: 점)

다음으로 【그림 IV-17】의 휴일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공부시간(학교, 대안학교, 직업훈련 기관 등)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1.08시간($SD=2.49$), 보호관찰패널 1.29시간($SD=2.8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년도 또한 일반패널 0.90시간($SD=2.21$), 보호관찰패널 1.31시간($SD=2.91$)으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일하는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4.66시간($SD=4.29$), 보호관찰패널 6.61시간($SD=4.21$)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났으며($f(t)=8.679$, $p<.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4.86시간($SD=4.41$), 보호관찰패널 6.24시간($SD=4.97$)으로 역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길었다($f(t)=5.173$, $p<.05$). 차수별로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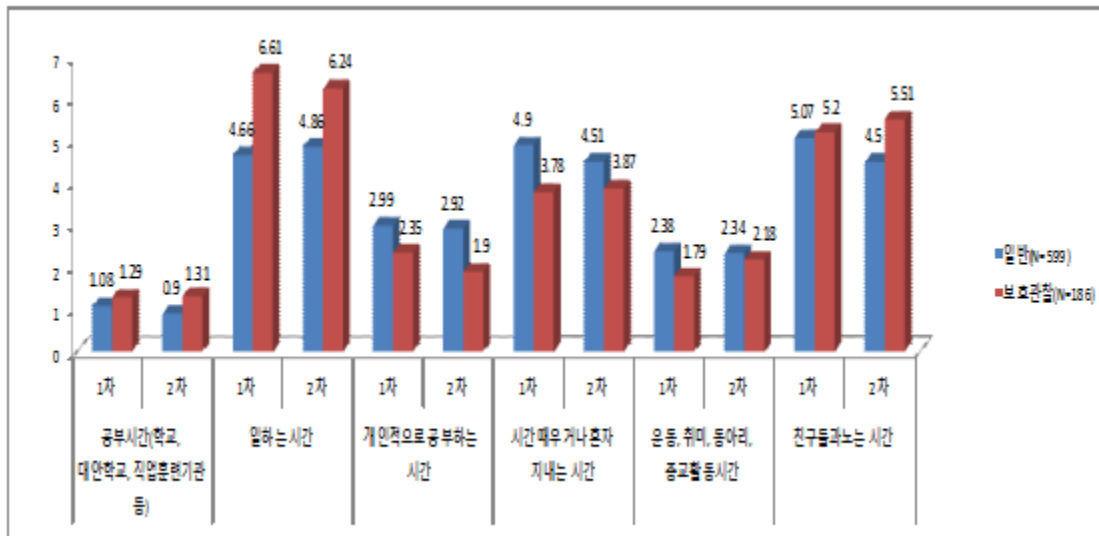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2.99시간($SD=3.17$), 보호관찰패널 2.35시간($SD=2.07$)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년도는 일반패널 2.92시간($SD=3.09$), 보호관찰패널 1.90시간($SD=1.94$)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f(t)=6.276$,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시간 때우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4.90시간($SD=3.37$), 보호관찰패널

3.78시간(SD=3.11)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12.251$,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4.51시간(SD=3.04), 보호관찰패널 3.87시간(SD=3.20)으로 역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f(t)=4.576$,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f(t)=3.953$, $p<.05$)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활동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2.38시간(SD=1.85), 보호관찰패널 1.79시간(SD=1.48)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었으며($f(t)=5.581$, $p<.05$) 2차년도는 일반패널 2.34시간(SD=1.91), 보호관찰 2.18시간(SD=1.62)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로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 5.07시간(SD=3.26), 보호관찰패널 5.20시간(SD=2.7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년도는 일반패널 4.50시간(SD=2.82), 보호관찰패널 5.51시간(SD=3.28)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났다($f(t)=11.929$,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휴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f(t)=8.220$, $p<.01$)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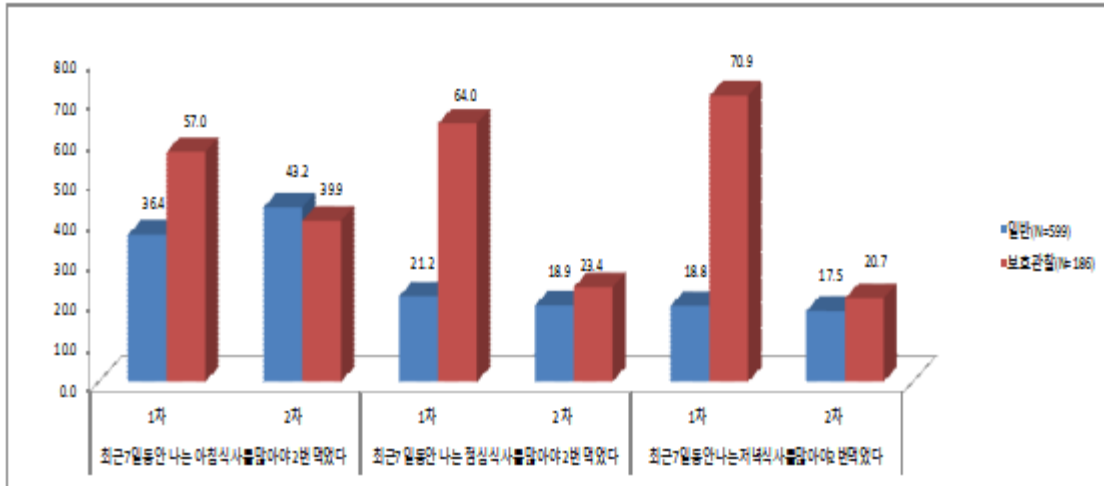


【그림 IV-17】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휴일 생활시간 추가(단위: 점)

(2) 식생활습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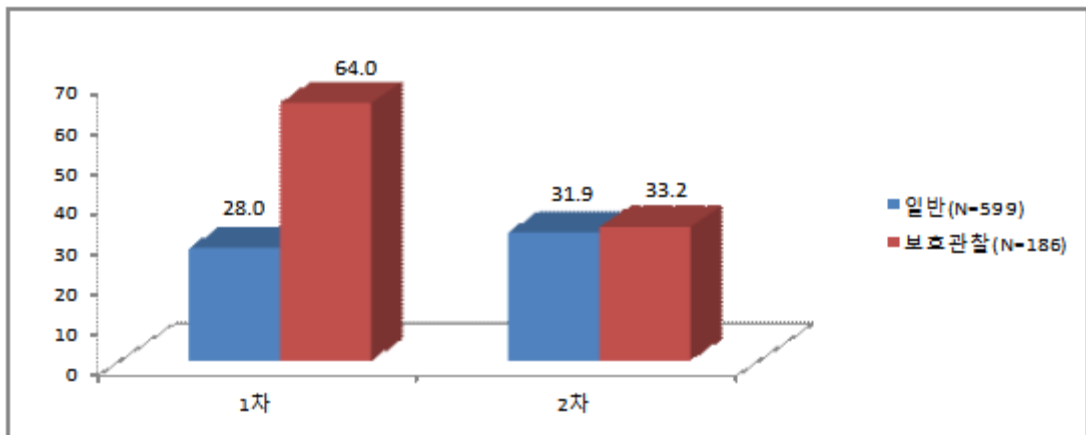
식생활 습관은 【그림 IV-18】과 같다.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 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의 경우 1차년도는 일반패널이 그렇다 36.4%, 보호관찰패널이 그렇다 57.0%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침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chi^2=24.837$,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이 그렇다 43.2%, 보호관찰패널이 39.9%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내($\chi^2=5.856$, $p<.10$) 아침 식사습관이 다소 열악해 짐을 알 수 있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 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그렇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chi^2=10.797$, $p<.001$) 아침 식사습관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 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1차년도는 일반패널 21.2%가 그렇다, 보호관찰패널 64.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열악한 점심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chi^2=120.697$,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18.9%, 보호관찰패널 23.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그렇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chi^2=61.972$, $p<.001$)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점심식사 습관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 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1차년도는 일반패널 18.4%, 보호관찰패널 69.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열악한 저녁 식사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며($\chi^2=177.540$,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17.5%, 보호관찰패널 20.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그렇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chi^2=90.472$, $p<.001$)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저녁식사 습관 또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8】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식사습관(단위: %)

다음으로 【그림 IV-19】의 인스턴트 식품 노출을 살펴보면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3회 이상 먹었다’는 응답에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8.0%, 보호관찰패널 64.0%로 보호관찰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은 인스턴트 식품 노출 비율을 나타냈으며($\chi^2=79.005$, $p<.001$)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31.9%, 보호관찰패널 33.2%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그렇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chi^2=35.184$, $p<.001$)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인스턴트 식품 노출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9】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인스턴트 식품 노출(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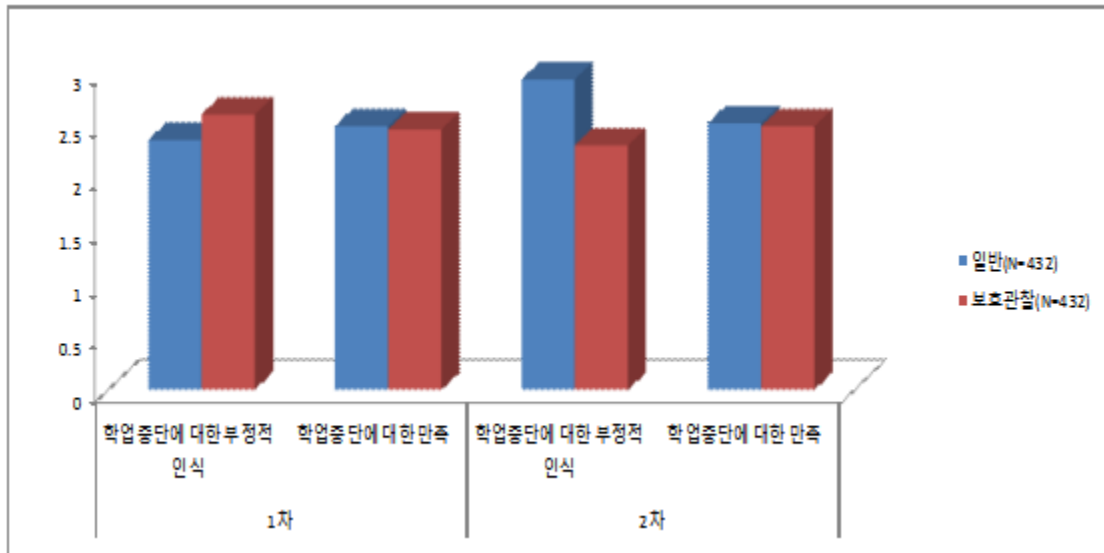
4) 가치관의 변화

(1)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을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으로 살펴보면 【그림 IV-20】과 같다. 먼저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⁴⁵⁾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일반패널 2.34점(백분위 44.66점, SD=.654), 보호관찰패널 2.59점(백분위 53점, SD=.643)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f(t)=-4.649$,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2.32점(백분위 44점, SD=.636), 보호관찰패널 2.45점(백분위 48.33점, SD=.767)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 모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⁴⁶⁾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일반패널 2.91점(백분위 63.66점, SD=.665), 보호관찰패널 2.30점(백분위 43.33점, SD=.617)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t)=11.571$,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2.84점(백분위 61.33점, SD=.616), 보호관찰패널 2.48점(백분위 49.33점, SD=.678)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았다($f(t)=5.935$,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보호관찰패널은 학업중단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f(t)=-2.549$, $p<.05$).

-
- 45)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3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4로 무리가 없는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3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 46)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은 3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8로 무리가 없는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으며 값이 높을수록 만족이 높게 파악되도록 다른 문항과 역방향으로 질문한 두 번째 문항을 재부호화한 후 3개 문항을 모두 더해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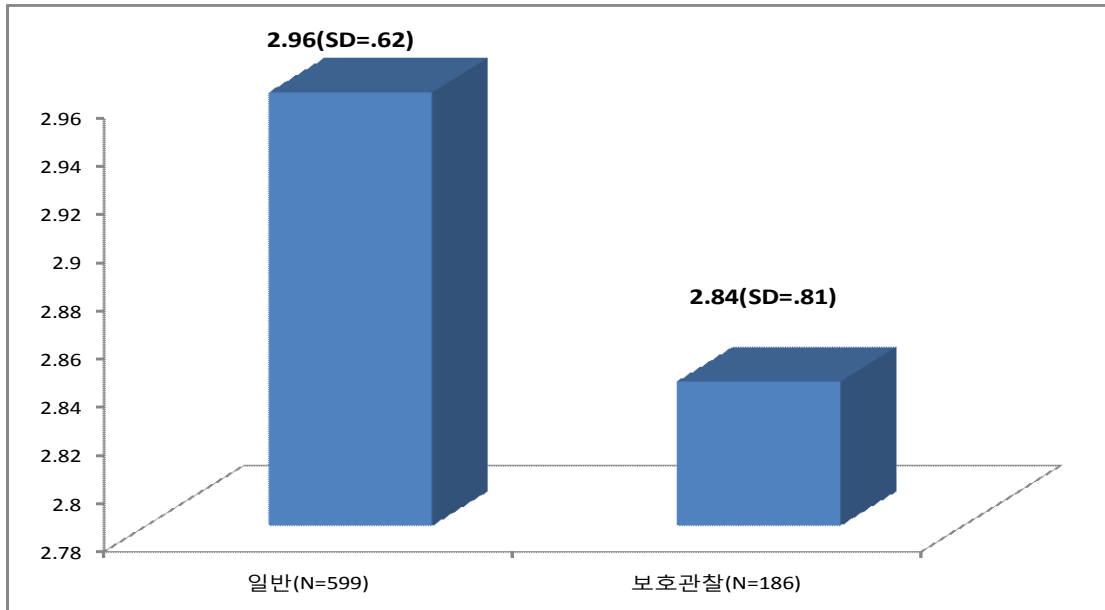


【그림 IV-20】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단위:점)

(2) 학력의 중요성(2차)

학력의 중요성⁴⁷⁾을 살펴보면 일반패널 2.96점(백분위 65.33점, SD=.62), 보호관찰패널 2.84점(백분위 61.33점, SD=.817)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IV-21】 참조).

47) 학력의 중요성은 3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상당한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3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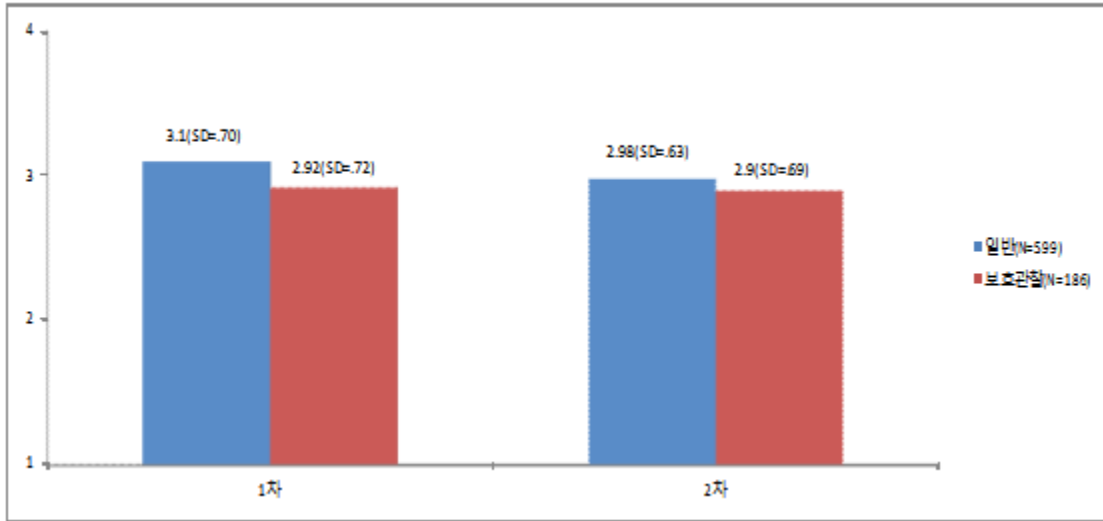


【그림 IV-21】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단위: 점)

(3) 미래에 대한 생각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⁴⁸⁾은 【그림 IV-22】에 나타나 있다. 1차년도는 일반패널 3.10점(백분위 70점, SD=.62), 보호관찰패널 2.92점(백분위 64점, SD=.72)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f(t)=4.446$, $p<.001$) 2차년도는 일반패널 2.98점(백분위 66점, SD=.63), 보호관찰패널 2.90점(백분위 63.33점, SD=.69)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f(t)=10.136$, $p<.01$)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와 2차년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8)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3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4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0으로 상당한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3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그림 IV-22】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미래에 대한 생각(단위: 점)

4.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부모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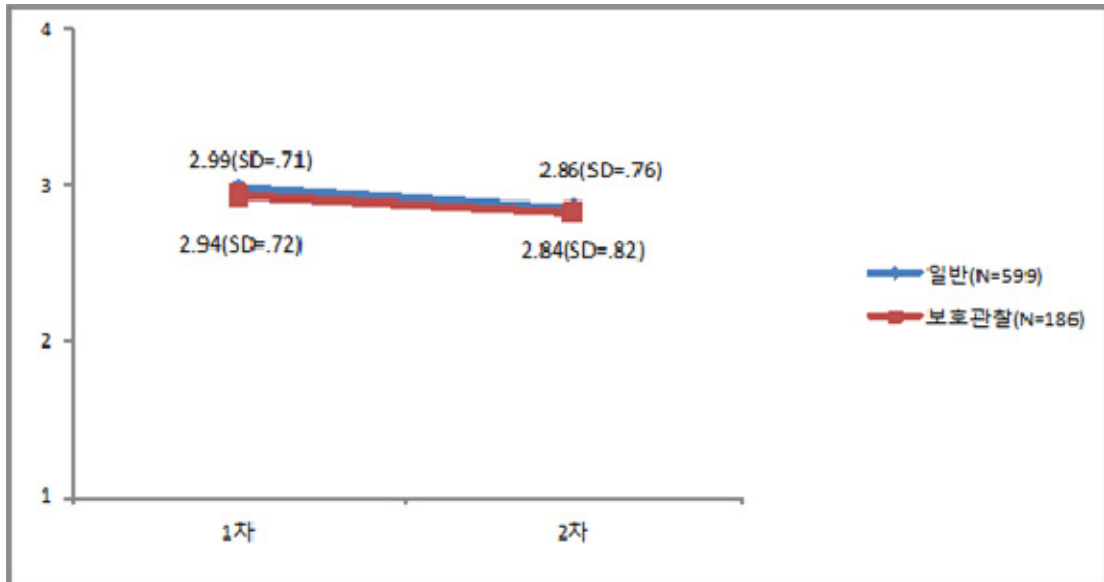
부모의 정서적 지원⁴⁹⁾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99점(백분위 66.33점, SD=.69), 보호관찰패널 3.02점(백분위 67.33점, SD=.68)으로 패널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2차년도는 일반패널 2.99점(백분위 66.33점, SD=.65), 보호관찰패널 3.04점(백분위 68점, SD=.66) 점으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또한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⁵⁰⁾을 살펴보면 【그림 IV-23】과 같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99점(백분위 66.33점, SD=.71), 보호관찰패널 2.94점(백분위 64.66점, SD=.72)이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49)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5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5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50)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3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무난한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3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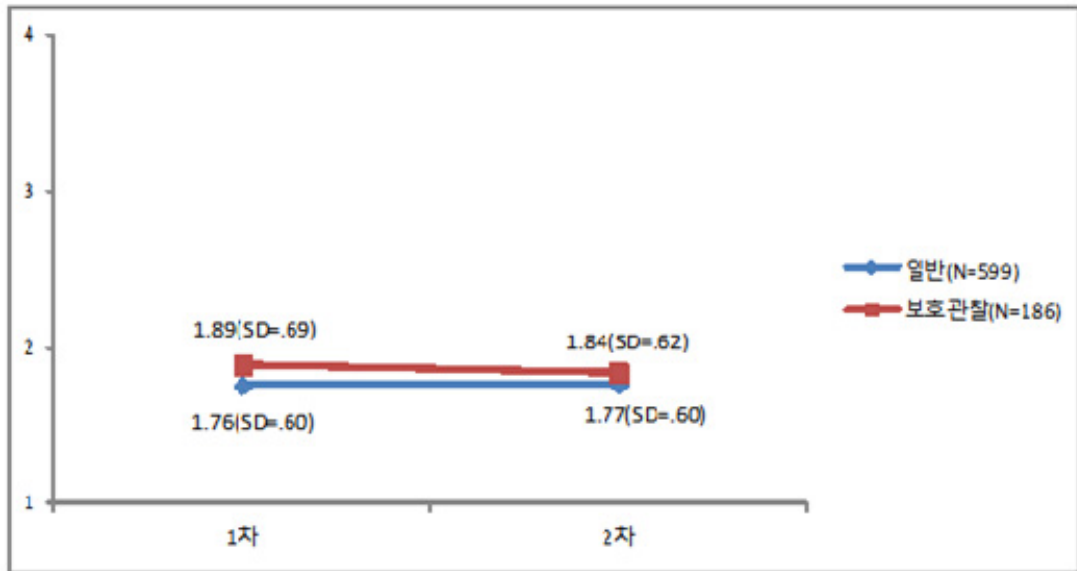
않았다.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86점(백분위 62점, SD=.76), 보호관찰패널 2.84점(백분위 61.33점, SD=.82)이며 역시 패널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감소하였으며($f(t)=9.326$, $p<.01$),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3】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단위: 점)

부모의 방임⁵¹⁾을 살펴보면 【그림 IV-24】와 같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76점(백분위 25.33점, SD=.60), 보호관찰패널 1.89점(백분위 29.66점, SD=.69)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부모방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t)=5.919$, $p<.05$).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77점(백분위 25.66점, SD=.60), 보호관찰패널 1.84점(백분위 28점, SD=.62)이며 일반패널 청소년과 보호관찰패널 청소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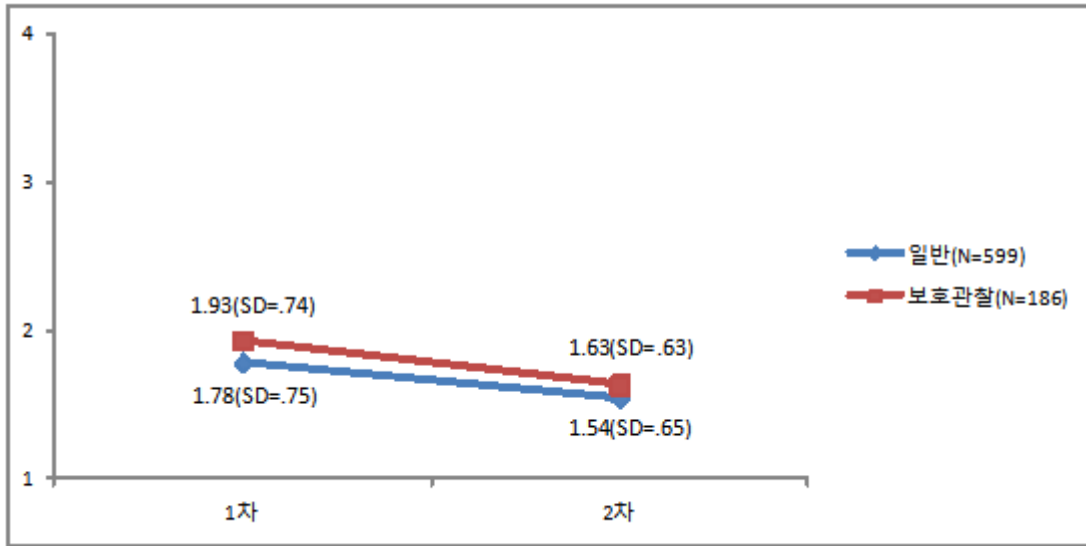
51) 부모의 방임은 5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56으로 다소 낮은 수준임. 다섯 개 문항 중 첫 번째 문항인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비깃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를 제외할 경우 신뢰도 계수가 .81로 증가하므로 첫 번째 문항을 뺀 나머지 4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그림 IV-24】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부모의 방임(단위: 점)

부모의 학대⁵²⁾는 【그림 IV-25】에 나타나 있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78점(백분위 26점, SD=.75), 보호관찰패널 1.93점(백분위 31점, SD=.74)으로 보호관찰패널의 부모 학대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f(t)=5.571, p<.05$) 2차년도 또한 일반패널 1.54점(백분위 18점, SD=.65), 보호관찰패널 1.63점(백분위 21점, SD=.63)으로 일반패널보다 보호관찰패널에서 부모 학대가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높게 나타났다($f(t)=2.74, p<.10$).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으며($f(t)=34.643, p<.001$) 보호관찰패널 또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부모학대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f(t)=17.688,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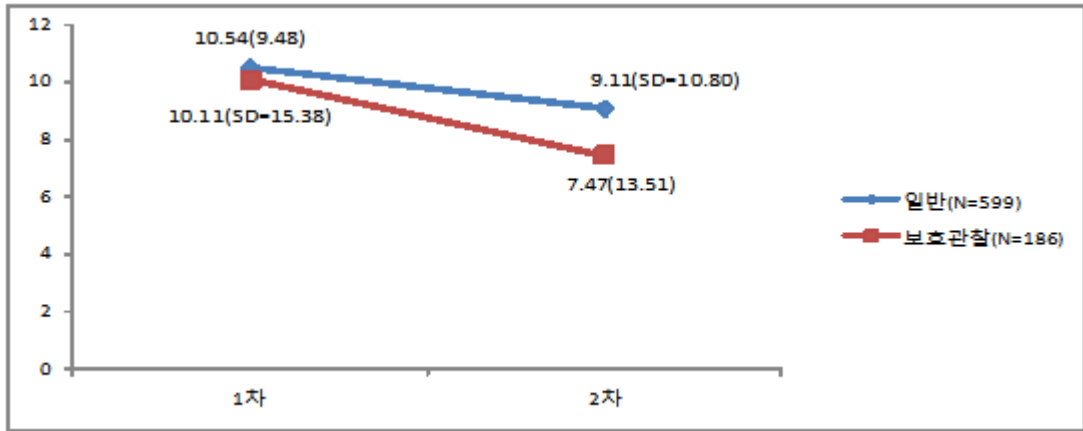
52) 부모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4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4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4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그림 IV-25】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부모의 학대(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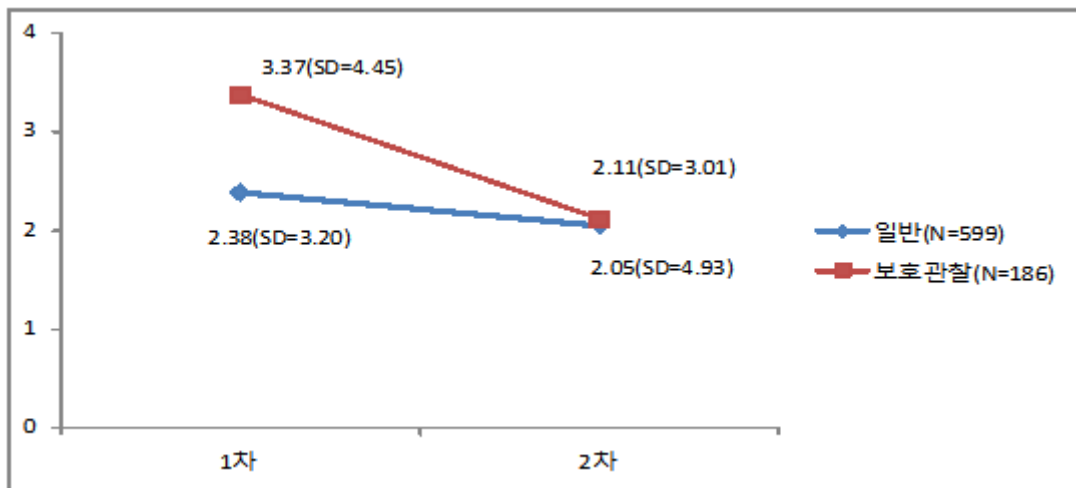
2) 친구관계

【그림 IV-26】의 친한 친구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0.54명(SD=9.48), 보호관찰패널 10.11명(SD=15.38)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9.11명(SD=10.80), 보호관찰 7.47명(SD=13.51)으로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친구수가 일반패널 청소년의 친구수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f(t)=2.868$, $p<.10$).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친한 친구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f(t)=5.94$, $p<.05$) 보호관찰패널 또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친한 친구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f(t)=3.068$, $p<.10$).



【그림 IV-26】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친한 친구수(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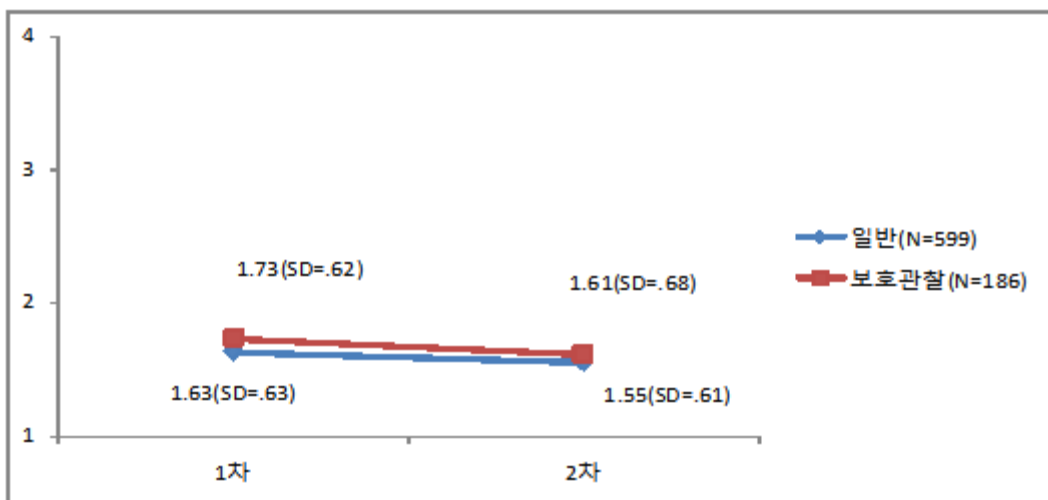
학업을 중단한 친구수를 살펴보면 【그림 IV-27】과 같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이 2.38명 (SD=3.20), 보호관찰패널이 3.37명(SD=4.45)으로 보호관찰패널의 학업중단 친구수가 유의미하게 높는데 반해($f(t)=10.950, p<.001$)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이 2.05명(SD=4.93), 보호관찰패널이 2.11명(SD=3.0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학업중단한 친구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f(t)=9.832, p<.01$).



【그림 IV-27】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학업중단 친구수(단위: 점)

또래애착⁵³⁾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3.14점(백분위 71.33점, SD=.61), 보호관찰패널 3.20점(백분위 73.33점, SD=.55)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3.08점(백분위 69.33점, SD=.62), 보호관찰 3.16(백분위 72점, SD=.65)으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 또한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의 비행성향⁵⁴⁾은 【그림 IV-28】에 나타나 있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63점(백분위 21점, SD=.63), 보호관찰패널 1.73점(백분위 24.33점, SD=.62)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친구가 일반패널 청소년의 친구보다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비행성향을 나타낸 반면($f(t)=3.187$, $p<.10$)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의 친구 비행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으며($f(t)=4.588$, $p<.05$) 보호관찰패널 또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친구의 비행성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f(t)=3.134$,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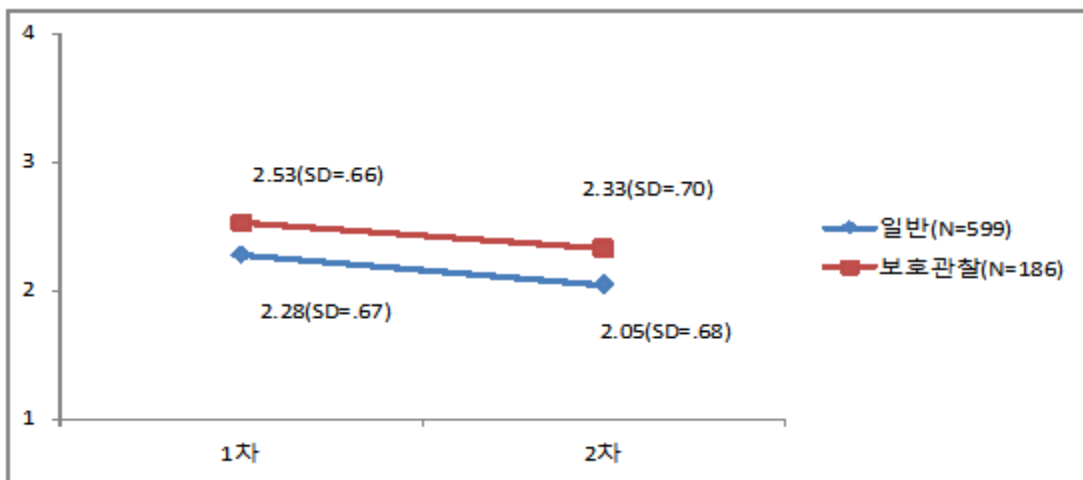
【그림 IV-28】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친구의 비행성향(단위: 점)

53) 또래애착은 3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3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54) 또래의 비행성향은 3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3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7로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3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3) 지역사회 인식

지역사회 사회통합(유대와 통제)⁵⁵⁾를 살펴보면 【그림 IV-29】와 같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28점(백분위 39.33점, SD=.67), 보호관찰패널 2.53점(백분위 51점, SD=.66)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일반패널 청소년보다 지역사회 사회통합(유대와 통제)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f(t)=19.328, p<.001$) 2차년도 또한 일반패널 2.05점(백분위 35점, SD=.68), 보호관찰 2.33점(백분위 44.33점, SD=.70)으로 역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이 일반패널 청소년보다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f(t)=24.105,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지역사회통합이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으며($f(t)=35.028, p<.001$) 보호관찰패널 또한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f(t)=7.866, p<.01$).



【그림 IV-29】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지역사회 사회통합(단위: 점)

55) 지역사회 사회통합(유대와 비공식적 통제)은 4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4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9로 높은 수준임. 4개 문항을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음.

지역사회 무질서⁵⁶⁾를 살펴보면 일반패널 2.23점(백분위 41점, SD=.65), 보호관찰패널 2.21점(백분위 40.33점, SD=.70)이며 패널 유형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차수별 증가, 감소 또한 일반패널,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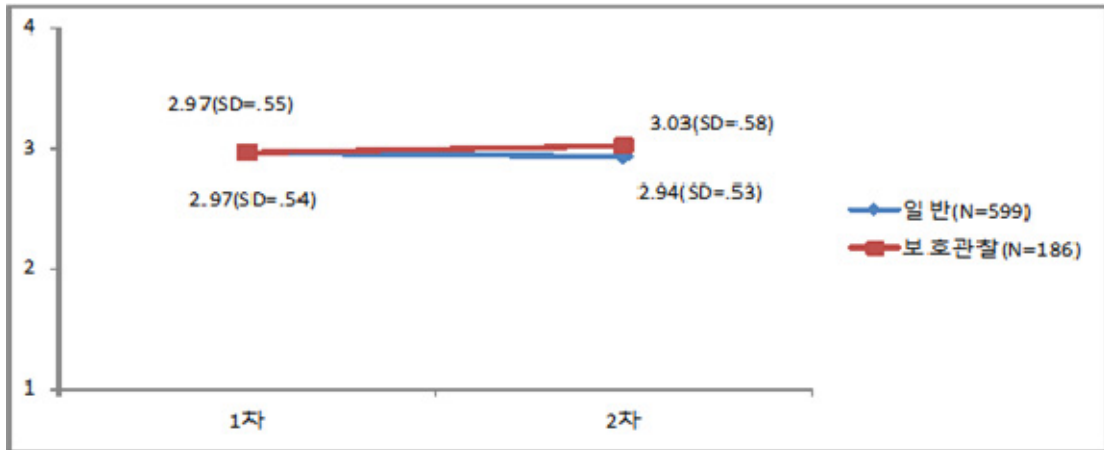
1) 심리·정서의 변화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⁵⁷⁾을 살펴보면 【그림 IV-30】과 같다. 1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2.97점(백분위 65.66점, SD=.54), 보호관찰패널 2.97점(백분위 65.66점, SD=.5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2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2.94점(백분위 64.66점, SD=.53), 보호관찰패널 3.03점(백분위 67.66점, SD=.58)으로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보호관찰패널의 자아존중감이 일반패널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t)=3.21$, $p<.10$).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

56) 지역사회 무질서(물리적, 사회적)은 4개 척도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4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5로 적절한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4개 문항을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57) 자아존중감은 5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6로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5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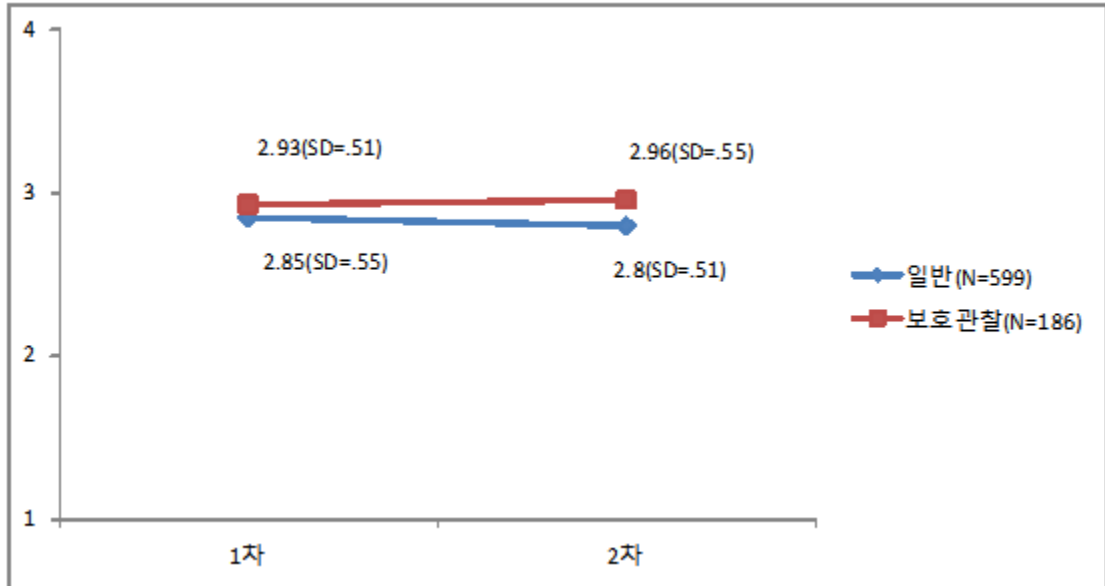


【그림 IV-30】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자아존중감(단위: 점)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⁵⁸⁾을 살펴보면 【그림 IV-31】과 같다. 1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2.85점(백분위 61.66점, SD=.55), 보호관찰패널 2.93점(백분위 64.33점, SD=.5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2.8점(백분위 60점, SD=.51), 보호관찰패널 2.96점(백분위 65.33점, SD=.55)으로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일반패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t)=13.05$,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

58) 자아탄력성은 5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5로 상당한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5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그림 IV-31】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자아탄력성(단위: 점)

(3) 우울

우울59)을 살펴보면 1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2.03점(백분위 34.33점, SD=.57), 보호관찰패널 2.01점(백분위 33.66점, SD=.63)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2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1.99점(백분위 33점, SD=.57), 보호관찰패널 1.99점(백분위 33점, SD=.63)으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 또한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

59) 우울은 10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10 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10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4) 충동성

충동성⁶⁰⁾을 살펴보면 1차 조사의 경우 일반패널 1.98점(백분위 32.66점, SD=.57), 보호관찰패널 1.92점(백분위 30.66점, SD=.61)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2차 조사의 경우 또한 일반패널 1.93점(백분위 31점, SD=.60), 보호관찰패널 1.86점(백분위 28.66점, SD=.59)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또한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 문제행동 경험의 변화

(1) 문제행동 피해경험의 변화

문제행동 피해경험⁶¹⁾은 【그림 IV-32】에 나타나 있다. 집단따돌림(왕따)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0.8%, 보호관찰패널의 0.0%가 경험하였으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4%, 보호관찰패널의 0.53%가 경험하여 일반패널이 보호관찰패널보다 집단따돌림(왕따) 피해를 많이 경험하였다($\chi^2=5.539$,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chi^2=12.757$, $p<.001$)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적인 놀림 당하기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00%, 보호관찰패널 0.53%였으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83%, 보호관찰패널 0.53%로 일반패널이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하였다($\chi^2=3.35$, $p<.05$).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chi^2=5.364$, $p<.05$)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7%, 보호관찰패널 1.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5.5%, 보호관찰패널 0.53%로 일반패널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8.465$, $p<.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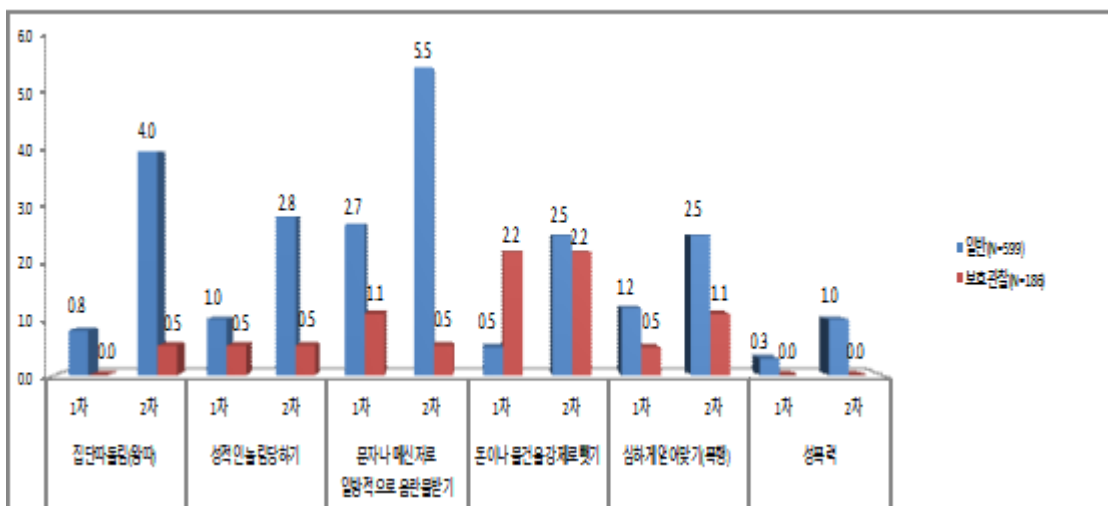
60) 충동성은 5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6으로 무난한 수준임. 5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61) 본 장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1차년도 조사시점까지(1차), 1차년도 조사 이후 2차년도 조사시점까지(2차) 문제행동 피해, 가해 경험을 기준을 분석함.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chi^2=6.149$, $p<.05$)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0.5%, 보호관찰패널 22%로 일반패널이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피해경험이 높았으며($\chi^2=4.371$, $p<.10$)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5%, 보호관찰패널 22%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피해경험이 증가하였으며($\chi^2=8.122$, $p<.01$)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심하게 언어맞기(폭행)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2%, 보호관찰패널 0.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2.5%, 보호관찰패널 1.1%로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폭력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0.3%, 보호관찰패널 0.0%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차년도 또한 일반패널 1.0%, 보호관찰패널 0.0%로 유의미한 유형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IV-32】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문제행동 피해경험(단위: %)

(2) 문제행동 가해경험의 변화

다음으로 【그림 IV-33】의 문제행동 가해경험을 살펴보면 담배 피우기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54.9%, 보호관찰패널의 80.1%가 경험하여 보호관찰패널이 일반패널보다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높았으며($\chi^2=37.796$, $p<.001$) 2차년도 또한 일반패널의 57.8%, 보호관찰패널의 90.3%가 경험하여 일반패널보다 보호관찰패널이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높았다($\chi^2=66.564$,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으나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담배 피우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chi^2=7.702$, $p<.01$).

술 마시기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58.8%, 보호관찰패널의 78.5%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보호관찰패널이 술을 마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chi^2=23.821$, $p<.001$) 2차년도에도 일반패널 66.6%, 보호관찰패널 81.2%로 보호관찰패널이 일반패널보다 음주경험비율이 높았다($\chi^2=14.368$, $p<.001$).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술 마시기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chi^2=7.883$, $p<.05$) 보호관찰패널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의 경우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의 5.2%, 보호관찰패널의 28.0%가 경험하여 보호관찰패널의 경험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chi^2=77.905$, $p<.001$), 2차년도 또한 일반패널의 4.5%, 보호관찰패널의 14.0%가 경험하여 여전히 보호관찰패널이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나($\chi^2=20.221$, $p<.001$) 그 차이는 1차(22.8%p)에 비해 2차(9.5%p)에 다소 감소하였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chi^2=10.96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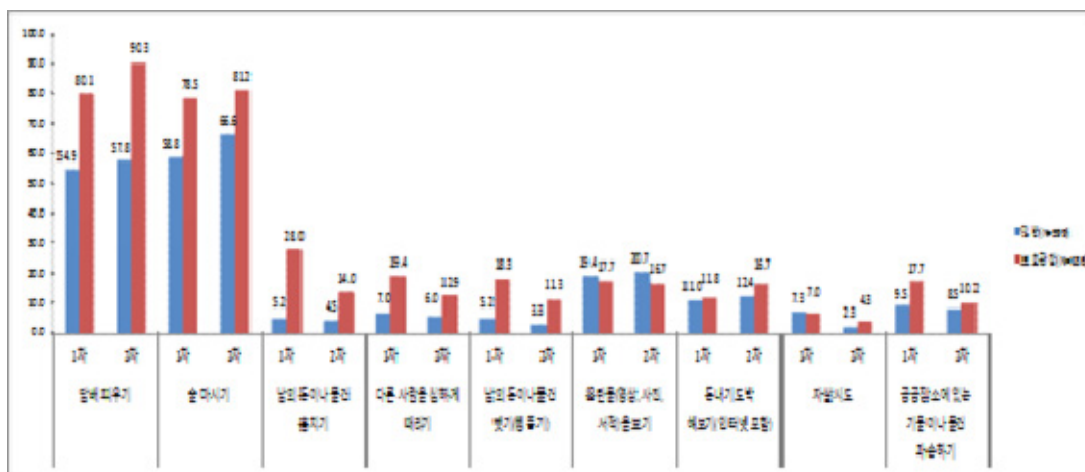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의 경우 1차년도 일반패널 7.0%, 보호관찰패널 19.4%로 보호관찰패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chi^2=24.163$, $p<.001$) 2차년도에도 일반 6.0%, 보호관찰 12.9%로 보호관찰패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chi^2=9.554$, $p<.01$) 1차의 일반, 보호관찰패널 차이(12.4%p)에 비해 2차의 일반, 보호관찰패널 차이(6.9%p)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유의미한 증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남의 돈이나 물건 빼기(뺑뺑기)의 경우 1차년도 일반패널 5.2%, 보호관찰패널 18.3%로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chi^2=32.091$, $p<.001$) 2차년도에서도 일반패널 3.3%,

보호관찰패널 11.3%로 역시 보호관찰패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chi^2=18.128$, $p<.001$) 1차년도 일반, 보호관찰패널간 차이(13.1%p)에 비해 2차년도 일반, 보호관찰패널간 차이(8%p)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패널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뺑기)가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chi^2=3.606$, $p<.10$).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의 경우 1차년도 일반패널 9.5%, 보호관찰패널 17.7%로 보호관찰패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chi^2=9.462$, $p<.01$) 2차년도 일반패널 8.5%, 보호관찰패널 10.2%로 패널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차수별로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으나 보호관찰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chi^2=4.382$, $p<.05$).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자살 시도는 1차년도 일반, 보호관찰패널간 차이, 2차년도 일반, 보호관찰패널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차수별 증가, 감소 정도를 살펴보면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와 돈내기 도박해보기(인터넷 포함)는 유의미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살시도는 보호관찰패널은 차수별로 유의미한 증감이 없었으나 일반패널은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감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chi^2=16.30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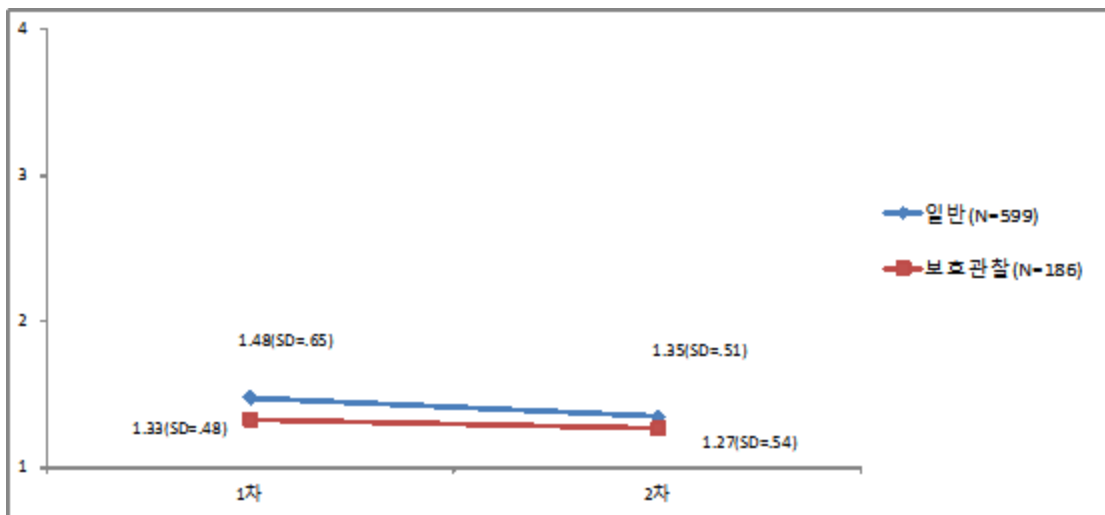


【그림 IV-33】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문제행동 가해경험(단위: %)

3) 컴퓨터 사용 행동의 변화

(1) 게임중독 정도

게임중독⁶²⁾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IV-34】와 같다. 1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48점(백분위 16점, SD=.65), 보호관찰패널 1.33점(백분위 11점, SD=.48)으로 일반패널 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 패널보다 유의미하게 게임중독 수준이 높았다($f(t)=8.230, p<.01$). 2차년도에는 일반패널 1.35점(백분위 12점, SD=.51), 보호관찰패널 1.27점(백분위 9점, SD=.54)으로 역시 일반패널 청소년이 유의수준 90%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게임중독 수준이 높았다($f(t)=3.302, p<.10$). 차수별 증가, 감소를 살펴보면 일반패널 청소년의 경우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유의미하게 게임중독 수준이 낮아졌으며($f(t)=13.204, p<.001$) 보호관찰패널 청소년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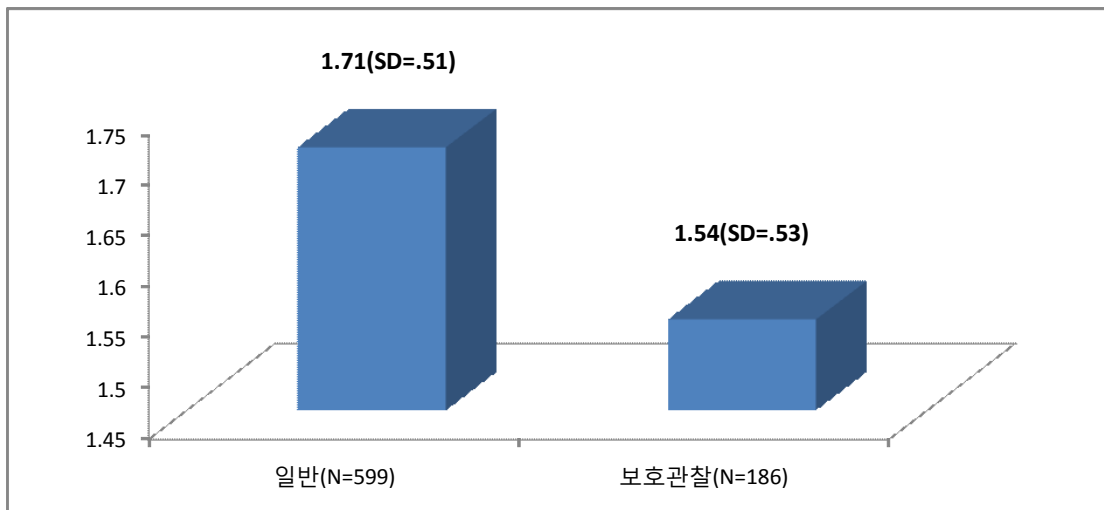


【그림 IV-34】 차수별, 일반·보호관찰패널별 게임중독(단위: 점)

62) 게임 중독은 8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8 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8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2) 스마트폰 중독(2차 추가)

스마트폰 중독⁶³⁾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IV-35】와 같다. 일반패널은 1.71점(백분위 23.66점, SD=.518), 보호관찰패널 1.54점(백분위 18점, SD=.534)으로 일반패널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t)=3.823$, $p<.001$).



【그림 IV-35】 스마트폰 중독(2차 추가)(단위: 점)

63) 스마트폰 중독은 8개 문항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8 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0로 높은 수준임. 한 문항을 제외할 경우 특별히 신뢰도 계수가 증가되는 경우가 없어 8개 문항을 모두 더한 뒤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함.

제 5 장

학업중단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분석

1. 학업중단 현황
2. 국내 정책 현황
3. 외국의 정책 현황

제 V 장

학업중단 현황 및 국내외 정책 분석*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 추정⁶⁴⁾

1) 학업중단을 변화추이

2012학년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는 초등학교 16,828명(0.6%), 중학교 16,426명(0.9%), 고등학교 34,934명(1.8%)이다(<표 V-1> 참조). 학업중단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2005학년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5학년도 0.5%에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학년도에는 0.6%에 이르고 있으며, 중학교 학업중단율은 1980학년도 1.2%에서 2005학년도에 0.8%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1% 내외를 유지하여 2012학년도에는 0.9%가 되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00학년도 2.5%에서 2005학년도에 1.3%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학년도에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개년 간(2005~2012) 학업중단율의 변화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V-1】과 같다. 그래프를 보면 먼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상승하여, 고등학교 시기의 경우 중학교 시기의 학업중단율보다 약 2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학년도 이후 최근 8개년 간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9년 초·중학교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 수에 포함되면서 학업중단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 장의 1절, 2절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절은 서정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64)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집필하였음.

표 V-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율(1980~2012학년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1980	5,658,002	3,856	0.1	2,471,997	30,628	1.2	1,696,792	43,088	2.5
1985	4,856,752	1,636	0.0	2,782,173	29,410	1.1	2,152,802	63,841	3.0
1990	4,868,520	1,299	0.0	2,275,751	22,348	1.0	2,283,806	42,542	1.9
1995	3,905,163	1,219	0.0	2,481,848	24,567	1.0	2,157,880	53,743	2.5
2000	4,019,991	14,734	0.4	1,860,539	19,097	1.0	2,071,468	52,136	2.5
2005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6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7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8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9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10	3,299,094	18,836 (10,404) →10,181 (사망자제외)	0.6 (0.3)	1,974,798	18,866 (16,509) →16,320 (사망자제외)	1.0 (0.8)	1,962,356	38,887 (34,091)	2.0 (1.7)
2011	3,132,477	19,163 (10,771)	0.6 (0.3)	1,910,572	17,811 (15,337)	0.9 (0.8)	1,943,798	37,391 (33,057)	1.9 (1.7)
2012	2,951,995	16,828 (9,192)	0.6 (0.3)	1,849,094	16,426 (14,231)	0.9 (0.8)	1,920,087	34,934 (30,558)	1.8 (1.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46. 표 II-18.

교육부(2013.9.5.). 201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p.40. 표-40.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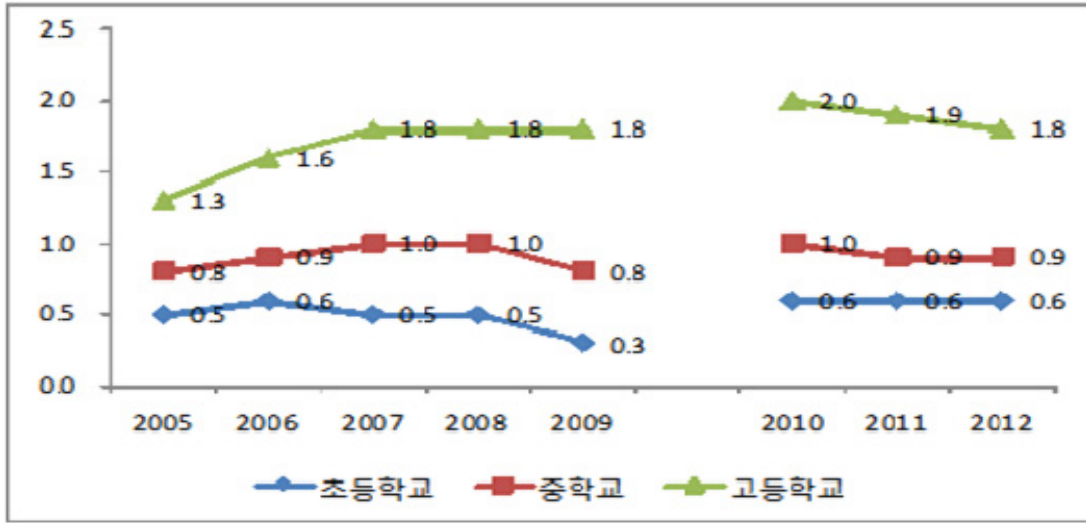
2) 구분연도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임(2012학년도 학업중단자 수: 2012.3.1.~2013.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2.4.1.기준)

3)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됨.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면제,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2012년 기준).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0~2012년의 ()는 2009년 이전 기준(유학이민/파견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그림 V-1】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변화(2005~2012) (단위: %)

* 주: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조사 기준의 변화로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함

2) 학업중단자 복귀현황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급별 비율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최근 3개년 간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의 학교 복귀현황(<표 V-2>, [그림 V-2])를 보면 첫째,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79% 이상, 중학교는 50% 내외, 고등학교에서는 20% 미만 수준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어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복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도별 복귀율의 변화추이를 2010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초·고등학교의 학교 복귀율은 2011학년도에 감소했다가 2012학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각각 1.1%p, 4.6%p가 낮아졌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복귀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2학년도에는 2010학년도에 비해 3.6%p 높게 나타났다.

표 V-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복귀현황(2010~2012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복귀자 수	복귀율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복귀자 수	복귀율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복귀자 수	복귀율
2010	18,836 (10,404)	0.6 (0.3)	16,245	86.2	18,866 (16,509)	1.0 (0.8)	9,382	49.7	38,887 (34,091)	2.0 (1.7)	7,366	18.9
2011	19,163 (10,771)	0.6 (0.3)	15,160	79.1	17,811 (15,337)	0.9 (0.8)	9,221	51.8	37,391 (33,057)	1.9 (1.7)	6,565	17.6
2012	16,828 (9,192)	0.6 (0.3)	13,733	81.6	16,426 (14,231)	0.9 (0.8)	8,760	53.3	34,934 (30,558)	1.8 (1.6)	6,204	17.8

* 출처: 국회(2013). 초·중고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현황 2008~2012(내부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학생변동상황).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구분연도의 자료기준일은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임(2012학년도 학업중단자 수: 2012.3.1.~2013.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2.4.1.기준)

3)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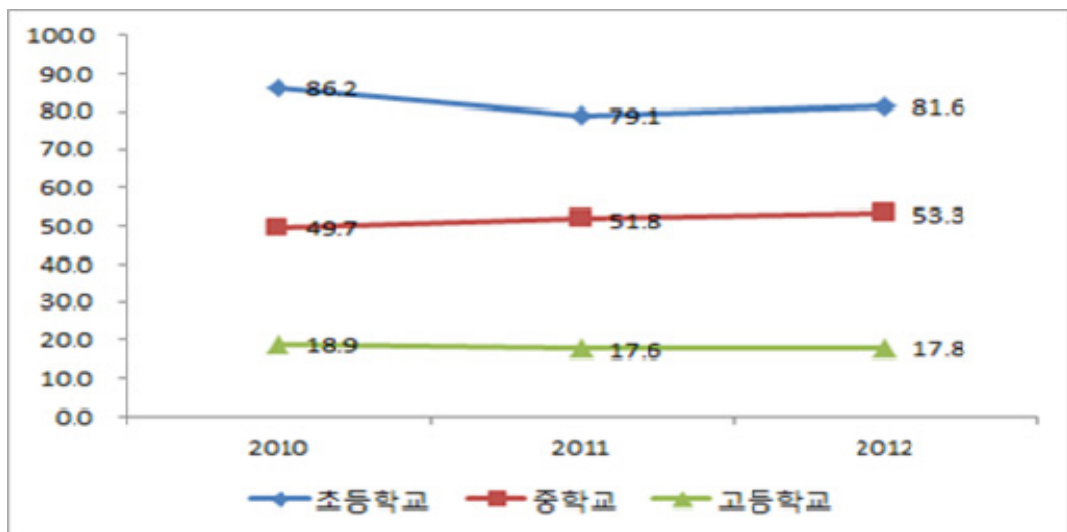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면제,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임(2012년 기준).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0~2012년의 ()는 2009년 이전 기준(유학이민/파견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7) 복귀율 = 복귀자수 / 학업중단자수 × 100

8) 초·중등학교 복귀자는 재취학 및 편입 인원, 고등학교 복귀자는 재입, 편입, 복학 인원임.



【그림 V-2】 학년도별 학교급별 학교 복귀율 변화(2010~2012년) (단위: %)

<표 V-3>은 교급별 복귀율을 감안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교급별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표 V-3 2012학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 비율 추정 (단위: 명)

구분	학령인구(A=a+b)		기간학제 * 학생 수(B)	기간학제 ** 9개월 순학업중단자수(C)	학업중단 청소년 교급별 인구***	교급별 구성비
	해당연령인구 (a)	외국인 순입국자수(b)				
초등학교	3,094,255	4,776	2,951,995	2,321	149,357 x 18.4% = 27,481	11.4%
중학교	1,929,008	1,766	1,849,094	5,749	87,429 x 46.7% = 40,289	16.9%
고등학교	2,102,835	6,830	1,920,087	21,547	211,125x 82.2% = 173,544	71.7%
총계	7,126,098	13,372	6,721,176	29,617	241,854	100.0%

* 주: 1) 방계학제 학업중단자 수 통계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산출함.

2) 2012년 학령인구(주민등록통계)는 2012.12.31. 기준, 2012학년도 학생 수(교육통계)는 2012.4.1. 기준으로 2012.4.1.~12.31까지 학생변동상행(즉, 학업중단자수)을 반영하여 학업중단자 수를 산출함.

3) 산출식 : (A-B+C) x 교급별 순중단율

3) 시도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표 V-4>와 【그림 V-3】은 2012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는 서울(1.1%), 경기(0.7%), 대전(0.6%) 지역 순으로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며, 중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서울(1.3%), 경기(1.1%), 대전(1.0%)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의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자 수에서 수도권의 학생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음을 감안할 때, 수도권 지역에서 의무교육단계의 이탈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세종(2.4%), 강원(2.2%), 대전(2.1%)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고, 대구(1.5%) 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종시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학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 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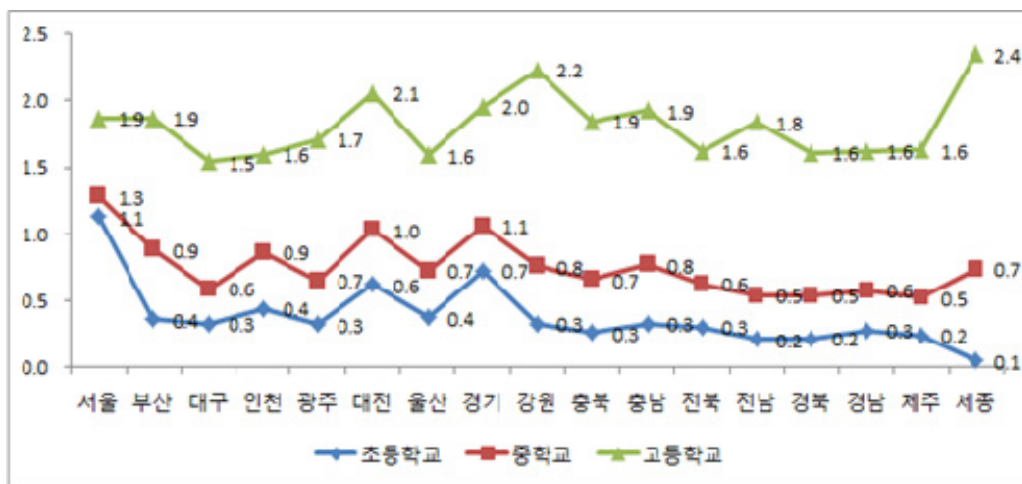
2012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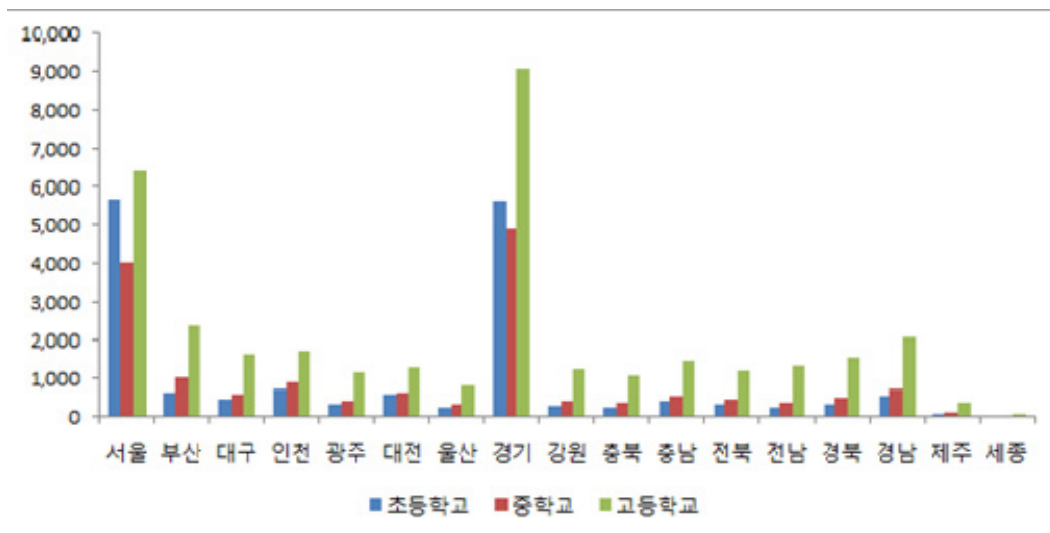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수	학업 중단율
서울	502,000	5,671	1.1	315,241	4,028	1.3	344,391	6,427	1.9
부산	172,069	622	0.4	114,936	1,012	0.9	126,984	2,377	1.9
대구	146,899	479	0.3	98,316	576	0.6	105,968	1,628	1.5
인천	164,928	720	0.4	103,593	890	0.9	107,592	1,718	1.6
광주	102,912	332	0.3	66,937	433	0.7	67,576	1,153	1.7
대전	98,665	615	0.6	61,598	633	1.0	63,496	1,306	2.1
울산	71,544	262	0.4	47,785	351	0.7	50,964	809	1.6
경기	775,163	5,627	0.7	463,600	4,917	1.1	462,490	9,058	2.0
강원	88,865	294	0.3	56,162	428	0.8	56,519	1,259	2.2
충북	94,158	244	0.3	59,247	390	0.7	59,180	1,096	1.9
충남	122,074	407	0.3	73,831	566	0.8	75,661	1,463	1.9
전북	112,640	342	0.3	72,040	453	0.6	75,006	1,214	1.6
전남	107,133	230	0.2	69,647	373	0.5	72,106	1,329	1.8
경북	144,918	321	0.2	91,614	492	0.5	95,917	1,545	1.6
경남	202,320	564	0.3	127,510	736	0.6	129,209	2,089	1.6
제주	40,172	95	0.2	24,059	126	0.5	23,797	387	1.6
세종	5,535	3	0.1	2,978	22	0.7	3,231	76	2.4

* 출처: 교육부(2013).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2008-2012(내부자료).

* 주: 1)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2.3.1.~2013.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2.4.1.기준.



【그림 V-3】 2012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율 (단위: %)



【그림 V-4】 2012학년도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자 수 (단위: 명)

4)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 현황 및 사유

학업중단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자료수집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012학년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 통계에서는 유예 및 면제가 추가되고,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학교폭력, 학칙위반)으로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우선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을 나타낸 <표 V-5>와 【그림 V-5】를 보면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와 달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약 2배가 높은 3.2%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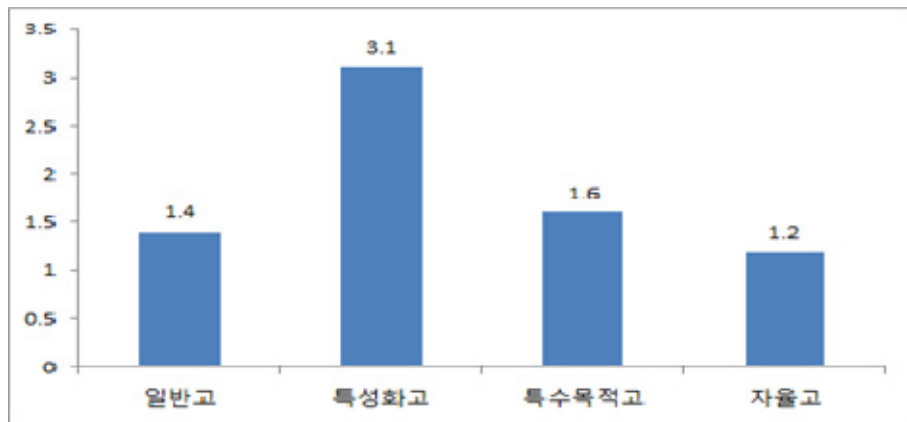
표 V-5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구분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수	학업중단율
일반고	1,381,130	19,426	1.4
특성화고	330,797	10,095	3.2
특수목적고	64,468	1,041	1.6
자율고	143,692	1,671	1.1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학생현황, 학업중단학생현황)에서 재구성.

* 주: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2)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2.3.1.~2013.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2.4.1. 기준.



【그림 V-5】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단위: %)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표 V-6>, 【그림 V-6】)을 보면, 먼저 고등학교의 유형과 상관없이 각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학업중단사유는 부적응임을 알 수 있다. 자율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35.2%,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39.6%, 일반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44.1%, 특성화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65.5%가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부적응 사유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그 다음으로 해외출국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것이다. 해외출국사유는 자율고등학교에서 25.2%,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20.0%, 일반고에서 17.4%를 차지하고 있다. 1.8%에 불과한 부적응 다음으로 높은 학업중단사유가 되고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가사가 9.0%, 품행이 4.8%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가사와 품행 사유가 약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6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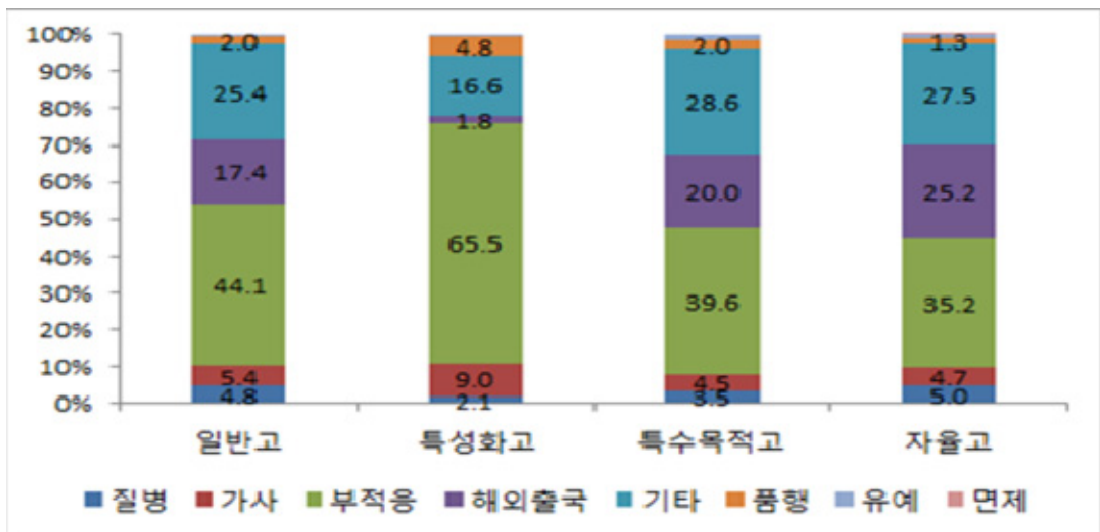
구분	학업 중단자수	자퇴					퇴학 품행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일반고	19,426 (100.0)	934 (4.8)	1,049 (5.4)	8,567 (44.1)	3,373 (17.4)	4,934 (25.4)	390 (2.0)	162 (0.8)	8 (0.0)
특성화고	10,095 (100.0)	207 (2.1)	911 (9.0)	6,615 (65.5)	179 (1.8)	1,675 (16.6)	483 (4.8)	68 (0.7)	2 (0.0)
특수목적고	1,041 (100.0)	36 (3.5)	47 (4.5)	412 (39.6)	208 (20.0)	298 (28.6)	21 (2.0)	19 (1.8)	- -
자율고	1,671 (100.0)	83 (5.0)	79 (4.7)	588 (35.2)	421 (25.2)	460 (27.5)	22 (1.3)	17 (1.0)	1 (0.1)

*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학업중단학생현황).

* 주: 1)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을 = 해당사유자수 / 학업중단자수 × 100

2)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2.3.1.~2013.2.28. 기준.

3) 학업중단자 중 유예, 면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그림 V-6】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사유 비율 (단위: %)

*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학업중단학생현황).

<표 V-7>, 【그림 V-7】에서는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유를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사유로 세분화한 현황으로, 자율고등학교를 제외한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업관련 부적응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부적응 학업중단

중 학업관련 요인은 60.2%, 일반고등학교에서는 56.1%의 비중을 보인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학업관련 부적응은 47.8%이고, 기타는 47.6%를 보여 큰 차이는 없었으며, 자율고등학교에서는 기타 요인이 50.2%로 가장 많고, 학업관련 요인은 3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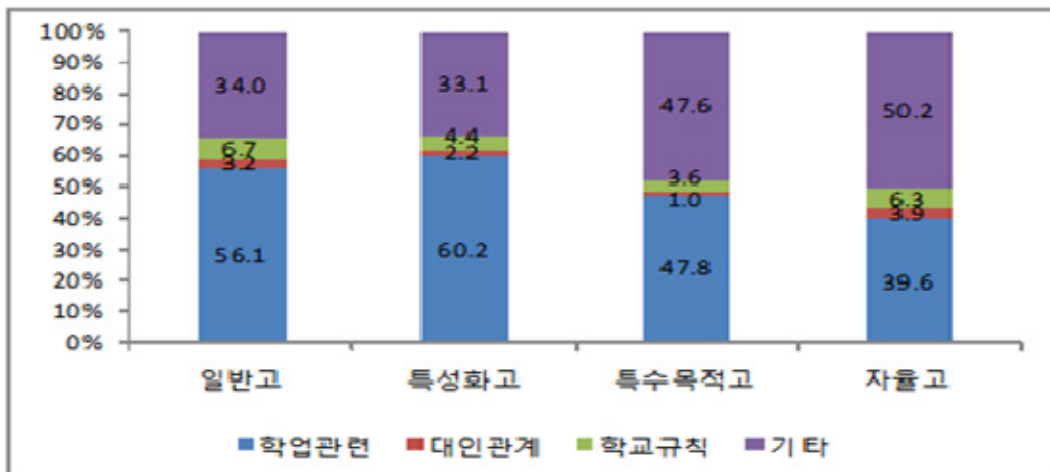
구분	부적응 학업중단자수	부적응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일반고	8,567 (100.0)	4,805 (56.1)	273 (3.2)	577 (6.7)	2,912 (34.0)
특성화고	6,615 (100.0)	3,985 (60.2)	146 (2.2)	294 (4.4)	2,190 (33.1)
특수목적고	412 (100.0)	197 (47.8)	4 (1.0)	15 (3.6)	196 (47.6)
자율고	588 (100.0)	233 (39.6)	23 (3.9)	37 (6.3)	295 (50.2)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2013(학업중단학생현황).

* 주: 1) 부적응사유별 학업중단율 = 해당사유자수 / 부적응학업중단자수 × 100

2)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2.3.1.~2013.2.28. 기준.

3) 학업중단자 중 유예, 면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그림 V-7】 2012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부적응 학업중단 세부사유 비율 (단위: %)

<표 V-8>은 고등학교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고등학교의 학년별 학업중단율과 학업중단사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학년별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1학년때가 3.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고2, 고3의 순이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았을 때도 부적응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1학년이 1.7%로 나타나, 2학년, 3학년보다 2~8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V-8

2012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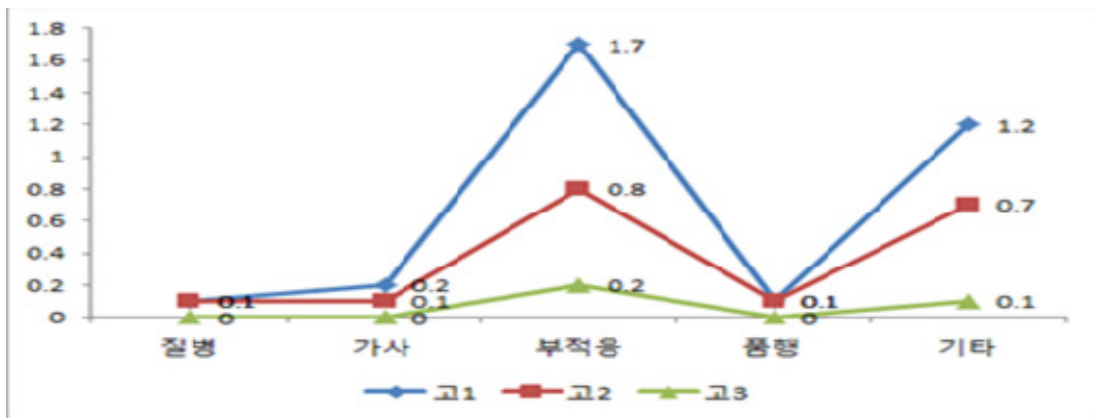
(단위: 명, %)

	질병		가사		부적응		품행		기타		학업중단을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학업중단 자수	비율	재적 학생수	비율
고1	761	0.1	1,296	0.2	10,740	1.7	553	0.1	7,640	1.2	643,723	3.3
고2	511	0.1	802	0.1	5,473	0.8	351	0.1	4,291	0.7	644,529	1.8
고3	157	0.0	229	0.0	1,241	0.2	141	0.0	748	0.1	631,835	0.4
계	1,429	0.1	2,327	0.1	17,454	0.9	1,045	0.1	12,679	0.7	1,920,087	1.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p. 48, 표 II-22.

* 주: 1) 초·중학교는 유예와 면제로 구분되며, 유예에는 질병, 발육부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가 포함되며, 면제에는 질병, 해외출국, 기타가 포함됨. 학적관리에서 면제처리된 사망은 학업중단학생에서 제외됨. 고등학교는 학업중단을 자퇴와 퇴학, 유예 및 면제로 구분하며, 자퇴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로 구분되며, 퇴학은 품행이 포함됨. 여기에서는 질병, 가사, 부적응, 품행, 기타(해외출국, 기타, 면제, 유예)로 구분하였음.

2)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수: 2012.3.1.~2013.2.28. 기준, 재적학생수: 2012.4.1. 기준



【그림 V-8】 2012학년도 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사유별 학업중단을 (단위: %)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소재 추정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을 크게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또한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아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무정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결과를 기초로 할 때 2012학년도 7월 이후 정규학교를 중단한 중고등학생으로서 2014년 7월까지의 학업중단 후 경험을 토대로 유형분류를 한 결과는 <표 V-9>과 같다.

표 V-9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유형

경로 유형	1차년도	2차년도
무정형	105(17.5)	179(29.9)
학업형	212(35.4)	268(44.7)
직업형	100(16.7)	112(18.7)
무업형	140(23.4)	—
비행형	42(7.0)	40(6.7)
	599(100.0)	599(100.0)

<표 V-9>의 2차년도 결과를 기초로 할 때 아직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정형이 29.9%, 학업형이 44.7%, 직업기술 훈련을 받고 있거나 전일제 근로를 하고 있는 직업형이 18.7%, 무업형이 0%, 비행형이 6.7%이다. 학업중단 후 1차년도 조사에서 무업형으로 분류되었던 청소년들 중 47.1%가 무정형으로 이동하였다. 학업중단 직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던 청소년들이 지난 1년 동안 이것 저것 시도하기는 했으나 아직 어떤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⁵⁾

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파악되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의 경로유형별 규모의 추정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패널이 조사대상의 한계 상 비확률 표집이라는 제한점은 있다. 그러나 학교를 통해 당해 년도 학업중단자를 패널로 구축하였고 특정 성격의 학업중단자가 집중될 수 있는 기관의 패널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축된 데이터로서는 학업중단자의 모집단에 가장 유사하다할 수 있다.⁶⁶⁾

2012학년도를 기준으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인구는 총 397,958명이다(<표 V-10>참조). 당초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대상에서 유학·이민 등 해외출국자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가중치 활용은 국내거주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거주 학교밖

65) 본 보고서 p. 158, <표 III-58>참조.

66) 2013년 구축 당시 본 조사 패널의 성비는 남자 57.8%, 여자 42.2%로 교급별 비율은 중학교 9%, 고등학교 90.9%임. 성비는 남자가 15.6% 포인트 많으며 교급별 비율은 고등학교가 81.9% 포인트 많음. 행정통계에 나타난 2012학년도 학업중단자의 성비 구성은 남자 28,831명(56.1%), 여자 22,529명(43.8%)로 남자가 12.3% 포인트 많음(한국교육개발원, 2013년 교육통계연보, 2013년 학업중단자 현황, 12.3.1-13.2.28 기준임). 교급별 비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복귀자 수를 반영하여 2012학년도 중학교의 순 학업중단자는 7,666명(21.0%), 고등학교의 순 학업중단자는 28,730명(79%)로 고등학교가 58% 포인트 많음(본 보고서 <표 V-3> 참조). 따라서 모집단과 비교할 때 본 조사패널은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격을 더 드러내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 전체로 재학생 아르바이트 인구가 포함되어 있는 추정치임.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의 학업중단을 데이터가 현재 없는 상태임.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총인구에서 해외로 출국한 학령기 인구 85,082명을 뺀 312,876명이다. 국내거주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경로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표 V-10>는 2012학년도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파악한 행정통계상 경로유형별 인원이다.

표 V-10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경로유형별 인구(행정통계, 2012학년도 기준)

구 분		인원수		경로유형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총계)		312,876		
대안 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8,738	26,137	학업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7,399		
국제 이동	유학/해외이주/파견동행 등 순 출국자(추정)	(85,082)	(85,082)	해외거주
	귀국 후 학교 미복귀자(추정)	(25,293)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자	(52,174)		
직업 훈련	직업훈련기관(취업사관학교)	93(2)	3,026 (6,344)	직업형
	취업지원 프로그램(내일배움카드제)	2,162(3,241)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지지)	771(75)		
교정	소년원	1,078(590)	16,771 (39,026)	비행형
	소년교도소	215(5)		
	보호관찰소	15,478(21,660)		
질병 · 장애	장기 입원	5,358	8,344	무정형
	재가 장애인	2,945		
기 타	군 입대(모집병)	41		
사회적 소재 파악자			54,278	
사회적 소재 미파악자		258,598		
경제 활동	취업자(아르바이트 포함) x 학업중단율(?)	101,629	113,777*	
	실업자(구직활동 준비자) x 학업중단율(?)	12,148		

* 출처: 교육부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14)의 조사자료에 근거함. 해당 통계는 교육부가 해당부처, 또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합한 것임.

사회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국내 거주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유형을 추정한 것이 <표 V-11>이다. <표 V-11>에 의하면 미파악 인구 25만여명 중 학업형이 약 11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무정형이 8~9만명, 직업형이 5~6만명이다. 비행형은 약 4천명 정도가 미파악 인구로 나타났다.

표 V-11 국내가주 학령기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경로유형별 인구(추정치, 2012학년도 기준) (단위: 명, %)

경로 유형	2차년도 분포(명, %)	유형별 학업중단자 산출근거	유형별 인구(A)	파악인구 (B)	파악 인구 (A-B)
무정형	179(29.9)	$312,876 \times 0.299$	93,550	8,344	85,206
학업형	268(44.7)	$312,876 \times 0.447$	139,856	26,137	113,719
직업형	112(18.7)	$312,876 \times 0.187$	58,508	3,026	55,482
무업형	—	—	—	—	—
비행형	40(6.7)	$312,876 \times 0.067$	20,962	16,771	4,191
	599(100.0)		312,876 (100.0)	54,278 (17.3)	258,598(82.6)

향후 진로계획에 대한 2차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학·학업계획을 가진 학업중단 청소년이 67.1%이며 취업(취업, 취업 및 진학 병행,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17.5%,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청소년이 15.0%이다(표 III-23, 본 보고서 p.104 참조).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에 따르면 학업형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직업형은 17~18% 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 후 아직 이렇다 경험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무정형의 청소년(29.9%)이 현재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15.0%)보다 2배 정도 많다. 진로계획은 있지만 현실화하고 있지 못한 청소년이 많다는 의미이다.

학습부적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여전히 학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업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왔지만 우리 사회에 학업 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30% 가량의 무정형 양상을 보이며 진로계획 없이 학업과 직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학령기 학업중단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로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2. 국내 정책 현황⁶⁷⁾

1) 관련 법 및 조례 제정 현황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은 2014.5.28에 제정된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중단, 또는 미취학한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령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시책 수립,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내용은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다.

주요 정책전달체계로는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두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밖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법령의 특이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 학생의 학업중단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다. 학교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단체장 등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청소년에게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7) 이 부분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도 활성화 되고 있다.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V-12>와 같다. <표 V-12>를 보면 2011년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제정을 하였으며 2012년 대전, 경남, 경기도가 뒤를 이어 제정을 하여 2014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대구,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다.

표 V-12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광역자치단체)

연번	광역자치	조례명	제정 시기
1	서울	-	-
2	부산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14-1-1 조례 제4967호
3	대구	-	-
4	인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3-10 조례 제5333호
5	광주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	2011-7-27 조례 제3987호
6	대전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2012-6-15 조례 제4066호
7	울산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11-12 조례 제1401호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4-10 조례 제474호
9	경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2-10-2 조례 제4445호 일부개정 : 2014-9-24 조례 제4778호
10	강원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8-2 조례 제3663호
11	충북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	2013-1-4 조례 제3534호
12	충남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6 조례 제3864호
13	전북	-	-
14	전남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2012-10-12 조례 제3617호 일부개정 : 2014-8-1 조례 제3821호
15	경북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013-5-30 조례 제3422호
16	경남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6-21 조례 제3714호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2013-5-15 조례 제1035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조례법(학업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현황. (2014.10.2 인출)

<표 V-13>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012년 3월 경기도 부천시가 가장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의 강동구가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그 이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들이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왔다.

표 V-13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조례 제정 현황(기초자치단체)

연번	기초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시기
1	강동구(서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2-10-17 조례 제1015호
2	동구(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8-1 조례 제629호
3	북구(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3-11-13 조례 제742호
4	구리시(경기)	구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12-24 조례 제1271호
5	군포시(경기)	군포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3-11-1 조례 제1235호
6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9-12 조례 제1134호
7	동두천시(경기)	동두천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4-3-13 조례 제1708호
8	부천시(경기)	부천시 학교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 : 2012-3-26 조례 제2693호 일부개정 : 2012-10-4 조례 제2728호
9	성남시(경기)	성남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8-2 조례 제2727호
10	여주시(경기)	여주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3-9-23 조례 제106호
11	의왕시(경기)	의왕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0-6 조례 제1386호
12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 학교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2013-4-17 조례 제2499호
13	하남시(경기)	하남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13-6-7 조례 제1167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조례법(학업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현황(2014.10.2 인출).

* 전체 기초자치단체(226곳) 중 조례법 제정 13곳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 경상북도의 경우 가출청소년 지원을 조례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각 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등을 두어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후견인제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진로 및 교육지원, 상담지원, 자립 및 자활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건강검진이나 체력검사 지원, 취업지원, 여가문화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들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대안교육지원 센터’, 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방법을 채택하여 지원하려 하는 지에 차이가 있다. 조례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학교밖 청소년 개인의 발굴과 개인에 중점을 둔 서비스 지원,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일대일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중심 지원형과 ②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학습공간이나 배움터 등 대안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기관 중심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③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개인·기관 지원 병행형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분석할 때 <표 V-14>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분류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약간 많고 개인지원, 또는 양자의 병행을 규정하는 경우가 비슷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을 규정한 곳이 훨씬 더 많다.

표 V-14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정책 방향 분석

구 분	해당 자치단체		개소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개인 지원형	부산, 충북, 충남, 경북,	울산 북구	5
기관 지원형	광주,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서울 강동구, 경기 구리시, 경기 군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여주시, 경기 의왕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하남시, 울산 동구	16
개인·기관 병행지원형	인천, 세종, 경기, 대전, 울산	경기 동두천시	6

2) 정책현황

(1) 범부처 관련정책 개관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자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개관하면 <표 V-15>와 같다. 이러한 대책은 2013년 11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 이전에 실시되어 오던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지원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 교육책임 부서인 교육부, 청소년 고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복지적 차원에

서 접근하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범부처적 노력이 통합되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며 정책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지원 사업 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크게 ① 상담·멘토링·동반자와 같은 인적 지원 서비스, ②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③ 직업훈련 및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지원, ④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Wee 프로젝트를 통해 Wee Class, Wee Center, Wee School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기학생들을 위한 상담지원을 강화하여왔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해밀)과 자립지원(두드림존) 프로그램과 같은 학업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청소년동반자와 같이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 청소년특별지원 과 같은 경제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가출청소년 쉼터와 같은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청소년동반자를 통해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 비행, 일탈 청소년 등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사례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 졸업예정자, 15세 이상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참여 청소년에게 훈련장려금⁶⁸⁾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총 10,297명의 비진학청소년이 장려금을 지원받았다⁶⁹⁾. 또한 취업사관학교는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3년도에 총 152명의 위기청소년이 지원을 받았다(여성가족부, 2014: 464). 고용노동부의 정책은 예산규모도 크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임에도 실제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다. 취업사관학교는 훈련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임에도 청소년 친화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직장체험장 추진’이다. 이 사업은 취업을

68) 취약계층 및 비진학 청소년 등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 동안 2백만원 한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원)로 훈련비의 50~70%를 지원함.

69) 본 사업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졸업예정자도 포함됨.

표 V-15 범부처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서비스 현황⁷⁰⁾

지원 서비스	정책과제	2013 집행액(원)	정책대상	수혜 인원(명)	1인당 비용 (천원)	주관부처
인적 지원	Wee 프로젝트 확대 운영	173억	학업중단위기 학생 등	502,478	34	교육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80억	위기 청소년	31,190	256	여성가족부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휴먼네트워크)	10.6억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		보건복지부
경제적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4억	한부모청소년	220 ⁷¹⁾	636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7억	위기청소년	2,777	252	여성가족부
교육 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2,980억 ⁷²⁾	15세 이상 학업중단자	10,297 ⁷³⁾	28,940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20억	학업중단청소년	152	13,157	고용노동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33억	학업중단청소년	19,564	168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 체험장 추진	87억	취업준비청년	10,637	817	고용노동부
	소년원 출원생 취업 및 자립지원	(11.7억) ⁷⁴⁾	소년원출원생	898	-	법무부
	소년원 출원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10.3 ⁷⁵⁾	소년원출원생	1,629	632	여성가족부
주거 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1억	가출청소년	-	-	여성가족부
	소년원 출원생 자립생활단 운영	11.7억	소년원출원생	230	1,037 ⁷⁶⁾	법무부
합계		3,495억				

*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pp.4 77-557을 기초로 작성함 2013년 추진 실적 기준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민간기업, 공공·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155개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15~34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 총 10,637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70) 윤철경(2014.7.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넌조사 I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349의 표를 수정·보완하였음.

71) 단위: 가구

72) 실업자능력개발을 위한 전체 예산임.

73) 사업대상에는 학업중단자 외 취업 희망 고교졸업자도 포함됨. 이 숫자에는 학업중단자 숫자만 포함됨.

74) ()는 중복된 예산임.

75) 2014년 예산기준임.

76)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소년원 출원생 취업 및 자립지원의 898명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임.

보건복지부는 위기·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위한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멘토의 역량 개발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 발굴, 멘토-멘티 연계 및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멘토링 수행기관 등의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표 V-15>의 각 부처의 사업비 규모와 정책수혜자 수⁷⁷⁾를 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등이 예산규모가 크며 취업사관학교의 경우도 수혜자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사업들이 학업중단 청소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면서 진로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기반의 상담자원 확보,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복지부는 휴먼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인력자원의 확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지속의 욕구가 높은 것에 비해서 대안교육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어 교육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학업중단대책의 정책유형은 크게 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 ② 학업중단자, 즉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③ 이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및 강화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13: 276).

2013년 11월 학업중단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라는 합동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표 V-16> 참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주요 대책은 ① 학업중단 위기 징후의 조기발견, ②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③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를 위한 사후관리·지원, ④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77) 이것은 각 부처가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숫자임. 사업별로 정책수혜자 추산 방식이 다를 수 고려해야 함.

표 V-16

교육부·여성가족부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주요내용⁷⁸⁾

구분		정책과제	소요 예산	정책대상	주관기관 /관련기관
학업중단 예방정책	중단위기 조기발견 및 대응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1.9억	학교/센터	교육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80억	학교/센터	교육부/교육청
		꿈키움 멘토단 운영	8.5억	학교/센터 등	교육부/교육청
	학교 대응능력 강화	학업중단 예방 콘텐츠개발	6억	학교	교육부/교육청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 지원 및 선도모델 개발	41억	학교	교육부/교육청
	대안교육 활성화	대안교실 지원	68.8억	학업중단자	교육부/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13억	위탁기관	교육부/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지원	17억	대안교육기관	교육부/교육청
		기타 대안교육 지원 사업	25.3억	대안학교	교육부/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	복귀지원	학업중단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12억	학업중단자	교육부/교육청
		학교복귀 지원	25.5억	학업중단자	교육부/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시 대응	-	학업중단자	여가부/ 상담복지개발원
		학업중단시 개인정보를 통한 연계	비예산	학업중단자	여가부/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	학업중단자	여가부/ 상담복지센터
		생활·의료·주거지원	-	학업중단자	여가부/ 상담복지센터
법/전달체계	법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학업중단자	여성가족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학업중단 숙려제 기회 제공	-	학업중단 위기학생	교육부
		학업중단예방센터 운영	10억	센터	교육부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중앙/지역)	-	지역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합계		309억		

78) 교육부·여성가족부(2013.11).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 교육부(2014.2.27).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윤철경(2014.7.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347에서 인용.

확대, ⑤ 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역량강화, ⑥ 전달체계 및 법적 기반 강화이다. 교육부는 2014년에 총 309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이러한 정책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주요 대책은 ① 학교밖 청소년 조기발견 및 접근 강화, ② 두 번째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 ③ 취약청소년 생활, 의료, 주거지원 확대 등이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법의 제정을 통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50여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 발전시키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계 받을 수 있는 학교와의 연계 고리를 마련하여 서비스 대상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3. 미국의 학업중단 예방 정책 현황 및 정책 사례⁷⁹⁾

본 절에서는 미국의 학업중단 관련 정책 중 특히 학교중단 예방을 포함한 학교중단률 감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교육체계

미국의 교육 체계는 공립·사립학교로 구성되며 전체 청소년의 약 89%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Snyder et al., 2009)⁸⁰⁾. 공립학교의 운영권한은 주정부에 있으며 자금지원, 감독, 학교 구성, 교원의 노조 운영, 학교의 운영,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Card & Krueger, 1998). 공립학교는 사회적 계층, 인종, 민족성, 이주 상태, 언어적 배경 측면에서 다양성을 갖는다(Orfield & Lee, 2005). 미국의 일반적 학교 구조는 (i) 유치원부터 5학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ii) 6학년부터 8학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iii)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구분된다.

미국의 중등학교는 주, 지역별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입학 및 졸업 요건도 차이가 있다.

79) 이 부분은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80) 공립학교는 정부의 지원 및 통제를 받지만, 사립학교는 종교 및 비종교 당국의 통제를 받고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Rumberger, 2011).

각 주는 의무 학교교육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 연령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일반적으로 16세부터 18세까지이다(Snyder et al., 2009).

고등학교 학위 취득 자격은 주별로 다르며 동일한 주 내에서도 학교 구역에 따라 추가요건이 부여되기도 한다(Snyder et al., 2009).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주에서의 13학점, 앨라배마, 플로리다, 사우스 캘리포니아 24학점 등 다양하다. 많은 주의 학생들은 핵심 과목, 특히 영어와 수학에서 고등학교 시험에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다(Snyder, 2011). 주정부에서는 중등교육 졸업 학위 취득을 위한 요건 뿐 아니라 대안적 혹은 중등교육 졸업에 준하는 국가시험 통과 기준을 수립하기도 한다. 미국의 가장 일반적인 국가 시험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이하 GED)인데(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Testing Service, 2008) 총 다섯 개 과목으로 이뤄지며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통과를 위해 일반적으로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점수의 적어도 33%를 달성해야 한다(Snyder, 2011). 2004년과 2005년 기준 미국에서 수여하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 인증서 중 약 94%가 정규 학위였으며 5%는 이에 준하는 학위였고, 2% 이하는 그 밖의 유형의 인증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주마다 다르며, 캘리포니아와 같은 어떤 주에서는 주로 정규 학위를 수여한 반면(98%), 조지아와 같은 그 밖의 주에서는 이에 준하는 학위나 그 밖의 인증서를 수여한 비율이 더 높았다(Snyder, 2011).

2) 학업중단에 대한 대처

학업중단은 미국정부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2005년 2월 각 주의 주지사들은 학업중단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타임지 미국의 중퇴율 위기에 관한 기사와 함께 중퇴 국가라는 제목의 표지를 선보였다. 정부와 사립 교육 기관들은 고등학교 성과를 향상시키고 중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들에 대해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Snyder, 2011).

미국에서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은 개인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 모두에 초점을 맞춘다. 프로그램적 전략을 통해 위험요소를 가진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학교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추가적 자원과 지원을 실시하기도 한다. 제도적 전략을 통해서서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상책, 자원, 지원을 제공한다. 다양한 주에서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를 기울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에 대한 다양한 통계수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Laird et al., 2008). 다음에서 이러한 대처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프로그램적 전략

학업중단을 위한 개입에는 두 가지의 프로그램적 접근이 있다. 한 가지 접근법은 기존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들에게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접근법은 기존의 고등학교 내에서, 혹은 개별 시설에서(대안 학교) 대안적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두 접근은 모두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다고 확인되었거나 이미 중퇴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 프로그램 및 제도를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 개입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증거는 많지 않다. 이는 학업중단 개입 프로그램에 관해 엄격하게 평가해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과학적 평가방법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2년, 미국 교육부는 학업중단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적 개입, 중재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WWC(What Works Clearinghouse)를 설립하였다. 현재까지 WWC는 과학적으로 엄격한 증거를 가진 16개의 학업중단 관련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 이들 프로그램 중 7개 프로그램은 중퇴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6개 프로그램은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이 중 네 개 프로그램만이 고등학교 졸업을 자체를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네 개 프로그램 중 어떠한 것도 학생들이 정규 고등학교 학위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GED를 통과함으로써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Snyder, 2011).

4) 제도적 전략

프로그램적 전략의 한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제도적 전략은 중퇴 행동에 기여하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들을 향상시킴으로써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Snyder, 2011).

이러한 제도적 전략은 현재의 미국 학교제도 자체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학교 생활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므로 단순한 프로그램적 접근만으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기존 고등학교들의 광범위하고 전반적 개혁이 없이는 학업중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존의 학교를 청소년들이 보다 생활하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현장 전반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다양한 학자, 정책가들이 동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학교현장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전략을 Comprehensive School Reform(이하 CSR) 즉 통합적 학교 개혁이라고 표현한다. CSR 접근법은 학교의 모든 측면들을 변화시키고 통합되고 일관적이며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교육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설계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전략은 서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동일한 전략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데 학자와 정책가, 현장 전문가들은 동의한다(Comprehensive School Reform Quality Center, 2006).

현재까지 CSR 모델 중 미국 교육부 센터, 종합학교혁신 품질센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모델은 총 16개 정도이며 이 중 10개는 학생 성과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3개는 중퇴율과 졸업율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10개의 종합학교혁신 모델에 관한 개별 검토 결과 학생 성과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CSR 혹은 새로운 학교 모델에 대한 WWC 검토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데 효과적 프로그램도 나타났다. CSR 모델 중 하나와 프로그램 전략 중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업 및 기술 교육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이 관찰되었다(Borman et al., 2003). 교육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경로(multiple pathways)’라고 알려진, 학생들이 직업 및 기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포함한 각기 다른 접근법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데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중등학교 졸업을 위한 GED 등의 대안적 자격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고등학교 학위를 학교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학교자체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다(Snyder, 2011).

고등학교 성과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제도적 접근법은 성과가 낮은 학교들을 어렵게 재설계하기 보다 새로운 학교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종종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라고도 알려진 새로운 특정 유형의 학교 창립과 연결된다 - 정규 공립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설립되고 관리되는 공립학교이며, 대부분의 정규 공립교육의 규정 및 요건으로부터 자유롭다. 차터스쿨은 공립학교 시스템 내에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설립되었으며,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도 있고 비-차터스쿨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쟁구도를 만들 수도 있으며, 학생 성과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차터 스쿨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는 지지자들의 강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Zimmerman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들 차터스쿨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다. 2006-07년에는 미국에서 4,132개의 차터 스쿨이 있었으며, 2003-04년의 2,179개에서 증가된 것이며 이 중 521개는 중등학교였다(Snyder et al., 2009).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 경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차터 스쿨은 2000-01년의 97개에서 2005-06년에는 271개가 되었다(Snyder, 2011).

차터 스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증거는 최근 두 개 연구에 따르면 확실히 복잡적이다. 첫 번째 연구는 다섯 개 주에 위치한 다섯 개 구역의 669개의 차터 스쿨을 검토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차터스쿨은 평균적으로 전통 공립학교보다 상당히 더 나쁘지도 않은 상당히 더 좋지도 않은 성과를 보였음을 관찰하였다(Zimmerman et al., 2009). 두 번째 연구는 1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차터스쿨 성과를 검토하였으며 차터스쿨의 46%가 수학에서 이점을 보였으며, 전통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들과 비교할 때 평균적 이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17%는 전통 공립학교의 성과를 초과하였고, 37%는 전통 고등학교보다 상당히 더 낮은 이점을 보였음을 발견하였다(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Outcomes, 2009).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학교개혁 이외에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 노력은 1988년에 Annie E. Casey 재단이 홍보하고 자금을 지원한 New Futures Initiative(이하 NFI)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NFI 프로젝트는 학교 중단을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섯 개 도시에서 기존의 공립 및 사립 기관들의 새로운 협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었다. 중요한 전략은 청소년 문제를 식별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한계 시점을 설정하며, 연합 기관 활동들을 조정하고,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공공 및 개인 부문의 기관들로 대표되는 각 도시의 협력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White & Wehlage, 1995). 이러한 협력 기관에는 또한 (1)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서비스하는 각기 다른 기관들 사이의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2)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대변해주며 (3)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룹에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눈과 귀로서 역할 하는 사례 관리자들도 또한 포함되었다(Snyder, 2011).

5) 체계적 개혁 전략

고등학교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체계적 개혁이 설계되었다. 한 가지는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한 과정 수를 증가시키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통과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높이는 것이다. 비록 이전 연구에서는 통과 시험의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이었음을 관찰하였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통과 시험이 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율을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Reardon et al., 2009).

또 다른 체계적 개혁은 18세까지 의무 학교교육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주의 의무 학교교육 연령과 중퇴 혹은 졸업율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몇 개 연구에 대한 검토에서는 의무 학교교육 연령이 더 높은 주가 중퇴율이 더 낮았고 졸업율이 더 높았음을 발견하였다(Bridgeland et al., 2008; Rumberger & Lim, 2008).

고등학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 번째 체계적 개혁은 이중 등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위를 완수하면서 동시에 대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게 한다. 2003년, 미국 고등학교의 71%는 등록된 백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중 등록 과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한 엄격한 평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퇴율이나 졸업율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아니었음을 관찰하였으나(Dynarski & Gleason, 1998; Snyder, 2011)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6) 소결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정규학교 졸업율 개선은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이다(Snyderr, 2014). 연방 및 주 정부는, 많은 사립 재단들과 함께 중퇴 방지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개혁 노력에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중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중퇴 방지 및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지식과 역량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포괄적 학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Snyder, 2011).

청소년이 학업과 학교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가진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자원, 기술 전문지식, 기존 학교 재구성을 위한 보상책 또한 요구된다.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들은 학교제도와 관련 기관의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이들의 개선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량 개발을 위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혁을 위한 의지가 있더라도 미국이 가족, 학교, 지역사회 자원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 자원의 차별이 제거되지 않고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인종 및 민족 그룹 사이에서 중퇴율의 차별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보고된다. 중퇴율은 단지 교육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책에서는 학교 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변화 범위가 더 포괄적일수록 변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중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사회 및 경제적 체계에서의 광범위한 불평등을 다룰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Rothstein, 2004; Snyder, 2011). 전 세계의 학업중단관련 정책을 정리한 Lamb(2011)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국가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으로 (1) 개인과 학교 수준의 정책, (2) 체계적 수준에서의 정책(상담과 진로지도, 소득지원, 의무교육기간의 확대, 학업중단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직업교육, 다양한 학력취득방법 및 확대된 학교교육방식 도입, 교육체계 개혁)을 주된 두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6 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제 VI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1차 년도에는 구축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보호관찰 220명을 조사패널을 대상으로 2차 년도에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조사 패널유지율은 81.2%, 총 809명으로 (일반 559명, 77.2%, 보호관찰 210명, 95.5%)였다. 1, 2차년도 조사결과의 비교와 일반학업중단,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양상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별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조사결과

(1)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비교

먼저, 학업관련 경험을 보면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의 복교 경험을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16.9%가 전체 599명 가운데 72.1%에 달하는 432명은 학교에 복교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2차 년도에는 12.2%에 복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차 년도에 비해 2차 년도에 학교 복교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교 이유는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라는 이유가 늘어났다. 종전 학교로 복교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 이 장은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중단학교와 복교학교의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고 학생들의 특성화고로의 복교가 두드러졌다. 53%의 중단자는 검정고시로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응답이 나왔다. 검정고시 공부는 주로 검정고시 학원(47.8%)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혼자서(37/1%) 준비하였으며 기타 공적 지원을 받는 빈도는 12~13% 수준으로 낮았다.

복교자의 재중단율을 보면 일반고에 복교한 복교자의 재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단후 바로 복교한 청소년의 재중단율이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아르바이트/취업 경험이 증대했고 대안학교,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경험, 상담/치료 경험 등은 감소하였다. 진학·진로 관련 경험에 있어서는 도움을 준 어른 만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향후 진로계획에 있어서는 1차년도에 미결정이었던 청소년들이 진학/학업 계획(56.4%)이동하였고, 취업(12.0%), 여전히 미결정(26.5%)을 보였다. 학업계획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도, 취업을 계획했던 청소년도 진학/학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었다.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 실태를 보았을 때 26.0%의 응답자 만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이 상이나 중인 집단, 대안교육을 선호하여 그만둔 집단에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이는 다른 이유로 중단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시간에서 수면시간은 줄었고 평일 취침시각은 24시와 새벽 2시 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생활시간에서의 주요 변화는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이 24%에 달했다.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는 줄었으며 부정적 인식은 증대했다. 학력의 중요성이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 감소하였다.

셋째,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학대가 감소했다는 인식이었다. 친한 친구 수나 새로 사귄 친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에 있어서는 이웃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부정적이 되었으며 이웃 어른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감소한 것으로, 반면 지역의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환경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심리·정서의 변화를 보았을 때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이 감소하였다. 문제행동 피해경험에 있어서는 성폭력 당하기 외에 집단따돌림, 성적인 놀림, 문자나 메시지를 통한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 빼기기, 심하게 얻어맞기 등 모든 영역에서 피해 경험이 늘어났다. 반면에 비행경험은 담배피우기와 술 마시기만 늘어났으며 다른 비행은 별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를 보았을 때 중요한 변화는 1차년도에 무업형 유형(23.4%)을 보였던 청소년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업형(32.9%), 무정형(47.1%), 직업형(13.6%), 비행형(6.4%)으로 전환되었다. 2차년도로 구분된 ‘지난 10개월 동안 5개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청소년’은 없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것 저것 하고 있는 청소년, 즉 무정형의 청소년이 29.9%로 늘어났다. 무정형의 증가는 본질적으로 무업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2)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한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

먼저, 학업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가면서 복교율이 현격히 낮아졌다. 또한 복교하는 학교의 유형도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또한 일반 패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검정고시를 이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데 반해, 보호관찰 패널의 경우 매우 적었다.

둘째,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과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호관찰 패널의 경우, 일반패널과 달리, 검정고시와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양 집단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진학·진로 관련 경험을 보면, 성인 멘토 경험에 대해서는 양 집단 모두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 패널의 경우, 상담기관, 종교기관, 학원, 대안교육기관 모두에서 성인 멘토를 만난 경험이 줄었으며 보호관찰 패널의 경우 보호관찰 소에서의 성인 멘토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로계획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일반 패널보다 미결정과 취업, 아르바이트를 진로계획으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 패널은 진학/학업에 대한 향후 진로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수준은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요구가 더 높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나 관심이 기본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동아리 또는 인터넷 카페 참여 경험이 낮았다. 셋째, 일상생활 양상의 변화를 보면, 수면시간은 평일과 휴일 모두 보호관찰 패널이 일반청소년보다 평균 1시간 정도 길었다. 주요 영역 생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일반 패널이 공부시간이 증가한다든지, 혼자 때우는 시간이나 취미 활동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등이 감소한 것에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은 별 변화가 없었다.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일반 패널은 부정적으로

강화된 데에 비해 보호관찰 청소년은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넷째,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일반패널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감소했다고 인식한 데 반해 보호관찰 패널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 학대의 경우, 양 집단 모두 감소했다고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양집단 모두 친한 친구가 감소하였으며 학업중단한 친구 수에 있어서는 일반패널은 변화가 없는데 보호관찰 패널은 감소경향을 보였다. 친구의 비행성향은 양 집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성이 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심리·정서적 변화를 보면 양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으며 문제행동 피해경험의 경우,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은 증가했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은 별 변화가 없었다. 문제행동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일반패널은 ‘술마시기’에서 증가를 보였고 보호관찰 패널은 흡연이 증가하였다. 나머지 문제행동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일반패널은 변화가 없었지만 보호관찰 패널은 감소했다. 게임중독에 있어서는 일반패널은 감소했지만 보호관찰 패널은 변화가 없었다. 스마트폰 중독도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이 보호관찰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이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정보화 기기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중단 현황

2012학년도 학령인구 기준으로 우리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학업중단자는 약 40 만명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학업형이 14만명, 직업형이 6만여명, 비행형이 2만여명, 경로를 설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이 10만 여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여 복귀하지 않은 청소년이 8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습부적응이 주요 요인이 되어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여전히 학업지향적 청소년이 많으며 직업형은 그 절반 정도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 저것 하며 방황하는 청소년이 10만 여명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급별 복귀율을 감안하여 학업중단자의 총 누적인구의 연령대를 산출하면 초등생이 11.4%, 중학생이 16.9%, 고등학생이 71.7%이다. 초·중학생 시기의 조기 중단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때 비행형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여 조기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학업중단자의 대부분은 고등학생 연령대이므로 이들의 성인기 이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내외 정책 분석결과와 시사점

(1) 한국의 정책현황 분석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기초자치단체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등 전달체계가 강화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청소년 개인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향후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뿐 아니라 이들이 가서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대안교육공간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지원센터 등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향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범부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크게 ① 상담·멘토링·동반자와 같은 인적 지원 서비스, ②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③ 직업훈련 및 학업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지원, ④ 거주할 곳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주요 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정책을 지원하고 있었다. 각 부처의 사업비 규모와 정책수혜자 수를 비교할 때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등이 예산규모가 크며 취업사관학교의 경우도 수혜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사업들이 학업중단 청소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면서 진로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기반의 상담인력 확보,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찾아갈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와 같은 이동성이 있는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복지부는 휴먼네트워킹을 통한 자원봉사인력자원의 확보를 담당하고 있었다. 각 부처가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 지속의 욕구가 높은 것에 비해서 대안교육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외국의 정책현황 분석

Lamb(2011)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국가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으로 (1) 개인과 학교 수준의 정책, (2) 체계적 수준에서의 정책(상담과 진로지도, 소득지원, 의무교육기간의 확대, 학업중단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직업교육, 다양한 학력취득방법 및 확대된 학교교육방식 도입, 교육체계 개혁)을 주된 두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수준의 정책으로 기존 학교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들에게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기존의 고등학교 내에서, 혹은 개별 시설에서(대안 학교) 대안적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검정고시를 통과함으로써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Snyder, 2011).

프로그램적 접근만으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학교현장 전반을 청소년들이 보다 생활하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통합적 학교 개혁이 실시되고 있다. 이 중 효과적인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업 및 기술 교육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검정고시 준비를 시킬 뿐 아니라 학교자체의 체질을 개선을 통해 학교를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또 다른 시도는 기존 학교를 개혁하기 보다 새로운 학교로 대체하는 것이다. 공립학교 시스템 내에서 선택권을 제공하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 그 사례이다.

이 밖에 지역단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문제를 식별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관련 기관의 활동들을 조정하고, 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협력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서비스하는 각기 다른 기관들 사이의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자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관련대책을 보면 학교의 규모를 작게 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을 늘려 학습부진을 예방하는 조기개입정책, 상급학교 진학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도제식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장 확대, 상담과 진로교육 강화, 다양한 교육의 제공과 졸업 요건을 통한 졸업자격 부여, 직업교육의 강화, 학업중단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결석률 높은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다.

학업중단자 및 학업부진학생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 자격증의 제도화가 가장

보편적인 대안교육이 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용돈을 제공하여 학업/훈련참여율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다(본 연구 데이터분석 보고서 제2권, 논의 및 결론 참조).

2. 정책제언

1) 1차년도 연구의 정책적 성과

사회누적인구로 40 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인구를 산출하고 28만명의 사회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가 학업중단예방 및 대책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합동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국회,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고 법과 조례 제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변화가 촉발되었다.

<표 VI-1>은 제5장의 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대책 내용과 비교하여 1차년도 연구의 정책제안의 추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VI-1 1차년도 연구의 정책제안의 추진현황 분석

정책 제안 ⁸²⁾			추진 현황	
	정책과제	소요 예산	내용	예산 확보/증액여부
예방 정책	학업중단 조기경보제 도입	비예산	(교육부)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	1.9억
	전문가 인력풀 구축운영	50억	(교육부) 꿈키움 멘토단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 운영	8.5억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3억	(교육부)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 개발 보급 (교육부) 학업중단예방 콘텐츠 개발	— 6억
	특성화고등학교 대책 수립	비예산	(교육부)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 (교육부) 교육복지사 배치	41억
	방과 후 학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비예산	(교육부) 대안교실 등을 통해 실현 가능	—

82)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276.

학업 중단 자 지원 정책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지원		100억	(교육부) 대안교실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통해 근거 마련	124.1억
	학업중단 시 정보제공 강화		비예산	(교육부)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교육부) 학교밖 청소년진로가이드북 발간 보급	80억
	중단유 형별 대책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0억	(교육부) 학업중단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교육부) 복귀지원	12억 25.5억
		비행청소년 원스톱 지원시설 확대	50억	(중앙정부) 미 실시	—
		거점 문화공간 설치	32억	(교육부) 친구랑 센터 (여성가족부) 휴카페 등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비예산	고용노동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긍정적 청소년활동 지원		32억	(여성가족부) 미 실시	—
전달 체계	지역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비예산	(서울교육청) 외 미 실시	—
	지역별 대책 수립		비예산	(지역교육청) 계획 수립, 교육부 제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법적 근거 마련	—
	중단사유 조사 및 기입 지침 마련		비예산	(교육부) 교육청과 개선 방안 마련	—
	학교평가지표에 반영		비예산	(교육부) 실시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중앙/지역)		30억	(교육부) 학업중단예방센터 설치, (여성가족부) 학교밖지원센터 설치 확대, (교육청별) 대안교육지원 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규정 마련	10억
	합계		307억		309억

<표 V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차년도 본 연구위 성과에 힘입어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도입단계에서 실효성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시간을 갖고 지속되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방안

(1)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 대한 치밀한 인적지원체제의 구축

① 학업중단 조기발견과 대응체계 :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학업중단의 위기 지표는 학습의 부진과 무단결석, 무단으로 수업을 빼먹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의 공동의 노력과 관심,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며 이들에게 적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상담인력 확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동반자 등을 증원하여 학교와 지역에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강화

학업중단자 등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진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후견인)이다. 상담전문인력, 상담교사 등의 확보와 증원은 재정적인 장벽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게 일대일로 연결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멘토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청 등이 지역사회의 멘토 양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기까지의 이행 기간인 10여년 간을 긴 호흡으로 같이하며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사회 기관에서 성인메토를 만나는 경험을 줄고 대부분이 성인 멘토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다수 였다. 지역사회에서 멘토를 양성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③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에 대한 상담전문인력의 증원 배치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담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보다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취약한 학교에 대해 상담전문인력을 파견, 배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2) 대안교육 등 학업지원 체제 강화

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이 가장 많다. 어떤 형태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이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면서도 정규교육을 떠나는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맞지 않고 학교의 현 교육체제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실 확대, 위탁대안교육 확대, 대안학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학습공간이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지역교육청은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을 염려하여 대안교육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대안교육으로 위탁하는 경우, 학교의 1인당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차터스쿨에 공립학교와 동일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형 대안학교인 자유학교의 경우도 학교운영비의 70% 이상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의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비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대안교사 양성과정 설치

대안교육은 대안적 교육에 대한 사고를 갖는 교사집단에 의해서 가능하다. 교육부가 대안교실 등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대안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교육인력이 없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전문기관에 대안교사 양성과정을 지역에 설치하여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는 교사집단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직교사, 예비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이 대안학교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교사 양성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고 이들이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 도입

민간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의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재학생 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신고제 도입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공교육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사고와 대안교육의 방법은 공교육 현장의 변화에도 유용하다. 대안교육기관의 제도화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안교실 등 운영을 돕는 지역의 촉진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는 학업중단자와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며 졸업자격 만을 획득하려는 무기력한 학생, 잠재적 학업중단자들에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④ 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50% 이상이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험이 있다. 주로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혼자서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이들이 용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원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⑤ 복교지원 활동

복교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81%, 중학교는 53%, 고등학교는 17.8%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단계의 복교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고 중단 청소년의 경우 복교 후 재중단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 복교 시 중단 후 바로 복교하기 보다는 상담 및 활동 등을 하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로를 생각한 후 복교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교나 대안적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지역 청소년기관(또는 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복교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체제 및 직업체험 강화

① 고용노동부의 지역사회 직업체험장 사업 대상을 일반고까지 대상 확대

일반고의 학업중단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수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복교 학교의 유형 분석을 통해 일반고를 중단한 학생의 특성화고 복교가 두드러졌다. 일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역사회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작업장을 증대시켜 학교와 연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사회 직업 체험장 사업을 일반고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친화적 직업훈련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의 경우 수혜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학업중단 청소년을 구하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의 장애요인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고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활동 강화

① 또래관계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등 지원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만족도와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친구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긍정적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 또래관계를 맺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단 이후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참여활동 실태를 보았을 때 20%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사이버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이러한 긍정적 활동에의 참여가 더욱 낮았고 자립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동기가 낮았다. 청소년들이 자조 모임등을 통해 인간관계망에서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동기화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종교기관 등과 연계하는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② 비행형 청소년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비행형 청소년을 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학업중단 후 인식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적다. 이들에게 친화적인 사회적 포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활동적이며 치료적인 내용을 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행형으로 이전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초, 중학교에서의 조기 중단 경향이 많고 사회에 대한 기대가 적다. 조기 중단자들을 놓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포용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말 숲 체험 프로그램 등, 방과 후에 긍정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평가

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추적 조사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정책 대상에 대한 실태 및 욕구 조사에 기반한 정책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와 경로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업형과 직업형, 비행형과 무정형의 학업중단 인구 규모 추정하였다.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학령기 학업중단자 중 70% 이상은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이며 이들이 성인기에 이를 때까지 이들 집단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이후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다른 형태의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무정형도 많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필요에 부합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주기적 추적조사 체계를 갖추어 이들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추적조사 하는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적 평가 체계 수립

학업중단 청소년을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상담 및 치료, 멘토링 등 청소년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작업장, 직업훈련 및 대안교육기관의 확대와 연계, 가정이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제공 등이다.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활성화된 정책은 빈곤한 형편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 평가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이 정책 평가 체계를 구안, 수행하되 청소년이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병철 (2011).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2), 381-417.
- 강영배, 김기현 (2004). 왜 장래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가: 고등학생의 직업미결정성향 분석. **교육사회연구**, 14(3), 1-20.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2013). **초중고 시도별 학업중단 현황 2008-2012 (내부자료)**.
- 교육부 (2013.9.5.). 201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국회 (2013). **초중고 학업중단자 및 복귀자 현황 2008-2012 (내부자료)**.
- 권문자 (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과 우울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학교밖 청소년 종합 지원체제 구축 운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준 (2010). 사회적 스티그마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과 대응. **한국청소년연구**, 21(3), 5-31.
- 김경화 (2012). **학교 유형에 따른 여고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적 자아개념과 사회성의 차이**.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근영 (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 및 조력에 관한 질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 (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5-144.
- 김기현, 유성렬 (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중단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려은 (2010).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희, 전경자, 서상희 (2011). 아동기의 건강불평등: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76, 32-44.
- 김미자 (2009). **일반계 고등학생과 체육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 김성식, 남궁지영 (2008).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IV)** (연구보고 PR 2008-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희, 이자형 (2006).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대한 의미와 건강행위 탐색. **부모·자녀건강 학회지**, 9(1), 72-82.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양은, 박상호 (2007). 온라인게임 이용이 게임 몰입 및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과 충족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1, 355-377.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8.
- 김유라, 이경숙 (2011). 학령기 아동의 전반적 수면실태, 수면문제행동, 비만과의 관련성 연구. **재활심리연구**, 18(2), 87-109.
- 김은영 (2000).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의철, 박영신, 김경자 (2011). 청소년과 부모의 미래성취의식: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과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29-60.

- 김정수, 노성덕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자아탄력성, 학교만족, 가족만족, 사회적지지 및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대학생활동연구**, 21, 153-172.
- 김정주 (2005). **청소년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현 (2009).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청소년복지연구**, 11(3), 69-98.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연구총서 11-26).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영 (2011). **학교밖 청소년의 노동진입의 맥락과 경험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영 (2013). **고교유형별 학생들의 학교교육경험과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 (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 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숙 (2009). 조손가정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223-248.
- 김효순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학업성취감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집**, 16(8), 174-189.
- 남미애 (2011).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요인별 생활만족이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03-229.
- 민인철, 이용교 (2011). **광주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광주광역시.
- 박미자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충훈 (2008).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서윤경 (2003). **청소년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대

-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설진아 (2010).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동기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상관성 연구. **미디어, 젠더와 문화**, 14, 43-71.
- 성영실 (2009).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광국, 박종훈, 손수민, 김준식, 이주화, 조용원 (2009). 수면장애를 가진 소아 청소년에서의 불안증, 우울증의 유병률. **대한소아신경학회**, 17(2), 200-208.
- 신혜령 (2000).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령, 김보옥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지원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 학회지**, 8(1), 29-49.
- 신혜령, 박은미, 강현아, 이현주, 한규제, 김경희 (2008).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
- 심경섭, 설동훈 (2010).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직업 포부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3(2), 33-59.
- 심태경 (2010). **스트레스와 걱정이 안녕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과 수면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해당기관 원문서버 장애로 서비스 중단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3-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수빈 (2014).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영숙 (201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의 복교 후 학교적응 과정과 유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영숙, 안태용 (2011). **복교청소년의 학교적응 사례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37-263.
- 안진상, 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19-3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여성가족부 (2013a). **2013 청소년백서**.

- 여성가족부 (2013b). 2013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2014). 2014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유성렬 (2014). 학업중단 후 무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자료집: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189-222.
- 윤영미 (2009). **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의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철경, 김영지, 유성렬, 강명숙 (2013). **학업중단 학생 종단정책 연구** (연구보고 12R-5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연구보고 10-R3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해성, 박성훈 (2014). **SNS 환경에서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3-AA-08).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상, 김기현, 임희진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연구보고 07-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김재민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I - 조사개요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백혜정 (200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연구보고 05-1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후, 김영찬, 이기형 (2004). **IT와 신세대 문화의 형성, 확산과정 IT의 사회·문화적 영향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랜드 시리즈**. 서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민석 (2011).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렬 (2013).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과 진로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재 (2003). 청소년의 학교중퇴 원인과 선도방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미 (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주 (1974). 아동의 장래 희망 및 흥미경향 조사: 서울특별시내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44, 144-164.
- 이영주 (2011). 청소년 수면시간과 수면시간 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희 (2010). 조손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낙인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37-158.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201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3-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화 (2010). 성격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범죄에 미치는 영향: 명리학적 성격이론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이경상(2013).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네트워크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이희길 (2006).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원영 (2003). 복교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영실, 김지영, 박성훈 (201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영실, 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A-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은숙 (2013).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경험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종희 (2005). 사회적 지지가 고졸학력 감정고시를 준비하는 중퇴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9, 99-128.
- 정은주 (2003). **패스트푸드점에 고용된 청소년 노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홍자 (2005). **경기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규필 (2011). 취약청소년 자립준비요인 탐색 및 시사점. **청소년복지연구**, 13(2), 97-120.
- 조아미 (2006). 청소년의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총서**, 5, 169-189.
- 조윤오 (2013).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 실태 및 피해 유발 요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53, 303-328.
- 조은정 (2014).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미용관리행동, 선호도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 (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10-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숙현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지연 (2013). **미국의 청소년 학업중단 방지관련 법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피길연 (2012). **학교체육활동 참가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만족의 관계**.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제51기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과정 교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주리, 허경호 (2004). 휴대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26-247.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 홍영옥 (2010). **가족체계,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연구 : 조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merican Diploma Project(2007). *Aligning 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 with the Real World: A Road Map for States*. Washington DC.
- Bernard, W. K. L. (2002). Stress in children: Can nurse helps?. *Pediatric Nursing*, 28(1), 13-2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CT: Greenwood Press.
- Bridgeland, J. M., Dilulio Jr., J. J., and Streeter, R(2008). *Raising the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Age: The Case for Reform*. Washington DC: Civic Enterprises.
- Card, D., and Krueger, A. B.(1998). School resources and student outcom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559, 39-53.
-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Outcomes(2009). *Multiple choice: Carter school performance in 16 states. Executive Summary*. CA: Stanford University.
- Casas, J. A., Rey, R. D., & Ortega-Ruiz, R. (2013). Bullying and cyberbullying: Convergent and divergent predictor variabl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580-587.

- Comprehensive School Reform Quality Center(2006). *CSRQ Center Report on Middle and High School Comprehensive School Reform Models*. Washington DC: 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
- Courtney, M. E., Zinn, A., Zielewski, E. H., Bess, R. J., Malm, K. E., Stagner, M., and Pergamit, M. (2008). *Evaluation of the life skills training program,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Final Report.
- Crocker, J. (199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Situational construction of self wort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89–107.
- Dehue, F., Bolman, C., and Vollink, T (2008). Cyberbullying: Youngsters' experiences and parental percep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11(2), 217–225.
-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Testing Service(2008). *2007 GED Testing Program Statistical Report*. Washington DC: Author.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Cliffs, NJ: Prentice–Hall.
- Harvey, R. D.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174–189.
- Heckman, J. J., and LaFontaine, P. A.(2008). *The American High School Graduation Rate: Trends and Levels*.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ouse, J. S. (2001).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Century progress and 21st century prospec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125–142.
- Kidd, S. A. (2007). Youth homelessness and social stigm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291–299.
- Lamb, S. (2011). *Pathways to School Comple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 *School Dropout and Completion (pp. 21–73)*. Springer Netherlands.
- Largie, S., Field, T., Hernandez–Rief, M., Sanders, C. E., and Diego, M. (2001). Employment during adolescence is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ferior relationships, lower grades, and smoking. *Adolescence*, 36(142), 395–401.
- Larson, R., Hansen, D., & Moneta, G. (2006). Differing profiles of developmental

- experiences across types of organized youth activ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 849–863.
- Lent, R. W., Brown, S. D. and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in, C. A. (2002). Perceived gratification of online media service use among potential users. *Telematics and Informatics*, 19, 3–19.
- Lin, N., Ensel, W. M., and Vaughn, J. C. (2001). Social resources and strength of ties: Structural factors in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4), 393–405.
- Lucht, V. F., and Groothoff, J. (1995). Social inequalities and health among children aged 10–11 in the Netherlands: Cause and consequenc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0(9), 1305–1311.
- Lumeng, J. C., Deepak, S., Danielle, A., Niko, K., Robert, C. and Robert, B. H. (2007). Shorter sleep duration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for being overweight at age 9 to 12 years. *Pediatrics*, 120(5), 1020–1029.
- Marmot, M. (2005).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equalities. *Lancet*, 365, 1099–1104.
- Martin, A. J., Mansour, M., Anderson, M, Gibson, R., Liem, G. A., & Sudmalis, D. (2013). The role of arts participation in students's academic and nonacademic outcomes: A Longitudinal study of school, home, and community facto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5(3), 709–727.
-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 Nollan, K. A., Wolf, M., Ansell, D., Burns, J., Barr, L., Copeland, W., and Paddock, G. (2000). Ready or not: Assessing youths preparedness for independent living. *Child Welfare*, 79(2), 159–177.
- Nordahl, J. K., Poole, A., Stanton, L., Walden, L. M. and Beran, T. N. (2008). A Systematic review of school-based bullying interventions. *Democracy and Education*, 18(1), 16–20.
- Oakes, J., and Saunders, M.(2008). *Beyond Tracking: Multiple Pathways to College*,

- Career and Civic Participation*. Cambridge: Harvard Education Press.
- Orfield, G., and Lee, C.(2005). *Why Segregation Matters: Poverty and Educational Inequality*. Cambridge: The Civil Rights Project, Harvard Education Press.
- Owens, J. A. (2005). Introduction: Culture and sleep in children. *Pediatrics*, 115, 201–203.
- Parris, L., Varjas, K, Meyers, J. and Cutts, H. (2012).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coping with cyberbullying. *Youth & Society*, 44(2), 284–306.
- Puhl, R. M., and Latner, J. D. (2007). Stigma, obesity and the health of the nation's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133(4), 557–580.
- Raskauskas, J., and Stoltz, A. D. (2007). Involvement in traditional and electronic bullying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564–575.
- Reardon, S. F., Atteberry, A., Arshan, N., and Kurlaender, M.(2009). *Effects of California High School Exit Exam on Student Persistence, Achievement, and Graduation*. Stanford: Institute for Research on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 Rothstein, R.(2004). *Class and Schools: Using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Reform to Close the Black–White Achievement Gap*.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Rumberger, R. W. (2011). *High school dropouts in the United States. In School Dropout and Completion (pp. 275–294)*. Springer Netherlands.
- Rumberger, R. W., and Lim, S. A.(2008). *Why Students Drop out of Shool*. Santa Barbara: California Dropout Research Project.
- Segupta, A., and Chaudhuri, A. (2011). Are social networking sites a source of online harassment for teens? Evidence from survey dat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284–290.
- Sewell, W. H., Haller, A. O., and Portes, A.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1), 82–92.
- Smith, P. K. Mahdavi, J., Carvalho, M., Fisher, S., Russell, S., & Tippett, N. (2008). Cyberbullying: Its nature and impact in secondary school pupil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4), 376–385.
- Snyder, T. D., Dillow, S. A. and Hoffman, C. M.(2009).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08.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Sun, R. C. F., and Sheck, D. T. L. (2010). Life satisfaction,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problem behaviour among chinese adolescents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 455-474.
- Swanson, J. L., and Toke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White, J. A. and Wehlage, G.(1995). Community collaboration: If it is such a good Idea, why is it so hard to do? *Education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7, 23-3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Skills for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e, Switzerland: The WHO Document Production Services.
- Zimmerman, R., Gill, B., Booker, K., Lavertu, S., Sass, T. R., and White, J.(2009). *Charter Schools in Eight States: Effects on Achievement, Attainment, Integration, and Competition*. Santa Monica: Rand Press.
- Casey Family Programs (2004). <http://www.casey.org/>에서 2014년 4월 10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 **교육통계연보 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에서 2014년 6월 10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연보 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에서 2014년 6월 10일 인출.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통계연보 20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에서 2014년 6월 10일 인출.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2). **연령별 인구현황**.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if.jsp에서 2014년 6월 9일 인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4년 4월 15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교육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에서 2014년 6월 10일 인출.

.....

부록

부 록

1. 설문조사지 A형: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4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상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4년 6월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윤 철 경 박사(02.2188.8804)
서 정 아 박사(02.2188.8828)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신 성 현 수석부장(02.3014.0087)
박 선 경 과 장(02.3014.1016)

PID
(가려지지 마세요)

본인 예음

1. 학업중단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난 조사를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확인해주세요. 응답 도중 잘 모르겠는 문항이 있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기타 또는 빈 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주세요.

문 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 ※ 여기에서 학교령 정규 학교를 가리키며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함
- ※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 학교를 휴학 중인 경우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봄
- ※ 중학교를 마치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포함됨
- ※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봄
- ※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임

-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 「문 1-1」로
-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 「문 1-2」로
-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 「문 2」로
- ④ 기타() - 「문 2」로

문 1-1.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는?

-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 「문 2」로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 「문 2」로

문 1-2.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현재 어느 기간**입니까?

- ① 학기 중 ② 방학 중 ③ 휴학 중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복학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문 3」으로
-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2-1」로

문 2-1.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학교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
- ① 중학교 ③ 복싱하교 ④ 자유키 ⑤ 특목고
② 일반고 ⑥ 기타()

문 2-2.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언제 학교에 복학했습니까?

※ 예: 2014년 3월에 복학한 경우, 2014년 9월로 기입

※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후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폭학한 경우, 마지막 폭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복합한 때 ㉮

201□년 □□월

문 2-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②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⑤ 부모님이 권해서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⑦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 되서 ⑧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이 끝나서
⑨ 기타()

문 2-4.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합한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미지각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전에 다녔던 학교 - 「문 2-6」으로
② 다른 학교 - 「문 2-5」로

문 2-5.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⑤ 감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⑥ 여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
 ⑧ 학비가 비싸서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서
 ⑩ 겨울을 바꾸려고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⑫ 기타(_____)

문 2-6.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아는 데까지 기재

학교소재지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	---

문 2-7.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중단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대학교를 중단한 경우 「부 4」로

-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 「문 4」로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 「문 3-1」로

문 3-1.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고에 표시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중학교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② 일반고 ⑥ 기타()

문 3-2.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언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주요: 2013년 10월에 그단투 경우, 2013년 10월로 기입

* 학교를 그만둔 때는 자신이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학교를 그만둔 때 4

201□년 □□월

문 3-3.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건강상의 이유로 | ①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
| ② 가정불화 때문에 | ②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
| ③ 공부하기 싫어서 | ③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 ④ 친구들이 싫어서 | ④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
| ⑤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 ⑤ 선생님이 싫어서 |
| ⑥ 검정고시를 하려고 | ⑥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
| ⑦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 ⑦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
| ⑧ 학교가 너무 멀어서 | ⑧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
| ⑨ 다른 학교에 가려고 | ⑨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
| ⑩ 이성문제도 인해 | ⑩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
| ⑪ 전학이 안 돼서 | ⑪ 복학생이라고 눈치 줘서 |
| ⑫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 ⑫ 성적이 안 나와서 |
| ⑬ 기타(_____) | |

문 3-4.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 둔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 | |
|-----------------------|-------------|
| ① 부모님 | ① 형제자매 |
| ② 학교교사 | ② 학교 내 상담교사 |
| ③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③ 친구나 선후배 |
| ④ 없음 | ④ 기타(_____) |

문 3-5.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제공 받은 경험어...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3-6.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학교를 그만들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심리상담 |
| ③ 진로상담 | ④ 대안교육 |
| ⑤ 직업기술훈련 | ⑥ 일자리 소개 |
|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 ⑧ 경제적 지원 |
| ⑨ 진학정보 제공 | ⑩ 진학상담 |
| ⑪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 ⑫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 ⑬ 없음 | ⑬ 기타() |

문 3-7.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
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학업중단숙려제)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3-8」 오
② 아니오 - 「문 4」 오

문 3-8.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학업중단숙려제)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

II. 최초 학업중단 당시의 회고와 현재

※ 다음은 귀하가 “최초”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와 현재에 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4. 귀하가 최초로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① 일반고에 표시
 ※ 학교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학교에 해당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 ④ 특성학교 ⑤ 자율고 ⑥ 특목고
 ⑦ 기타()

문 5. 귀하가 최초로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시·군·구·동) ③ 읍·면·리 지역

문 6. 귀하가 최초로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습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것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②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
 ③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④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
 ⑤ 실컷 놀고 싶었다 ⑥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⑦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다 ⑧ 전학가고 싶었다
 ⑨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다 ⑩ 전문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을 받고 싶었다
 ⑪ 대안학교에 가고 싶었다 ⑫ 기타()

문 7. 현재, 자신이 위에서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이루지 못했다 | → 「문 7-1」 표 |
| ② 거의 이루지 못했다 | → 「문 7-1」 표 |
| ③ 거의 이루었다 | → 「문 7-2」 표 |
| ④ 매우 잘 이루었다 | → 「문 7-2」 표 |

문 7-1. 위에서 전혀 이루지 못했거나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 ② 끈기 부족 |
| ③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 | ④ 관련정보 부족 |
| ⑤ 이끌어주는 사람 부재 | ⑥ 가족(보호자)의 지원 부재 |
| ⑦ 게임이나 인터넷 몰두 | ⑧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음 |
| ⑨ 보호관찰 중이라 | |
| ⑩ 기타(_____) | |

문 7-2. 위에서 거의 이루었거나 잘 이루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 | ②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계획과 목표가 확실 |
| ③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 ④ 지속적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존재 |
| ⑤ 전문기관을 이용 | ⑥ 유혹을 잘 뿌리침 |
| ⑦ 가족(보호자)의 경제적 지원 | ⑧ 기타(_____) |

III. 생활 경험과 인식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귀하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8.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임
-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 응답자가 해당 월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을 선택
-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8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 학교를 그만둔 사정은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2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송호는 2013년 7월에 지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2013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4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 2월~3월은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송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의 보기 ④ 2014년 3월 ~ ⑥ 2014년 6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한 의 보기 ③ 2013년 9월과 ④ 2013년 10월, ⑤ 2014년 2월과 ⑥ 2014년 3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의 보기 ② 2013년 8월, ③ 2013년 11월 ~ ⑦ 2014년 1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송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시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직업기술을 배움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자녀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10) 대학입시 공부를 함 (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11) 대학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8-1. 「문 8」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이라고 응답한 경우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9」로

-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 ⑥ 기타(_____)

문 9.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 어느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해당 없음" 에 표시하고 「문 10」으로

	2013년						2014년							해당 없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함과 함께 생활함 (가출원: 가출한 친구들 끼리 모여 함께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④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보호관찰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소년분류성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성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9-1. 「문 9」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어러분이 만나는 보호관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 「문 9」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 이라고 응답한 달이 없는 경우는 「문 10」으로

- ① 없다 - 「문 9-3」으로
② 있다 - 「문 9-2」로

문 9-2. 「문 9-1」에서 "2)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몇 번 바뀌었나요?

보호관찰관이 바뀐 수

번

문 9-3.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나고 있는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께서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문 9-4.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귀하가 다음과 같은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용여부를 선택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용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경제적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2) 학습·진로 지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4) 숙소정보 제공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5) 감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6)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7) 심리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8)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대한 교육·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문 9-5. 현재 운영 중인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중에서 계속해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나 지금까지 지원 받은 적은 없지만 앞으로 지원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3개를 응답해 주세요.

※ 적어도 1 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경제적 지원 | ② 학습·진로 지도 |
| ③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 ④ 숙소정보 제공 |
| ⑤ 검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 ⑥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
| ⑦ 심리상담 지원 | ⑧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
| ⑨ 없음 | ⑩ 기타 () |

※ 다음은 귀하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0.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0-1」로
② 아니오 - 「문 11」로

문 10-1.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근로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시간제 근로자(시간 당 임금을 받는 경우)
② 일용직(하루씩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③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④ 계약직(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⑤ 실습생(학교가 위탁하여 학생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⑥ 정규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⑦ 잘 모르겠음
⑧ 기타(구체적으로)

문 10-2.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이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일(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 | | |
|--------------------------|-------------------------------|
| ㉠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
| ㉢ 24시간 편의점 점원 | ㉣ 일반상점 판매원 |
| ㉤ 배달방 카운터 및 서빙 | ㉥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
| ㉦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 ㉧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
| ㉨ 문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娼妓), 서빙 및 접대 |
| ㉪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 주유소 주유원 |
| ㉬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 ㉭ 건설현장 노동 |
| ㉮ 공장노동 | ㉯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 ㉰ 아기, 노인 돌보기 | ㉺ 택배기사 |
| ㉱ 택배기사 | ㉻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사범 |
| ㉼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 | ㉽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
| ㉾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 ㉿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 |
| ㊱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 | ㊲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
| ㊳ 패션, 광고 모델 | ㊴ 배우 |
| ㊵ 가수 | ㊶ 콜센터 안내직원 |
| ㊷ 일반 사무직 | ㊸ 기타() |

문 10-3.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일(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원

※ 다음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1.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 ④ 보호관찰소 |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⑧ 병원 등 치료시설 |
| ⑧ 학원 | ⑩ 없음 |
| ⑨ 대안교육기관 | |
| ⑫ 기타() | |

※ 다음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2.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② 아니오"에 기재

- ① 예 - 「문 12-1」로
② 아니오 - 「문 13」으로

문 12-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재미를 위해 | ② 자아개발 |
| ③ 평소의 흥미 |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
|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
| ⑦ 취미생활 공유 |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
|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
| ⑪ 복학에 도움 |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
|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 ⑭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
| ⑮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 ⑯ 학과 공부에 도움 |
| ⑰ 특별한 이유 없음 | ⑱ 기타(구체적으로) |

문 12-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
|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동아리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
|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
| ⑨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 ⑩ 대입학원 동아리 |
| ⑪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 ⑫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
| ⑬ 중·고등학교 동아리 | ⑭ 대학교 동아리 |
| ⑮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 ⑯ 인터넷 홈페이지 |
| ⑰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 ⑱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
| ⑲ 기타(_____) | |

※ 다음은 귀하의 진로·진학 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5.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7」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외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 「문 16」으로
취업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방송통신고 등)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⑩ 등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6.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7.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준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18.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문 19」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일러고 싶지 않(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었)다.	①	②	③	④

IV.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 다음은 귀하의 심리, 정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19.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풀리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망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느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20.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알보다 주먹이 얇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자칫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1.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21-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풍성한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
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거점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의미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기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북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위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1-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지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건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 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 다음은 귀하의 **부모(보호자)**, **친구관계**, **동네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2.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풀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23.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돌아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형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 멍청이, 기만도 못한 것, 나기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4.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수	() 명
-----------	-------

문 24-1.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번 조사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4」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 해당되는 친구수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4」의 친구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귀 친구수	() 명
------------	-------

문 24-2. 현재 친한 친구 중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4」에서 말한 친구 중 해당되는 친구수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4」의 친구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수	() 명
-----------	-------

문 25.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6.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나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귀찮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달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추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잘 쉬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쌍한 청소년들이 함께 물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등지 등이 있어 운동이나 선택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I. 일상 생활 및 가치관

※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7.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미만이 되어야 함
-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 앞 설문에서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님, 대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바뀐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 시간이다.	()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여가 시간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띄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② 해당 있음 →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놀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문 27-1. 귀하는 보통 밥(또는 새벽)에 몇 시에 잡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 예: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1) 평일	2) 휴일
밤(또는 새벽)에 자는 시간	() 시 () 분	() 시 () 분

문 28.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아니다	그렇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29.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3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도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31」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알날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31.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32.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재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Ⅶ.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33.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해신자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강탈)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4.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병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VIII. 배경요인

문 35.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나는 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 | |
|---------------|--------------------|
| ⑥ 혼자 | |
| ① 친아버지 | ② 친어머니 |
| ③ 새아버지 | ④ 새어머니 |
| ⑤ (외)할아버지 | ⑥ (외)할머니 |
| ⑦ 형제, 자매 | ⑧ 친척 |
| ⑨ 시설 및 기관 선생님 | ⑩ 동성 친구, 선후배 |
| ⑪ 이성 친구, 선후배 | ⑫ 남편, 아내 |
| ⑬ 자녀 |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 36. 다음 중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주세요.

※ 대학진학, 취업 관련사항, 부모와의 관계는 앞 문항에서 질문하였으므로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 | | |
|-----------------------------------|-------------------------------|
| ① [내가] 친가족으로부터 독립 | ② [내가] 시설 및 기관 퇴소 |
| ③ [내가] 떨어져 살던 친가족과 생활 | ④ [내가] 시설 및 기관에서 생활 |
| ⑤ [내가] 종교를 갖게 됨 | ⑤ [내가] 자격증 취득 |
| ⑦ [내가] 건강이 좋아짐 | ⑥ [내가] 건강이 나빠짐 |
| ⑧ [내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 | ⑦ [내가]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짐 |
| ⑪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대학 진학 | ⑧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취업 |
| ⑫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결혼 | ⑨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건강이 나빠짐 |
| ⑬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사망 | ⑩ [함께 살던 외조부모 중] 한 명 이상 사망 |
| ⑭ [친부모님 중] 한분 이상 건강이 좋아지심 | ⑪ [친부모님 중] 한분 이상 건강이 나빠지심 |
| ⑮ [친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지심 | ⑫ [친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심 |
| ⑯ [친부모님이] 별거 | ⑬ [친부모님이] 이혼 |
| ⑰ [친부모님이] 취업 또는 창업 | ⑭ [친부모님이] 재혼 |
| ⑱ [친부모님이] 돌아가심 | ⑮ [친한 친구가] 사망 |
| ⑳ 없음 | |
| ㉑ 나 또는 내 가족과 관련한 기타 중요한 사건(_____) | |

문 37. 귀하는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지난번 조사이후 이사 ☞

() 번

문 38.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39.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문 40. 귀하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장래 희망 ☞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중단 조사 패널 정보 기록지

※ 마지막으로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겠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곳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부모님(보호자)께도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적어주실 내용은 귀하께 안부전화나 감사편지 등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하며, 또한 계속 조사를 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귀하와 계속 연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PID (기록하지 마세요)					이름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카카오톡 ID						
사는 곳 주소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		부모님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 -	
아버지	성명			형제 · 자매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남지형제 · 여자형제 · 친척
	휴대전화 번호	- -			휴대전화 번호	- -
어머니	성명			친한 친구	성명	
	휴대전화 전화번호	= =			휴대전화 번호	= =
기타1	성명 (관계)			기타2	성명 (관계)	
	전화번호	- -			전화번호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상품권 수령증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가 매년 조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감사의 뜻으로 사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계신 귀하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도 패널 조사에 대해 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 는 2014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년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싸인): _____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 설문조사지 B형: 보호관찰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4

안녕 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소년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시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4년 6월

조사주관기관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김 지 영 박사(02.3460.5137)
전 영 실 박사(02.3460.5122)
박 성 훈 박사(02.3460.5130)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신 성 현 수석부장(02.3014.0087)
박 선 경 과 장(02.3014.1016)

 PID
(기록하지 마세요)

본인 이름

I. 학업 중단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난 조사를 언제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확인**해주세요. 응답 도중 잘 모르겠는 문항이 있으면 면접원 선생님께 질문하거나 기타 또는 빈 칸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주세요.

문 1. 귀하는 **현재** 다음 중 어떤 **상태**입니까?

- ※ 여기에서 학교원 정규 학교를 가리키며 학력 인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는 학교를 말함
- ※ 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 학교를 휴학 중인 경우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로 봄
- ※ 중학교를 마치고 정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 포함됨
- ※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로 봄
- ※ 방송통신중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중·고등학교임

- ①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 「문 1-1」로
-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 「문 1-2」로
- ③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 「문 2」로
- ④ 기타() - 「문 2」로

문 1-1.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 취득여부는?

- 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 「문 2」로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 「문 2」로

문 1-2.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현재 어느 **기간**입니까?

- ① 학기 중 ② 방학 중 ③ 휴학 중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복학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 중학교, 고등학교 복학 모두 포함

- ① 복학한 경험이 없다 - 「문 3」으로
- ② 복학한 경험이 있다 - 「문 2-1」로

문 2-1.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학교 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기타()

문 2-2.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언제 학교에 복학했습니까?

※ 예: 2014년 3월에 복학한 경우, 2014년 6월로 기입

※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복합한 때 ㉮

201□년 □□월

문 2-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②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③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④ 집에 있기 심심해서(다른 할 일이 없어서)
⑤ 부모님이 원해서 ⑥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⑦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 되서 ⑧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이 끝나서
⑨ 기타()

문 2-4.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합한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① 전에 다녔던 학교 - 「문 2-6」으로
② 다른 학교 - 「문 2-5」로

문 2-5.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 ② 친구들에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 ③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 ④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로 옮기려고
- ⑤ 검정고시를 쳐서 학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 ⑥ 예전 학교로 복학되지 않아서
- ⑦ 다니던 학교가 멀어서
- ⑧ 학비가 비싸서
- ⑨ 내신을 받기 어려워서
- ⑩ 계열을 바꾸려고
- ⑪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 ⑫ 기타(_____)

문 2-6.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복학한 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복학한 경우, 마지막 복학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아는 데까지 기재

학교소재지	(____)(시/도) (____)(시/군/구) (____)(읍/면/동)
-------	---

문 2-7. 복학한 이후 학교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를 중단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 대학교를 중단한 경우 「문 4」로

- ① 중단한 경험이 없다 - 「문 4」로
② 중단한 경험이 있다 - 「문 3-1」로

문 3-1.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① 일반고에 표시

※ 실업계고는 특성화고에 해당

- ① 중학교
② 일반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고 ⑤ 특목고
⑥ 기타()

문 3-2.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언제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예: 2013년 10월에 그단후 경우, 2013년 10월로 기입

* 학교를 그만둔 때는 자신이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 지난번 조사이후 현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기입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학교를 그만둔 때

201□년 □□월

문 3-3.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기간 중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붙다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건강상의 이유로 |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
| ③ 가정불화 때문에 |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
| ⑤ 공부하기 싫어서 | ⑥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서 |
| ⑦ 친구들이 싫어서 |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
| ⑨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 ⑩ 선생님이 싫어서 |
|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
|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서 |
| ⑮ 학교가 너무 멀어서 | ⑯ 잠이 많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
| ⑰ 다른 학교에 가려고 | ⑱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
| ⑲ 이성문제로 인해 | ㉑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
| ㉒ 전학이 안 돼서 | ㉓ 복학생이라고 눈치 쬔서 |
| ㉕ 나이 어린 친구들과 다니기 싫어서 | ㉗ 성적이 안 나와서 |
| ㉙ 기타(_____) | |

문 3-4.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그만 둘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 | | |
|-----------------------|-------------|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 ③ 학교교사 | ④ 학교 내 상담교사 |
|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⑥ 친구나 선후배 |
| ⑦ 없음 | ⑧ 기타(_____) |

문 3-5.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여러 번 학교를 그만둔 경우, 마지막 그만 두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재

	제공 받은 경험어...	
1)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3-6.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가 학교를 그만들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심리상담 |
| ③ 진로상담 | ④ 대안교육 |
| ⑤ 직업기술훈련 | ⑥ 일자리 소개 |
|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 ⑧ 경제적 지원 |
| ⑨ 진학정보 제공 | ⑨ 진학상담 |
| ⑩ 관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 ⑩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 ⑪ 없음 | ⑪ 기타() |

문 3-7.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학업중단숙려제)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3-8」로
② 아니오 - 「문 4」로

문 3-8.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학업중단숙려제)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

II. 최초 학업중단 당시의 회고와 현재

※ 다음은 귀하가 “최초”로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와 현재에 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4. 귀하가 최초로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경우 ① 일반고에 표시
 ※ 학교유형을 잘 모르는 경우 기타에 학교명을 기입
 ※ 실업계고는 특성학교에 해당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고 ④ 특성학교 ⑤ 자율고 ⑥ 특목고
 ⑦ 기타()

문 5. 귀하가 최초로 그만둔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시·군·구·동) ③ 읍·면·리 지역

문 6. 귀하가 최초로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습니까? 가장 하고 싶었던 것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②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
 ③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④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
 ⑤ 실컷 놀고 싶었다 ⑥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⑦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다 ⑧ 전학가고 싶었다
 ⑨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다 ⑩ 전문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을 받고 싶었다
 ⑪ 대안학교에 가고 싶었다 ⑫ 기타()

문 7. 현재, 자신이 위에서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들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이루지 못했다 - 「문 7-1」 5
- ② 거의 이루지 못했다 - 「문 7-1」 4
- ③ 거의 이루었다 - 「문 7-2」 5
- ④ 매우 잘 이루었다 - 「문 7-2」 4

문 7-1. 위에서 전혀 이루지 못했다거나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 ② 끈기 부족
- ③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
- ④ 관련정보 부족
- ⑤ 이끌어주는 사람 부재
- ⑥ 가족(보호자)의 지원 부재
- ⑦ 게임이나 인터넷 몰두
- ⑧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음
- ⑨ 보호관찰 중이라
- ⑩ 기타()

문 7-2. 위에서 거의 이루었거나 잘 이루었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
- ②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계획과 목표가 확실
- ③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 ④ 지속적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존재
- ⑤ 전문기관을 이용
- ⑥ 유혹을 잘 뿌리침
- ⑦ 가족(보호자)의 경제적 지원
- ⑧ 기타()

III. 생활 경험과 인식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귀하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8.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해당 기간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임
- ※ 해당 기간 동안 **월별로** 최소 1개 이상 항목에 응답해야 하며 각 항목마다 경험한 달에 모두 표시해야 함
- ※ 월별로 한 일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음
- ※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 학교를 다닌 것으로 표기함
- ※ 응답자가 해당 월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경우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을 선택
- ※ 앞의 문항에서 복학, 학업중단, **8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이 꼭 표시되어야 함
- ※ 복학이나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더 주의 깊게 표시
- ※ 학교를 그만둔 시점은 학교를 나가지 않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함

[응답 예시]

2012년 11월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승호는 **2013년 7월에 지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2013년 9월~10월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여 **2014년 6월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 2월~3월은 집 앞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 승호가 **지난 설문조사**를 한 이후인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응답합니다.
- ⇒ 문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의 보기 ㉠ 2014년 3월 ~ ㉡ 2014년 6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문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의 보기 ㉢ 2013년 9월과 ㉣ 2013년 10월, ㉤ 2014년 2월과 ㉥ 2014년 3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 ⇒ 학업중단 기간 중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은 문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의 보기 ㉦ 2013년 8월, ㉧ 2013년 11월 ~ ㉨ 2014년 1월에 동그라미 합니다.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승호가 응답해야 할 기간

※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시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2013년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중·고등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직업기술을 배움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자녀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10) 대학입시 공부를 함 (대입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11) 대학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8-1. 「문 8」에서 「3) 검정고시 공부를 함」이라고 응답한 경우 어떻게 검정고시 공부를 하셨습니까?

※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문 9」로

- ① 혼자서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 ②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 ③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동네 기관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④ 교육청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원하는 검정고시 공부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 ⑥ 기타()

문 9.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어느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⑩ 해당 없음 " 에 표시하고 「문 10」 으로

	2013년						2014년							해당 없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함과 함께 생활함 (가출함: 가출한 친구들 끼리 모여 함께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⑩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보호관찰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9-1. 「문 9」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달이 있는 경우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어려붙이 만나는 보호관찰관이 바뀐 적이 있나요?

※ 「문 9」에서 「3) 보호관찰을 받음」이라고 응답한 달이 없는 경우는 「문 10」으로

- ① 없다 - 「문 9-3」으로
② 있다 - 「문 9-2」로

문 9-2. 「문 9-1」에서 「2)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몇 번 바뀌었나요?

보호관찰관이 바뀐 수 <

번

문 9-3.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나고 있는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떨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나의 문제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문 9-4.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귀하가 다음과 같은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용여부를 선택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용여부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경제적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2) 학습·진로 지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4) 숙소정보 제공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5) 감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6)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7) 심리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8)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문 9-5. 현재 운영 중인 보호관찰 지원프로그램 중에서 계속해서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나 지금까지 지원 받은 적은 없지만 앞으로 지원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3개를 응답해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경제적 지원 | ② 학습·진로 지도 |
| ③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 ④ 숙소정보 제공 |
| ⑤ 감정고시학원 교육비 지원 | ⑥ 의료 지원(질병치료, 문신제거 등) |
| ⑦ 심리상담 지원 | ⑧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
| ⑨ 없음 | ⑨ 기타 () |

※ 다음은 귀하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0.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0-1」로
② 아니오 - 「문 11」로

문 10-1. 현재 일(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근로상 지위는 다음 중 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시간제 근로자(시간 당 임금을 받는 경우)
② 일용직(하루씩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③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④ 계약직(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⑤ 실습생(학교가 위탁하여 학생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⑥ 정규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⑦ 잘 모르겠음
⑧ 기타(구체적으로)

문 10-2.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일(아르바이트)이 2개 이상이라면 '너 많은 시간을 하는 일(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
| ③ 24시간 편의점 점원 | ④ 일반상점 판매원 |
| ⑤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 ⑥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
| ⑦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 ⑧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
| ⑨ 문식점, 종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 ⑩ 탄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倂客), 서빙 및 갈래 |
| ⑪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⑫ 주유소 주유원 |
| ⑬ 이삿짐 분반 또는 불건 포장 | ⑭ 건설현장 노동 |
| ⑮ 공장노동 | ⑯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 ⑰ 아기, 노인 돌보기 | ⑱ 픽서비스 배달 |
| ⑲ 택배기사 | ⑳ 태권도·수영·헬스 등 운동 코치·서번 |
| ㉑ 키즈카페·수영장 등 안전요원 | ㉒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
| ㉓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 ㉔ 마트 등 주차·안내요원 |
| ㉕ 이·미용이나 네일 아트 등 | ㉖ 전자제품 방문 설치기사 |
| ㉗ 패션, 광고 모델 | ㉘ 배우 |
| ㉙ 가수 | ㉚ 콜센터 안내직원 |
| ㉛ 일반 사무직 | ㉜ 기타() |

문 10-3.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일(아르바이트)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원

※ 다음은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1.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귀하를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 ①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 | ② 보호관찰소 |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④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 ⑤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⑤ 병원 등 치료시설 |
| ⑥ 학원 | ⑥ 없음 |
| ⑧ 대안교육기관 | |
| ⑨ 기타() | |

※ 다음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2.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경우 "㉠ 아니오" 에 기재

- ① 예 - 「문 12-1」로
② 아니오 - 「문 13」으로

문 12-1.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세요.

※ 적어도 1순위는 꼭 기입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재미를 위해 | ① 자아개발 |
| ③ 평소의 흥미 | ④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
|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 ⑤ 학업중단 상충사해를 알고 싶어서 |
| ⑦ 취미생활 공유 | ⑦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
| ⑧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 ⑧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
| ⑨ 복학에 도움 | ⑨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
| ⑩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 ⑩ 대학 및 학과 선택에 도움 |
| ⑪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 ⑪ 학과 공부에 도움 |
| ⑫ 특별한 이유 없음 | ⑫ 기타(구체적으로) |

문 12-2. 귀하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등) 동아리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동아리 |
| ③ 보호시설(청소년쉼터 등) 동아리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동아리 |
| ⑤ 보호관찰소 동아리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등) 동아리 |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동아리 | ⑧ 소년원 학교 동아리 |
| ⑧ 검정고시 학원 동아리 | ⑨ 대입학원 동아리 |
| ⑩ 병원 등 치료시설 동아리 | ⑩ 대안교육기관 동아리 |
| ⑪ 중·고등학교 동아리 | ⑪ 내학교 동아리 |
| ⑫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카페 | ⑫ 인터넷 홈페이지 |
| ⑬ SNS 서비스(페이스북, 싸이월드 등) 카페 | ⑬ 활발하게 참여한 것 없음 |
| ⑭ 기타() | |

※ 다음은 귀하의 진로·진학 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3.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나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14.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시대와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11)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①	②	③	④
13) 가정 환경이 열악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로로 선택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15.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문 17」로
진학학업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 「문 16」으로
	③ 대안학교 진학	
	④ 해례 유학	
	⑤ (대안학교 등을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취업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⑧ 취업과 진학 병행(방송통신고 등)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 예정임		
⑩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도울 예정임		

문 16. 귀하는 향후 원하는 진로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문 17.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졸	고졸	초대졸 (2~3년제)	대졸 (4년제)	대학원 졸 (석사 및 박사)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18.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점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지난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규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문 19」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선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었)다.	①	②	③	④

IV.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 다음은 귀하의 **심리, 정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19.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처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관철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20. 귀하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프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귀하의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1. 귀하가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다음은 게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문 21-2. 다음은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본 설문에서 말하는 SNS는 "웹 상에 개인이 공적인 신상정보를 만들거나, 자신과 인맥을 맺은 다른 이
용자들의 리스트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있는 인맥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웹서비스"를 의미
※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싸이월드가 SNS에 포함되며 카카오톡은 SNS에 포함되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연락처, 하는 일, 학교 등)가 유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대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SNS 상에서 나를 놀리는 글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SNS 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SNS 상에서 나에게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 SNS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SNS를 통해 허위 없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SNS를 통해 누군가에 대해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SNS를 통해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SNS를 통해 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글(괴담, 소문 등)을 올려 놓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1-3.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지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건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 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사용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V. 부모-친구관계 등비주변 환경

※ 다음은 귀하의 부모(보호자), 친구관계, 동네수변 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2. 다음은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어른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23.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에게 나타내는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3) 내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돌아와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많이 하신다. (예를 들어 엉청미, 개반노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4.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 * 여기서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음
* 없으면 0으로 기입

현재 친한 친구수

() 명

문 24-1. 현재 친한 친구 중 지난번 조사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4」에서 말한 현재 친구 중 해당되는 친구수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4」의 친구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없으면 0으로 기입

새롭게 사귀 친구수

() 명

문 24-2. 현재 친한 친구 중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 * 「문 24」에서 말한 친구 중 해당되는 친구수를 기입하는 것이므로 「문 24」의 친구수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없으면 0으로 기입

학업중단한 친구수

() 명

문 25. 귀하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떠난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26. 귀하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훈내고 달린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 집이나 공터가 많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물려다니는 것을 저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다.	①	②	③	④

VI. 일상 생활 및 가치관

※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 및 가치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27. 다음은 귀하가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 ※ 평일, 휴일별로 모든 시간의 합은 24시간 미만이 되어야 함
- ※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로 하는 일 기준으로 기재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
- ※ 앞 설문에서 현재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님, 대학학교에 다님,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에 응답하였으면 학교나 대학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야 함
- ※ 자신이 하루 중 주로 하는 일이 빠진 경우 기타에 기입하고 시간을 기재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 시간이다.	()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학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여가 시간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띄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② 해당 있음 →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놀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8) 나는 이 외에 하루 24시간 중 여가 시간에 주로 ()을/를 하며 시간은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 시간이다.	() 시간이다.

문 27-1. 귀하는 보통 밥(또는 새벽)에 몇 시에 잡니까?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세요.

※ 예: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1) 평일	2) 휴일
밤(또는 새벽)에 자는 시간	() 시 () 분	() 시 () 분

문 28.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아니다	그렇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칼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29. 다음은 학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문 30.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만 응답]** 다음은 귀하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 이미 대학에 진학한 경우 「문 31」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31. 다음은 귀하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사회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유용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32. 다음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자립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재적인 학업준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Ⅶ. 행동 경험

※ 다음은 귀하의 행동이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문 33. 다음은 귀하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얻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문 34. 다음은 귀하가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뚱기)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10) 약물(본드) 흡입	① 없다	② 있다

VIII. 배경요인

문 35.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 | |
|---------------|--------------------|
| ⑥ 효자 | ② 친어머니 |
| ① 친아버지 | ④ 새어머니 |
| ③ 새아버지 | ⑥ (외)할머니 |
| ⑤ (외)할아버지 | ⑧ 친척 |
| ⑦ 형제, 자매 | ⑩ 동성 친구, 선후배 |
| ⑨ 시설 및 기관 선생님 | ⑫ 남편, 아내 |
| ⑪ 이성 친구, 선후배 |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⑬ 자녀 | |

문 36. 다음 중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주세요.

※ 대학진학, 취업 관련사항, 부모와의 관계는 앞 문항에서 질문하였으므로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됨

- | | |
|-----------------------------------|-------------------------------|
| ① (내가) 친가족으로부터 독립 | ② (내가) 시설 및 기관 퇴소 |
| ③ (내가) 떨어져 살던 친가족과 생활 | ④ (내가) 시설 및 기관에서 생활 |
| ⑤ (내가) 종교를 갖게 됨 | ⑥ (내가) 자격증 취득 |
| ⑦ (내가) 건강이 좋아짐 | ⑧ (내가) 건강이 나빠짐 |
| ⑨ (내가)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짐 | ⑩ (내가) 새어머니(또는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짐 |
| ⑪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대학 진학 | ⑫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취업 |
| ⑬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결혼 | ⑭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건강이 나빠짐 |
| ⑮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 사망 | ⑯ (함께 살던 외조부모 중) 한 명 이상 사망 |
| ⑰ (친부모님 중) 한 분 이상 건강이 좋아지심 | ⑱ (친부모님 중) 한 분 이상 건강이 나빠지심 |
| ⑲ (친부모님이) 사이가 좋아지심 | ⑳ (친부모님이) 사이가 나빠지심 |
| ㉑ (친부모님이) 별거 | ㉒ (친부모님이) 이혼 |
| ㉓ (친부모님이) 취업 또는 청업 | ㉔ (친부모님이) 재혼 |
| ㉕ (친부모님이) 돌아가심 | ㉖ (친한 친구가) 사망 |
| ㉗ 없음 | |
| ㉘ 나 또는 내 가족과 관련한 기타 중요한 사건(_____) | |

문 37. 귀하는 지난번 조사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지난번 조사이후 이사 ☞

() 번

문 38. 귀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39.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문 40. 귀하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장래 희망 ☞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상품권 수령증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가 매년 조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감사의 뜻으로 사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계신 귀하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도 패널 소사에 대해 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 는 2014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년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싸인): _____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조사에 협조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 내용은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별지] 패널 정보 기록지

※ 본 [별지]는 보호관찰관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세요.

PID (기록하지 마세요)						미등		
휴대전화번호		- -						
이메일 주소		@						
카카오톡 ID								
사는 곳 주소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		부모님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 -		
아버지	성명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남자형제·여자형제·친척	
	휴대전화 번호	- -				휴대전화 번호	- -	
어머니	성명				친권 친구	성명		
	휴대전화 전화번호	- -				휴대전화 번호	- -	
기타1	성명 (관계)				기타2	성명 (관계)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다음은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설문대상 패널 청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으며 추가로 드러난 여죄가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지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이 청소년에게 추가로 드러난 여죄나 범죄가 있습니까?

- ① 예 - 별지 「문 1-1」로
② 아니오 - 별지 「문 3」으로

문 1-1.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에게서 추가로 드러난 여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조사를 2013년 7월 3일에 실시하였으면 2013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의 여죄를 말함
※ 추가로 드러난 여죄가 없는 경우 "④ 없음"에 표시
※ 기타 여죄가 있는 경우 "⑦ 기타"에 표시하고 기재

- ① 폭력 ② 절도 ③ 강도
④ 약물 ⑤ 교통범죄 ⑥ 없음
⑦ 기타()

문 1-2.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이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저지른 범죄가 없는 경우 "④ 없음"에 표시

- ① 폭력 ② 절도 ③ 강도
④ 약물 ⑤ 교통범죄 ⑥ 없음
⑦ 기타()

문 2. 이 청소년에게서 추가로 드러난 여죄 혹은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그로 인해 받게 된 처분
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불처분 ②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처분)
③ 수강명령 ④ 사회봉사명령
⑤ 단기 보호관찰 ⑥ 장기 보호관찰
⑦ 소년보호시설 위탁(6호) ⑧ 1개월 소년원(8호처분)
⑨ 단기 소년원(9호) ⑩ 장기 소년원(10호)
⑪ 기타()

문 3.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야간외출제한명령
 ② 상담교육
 ③ 보호자교육
 ④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⑤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⑥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⑦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⑧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⑨ 사형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⑩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⑪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⑫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부가처분 없음
 ⑬ 기타()

※ **다음은 대상자의 보호관찰 이행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과 선생님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문 4. 지난 조사이후 현재까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대상자기 다음의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과 약속한 날짜에 잘 나온다.	①	②	③	④
2)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질문(인상생활 등)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①	②	③	④
3)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4) 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전화연락을 하면 잘 받는다.	①	②	③	④

문 5. 보호관찰 담당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세요.

보호관찰 담당선생님 성함

()

❀ 설문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 청소년 FGI”
☐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상: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개척하는 만 13세-만 18세의 남녀 청소년 ☐ 목적: 정규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더욱 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 ☐ 일시: 2014년 5월 29일(목) 오후 5시~7시 ☐ 장소: 사당역 4번 출구 르메이에르 강남타운2 WOW 카페, VIPS ☐ 방법: 질문에 따라 정규학교를 그만 두고 느낀 점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기 (브레인스토밍) ☐ 인터뷰 답례품: 문화상품권 5만원(* 서울·경기 이외 지역 청소년의 경우 교통비 지급)

★★★★★★★★★★★★★★★★★★★★★★★★★★★★★★★★★★★★★★
FGI 참가자

	성명	연령	상황

◆ 인터뷰 참가자 인적사항 ◆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란에 V표시 하거나 기입하여 주세요.

1. 이름을 적어주세요. ()
2. 성별은 무엇인가요? ____ 1) 남 ____ 2) 여
3. 나이를 적어주세요. (만 세)
4.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이메일주소 : _____

전화 및 휴대폰 : _____

5. 거주지역은 어디인가요?

- | | | | |
|-------------|-------------|-------------|-------------|
| __ 1) 서울특별시 | __ 2) 부산광역시 | __ 3) 대구광역시 | __ 4) 인천광역시 |
| __ 5) 광주광역시 | __ 6) 대전광역시 | __ 7) 울산광역시 | __ 8) 경기도 |
| __ 9) 경상북도 | __ 10) 경상남도 | __ 11) 전라북도 | __ 12) 전라남도 |
| __ 13) 충청북도 | __ 14) 충청남도 | __ 15) 강원도 | __ 16) 제주도 |

6.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언제인가요?

- | | | |
|----------|----------|----------|
| __ 1) 중1 | __ 2) 중2 | __ 3) 중3 |
| __ 4) 고1 | __ 5) 고2 | __ 6) 고3 |

7. 학교를 그만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_____ 년 _____ 개월

□ 면접에서 다룰 주요 범주

Ⅰ. 가족

1. 부모님께 미안함
2. 가족/친척에게 눈치보임
3. 남을 의식한 부모님 간섭
4. 가족/친척에게서 자퇴에 대해 수용받지 못함

Ⅱ. 사회

5. 주변사람들/ 친구의 부정적 시각
6. 어른들의 비난/무시
7. 편견
8. 사회적 불이익-공공시설 이용/ 아르바이트 등
9. 대안학교에서의 한계

Ⅲ. 심리

10. 대안학교/ 학원에 대한 실망, 기대에 못미침
 - 인간관계, 학업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의 갈등
11.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부러움
 -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 학교다니고 싶을때 있다
12. 생활에 대한 불안정감
 - 마음 안 편함, 지루함
13.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
 - 나만 뒤처지는 기분,
 - 뭔가 하고 싶다가도 흐지부지함
 -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 시간활용 잘 못함
14. 목적의식/ 소속감 없음
 - 놀아도 재미없음
 - 컴, 인터넷을 많이 함
 - 기관에 있어도 스스로 해야 하나 찾기 힘들다
15. 혼자해야 하는 어려움
 - 혼자라고 느낀다.
 - 방탕한 생활/ 힘들어 죽고 싶을때도 있다

IV. 경제/친구/기관

16. 경제적/ 심리적 부담

- 대안학교가도 노는 아이들 많음. 공부가 잘 안됨.
- 생활비와 학원비를 벌어야 함.
- 검정고시 합격 부담.
- 사회를 너무 빨리 경험하는 듯

17. 친구들과의 거리감

- 내 또래 아이들과 화제거리, 이야기, 공감대 없음,
-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거리감 느낌

18. 도움 받을 기관의 부족

- 자립할 수 있는 능력 키워주는 기관이 없음
- 쉼터나 상담실 적다

19. 경제적인 어려움

- 학교 친구들 연락와도 내가 피하게 됨
- 일하는 것 비해 돈 적음

V. 일자리

20. 일터에서의 어려움

- 알바시 학교 안다니니까 시간 많다고 하루종일 하라함
- 신원확인 안되어 취직이 어렵다고 함

21.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

- 알바때 자퇴했다고 이야기 못함
- 반듯한 일자리 찾기 어려움
- 자퇴했던 이유로 알바 구하기 힘들다
- 이외 진로, 경제적 문제

4.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면접 결과

1. 연구방법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 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적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 참여자 섭외 및 유형 분류

학업중단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모집과 청소년 수련관 및 쉼터 등 기관을 통한 참여자 섭외 등으로 모집하였다.

학업중단 유형에 따른 분류는 인터뷰 당시의 청소년이 주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거나 대입을 준비하는 경우는 '학업형', 시간제 근무 및 종일제 근무로 취업을 하였거나,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형',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는 '무업형', 보호관찰 및 각종 처분을 1번이라도 받은 경험에 있는 경우는 '비행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학업중단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인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총 참여자 18명 중 학업형의 청소년이 6명, 취업형 청소년이 5명, 무업형 청소년이 4명, 비행형이 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4-19세로 구성되었으며, 17세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16.5세로 조사되었다.

참여자들의 학업중단 시기는 초6부터 고2까지로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시기는 고1에 그만둔 청소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업중단기간은 2개월에서 27개월로 평균 13개월로 조사되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참여자 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학업중단 청소년 인터뷰 참여자 인적 사항

유형	성별	연령(만)	중단시기	중단기간(월)	지역	참여차수	ID
학업형	여	16	중2	24	경기	1,2차	S-1
	여	16	고2	2	경기	1,2차	S-2
	여	17	고2	4	충북	1차	S-3
	여	15	고1	3	경기	1,2차	S-4
	여	16	고1	9	서울	1,2차	S-6
	남	18	고2	12	서울	4차	S-7
취업형	남	14	초6	32	서울	4차	E-1
	남	17	고1	12	인천	3차	E-2
	남	17	고2	27	인천	3차	E-3
	여	18	고2	15	경기	1,2차	E-4
	남	16	고1	13	경기	1차	E-5
무업형	남	18	고1	24	경북	3차	N-1
	남	17	고1	5	서울	4차	N-2
	남	16	고1	3	인천	3차	N-3
	남	17	고1	3	강원	3차	N-4
비행형	남	17	고1	25	서울	4차	D-1
	남	15	고1	12	전남	3차	D-2
	남	17	고1	27	서울	3차	D-3

2. 유형별 구분에 따른 연구결과

□ 학업형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1) 가족관계

S-1: 내가 내일 안하고 받는 게 아니니까 저는 당당하게 받는데요. 내가 내 삶을 다 살면서 받는 거잖아요.

S-2: 집에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냐고 모라고 하고 집에 있으면 왜 집에 있냐고 그러고..진짜 스트레스 받아요..차라리 쫓겨나고 싶어요..

S-2: 오늘도 또 나갔다고 모라고 하고..

S-3: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학교에 있을 때 기숙사에 있을 때도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통학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들을 거의 못 보니까..

S-2: 그냥 처음에 자퇴 생각했을 때 고1때부터 생각은 했는데 부모님이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말 안했다가 그리고 다 작성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계획이랑 그런 걸 근데 부모님이 처음에는 괜찮아 하셨는데 더 알아보고 난 후에는 자퇴하면 굳이 학교를 그만두고 해야 할 일이 뭐냐고.. 저는 진짜 학교를 안 그만두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득이 안됐는데 제가 계속 말하니까 결국 허락해주셨어요.

S-6: 엄마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때 많이 싸웠거든요..힘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 넘어가야지 그때도 내 마음이 내 미래에 대해서 '난 이거를 꼭 하고야 말꺼야' 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이게 더 나은 길이다. 엄마가 말하는 거니까 이게 옳겠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빠져버리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바뀌었던거요.

2) 또래관계

S-1: 똥해진다는 건 당연하죠..내가 몸이 멀리 있고 학교에 매일 안가니까 대화할 거리가 줄어들고 시간이 없어지는데,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학교 다니는 만큼을 채우지 않으면 대화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게 없으니까.

S-2: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친구가 갑자기 자퇴하니까 힘들지 않냐? 힘들 것 같다. 넌 분명 학교가 그리울 거고 다시 오고 싶을 거다. 후회할거다 그렇게 말하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 참고 있고 또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데 고맙긴 한데 그런 게 괜히 쓸데없이 동정해주는 거 같아서..그런 거 싫었어요..

S-2: 기르면 염색 할 거예요. 물론 애들이 욕을 할 것 같긴 해요. 재는 자퇴하고도 저러고 사는구나 그럴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S-6: 3월말부터 다녔는데 10월 11월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어땠겠냐..

S-4: 그냥 만나도 주말에 보거나 애들 학교 끝나고 야자하니까..그냥 주말에

S-2: 그냥 제가 원래 실업계를 다녔어요. 근데 실업계 간 것도 애들이 안 좋게 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실업계 간 건데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도 생각보다 너무 안좋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제가 학교를 잘 안 나왔어요 처음에, 학교 다니기가 힘들니까 근데 학교 안 다니던 애가 자퇴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개 자퇴했대 그냥 그 소리도 싫고 그냥 시선이 제일 힘들었어요.

3) 사회

S-1: 자퇴한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웃긴 것 많아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선생님이 자길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 **이면..**아 너 자퇴하면 결혼 못 해..너 인문계학교 다니면서 여기서 만난 남자애들보면서 머였지? 수준이 익숙해졌는데 자퇴해서 나가면 다 짜장면 배달하는 애들이 눈에 들어오겠니? 그럼 너 결혼 못 하고 평생 혼자 살아야해..

S-2: 또 저는 자퇴할 때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막말을 했어요. 가정사를 물어보는데 저희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냥 그거를 제 개인적일을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10명중에 9명은 성공 못 했고. 너는 그 9명중에 1명이 될 거다. 너 성공 못 한다...

S-1: 학교를 작은 사회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사회 나가면 똑같이 그래야 돼 너 싫은 사람들이랑 얼굴마주보고 싫은 상사한테 입바른 소리 못하고 쭈구리고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미리 연습해두었다가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작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큰 사회에 나가서도 싫어하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마주볼 수 있는 사회를 살기위해 나온 거예요.

S-1: 불안한건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불안하고 아침에 태만해지는..

S-3: 밖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가도 청소년이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학교 가는데 왜 여기에 있냐 그러고 그러세요. 학교를 안 다닌다 그러면 요즘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S-3: 설명을 할 때 여러 용어를 써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제일 거부감 없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자퇴생 그러면 꼭 사고가 있거나

S-4: 그냥 자퇴했다는 편견이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S-6: 네 주변에 자퇴했다가 다시 학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들은 꿈이 있어서 자퇴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학교를 자퇴하기 싫고 무작정 자퇴를 했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세상과는 다르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너도 그럴 것 같다고 그러고..돌아가는 게 어떡냐고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싫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게 맞을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던 뜻을 이루는 게 나올까? 고민하게 됐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시험이 다가오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들을 보면 인터넷을 지식인에 사람들이 올리는 보면 다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정작..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계속 보게 되는데 근데 카페나 주변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기하기에..근데 주변에서 그런 걸 계속 보내주니까.

4) 기타(동아리 및 기관활동)

S-7: 3-4월 달에는 저희가 청소년센터 밑에 카페 공간이 생겨서 기획하고 해서 카페를 했어요.

S-1: (수련관 프로그램)기수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기수밖에 있는 친구들을 잘 끌어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아예 구분하려고 하거나 비슷한 호구로 만들려고 하거나..

S-7: 저희는 징검다리공간이거든요. 청소년들끼리 매주 회의를 해서 할 것을 정해서..

S-1: (수련관 프로그램)좀 자유로울 뿐 이예요. 근데 나간 아이들도 선생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과 나를 가둘 수 있는 울타리, 친구들을 바라고 있으니까..뭔가 좀 더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그들만의 공간..

S-1: (수련관 프로그램)오히려 그런데는 패밀리링이 더 짙어지잖아요. 그만큼 더 끼어들기 힘들어져요.

2.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은?

1) 개인적 측면

S-1: 불안한건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불안하고 아침에 태만해지는..

S-4: 일단은 후회 안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후회하는 것 같아요.

S-1: 이렇게 똑같이 쳇바퀴처럼 굴러서 살아도 돼. 괜찮아, 그러다가 딱 대학교가서 눈가리게 되면 막막해지고 학교를 나오고 드는 거는 밥벌이? 뭐해서 먹고 살지? 자립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S-1: 이대로 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쓸데없이 보내는구나 내일은 어떻게 하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태만해져요.

S-7: 학교를 다닐 때는 일정이 빡빡해서 따라가면 됐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할 게 아무래도 일부러 찾으러 다니지 않는 이상 없다보니까 조금 무기력해지는..

2) 진로에 대한 문제

S-3: 원래 미대를 준비했었는데 자퇴를 하니까 길이 좁아지더라고요. 갈 수 있는 게 입시전형자체가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생활기록부나 그런 게 없으니까

S-6: 동국대는 작년까지 검정고시생은 응모도 못 했어요. 정시 수시 전부다.

S-3: 요즘수시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맨날 바뀌어요. 정보수집이 중요한데 저희는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죠.

S-1: 저 호칭이야기하려고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상 실적이에요. 예체능계열이다 보니까 아마 미대도 그럴 것 같은데..수상실적인데 제가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청소년이 대상에 안 써져있어요. 전화해보면 저희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만 받아요.

S-3: 근데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생활기록부라는 거는 제가 3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출석부나 이런 것도 없고 얼마나 성실한지 대인관계가 어떤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학에서는 검정고시생을 좀 안 좋게 보는 걸 어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좀 나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이 없어서..

S-3: 소속이 없으면 일반부로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성인들이랑 경쟁을 청소년들이 너무 불리한거예요.

S-3: 왜냐면 대회를 나갈 때도 소속이 없으니까 대회참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S-6: 부모님이 안도와주시면 자기가 혼자 알아보는 게..남들 어차피 말해봤자 그 사람들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딱 6개 추려서 대학이랑 입시전형 다 알아보고 직접 전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S-6: 근데 폭이 좁아서.. 다 자기하기 바쁘죠..알려줬다가 경쟁하고 그러면.. 특히 검정고시생들은 더 심하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대학수시도 몇 한3-4배수 뽑잖아. 한과에 4명을 뽑으면 1차에 8명 뽑고 2차에 또 뽑고 하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2-3명 간다면 검정고시생은 한명 갈까 말까 하니까.. 다들 준비하고 그냥 알아서 찾아봐야하는 식이니까..

3) 사회적 인식

S-1: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퇴를 대안으로 안보는 것 같아요. 자퇴는 대안교육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나온 혹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분하기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구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저희는 상처를 받고 구분 지으려는 사람들의 눈초리에 우리를 상처를 받고 있어요.

S-6: 봉사 할 때도 봉사를 하려고 가면 몇몇 기관에서는 소속을 요구하는데 기관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봉사하는 것도 꺼려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S-1: 또 다른 교육으로 취급을 잘 안 해줘요. 복지,..교육에서 떨어져나갔으니까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교육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4) 프로그램 및 정보의 부족

S-2: 저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직업 진로 이런 거 왜하는지 모르겠었는데 굳이 자퇴해서 내가 그런 거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냥 자퇴하고 나서 저는 그런 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 학교 다닐 때는 담임쌤한테 물어보면 됐는데 이제는 어디에다 물어봐야할지..

S-6: 제가 프로그램이 있나하고 청소년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육부로 돌려요. 교육부에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모른다고 여성가족부로 돌려요. 그러다 해밀을 알고서는 거기서도 그닥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다 자기들은 모른대요. 동사무소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사무소 받아도 자기네들 일 아니라고..

S-3: 뭘 열심히 해보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 전년도 합격자결과도 내신 몇 점이 평균이었고 그런 것만 나와있지. 저희는 자료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응시하는 학생들도 좀 비교적 적은 편이라 정보가 없어서..

S-3: 자퇴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진로선생님계시고 그러잖아요. 일반 카페나 대기업 들어가도 내신산출을 하는 게 다 있는데 검정고시는 점수가 어떻게 환산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후기나 이런 것도 너무 적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해야 하는 데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보가.

S-3: 대학교에서 사생대회 이런 거 열잖아요. 글 쓰는 대회도 열고, 그 자체가 대상이 청소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등학생, 고등학교 1,2,3학년 이런 식으로 쓴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미대입시를 포기한 것도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면 스펙을 쌓아서 수시를 넣는데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자체가 없는 거예요.

3. 학교를 그만두고 좋은 점은?

1)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

S-3: 시험압박을 덜 받는 것.

S-2: 학교 다닐 때는 수행평가나 압박이 되게 컸는데 그만 두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게 다예요.

S-2: 공부는 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S-3: 잠 많이 잘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특성상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거의 2-3시간 잤거든요. 근데 몸이 많이 상해서 자퇴를 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근데 집에 있으면 원래 좀 야행성이거든요. 새벽에 자고 오전에 일어나도 되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 개인적 자유

S-6: 학교를 그만 두면 우리가 묶여있던 그 무언가가 없어지고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잖아요. 학교에서만 봤던 시각이 아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주변을 보니까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S-6: 처음에는 그냥 신기했어요. 이제 뭔가 틀에 아닌 저 혼자.. 남들은 다 틀 안에 있는데 저 혼자 틀이 아닌 저 혼자 해야 하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공부도 하기 하지만 주로 놀러 다니고..

S-1: 내가 너무 당연한 자유를 학교를 그만둬서야 누릴 수 있는가? 너무 당연한 내 권리인데 너무 늦게 찾은 것 같아서..

S-1: 내가 내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더 확보된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선택권 같은 게 처음으로 주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S-7 :제한받지 않는 점.

S-7: 학교를 다니면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안 봐도 되는 거. 그 관계를 피할 수 있잖아요.

4. 이런 점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1)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 확대

S-7 : 지금 그 중3에서 선택지가 고등학교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중학생들이 선택지를 더 넓혀주는 게.

S-1: 직업체험도 전문화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수련관에서는 다 1회체험이에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얼마 길러야 그다음에 체험을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다 우르르 소떼 양떼 몰려가가지고 기수 채워가지고 수료증 만들고..

S-3: 검정고시생들한테도 나라에서...학교마다 진로선생님 있잖아요. 검정고시생한테도 진로선생님이..

S-7: 중3 때 후반에 막 고등학교에서 와가지고 자기 학교 소개하고 그럴 때 센터 같은 것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와서 했으면 조금...더 나은.

S-7 : 센터에 이렇게 설명해준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S-2: 전 자퇴할 때 막 상담 WEE센터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자퇴하고 난 다음에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S-2: 비교내신도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해야 하고 그런 것 자세한 설명해줬으면 좋겠고, 전형 같은 것도 내가 스스로 찾는 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지식인에 물어보기도 웃긴 거예요..그런 거..

S-1: 프로그램을 하려면 기민해져야할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고..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S-6: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등)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자원봉사하면 뭔가 내가 이걸 잘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내가 돈을 벌수 있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재능기부인데..대학생들도 딱 방학에만 하고 평소에는 학교에서 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잘 안 뵈어요. 대학생들도..필요할 때만 봉사활동하고..

S-1: 멘토를 붙여달라고 했어요. 철학 공부하는 대학생...근데 없대요. 교과진도 나가는 멘토를 붙여주는 거지..그게 아니다. 금속공예에 관심이 있으면 금속공예를 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건데..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끌어 들이는 게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서 자원봉사 모집하는 게 그래요. 근처에 대학 많잖아요. 근처의 대학이랑 연계를 해서 하면 안 되나요?

2) 기관 및 학교간의 연계

S-1: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수련관끼리 연계도 했으면 좋겠고, 수련관끼리 연계를 한 다음에 학교랑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S-1: 선생님들이 알고 애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탈학교 청소년이 있다는 것. 탈학교 청소년이 학교를 연계를 해서 애기를 한다던지 생활을 학교 안으로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랑 안다니는 친구들이랑.

S-1: 우리탈학교청소년이 있고 이런 경로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로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대안이 존재한다. 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혀 안되니까..선생님들 본인조차도 자퇴하면 인생 막장, 너 철가방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S-3: 학교입장에서는 당연히 애들이 학교 안에 있었으면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보니까 만약에 자퇴를 하려고 할 생각이 있다거나 할 애들한테 학교 측에서 수련관을 안내를 해준다거나 하는 게 필요한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으니까.

S-1:1년에 몇 번 정도는 만나고 연말에 결산 같은 것도 아니고 소식도 모르니까 수련관이랑 학교랑 자주 만나서 하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S-1: 저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S-1: 그 시선을 개선하려면 먼저 친구들이 나는 저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각하거든요. 나는 청소년수련관에 있어도 되고 집에 있어도 되고 학교에 있어도 되고 우리는 다 같은 청소년이니까 라는 인식이 되려면 또 자퇴생이라고 하는 외롭고 친구 많이 못 만나고 활동 못 하고 그래서 힘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학교의 친구들이랑 학교안다니는 친구들은 만날 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놀란 게 청소년수련관끼리의 연계가 안 되어있거든요.

5. 학업중단숙려제와 WEE클래스

S-3: 근데 그게 카페 같은데 봐도 상담하라고 오라고 하면 다 싫어하더라구요. 근데 주변에 저희학교가 자퇴율이 높아요 일반학교로 전학가는 비율도 높고, 저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만약에 자퇴할 마음이 확실하면 숙려제가 있던 없던 간에 어쨌든 자퇴를 하니까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S-1: 근데 그 숙려제가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잘 모르겠어요. 상담사분이 나오셔서 상담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유도심문이에요.

S-3: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퇴를 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퇴하는 게 나쁜 거다. 그러니까 학교 와야한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더라구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S-1: 저는 wee 클래스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싫어요. 거기서 측정되는 예산이 정말 많던데..

S-3: 제가 여태까지 다닌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어머니가 WEE센터 소장님이셔서 프로그램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좀 그래요. 머라고 해야 하지? 애들을 배려하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하나? 자기들 업무에 충실하고 더 사무적인 더 먼저하고 그래서 wee클래스나 wee센터를 운영을 할 거면 선생님을 다시 다 교육해야겠다.

S-6: 그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맘에 드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개한테 모든 것을 다해줘요.

S-1: 특히 wee클래스 그거는 진짜 그 어른들이 댐이 터졌는데 대충 싹싹 말라놓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돈이 있으니까 입막음이나 해라. 거기 원래 텅 비어있고 잘 쓰지도 않을뿐더러 비어있으면 학생들이 청소하러가고,

□ 취업형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1) 또래관계

E-4: 학교선생님들도 그런 게..학교선생님들도 자퇴하면 안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또래애들도..저는 멀어지지 않았는데 멀어졌던 애들도 있어요.

E-1: 좀 외롭거든요, 혼자 있으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깊은 건지 느끼게 되는 시간이예요. 나중에 집에 복지관에서 이야기하고 집에 가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도 그래요.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E-1 : 맞아! 맞다! 학교에 나가. 안 만나. 우리 시간이 안 맞아. 밤에는 또 애들이 자.

E-4: 그래서 자퇴생들 기사보면 댓글들이 철가방인생.. 나중에 철가방 알바나 할 것 들..

E-4: 쉬면 또 불안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E-4: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만화가가 꿈인데 솔직히 만화가는 대학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대학가라고 하니깐 반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그만 둔 거 거든요.

E-1 : 그런데 사회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책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들 마음의 인식 같은 거. 법으로도 이런 게 지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법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3) 기타

E-4: 제가 삼성 코엑스같은 데서 부스만들어서 설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재학생이라던가 그런 용어를 몰라요.

E-1: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 이름 자체가. 근데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E-1 : 퇴학생이면 진짜 안 받아줘요. 자퇴생이면. 불쌍해 해주는데.

2) 사회

2.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은?

1) 개인적 측면

E-1 : 정말 쓸쓸해. 혼자 너무 심심해.

2) 사회적 인식

E-3 :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자퇴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학교를 다녀요. 어쩌다 한 번씩 그 친구들 집에 와서 놀아요. 개네들 부모님들이 좀 편견? 그 전부터, 그, 제가 학교 그만두기 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알아요. 그런데 학교를 자퇴하니까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재량 왜 노냐고. 놀지 말라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자퇴하고 좀 한두 달 되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편견.

E-5: 예전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버스를 타니까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하니깐 그냥 일반으로 했어요.

E-1: 우리 복지관에서 대안학교에서 나갔다고 하면 애들이 반응이 맨 처음 반응이, '아...!' 먼저 이거예요. 그 다음 아...

3. 학교를 그만두고 좋은 점은?

1) 자기의시간의 확대

E-5: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 자기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것.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 평가도 내릴 수 있고..

E-1: 근데 학교를 안 다니면 진짜. 어른들 많이 만나는 거 아녜요. 그런데 많이 조언 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이지.

2) 개인적 자유

E-4: 공부를 안 하는 것. 공부를 누가 시키면 안하는 데 시키니까.

E-1 :자유 이거 아, 좋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학교라는 틀에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또 좋았던 점은 아닌데 너무 프리(free)다 보니까. 좀 소심하니까.

E-1 :학교 늦게 갈 수 있는 점.

4. 이런 점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1) 자립 문제

E-3 : 저는 국가한테 바란 거는, 그, 그, 청소년과 성인의 그 사이를 좀만 더, 열아홉 살로...혼자 살 때 집 구하거나 휴대폰 하거나 이러면 부모님의 동의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E-3 : 자립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E-3 : 외국을 나가려면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만 19세가 돼야지 이제 혼자 나갈 수 있거든요.

E-3 : 방 잡는 것도 나이 상관없이 고졸만 하고 직장만 있으면 방 잡았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2) 교육여건의 다양화

E-1:돈 보스코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 3년 동안 어떻게 하나. 뭐하나 그거라도 평생 갈 거 하나 해보고 싶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을 한 번 했는데 이거 하나 해봤음 좋겠다. 기술학교도 있고. 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3년 동안 뭔가 할 거.

E-1: 작은 학교. 그러면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은 학교.

E-1: 도심에 그런 시골학교, 도심에! 도심에 그런 게 있었으면, 아, 이름 뭐, 딱히 상관없는데 시골처럼, 시골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에도 있고, 예, 그런...

E-1: 새싹학교 막, 너무 좋죠. 막 영란중 막 이런 거 아니라, 영란중...대중적인 이름 같이 많은 막, 엄청 사람 많게 보이고...

E-1: 그 학교, 거기 학교에서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법을 좀. 뭔가...

E-1: 네, 조금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압적이에요. 학교에서는 막 이리저 말라, 이리저 말라.

E-1: 거기서는 파티도 할 수 있게 좀, 학교는 좀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좀 노는 시간을, 방과 후는 좀 노는 시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는 오후 시간에는 좀 놀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고.

E-1: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학교란 이름이지만 그래도 특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상황이 안 맞아요. 뭔가 흥미가 있어야 돼요. 오려면.
E-1: 예, 그런 것 말고요. 조금은 자율적인 법을 풀어줬음 좋겠어요.
E-1: 대안학교도 그거 꼭 만들까? 소학교, 작은 학교라 합시다, 이제. 작은 학교 이제. 작은 학교 그거 원래. 아 근데 정부에서 대주면 되잖아.
E-1: 일주일에 한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직업적으로 가서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일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E-1: 적응 못하고 있는 거랑 적응하면 좋겠지만..원래 학교 다닐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게 없으니까..그냥 학교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아 학교안다니지..

5. 취업과 관련된 점

1) 취업준비의 어려움

E-1: 벌써 퇴학, 자퇴한거 자체가 이력서 심사에서 딱 떨어트려.
E-1: 네 이력서 써서. 이력서 써서 보여주기도 전에 대통령 사인을 받아와. 그랬는데 다음에서는 여기서는 큰개들이 있는데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그냥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장님 그래 왔어? 그래왔어? 그러니까 좋죠. 그때 환호했어요. 사장님이 합격했다. 이제 와라 하니까 와~했죠.
E-1: 엄청 힘들겁니다. 중3은 나이가 거의 다 구하는 데가 고졸이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또 카페 일 했었거든요. 제가 베네에서 일해봤는데, 진짜 힘들겁니다.
E-1:처음 가자마자 뭐라는지 알아요? 오래 다닐 수 있냐 부터 말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었대요. 사장님이 익숙하신 가 봐요.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니까.
E-1: 일주일에 한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직업적으로 가서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일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E-3 : 열일곱 살 이상 자퇴한 애라면 주차팀 직원 할 수 있어요.
E-3 : 아, 그거. 처음에 자퇴하잖아요. 옆자리 자퇴하면.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E-3 :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별로, 열일곱 살 애들은 솔직히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해봤자 워딩홀? 주말 알바? 이런 것 밖에, 진짜 웬만한, 하려면 열여덟 살 생일 지나고 이러면서부터 서빙 알바 하고. 말로는 열다섯 살 열여섯 살인데. 할 수 있는 나이대에는 진짜 웬만한 일은 열아홉 살? 열여덟 살?

2) 취업의 고충

E-3 : 미성년자인데도 많이 써요. ***는 미성년자들을 안 쓰거든요. 근데 **는 미성년자들을 많이 써요.
E-3 :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솔직히,** TMS 거든요. 그 주차팀이 ** 소속 직원이 아니라, ** TM, 용역 회사예요. 근데 ** TMS 가 좀, 위에 있는 애들이 좀 그래요. 약았다고 할까. 비리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막 미성년자들은 생각이 좀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직, 지들 마음대로 부러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미성년자들을 많이 써요.
E-3 : 정말 힘들어요. 싸가지 없는 손님들. 아침에 거의 선 사람들 한 두 아요. 그래서 한 에 갔는데 처음부터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뱃페를 나가면 하루에 담배 한 갑씩 가져가요.
E-5: 처음에는 분명히 애 낸 자퇴하니까 월급 받아서 오토바이 사서 나갈꺼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E-5: 지금이야 뭐 이력서 내면 어느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인정을 받으니까 차별은 안 받죠..
E-5: 1년보다는 오히려 처음 시작이 힘들지 나중에 적응되면 괜찮지..

□ 무업형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1) 가족관계

N-2: 동생한테 어디 학교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선 다르니까..

2) 사회

N-2: 알바하면 왜 면접을 떨어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뭘보고 떨어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3) 기타

N-2: 복지관 그냥 자체가 도움이..

N-2: 근데 그게 멘토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못한 거죠. 연계를 해야 되니까. 멘토가 이렇게 프로그램 홍보도 좀,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 거?

2.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은?

1) 개인적 측면

N-1 : 그만두고 힘든 건 없었고. 놀기 바빴어요.

N-2: 그냥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N-3 : 꿈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N-2: 안하는 대신 나오면 일단 모든 걸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소속감이 들진 않고. 뭐라 그래야 되지? 워낙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할 일 있으면 그렇게

2) 시간

N-1 : 시간이 진짜 아깝다는 거.

N-2: 학교 그만두고 그 뭐지. 집에서 있는 적이 많아져요. 노는 시간과 좀 그런 무기력한 시간이 많아져요. 무모한 시간이라랄까. 그게 많아지고,

3. 학교를 그만두고 좋은 점은?

1) 다양한 경험

N-2 :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것.

N-1 :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거의 똑같이 같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롭게 찾아다닐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2) 개인적 자유

N-2 : 아침에 일어날 때. 꿀잠 잘 수 있는 것.

N-2: 어중간한, 그러니까 이미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풀어진 걸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자퇴하는 사람 중에서 억압된 걸 싫어해서 자퇴한 거잖아요.

4. 이런 점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1) 프로그램

N-2: 카페를 대여하고 저희가 항상 사업계획서를 쓰고 끝나고 사업보고서를. 돈을 얼마 걷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히. 이런 게 좀 더 많아가지고. 보고서 같은 것도 확실히 제출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N-2: 그리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좀 홍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2) 대안교육

N-2: 인터넷이 있으면, 치면 올라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다, 구로 신문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인터넷 찾아서 하는 것보다.

N-2 : 근데 애가 나중에 그걸 다짐에 있어서 뭔가 변화되겠지, 뭐가...다닐지 고등학교 되면서 애가 더 고쳐질지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는.. 알아주는 것도 학교, 그러니까 자기 구내에서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계기도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선 딱히... 대안학교가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거, 특히 학교에 적응 못하고 가는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런 걸 알려주는 것...

□ 비행형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1) 가족관계

D-1 : 길 가다가 동생이 '너네 형 학교 어디 다녀'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형 자퇴했는데 그러면 그 때부터 좀.

D-1: 가족과 관련해서는요 혼자살고 싶어요.

D-1: 엄마랑 동생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D-1: 무진장 괴롭혀. 집에 있다고.

D-1 : 그래서 동생들한테는 일부러 자퇴한다고 말 안 해요.

D-2 : 삼천 칠백 모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싹 다 가져갔어요.

2) 또래관계

D-1 : 만나기 힘들어.

D-1 : 그러니까, 제가 안 다녀본 결과 정말 쓸쓸해요. 진짜 쓸쓸해요.

3) 사회

D-1: 사람들이 우리 무시해요. 아침에 피씨방 들어가면 옆에 아저씨가 욕하고 사장님이 가출청소년 아니냐고 하고 민증먼저 보여 달라고 해요. 그냥 좀 사람들이 청소년이 학교를 안다니는 의식자체가 그런다고 하니까 남자나 여자들이나 좀 그렇죠. 꺼리죠. 그러면서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불량학생이 되죠.

D-1: 취직하려면 또 자격증 몇 개 있습니까? 사회생활이 더 어려운거야. 우리가 인식이 뭐지. 학교 자퇴나 퇴학한 게 이력서에 떠버리잖아.

4) 기타

D-2 : 감별소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대안학교를 가고 중학교 2학년 때 소년원에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하고 이리 저리 떠돌다가 막노동 하고 자격증 따고 학교는 장학금 가지고 장학금 타면서

D-3 : 정말 인력, 일만 했죠. 집에서는 일, 편의점 같은 것도 하고, 일도 제가 왜냐하면,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일 쉬는 날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노래 틀고 노래 부르고, 막 좋은 음악 찾아다니고. 하루종일 일 아니면 컴퓨터에 있죠. 할 줄 아는 게 그런, 쪽, 그 일 밖에 없잖아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D-1: 놀 때도 노는 게 막 기타치고 막, 이렇게 자율진료형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좀 재밌게.

D-1: 낮에는 수업하고 오후 때 놀아요.

D-2 : 일 구하고 있죠. 안 해본 거 거의 없어요.

D-1 : 알바 할 때 자퇴생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 불쌍한 애, 날라리.

2. 학교를 그만두고 힘든 점은?

1) 개인적 측면

D-1: 학교를 안다니면요 슬픈 게 있어요. 그게 추억이 없다는 거.

D-1: 학교다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교복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낮에 커서도 선생님들과 만나고 그러한 것도 있고 학교다니면 있는데..

2) 사회적 인식

D-2 : 제가. 중학교 때 좀 사고를 많이 쳐 가지고 대안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기숙사에서 다녔는데 학교가 너무 다른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중3 거기서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학교를 2일 안 다녔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D-3 : 2, 3개월 빠져도 안, 저는 2일 안 다녔다고 잘린 거, 그것도 하루는 아파가지고 못 갔는데, 제가 왜 안 갔냐면, 제가 학교를 일찍 갔는데 선생님 바로 앞자리인 거예요. 물어보니까 너 사고 많이 치는 애라고, 선생님 단독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순간 그것 때문에 저는 학교 잘 다니고 싶어서 그런 것뿐인데 예전에 그 이유 때문에 맨 앞자리여가지고 짜, 애들은 다 자도 저는 못 자요. 피곤해도. 짜증나가지고 어요.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 학교를 안 가고, 제가 다음 날에 비를 맞, 아, 그 날에 비를 맞았어요. 그 날에 비를 맞았어요. 그 날에 비를 맞고, 이제 장마, 그것 때문에 비 맞고 감기를 걸려가지고 못 가는 상태였는데 자퇴서 들고 있더니, 너 이제 학교 못 다닌다고, 교감이 자퇴서 내라 그랬다고, 열 받는 거예요.

D-1: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톡하면 막 시비 거는 것. 지나가는 데 갑자기 와서 시비 걸고. 뜬금없이 와가지고 학교 안 다니냐고, 뭐여? 지나가고.

D-1 : 한두 번씩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거리 돌아다니다가, 저는 학교 안 다닐 때가 할머니 댁에 있어가지고 근처에 고령자가 막 하루에 수십 명이 앉아서 장기 두고 막 했단 말이에요. 딱 애들 학교 나갈 시간 때에 나가서 애들 다 등교하고 한 아홉 시 되면 혼자서 뭐하나 딱 봤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너 왜 학교 안 다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은근슬쩍 빠져나오고.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llect longitudinal data on school dropouts with a goal of finding out their lifestyles and experiences, changes in their values and consciousness and career paths after dropout. In 2014,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a panel of school dropouts (control group), who were formed in the 1st year. Aft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the 1st and 2nd surveys, the size of school dropouts was re-estimated. Then, school dropout-related policies in Korea and abroad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2014 survey based on analysis on 559 general dropouts and 186 dropouts on probation, the rate of general dropouts returning back to school was even lower in the 2nd year. About half of the dropouts took a qualification exam to earn their diploma. The dropouts from a general high school mostly returned to a vocational high school. In terms of post-dropout lifestyles, many dropouts had a part-time/full-time job. The frequency of other experiences decreased. When asked if there were any adults who gave them help in getting a job or returning back to school, many of them responded 'NO.' More than a half of dropouts who couldn't make a decision on their future career in the 1st year revealed their plan to return back to school or continue their study in other ways. Their negative view on school dropout has increased while positive expectation on their future diminished. They found it hard to forming a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mostly had a negative view on a local community. In terms of post-dropout paths, 'studying' was over 30% while 'working' and 'juvenile delinquency' were 13% and 6% respectively. However, 47% stayed indecisive. In terms of a rate of return back to school, the dropouts on probation were far lower than general dropouts. The former was also very lower than the latter in terms of the percentage of earning a diploma through a qualification exam. In terms of the percentage of making no decision on their future career and having a plan to get a job, the dropouts on probation was greater than general dropouts. The experience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on the rise among general dropouts. Specifically, 'drinking' increased among general dropouts while 'smoking' increased among the dropouts on probation. As of 2012, the number of dropouts is nearly as many as 400,000. When a type of their future career was estimated based on analysis on current status, 'studying' was 140,000 while 'working,' 'juvenile delinquency' and 'not decided yet' were 60,000, 20,000 and 100,000 respectively. When projected using administrative statistics, the number of dropouts going abroad was 80,000. According to analysis on dropouts' age considering the rate of return to school, 'high school' was the highest with 71.7%, followed by 'middle school (16.9%)' and 'elementary school (11.4%).'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re should be a particular plan for high school dropouts.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government's youth support policy,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eed to allocate their human resources to provid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to school dropouts. In addition, it seems urgent to develop a decent plan such as alternative education considering dropouts' high desire to continue their study. In addit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s to remove obstacles in its job support policy for a systematic connection with school dropouts.

Keywords: School Dropout, Post-dropout Paths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헌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중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지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62-01
연구보고 14-R19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Ⅱ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42-7 94330

979-11-5654-041-0 (세트)